

2021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CONTENTS

I. 교과 스터디

1. The Cell(우수)	6
2. 면접(우수)	10
3. 상심하지말조(우수)	13
4. 학교종이 습습습(우수)	16
5. CHAllengers	18
6. Fabulous	20
7. Prepharmacist	22
8. 파머시스트	24
9. 그대라는 약치	26
10. 그래, 이 아나토미	28
11. 꾸이꾸이	29
12. 낙타는약대미	31
13. 다정한 현재	33
14. 돋보기	35
15. 마이약무라	37
16. 모성과 분만왕자	39
17. 몰라 bio	41
18. 물음표	42
19. 물화조지조	46
20. 바공케미	49
21. 바짱이들	50
22. 병원 약사가 되는 길	52
23. 병원 약사의 길(상아로 찌르는 약치)	54
24. 분노의 약치질	55
25. 분발하게 생물학도여	56
26. 스트랩	58
27. 시냅스(Synapse)	62
28. 아싸아니조	66
29. 약린이와 약치공부	68
30. 약물치료학, 이게 머선129	69
31. 영차영차	71
32. 우리는 미치니깐 청춘이다	73
33. 으랏차cha	74
34. 의약구조대	78
35. 의약 재 줘	82
36. 의합지출	84
37. 임상전문약사가 되기까지	86
38. 파이오니어(PIONEER)	88

II. 비교과 스터디

1. 단기토익(우수)	95
2. 영차영차(우수)	97
3. 차약그룹 영어토익반(우수)	99
4. CHAAI	102
5. v넥	104
6. 니CHI판러마	106
7. 달리자 자전거	108
8. 대진필(대학원 진학 필수)	110
9. 독도는 우리은행 땅	113
10. 독약	115
11. 사약이 필요해	117
12. 사현이 취보	119
13. 세계로 나아가조	122
14. 송송이	124
15. 수지의 험난한 여정	126
16. 스페인에 올라	128
17. 슬기로운 영어 자취생활	130
18. 언어마스터	132
19. 에드어바웃	134
20. 영도팀	136
21. 오므라이스	138
22. 자양강장제	140
23. 컴활제패	142
24. 통개로 컴활따자	144

III. 전공 튜터링

1. 상심하지마(우수)	151
2. 약치 과외하기 시즌2(우수)	154
3. 차곡차곡(우수)	157
4. HEATTECH	162
5. 개미스트리	164
6. 봄오면 약치공부	166
7. 상아로 찌르는 약치	168
8. 생화뽕삼	169
9. 설빈설빙	171

CONTENTS

10. 안안물약	172
11. 약린이 약사되기	174
12. 약치장인	176
13. 우아한약제학모임	178
14. 유기 화학 학습 모임	180
15. 좋은건 같이봐	182
16. 파마코테라피	184
17. 화아학 날아라	185

IV. 리딩리더스

1. 김가네 책방(우수)	190
2. 책책책 책임져(우수)	192
3. CHAmomil	194
4. 개미와 베짚이	195
5. 리딩리딩파워	197
6. 책 읽읍시다	198
7. 책식주의	200
8. 흔들리는 벚꽃 속에서 독서향이 느껴진거야	201

V.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1. 언택트엔 영화조(우수)	207
2. 현상태(우수)	209
3. 방구석	211
4. 방구석 시네마	213
5. 싱글빙글영글	214
6. 어른이들	215
7. 영화 없이는 못살아	216
8. 영화차차	218
9. 이동갈비	219
10. 조이(JOY)	220
11. 차밍	221
12. 차악이의 무비월드	222
13. 화양연화 아니라 차악영화	223

VI. 교수 학생 합동 소모임

1. 굿바이오	228
2. 데마초	230
3. 마이크로걸즈 시즌3	232
4. 하나에 '열정' 둘에 '파워' 하나! 둘!	234
5. 화학아 확 덤벼라!	236

VII. 하계 소모임 학습법

1. 국토익대장정(우수)	245
2. 떡잎방법대(우수)	246
3. 지혜로운건 우리(우수)	250
4. A4	252
5. ABSOLUT SUMMER	254
6. CHAsick girls kill this TOEIC	255
7. 공.뿌!	258
8. 글로벌한 소소예찬	259
9. 너나들이 차약서당	261
10. 상심하지마	263
11. 덩동케어	266
12. 미새 (미술치료 새싹)	267
13. 방학에도 공부할꺼야	269
14. 법규이규규	271
15. 봉쥬르	272
16. 분차검활부차	275
17. 슬기로운 간호생활	277
18. 송야호	279
19. 야나도할수있조	281
20. 약대가자 말고 약사가자	285
21. 약치 100% 정복	287
22. 약치 이계머선129	288
23. 연구하자팀	291
24. 오므라이스	293
25. 이젠좀하자	296
26. 전공의 1RM을 올리자	300
27. 주전자와 아이들	302
28. 차약, 파리에 가다	304
29. 최광불	306
30. 컴활 불타오르네	308
31. 토린이들	309
32. 파이오니어(PIOINEER)	312
33. 한국사 공부모임	314
34. 한여름밤의 병태	315
35. 화성탈출기원	316

VIII. 하계방학 교수 학생 합동 소모임

1. Prepharmacist_약국편	322
2. 약물학 부서부서	324
3. 차인삼색	326
4. 컴활이리컴온	328
5. 화성탈출기원	329

2021 학 년 도 1 학 기 학 습 법 소 모 임 활 동 사 례 모 음 집

I. 교과 스터디

I. 교과 스터디

팀명	팀원	학과
The Cell (우수)	손*애	의생명과학과
	박*희	의생명과학과
	양*훈	의생명과학과
	고*성	의생명과학과
	김*준	의생명과학과
	안*진	의생명과학과
	신*엽	의생명과학과
	김*재	의생명과학과
상심하지말조 (우수)	이*윤	상담심리학과
	김*지	상담심리학과
	김*호	상담심리학과
	김*늘	상담심리학과
	소*진	상담심리학과
	송*수	상담심리학과
	임*수	상담심리학과
학교종이 습습습 (우수)	이*현	상담심리학과
	박*원	상담심리학과
	이*혜	상담심리학과
	임*민	상담심리학과
CHAllengers	김*지A	의생명과학과
	김*지B	의생명과학과
	박*호	의생명과학과
	윤*기	의생명과학과
	이*신	의생명과학과
	장*희	의생명과학과
fabulous	안*영	바이오공학과
	권*혜	바이오공학과
	노*주	바이오공학과
Prepharmacist	임*영	약학과
	신*영	약학과
	김*혜	약학과
	김*연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굿 파머시스트 (The good pharmacist)	김*우	약학과
	김*인	약학과
	박*정	약학과
	손*나	약학과
그대라는 약치	정*욱	약학과
	정*섭	약학과
	이*민	약학과
	이*휘	약학과
그래, 이 아나토미	김*우	약학과
	임*정	약학과
꾸이꾸이	윤*원	약학과
	배*희	약학과
	안*빈	약학과
	이*민	약학과
	정*영	약학과
낙타는약대	허*현	약학과
	김*온	약학과
	김*영	약학과
	이*연	약학과
	이*우	약학과
	이*지	약학과
	조*진	약학과
	최*현	약학과
다정한 현재	이*지	바이오공학과
	김*정	바이오공학과
	김*은	바이오공학과
돌보기	박*정	바이오공학과
	황*진	바이오공학과
	박*연	바이오공학과
	이*원	바이오공학과
마이약무라	정*욱	약학과
	이*연	약학과
	이*지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모성과 분만왕자	김*지	간호학과
	김*현	간호학과
	김*민	간호학과
	김*서	간호학과
몰라 bio	황*지	의생명과학과
	오*은	의생명과학과
	조*현	의생명과학과
물음표	이*연	상담심리학과
	김*경	상담심리학과
	나*지	상담심리학과
	송*인	상담심리학과
	유*예	상담심리학과
	이*인	상담심리학과
	최*원	상담심리학과
	윤*진	상담심리학과
물화조지조	최*혜	식품생명공학과
	백*현	식품생명공학과
	최*지	식품생명공학과
	김*경	식품생명공학과
	권*림	식품생명공학과
바공케미	김*연	바이오공학과
	박*희	바이오공학과
	이*원	바이오공학과
	장*희	바이오공학과
	장*은	바이오공학과
	황*현	바이오공학과
바짱이들	황*진	바이오공학과
	박*정	바이오공학과
	김*민	바이오공학과
병원약사가 되는 길	태*정	약학과
	정*영	약학과
	조*준	약학과
병원약사의길	배*희	약학과
	황*현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분노의 약치질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민*기	약학과
	박*	약학과
	이*지	약학과
	한*훈	약학과
분발하게 생물학도여	이*은	의생명과학과
	윤*정	의생명과학과
	양*영	의생명과학과
	이*견	의생명과학과
스트랩	류*영	스포츠의학과
	김*서	스포츠의학과
	조*서	스포츠의학과
	최*은	스포츠의학과
	임*원	스포츠의학과
	최*인	스포츠의학과
시냅스(Synapse)	한*성	의생명과학과
	서*리	의생명과학과
	오*영	의생명과학과
	윤*현	의생명과학과
	이*훈	의생명과학과
	정*민	의생명과학과
	현*이	상담심리학과
아싸아니조	진*하	상담심리학과
	김*미	약학과
약린이와 약치공부	박*연	약학과
	윤*연	약학과
	이*주	약학과
	최*희	약학과
	장*래	약학과
약물치료학, 이게 머선129	최*빈	약학과
	이*현	약학과
	원*웅	약학과
영차영차 (youngcha youngcha)	조*정	약학과
	이*연	약학과
	문*주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현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우리는 미치니깐 청춘이다.	정*수	미술치료학과
	임*숨	미술치료학과
	정*미	미술치료학과
으랏차 cha	이*우	의생명과학과
	김*원	의생명과학과
	박*민	의생명과학과
	박*정	의생명과학과
	윤*원	의생명과학과
의약 구조대	오*정	약학과
	손*정	약학과
	김*주	약학과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최*웅	약학과
	홍*택	약학과
	고*영	약학과
의약! 재 줘	이*현	약학과
	김*정	약학과
	김*솔	약학과
	박*희	약학과
의합지졸	정*욱	약학과
	김*혜	약학과
	정*정	약학과
임상전문약사가 되기까지	신*영	약학과
	임*영	약학과
파이오니어(PIONEER)	이*우	바이오공학과
	심*미	바이오공학과
	김*중	바이오공학과
혜성은 진지해 ver.2	유*민	상담심리학과
	박*원	상담심리학과
	윤*희	상담심리학과
	주*지	상담심리학과
	함*윤	상담심리학과

팀명 : The Cell



- 학습과목 : 세포생물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5. ~ 2021.05.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5	23:00~01:00	zoom	Chapter 1-2. An overview of cell research & the composition of cells
04/03	22:00 ~24:00	zoom	Chapter 4. Fundamentals of molecular biology Chapter 5. The organization and sequences of cellular genomes
04/08	22:00~24:00	zoom	Chapter 8. RNA synthesis Chapter 9. Transcriptional Regulation and Epigenetics
05/02	22:00~ 24:00	zoom	Chapter 11. Nucleus
05/06	22:00~ 24:00	zoom	Chapter 12. Protein sorting and Transport
05/20	22:00~ 24:00	zoom	Chapter 14. The cytoskeleton and cell movement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 학습 목표 - 비대면으로 인해 주도적, 주체적 학습이 어려운 시기에 튜터링을 동반한 스터디로 해당 주차에 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스터디 전원 B+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한다. * 진행 과정과 방식 - 스터디원은 해당 주차에 대한 내용을(1주 차~3주 차) 미리 학습한다. 예습을 통해 몰랐던 부분을 강의시간에 교수님께 질문한다. 튜터는 미리 예습한 내용과 강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터디원들이 해당 주차에 대한 복습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

* 특징

- 강의를 들은 당일 날 스터디를 진행하여 최대한 복습을 빨리하였으며, 강의 내용은 물론 강의시간에 나온 질문들까지 스터디 내용에 포함하여 스터디의 완성도를 높였다.

* 자랑거리

- 내용 정리뿐만이 아닌 실제 시험에 대비하여 테스트 बैं크를 활용하여 객관식을 대비하고 미리 서술형 질문을 선별하여 답안지를 미리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 스터디의 효과

-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내용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고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은 튜터링을 통해 복습함으로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 달성 내용 및 양상

- 해당 과목을 듣는 학생 대부분이 A+에 준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 내용 활용 계획

- 4학년인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있을 졸업 시험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며, 2학년인 학생들은 1학기 세포생물학의 기초를 다져 2학기에 있을 세포생물학 II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었다.

* 활동한 소감

- 손*애

세포생물학은 다른 전공과목에서 자주 언급될 만큼 기본적인 과목이므로, 졸업 전에 반드시 내용을 복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졸업 시험대비 겸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다. 세포생물학 이후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들을 활용하여 세포생물학 내용을 추가하여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족보나 테스트 बैं크들을 활용하여 시험을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더욱 효과적인 스터디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박*희

한 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배운 내용이었지만 많이 까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복습하는 과정에서 세포생물학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이번에 배운 전공 내용들과 연결시킬 수 있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다. 덕분에 다음 학기에 졸업 시험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

업이라 동기들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는데 교과스터디를 위해 줌으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면서 좋은 추억을 쌓을 기회가 된 것 같다.

- 김*재

복학 후 2년 만에 다시 시작한 공부로, 내가 맞게 공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마다 주변 친구들이 공부하는 길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잘 살릴 수 있었다. 세포 생물학이라는 과목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이 생각나고 그로 인해 공부하는 재미를 찾았던 것 같다. 복학하고 처음 하는 비대면 줌 수업이 처음에는 힘들고 적응하기 쉽지 않았지만, 교과 스터디를 통해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신*엽

다소 재미없을 수도 있는 세포생물학을 다 같이 공부하니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거 같고 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달라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다. 시험대비로 예상문제를 내서 공부하는 방법 또한 너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학기에도 교과스터디 같은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참여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 안*진

복학 후에 전공에 대한 기초도 부족하고 공부에 대한 감도 잃어버려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더군다나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 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스터디를 통해 모르는 부분을 서로 설명해주고 논의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다. 혼자였다면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다같이라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양*훈

복학 후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던 시기에, 4학년이 된 동기들의 도움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초반에는 내가 다른 팀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나만 수업내용을 어려워하고 뒤처지는 게 아닐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과는 달리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스터디 활동을 통해 이 분야에 관심도 생겼고 앞으로 마주할 다른 전공과목들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매주 한 번씩 보는 동기들의 얼굴이 너무 반가웠고 친한 동기들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질문하고 같이 이끌어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도 동기들과 재밌게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추억을 쌓고 싶다.

- 고*성

군대에서 전공에 관한 공부를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1학년에 익혔던 기초 전공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2학년 전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학번 동기인 친구가 교과 스터디를 제안하였고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같이 하게 되었다. 매주 교수님께서 수업하신 내용에 대한 정리가 담긴 화면을 공유하며 질의응답, 지식 전달의 시간을 가졌다. 원래 본 강의시간에는 질문을 안 하는 편인데 동기랑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고 이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높아진 관심도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여 전과 다른 이해력을 통해 시험성적도 잘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김*준

내용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혼자서 학습할 자신이 없어 스터디를 하게 되었다. 특히 복학생이라 교과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스터디가 절실했던 것 같다. 스터디원 개개인이 각자의 발표 준비를 하면서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임했으며 이러한 학습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인해 교과 스터디에 대한 이점을 많이 살렸다고 생각한다.

팀명 : 면접



- 학습과목 : 면역학
- 학습장소 : 과학관
- 학습기간 : 2020.10.02. ~ 2020.11.2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02	13:00~15:30	zoom	면역계의 개요
10/08	13:00~15:30	미래관 401호	면역계 세포, 기관 및 미세환경
10/15	13:00~15:30	과학관 213호	면역의 인지와 반응
10/26	13:00~15:30	과학관 213호	선천면역(1)
11/12	14:00~15:30	과학관 213호	선천면역(2)
11/27	13:30~15:30	과학관 213호	림프구 수용체 유전자의 구성과 발현, 주조직적합복합체와 항원 제시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 학습 목표 - 비대면으로 인해 주도적, 주체적 학습이 어려운 시기에 튜터링을 동반한 스터디로 지난 주차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2학기를 모두 수료하고 나서 전원 B+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한다. * 진행 과정과 방식 - 한 사람이 튜터가 되어 지난 주차를 미리 학습한 후 튜티들에게 설명을 한다. 마지막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튜터와 튜티들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튜터가 교수님께 미리 질문한 뒤 다음 회차 때 답하는 것으로 한다.
------------	---

* 특징

- 자신이 맡은 파트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책 내용을 첨부하여 단권화시켰다.

* 자랑거리

- 정규 스터디 시간 외에도 시험 기간 며칠 전에는 따로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 스터디의 효과

-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내용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고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은 튜터링을 통해 복습함으로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 달성 내용 및 양상

- 초기에 설정한 학습 목표에 부합하게 스터디원 전부 B+ 이상의 성적을 받을 예정이다.
(성적이 뜨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가채점 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내용 활용 계획

-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약회사 취업 또는 면역학 관련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스터디를 통해 면역학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해야만 했다. 스터디원들이 모두 3학년이기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면역학 스터디를 통해 얻은 지식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하계/동계 방학 인턴을 통해 이론을 보충하거나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 활동한 소감

손*애 - 지난 1학기에 비대면으로 인해 학습 방면에서 많이 소홀했음을 알고, 이번 학기에는 이를 보완하고자 스터디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팀원들이 스터디로 인해 처음 알게 되어 학습 방법이나 정리 방법이 서로 상이했지만 스터디를 진행할수록 공부 방법을 맞추고 친목을 다지며 더욱 완벽한 스터디가 되었다. 특히 튜터링의 부족한 점은 자신이 맡지 않은 부분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시험 기간일수록 다른 튜터가 가르쳐주었던 부분을 직접 가르쳐보며 보완할 수 있었다.

박*희 -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제일 막막했고 공부하기 싫었던 강의였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과 함께 교과 스터디를 한 덕분에 조금이나마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맡았던 부분을 스터디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자 억지로라도 공부하게 되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공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속해서 설명할 부분을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 내용과 연결하기 위해 스터디원들이 맡았던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서 복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혼자 공부했으면 이해되지 않아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 스터디원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지 -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기초가 엉성하게 형성되어 있던 상태라 한 번에 와 닿지도 않았고, 방대한 양에 막막하기만 했었다. 하지만 같은 강의를 듣는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 동기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해당 단원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며 해당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부하는 분량이 줄어들어, 심리적 부담감이 줄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터디를 통해 동기들 간 친목도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 뿌듯한 활동이었다.

이*석 - 평소 면역학에 관심이 많았기에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들었지만 혼자서 공부하고 정리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파트를 나눠서 공부하고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부하니 혼자 공부할 때보다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었다. 또한 누구 하나 포기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서 친목도 다지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시험 기간에는 스터디 모임이 아니어도 따로 만나 공부하면서 다른 수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다음에도 동일한 멤버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싶다.

강*석 - 내용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었음은 분명했다. 교수님도 매 강의마다 어렵다고 단언하셨다. 혼자 공부한다고 될 내용도 양도 아니었으며, 복학생이라 교과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담이 컸었고 더욱더 교과 스터디는 절실했다. 부담이 컸었던 만큼 스터디원들의 도움은 효과를 발했고, 나를 비롯하여 스터디원 개개인들도 각자의 발표 준비를 하면서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공부를 했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이미 교과 스터디에 대한 이점을 많이 살렸다고 생각한다. 내용을 100% 이해는 못 했을지언정 혼자 했으면 50%였을 과목을 80%로 이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팀명 : 상심하지말조



- 학습과목 : 심리검사 실습
- 학습장소 : 집, 상담심리학과 실습실
- 학습기간 : 2021.04.12. ~ 2021.06.0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2	01:00~03:00	ZOOM	〈심리검사 실습 계획〉 - 심리검사 실습을 계획한 회기에 언제 실습실을 이용할 것인지, 언제 어떤 검사를 할 것인지, 함께 실습할 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 계획대로 실습실을 예약하였으며, 이후 팀을 나누어 원활하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습법 공유〉 -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팀원들이 자신만의 전반적인 공부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설명하기’, ‘백지 공 부법’, ‘자신만의 말과 방식으로 새로 정리하기’, ‘오감 공부법’ 등을 설명하고, 특히 스터디 과목인 ‘발달정신병리학’과 ‘심리검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학습법을 경험해보며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좀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04/30	09:30~14:00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실습실	〈심리검사 실습〉 - 비대면 수업으로만 들었던 지능검사를 4명에서 두 팀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한 팀씩 검사하며 다른 한 팀은 옆에서 참관하는 방법으로 돌아가며 진행했고, 처음 해보는 검사라 익숙하지 않았지만 두 번의 검사를 통해 검사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와 검사자로서의 경험, 이론 내용의 복습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7	13:00~15:30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실습실	〈심리검사 실습〉 2회차에 진행했던 심리검사 실습과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째 조가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심리검사 실습 과정 정리〉 - 3회차에 두 팀이 모두 검사 실습을 완료한 이후 함께 각자의 활동내용들을 줄을 통해 정리하였고, 실습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배운 점 등을 공유하며 2회기의 걸친 실습 스터디를 완료했습니다.
06/04	23:00~24:30	ZOOM	〈심리검사 및 발달정신병리학 기말고사 대비〉 ‘심리검사’의 시험 범위인 K-WAIS-IV 기록 용지를 작성하는 법과 ‘발달정신병리학’ 기말고사 범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방식은 해당 과목을 공부하면서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심리검사’ 기록용지 작성은 수업 시에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었던 주차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많아 헛갈렸던 부분에 대해 반복해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웠던 부분을 혼자서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스터디를 통해 각자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배운 내용에 대해 어렵거나 헛갈렸던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 모르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익힐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회의 도중 나왔던 질문들은 팀원들 서로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했고,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해당 과목의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기가 끝나간다는 시점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 지친 상황에서 공부로 인해 공부 시간을 마련하고 자신의 공부하는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공부에 대한 집중도와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팀원들의 전체 활동 소감〉

이번 학습법 소모임을 통한 지능검사 실습 연습과 학습내용을 점검하는 활동은 K-WAIS_IV 검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풀 배터리 검사를 해봤던 수검자 때 경험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검사자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풀 배터리 검사 때도 검사자가 다루는 도구가 많고, 답변을 작성하는 게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연습과 집중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록용지를 작성하는 것에 익숙지 않아 수검자의 답변을 받아 적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초시계를 다루며 버벅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들어오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팀원들과 함께 조언해주고 개선해나가며 좀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부할 게 많았던 발달정신병리학 과목을 ZOOM을 이용하여 팀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만의 학습법과 헛갈리는 부분을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전 범위라는 시험 범위에 막막함을 느꼈으나 학습법 소모임 활동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보겠다는 의지 또한 다질 수 있었습니다.

〈교과 스터디 효과〉

이번 교과 스터디를 통하여 ‘자생’, ‘상생’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교수와 학생 간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부분과 학습법에 대하여 공유하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생’ 능력을 얻게 되었으며,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상생’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습법 소모임 스터디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여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스터디의 효과는 스터디를 통하여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스스로 깨닫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것보다도 내가 공부하면서 놓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은 스터디를 통하여 어떤 식으로 도움을 얻고 보완할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스터디가 끝난 후에도 꾸준히 향상된 모습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발달정신병리학과 심리검사는 이번뿐만이 아닌 계속해서 공부해야 할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팀을 이루어 심리검사 실습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팀명 : 학교종이 습습습



- 학습과목 : 학습심리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31. ~ 2021.06.0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31	09:00~11:00	줌	2~4주차 강의(학습심리학의 개념_결합설, 고전적 조건형성, 조작적 조건형성) 내용에 대해 박채원 튜터가 정리, 설명 후 각자 모르는 점에 대해 질의 문답을 진행함.
04/13	09:00~11:00	줌	5~7주차 강의(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 형태주의와 통찰) 내용에 대해 이정현 가정교사가 정리, 설명 후 각자 모르는 점에 대해 질의 문답을 진행함.
05/11	09:00~11:00	줌	9~11주 차 강의(정보처리이론, 기억과 전이_메타인지, 학습양식과 인지 양식) 내용에 대해 이지혜 튜터가 정리, 설명 후 각자 모르는 점에 대해 질의 문답을 진행함.
06/01	09:00~11:00	줌	12~14주 차 강의(신경 생리학적 이론, 진화이론_진화 심리학, 지적 능력과 학습) 내용에 대해 임수민 튜터가 정리, 설명 후 각자 모르는 점에 대해 질의 문답을 진행함.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박*원 - 이번 학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학기여서 모순적이지만 내가 수강하는 강의에 대해 가장 소홀했던 것 같다. 다른 일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제출해야 하는데 공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즉 시험 직전까지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모임 덕분에 학습심리학 강의도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분류되어 밀리지 않고 수강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확실히 친구들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야 하니, 소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회차 내용에 관한 공부가 필요했다. 특히 내가 멘토인 회차는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 대답해야 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민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덕분에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시험 전에 정리를 하다 보니 내가 놓친 부분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 끝내고 나니 교과 소모임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번에 참여한 모두의 성적이 잘 나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	--

임*민 -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은 나에게 조금 버거웠었고, 한 번에 과대 조장 반장이 겹쳐서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강의를 제대로 집중해서 본 것은 손에 꼽는다. 하지만 이번 소모임을 통해서 다른 팀원들이 자신이 공부하고 요약해온 것을 가르쳐 줄 때는 정말 이해가 잘 되어서 강의를 보고 이해가 잘 안 됐어도 한 번 더 다시 짚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은 효과를 보았다. 또한, 내가 준비하는 시간도 아깝지 않았다. 소모임이지만 사실 공부의 방법을 다양하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다양한 공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재미있었고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해 학기 중에는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나마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항상 소모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후배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소모임은 각자의 자극이 되어 주며, 학기 내내 긴장을 풀지 않도록 조여주는 역할을 한다. 후배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 이번 소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용해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현 - 저번에 비해 학점을 적게 들어서 소모임 하는데 힘들진 않았다. 전공을 학습심리 하나만 들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비대면이고 학점을 적게 듣는게 오히려 사람을 풀어지게 만들었던 거 같다. 수업도 소모임 하기 전에 몰아 듣고 하는 식이 많았고, 급하게 준비했었다. 하지만 소모임을 안 했으면 시험 직전에 수업을 듣거나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시험을 쳤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소모임을 하면서 몰아 듣기는 했으나 다 같이 하기로 한 주차까지는 수업을 들었고 튜터로써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나름대로 피피티도 보고 추가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내가 잘못 이해해서 이상하게 알려줄까 봐 내가 튜터일때는 더 열심히 했던 거 같다. 아무래도 다 같이 하는 공부이기에 피해는 주고 싶지 않았다. 다들 바쁜데도 열심히 참여해주고 각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랄 뿐이다.

이*혜 - 지난 학기에 같은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었다. 이번에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꼭 점수를 잘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처음에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배우는 것이라서 열심히 하지 않았고, 수업도 잘 듣지 않았고, 항상 학기 초에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웠다. 하지만, 소모임 활동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내가 친구들에게 내용을 설명해주고 질문에 대답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혼자서 공부를 했다면 피피티를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궁금점과 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지난 학기의 강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만족스럽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었다.

팀명 : CHAllengers

- 학습과목 : 일반생물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6. ~ 2021.06.0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6	10:00~12:00	집(ZOOM)	The chemical basis of life and The molecules of cells
04/05	10:00~12:00	집(ZOOM)	A tour of the cell and The working cell
04/09	10:00~12:00	집(ZOOM)	How cells harvest chemical energy and Photosynthesis
05/07	10:00~12:00	집(ZOOM)	The cellular basis of reproduction and inheritance patterns of inheritance
05/21	10:00~12:00	집(ZOOM)	molecular biology of the gene
06/04	10:00~12:00	집(ZOOM)	how populations evolve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지A - 소모임을 계획하면서 최대한 각자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주제를 정하고 이에 관련된걸 발표했던 게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이 생각나 이 방법으로 소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소모임을 하기 전에는 공부하는 것을 미루고 영어로 된 생물학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을 시작하고 나니 계획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발표하면서 영어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스터디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줌으로 스터디를 하는 상황에서도 친구들이 집중을 해주어 고맙습니다. 소모임 스터디를 통해 공부뿐만 아니라 동기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겨 더욱 친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지 - 수업을 듣다 보면 일반생물학을 영어로 듣다 보니 아는 개념이어도 이해를 못 하거나 전공용어를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소모임을 통하여 모르는 내용은 친구들과 물어보며 아는 내용은 더욱 확실히 알아가고 모르는 내용은 다시 배워갈 수 있어서 나의 전공 분야를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그리고 내가 맡은 주제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 덕에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코로나로 5인 이상 모임
------------	--

수 없었지만 줌이라는 온라인에서 동기들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동기들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

윤*기 : 소모임을 통해 혼자 공부할 때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친구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며 해결함으로써 쉽게 풀어낼 수 있었다. 서로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 설명하면서 발표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지식과 배움을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이*신 - 대학교에 처음 와서 전공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에 부담되고 어려웠는데, 소모임을 통해 나와 같은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부분을 서로 도와가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각자 맡은 부분은 성실히 준비해 설명해주어 든든하고 내용이 더 잘 이해되었다. 앞으로 전공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지 알게 되었고, 협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의 효율성도 알게 되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박*호 : 그동안 공부해왔던 방법인 혼자 공부하기 말고 여럿이, 함께 공부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공부하게 되니 해당 내용에 대해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서 손쉽게 문제에 대해 풀이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새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점, 그로 인해 다양한 접근법을 바라볼 수 있었던 점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자칫하면 해이해질 수도 있는 공부가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 꾸준히 해나갈 수 있었으며 함께 해나가며 친구들과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장*희 - 혼자 공부하면 계속 미루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난감했었는데 스터디모임을 통해 다 같이 시간을 내서 주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서로 모르는 것들을 피드백해주니 공부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특히 일반생물학은 교재가 영어이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많이 막막했었는데 이번 스터디그룹을 통해 공부하는 방식을 차츰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학년이 올라가서도 스터디모임을 계속 이어나갈 것 같다.

팀명 : Fabulous

- 학습과목 : 생화학
- 학습장소 :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그룹토의실
- 학습기간 : 2021.03.31. ~ 2021.06.0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31	16:30~18:00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그룹토의실 1	ch.2 water / ch.3 amino acids, peptides, and proteins / ch.4 the 3d structure of proteins
04/06	16:30~18:00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그룹토의실 3	ch.5 Protein Function , 5주차 실시한 퀴즈 피드백
04/14	16:30~18:00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그룹토의실 3	5주차 Protein Function (2), 6주차 Enzyme (1)
05/19	16:30~18:00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그룹토의실 3	9주차 Carbohydrates and Glycobiology
05/25	16:30~18:00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그룹토의실 3	9주차 Carbohydrates and Glycobiology 12주차 Lipid
06/01	16:30~18:00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그룹토의실 3	10주차 Nucleotides and Nucleic Acids 13주차 Biological membrane and transport
06/03	16:30~18:00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그룹토의실 3	퀴즈 3회차 오답정리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안*영 - 재수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을 주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전공필수 과목을 재수강하게 되어 꼭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고, 후배의 제안을 통해 함께 스터디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 소모임을 한다는 점과 소모임 공부의 팀장이라는 책임감이 강의를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이 되었다. 다른 강의는 밀리더라도 생화학만큼은 강의도 듣고 복습도 하여서 질문할 거리를 찾고, 팀원들이 질문하더라도 그에 응하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갔던 점이 좋게 작용하여 다행히도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마지막 소모임을 진행하고, 기말고사만을 앞두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 고생하며 소모임을 했던 것이 마지막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마지막 퀴즈를 풀 때 나왔던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진 못했고, 기억도 완벽하게 나지 않아서 많이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모임을 하며 서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질문하고,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라고 했던 부분이 퀴즈에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소모임을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권*혜 - 이번에 생화학을 처음 배우게 되면서 일학년 때 배웠던 일반생물학과는 달리 내용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스터디를 하면서 혼자서 아닌 팀원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모르는 부분을 공유해보며 제가 몰랐던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고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부분을 팀원이 물어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며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강의를 듣다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스터디에서 채울 수 있어 좋았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 퀴즈를 풀어보고 매번 같이 퀴즈에 대한 답과 선지 하나하나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 생화학 시험을 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주 - 이번 학기 소모임을 통해 생화학 스터디를 진행하며 혼자 공부할 때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복습을 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혼자 공부할 때보다 모르는 부분들의 해결이 원만했고, 이해도 더 잘되었다. 아무래도 내 나이 또래의 사람에게 설명을 들으니 더 쑥쑥 들어오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업 때 했던 퀴즈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광범위한 학습내용이 아니라 딱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함께하고 떠올리는 게 좋았다.)

팀명 : Prepharmacist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집, 판교 카페
- 학습기간 : 2021.03.16. ~ 2021.06.0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16	14:00~16:00	ZOOM	각 병원의 시스템을 공유하고, 그중 수업시간에 흔하게 보지 못했던 약품에 대해 서로 발표했다. 특약은 입원한 환자가 원내에 없는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특별히 들여오는 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실습지인 은평성모병원, 일산차병원, 한림대 성심병원의 3개 병원의 특약을 각각 소개하였다.
04/05	14:00~16:00	판교 카페	항암제 처방 적절성 검토방법, 조제 준비, 조제 과정에서 각각 얻은 팁들을 정리하고 공유하였다. 특히, 항암제를 조제하기에 앞서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해당 부분을 다시 복습하였다.
05/10	14:00~16:00	ZOOM	병원 내 외래약국의 처방조제, 감사, 복약지도에 대해 복기하고 병원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였다. 헤파린나트륨 주사액, 쿠파린정, 프라닥사의 3가지 약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또한, 롤 플레이를 진행하여 병원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모의로 경험하였다.
06/07	14:00~16:00	ZOOM	병원 원내약국에서 배운 내용을 약물 치료학 수업과 연결해 복습하였다. (1)파노린주와 파미술 주와의 병용투여 (2) 화농성 한선염 환자에게서의 휴미라 프리필드 시린지 적응증과 복용 기간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매주 ZOOM을 통해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조원 4명이 3개의 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다 보니 접하는 환자군과 환자들이 겪고 있는 질병, 복용하는 약물이 모두 상이하였다. 이에 병원 내에서 처방전을 검토하고 조제를 하면서 약사님들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다른 조원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주로 질병-약물 형식으로 토의를 진행하였고, 약물 치료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당 약물의 사용이 적합한지, 가이드라인에 맞게 처방되었는지, 만약 효과가 없으면 어떤 약을 추가적으로 복용해야 하거나 변경해야 하는지 순서로 소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 말미에는 롤 플레이를 진행하여 환자들이 궁금할 법한 사항을 생각해 보았으며 약사 입장에서 복약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처방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빈도 처방 의약품 혹은 병원에 새롭게 들어온 신약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약에 대한 지식을 늘려갔다. 실습 중에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에 관한 내용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약제에 대한 사항들도 서로 나누었다. 이때, 약사공론 등의 매체를 통해 기사들을 여러 편 읽으면서 약을 사회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학교에서는 책으로부터 배운 내용이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니 새롭고 신기했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책에 적힌 내용과는 다르게 처방이 난 경우도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오류나 의심이 가는 처방이 발견되면 의료진과 토의를 통해 최선의 약물 치료법을 찾는 과정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러한 상황을 조원들과 나누니 약물 치료학에서 새로운 관점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오래 남아 비슷한 처방을 접했을 때 익숙하게 처방전을 검토하고 조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학교 밖에서 실습하며 자주 보지 못하는 동기들을 매주 한 번씩 줌을 통해 만나고 병원에서 실습내용을 공유하니 매우 즐겁고 유익하였다. 조원 모두 필수실습을 마친 만큼 여름방학 및 2학기에도 소모임을 진행하여 각각 심화 실습에서 진행한 내용을 공유하고 약사 국가고시 또한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대한다.

팀명 : 굿 파머시스트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차바이오 컴플렉스, 집
- 학습기간 : 2021.03.31. ~ 2021.05.1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31	18:00~20:00	차바이오 컴플렉스	〈단원 : 고혈압, 심부전, IHD〉 질병의 병태 생리를 공부하고, 병리 기전을 위주로 사용되는 약물군을 분류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각 약물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이름과 특성, 용법에 관해 공부한다. 튜터의 수업이 끝나면 Q&A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하부르타 방식으로 서로 묻고 답하며 스터디를 마무리한다.
04/07	18:00~20:00	집(zoom)	〈단원 : 부정맥, 당뇨〉 질병의 병태 생리를 공부하고, 병리 기전을 위주로 사용되는 약물군을 분류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각 약물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이름과 특성, 용법을 주제로 공부한다. 튜터의 수업이 끝나면 Q&A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하부르타 방식으로 서로 묻고 답하며 스터디를 마무리한다.
04/17	18:00~20:00	집(zoom)	〈단원 : 우울증, 불안장애, ADHD, 조현병〉 질병의 병태 생리를 공부하고, 병리 기전을 위주로 사용되는 약물군을 분류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각 약물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이름과 특성, 용법에 대해 공부한다. 튜터의 수업이 끝나면 Q&A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하부르타 방식으로 서로 묻고 답하며 스터디를 마무리한다.
05/15	18:00~20:00	집(zoom)	〈단원 : 산부인과 약물, 비뇨기과 약물〉 질병의 병태 생리를 공부하고, 병리 기전을 위주로 사용되는 약물군을 분류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각 약물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이름과 특성, 용법에 대해 공부한다. 튜터의 수업이 끝나면 Q&A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하부르타 방식으로 서로 묻고 답하며 스터디를 마무리한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의료기관 실무실습에서 주요하게 필요한 지식은 약물학, 및 약물 치료학지식이다. '병원 약사의 전반적인 역할을 경험, 실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이해'라는 수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이전에 배운 내용을 REVIEW&REMINDED 하고자 했다.

4,5학년 수업 때 사용했던 약물치료 학과 약물학 PPT를 위주로 내용을 각각 1회독 했다. 현대 사회의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부전부터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소화기과 등의 진료과로 내용을 구분하여 사용되는 약물의 특성과 용법을 공부했다.

교과서와 PPT를 기본으로 하여, 한 명의 팀원이 한 단원을 요약하여 수업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다. 내용 리뷰 후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실습을 진행하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 치료법과 약물 위주로 공부하기로 했다. 배우고 공부한 지식이 임상에 쓰이는 것을 보니 학업에 대한 흥미도도 상승했고, 팀원들의 학구열도 높았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향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부르타 방식으로 약물의 특성과 용법을 돌아가면서 말해보며 내용을 정리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정확하게 약물에 대한 지식을 숙지할 수 있었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있거나 자신만의 암기방법이 있으면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곤 했다. 스터디를 통해 지식을 얻었을 뿐 아니라 동기간의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었고 집단 지성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스터디 때 서로 각자 일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스템이나 처방에 관한 이야기도 공유했다. 병원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었고, 환자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기도 했다.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며 환자의 약물요법 및 임상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에 이바지하는 약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팀명 : 그대라는 약치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7. ~ 2021.05.1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7	18:00~20:00	Zoom	요실금 case study
05/08	18:00~20:00	Zoom	황문근용해증 case study
05/09	18:00~20:00	Zoom	건선의 약물치료학
05/13	18:00~20:00	Zoom	통풍의 약물 치료학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여 우리는 총 4번을 거쳐 비대면으로 각자 몰랐던 부분, 중요한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물 치료학은 약학과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양도 방대해서 6학년이지만 다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었다. 다들 실습을 나가서 약국, 제약회사, 병원에

근무하면서 줌으로 복습을 하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횡문근융해증이란 보기 힘든 적응증 뿐만 아니라 통풍, 건선, 요실금을 공부하면서 복약지도 할 때나 관련된 약을 조제할 때 더 유용하게 지식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다.

2시간 동안 case study나 서로 이해한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좀 더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소모임 지원할 예정이다.

팀명 : 그래, 이 아나토미

- 학습과목 :
- 학습장소 : 해룡 기숙사
- 학습기간 : 2021.06.01. ~ 2021.06.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12	16:00~18:00	해룡 519호	해부학 개요 & embryology
06/14	16:00~18:00	해룡 519호	trilaminar germ disk & folding of the embryonic disk
06/15	16:00~18:00	해룡 519호	typical vertebra & thoracic cage
06/16	16:00~18:00	해룡 519호	Systemic Arteries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임*정 - 영어단어가 많아 어렵고 귀찮게만 느껴졌던 해부학을 스터디를 통해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스터디를 하는 시간보다 스터디를 준비하는 시간에서 더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 룸메이트와 둘이 방에서 하는 스터디였지만, 퀴즈 등을 풀 때는 경쟁심이 생겨 혼자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룸메이트와 두 명으로 스터디 그룹을 꾸렸는데 둘 다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가 많아 아쉬웠다. 다음 학기는 4명으로 스터디를 꾸려 활동하고 싶다. 해부학뿐만 아니라, 1학기에 많이 어려웠던 미생물학도 다음 학기에는 스터디를 구성하고자 한다. 김*우 - 이번 학습법 소모임 교과 스터디를 통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 주차부터 해부학 퀴즈를 본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해부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해보아서 해부용어들이 매우 낯설었지만, 매주 그림에 있는 단어들을 외우고 서로 빈칸문제를 풀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한, 해부학 수업이 끝나고 그림을 그리며 복습시간을 가진 것도 좋았다. 교재를 보며 똑같이 그리면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 매주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며 성취감이 들기도 했다. 다음 학기에도 이 학습법 소모임을 신청하여 또 공부해볼 계획이다.
------------	---

팀명 : 꾸이꾸꾸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29. ~ 2021.06.0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29	19:00~22:00	ZOOM	위장관 질환의 개요, 병리와 병인, 임상증상, 치료알고리즘, 모니터링 등을 요약 설명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복기하면서 약국 실습 가이드에 나오는 소화성 궤양 약물의 상품명과 약물 이상 반응을 익혔다.
05/13	18:30~21:30	ZOOM	호흡기계 질환의 원인, 임상증상, 치료 알고리즘 등을 담당하는 팀원이 요약하여 설명하고 나머지 조원들은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다. 약국실습 가이드에서 치료약물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호흡기 복약지도를 해보았다.
05/24	18:30~21:30	ZOOM	바이러스성 간염을 A형, B형, C형을 나눠서 공부했다. 각 간염의 병태생리, 임상증상, 약물요법, 진료지침 등을 서로에게 설명해주었다. 약국실습 가이드의 바이러스 간염에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복약상담과 약물 이상 반응을 같이 학습하였다.
06/03	18:30~21:30	ZOOM	당뇨병, 갑상선 질환을 공부한다. 당뇨병을 1형, 2형으로 분류하고, 갑상선질환을 갑상선항진증과 갑상선저하증으로 구분하여 스터디원들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실습하면서 어떤 처방이 주로 있었는지 복기하여 실제 현장에서 어떤 약물이 쓰이는가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복약상담도 해보았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소감〉 배*희 - 하부르타 학습법을 통해 제일 취약한 암기 영역을 통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토론이 장기기억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안*빈 - 저번 학기에 배운 내용이라 대부분을 잊어버렸었는데, 스터디를 통해 단시간에 빠르게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간염 질환에 대해 스터디원들에게 요약하여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복습방법으로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윤*원 - 분비억제제나 위장운동촉진제로 호전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가 내장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생각해 보지 못한 점들을 스터디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며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 - 위식도역류질환에 사용되는 양성자펌프억제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제산제, 위장운동촉진제, 콜린성 효능제, 진단을 위해 내시경을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안내해주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영 - 세부적인 사항을 암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매우 수월하였습니다. 각자 학업 관련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종합 의견〉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빈번한 질환인 만큼 그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스터디원들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복습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산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과 간염의 증상에 대한 원인으로 3가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관련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관심이 많은데 간염 역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병리이므로 이를 치료하는데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에 대해서 병태생리학적인 발병원인과 진단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슐린 치료제도 속효성 제제가 있어 식후 바로 섭취하는 약물이 있다는 것을 심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약물이지만 저혈당 부작용이 심각하여 환자들에게 복약지도할 때 주의사항을 반드시 전달해야겠다는 점을 다시 새겼습니다. 또한, 백지 공부법을 도입하여 백지에 아는 대로 써본 뒤 서로 피드백하여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채워 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빈틈없이 학습을 진행하였다. 추가로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외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무엇인지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약물 치료학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복귀하며 개념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과 약국 실습 과정에서도 처방전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와 약력을 이해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터디 덕분에 약물 치료학 복습과 더불어 지역약국과 의료기관 실습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팀명 : 낙타는약대미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3. ~ 2021.04.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3	12:00~20:00	ZOOM	약물-수용체 상호작용을 주제로 공부했다. 강의 내용을 각자 요약하고, 요약한 강의 내용들을 취합 후에 하나의 문서로 작성했다. 전공서 회독, 요약 회독, Quizlet, 문제 만들기 진행하였다.
04/10	12:00~20:00	ZOOM	항콜린성(혹은 효능제)-신경계의 약물작용에 관해서 공부했다. 강의 내용을 각자 요약하고, 요약한 강의 내용들을 취합 후에 하나의 문서로 작성했다. 전공서 회독, 요약 회독, Quizlet 진행하였다.
04/17	12:00~20:00	ZOOM	아드레날린 수용체 효능약,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약에 대해 공부했다. 강의 내용을 각자 요약하고, 요약한 강의 내용들을 취합 후에 하나의 문서로 작성했다. 전공서 회독, 요약 회독, Quizlet 진행하였다.
04/18	12:00~20:00	ZOOM	1,2,3회차 내용 복습을 진행했다. 1,2,3회차에 요약한 문서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토의를 진행했다. 8명 참여자 전원이 약물학 문제 3문제씩을 준비했으며 이를 풀이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약물학은 4학년 1학기 과목에서 가장 암기할 게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되어 이번 소모임의 공부 과목으로 선정하였다.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확실히 암기할 표도 많았고, 그림해석도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토론하고, 요약하고 암기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많았다. 이때 공통된 의견은 '약물학을 소모임으로 하여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었다.
------------	--

퀴즈를 만들고 냈던 문제들은 시험 기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응용문제이다 보니,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풀 수 있었고 대표적인 약물의 약리 기전을 확실히 암기할 수가 있었다. 또한 Quizlet의 활용은 단순 암기에 효율적이었다. 혼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일들을 협력을 통해 진행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켰다. 소모임에서 4회차는 복습이 위주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1, 2, 3, 4회차 모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때 복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야 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4회차에서 약속을 잡고 함께 암기하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이는 2학기에도 동일한 방향성을 띠고 기획을 할 부분이다.

공부 잘하는 약학과에서 중간고사를 보고 약물학 상위 30%안에 드는 학생이 많았다. 이는 소모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가장 성적 향상률이 높았던 학우는 조형진 학생이었다. 작년에 비해 전공의 평균적인 백분율이 올랐고, 이는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끝나고 이야기해보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하루에 요약본을 만들고, 퀴즈를 만들고,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것을 진행하다 보니 문제를 풀 때쯤이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 같았다. 따라서 중간중간 재밌는 요소를 넣어야지 소모임의 활동도 더 활발해지리라 생각된다. 이는 계속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사항이었다. 또한, 문제를 만들어서 풀게 할 때, 문제를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처음 진행했던 부분이라 그랬던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다음 학습법 소모임에는 빠르게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우선 pubmed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비효율적이므로 기획서뿐만 아니라, 소모임에서도 이용하지 말자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다음 소모임 때는 이용을 안 할 것이며, 교과서, ppt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교수님에게 따로 질문드리기로 하였다. 또한, 예습을 간단하게라도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할 것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으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했던 덕분에 4회차까지 무리 없이 진행하였다.

팀명 : 다정한 현재

- 학습과목 : 의약품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11. ~ 2021.05.16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1	15:00~18:00	ZOOM으로 온라인 스터디	중간고사 대비 공부 / ZOOM을 통하여 모르는 부분 서로 질문하고 예상문제를 내며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가짐.
04/18	15:00~18:00	ZOOM으로 온라인 스터디	중간고사 대비 공부 / ZOOM을 통하여 모르는 부분 서로 질문하고 예상문제를 내며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가짐.
05/09	15:00~18:00	ZOOM으로 온라인 스터디	기말고사 대비 공부 / ZOOM을 통하여 모르는 부분 서로 질문하고 예상문제를 내며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가짐.
05/16	15:00~18:00	ZOOM으로 온라인 스터디	기말고사 대비 공부 / ZOOM을 통하여 모르는 부분 서로 질문하고 예상문제를 내며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가짐.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활동 소감〉 1. 이*지 - 저는 작년 의약품학 입문을 C+를 받아서 재수강을 하게 되었고 하기 싫은 공부가 될까 봐 동기부여를 얻고자 교과스터디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점수 목표달성과 동시에 활동 보고서를 잘 마무리 지어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적은 비용이더라도 동기부여가 되어 한 학기 동안 소모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는 20학번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서로 복돋우며 공부함으로써 재밌게 의약품학 입문을 공부할 수 있었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시험에 잘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무언가를 물어볼 때 물어보는 것을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할까 봐 두려움도 있었고 잘못 가르쳐주어 오류를 가르쳐줄까 봐 부담감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들 때마다 더 열심히 보며 공부하였습니다. 매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고서에 많은 내용을 적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A0 퍼센트에 속하였고 최종 성적은 원래는 A+이나 재수강으로 인하여 A0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

2. 김*정 - 저는 평소 의약품학 공부를 흥미로워했고 이 교과스터디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부하고 싶었는데 마침 다른 학생들이 교과 스터디를 함께 신청하자고 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궁금증이 많던 저는 전공 의약품학 입문을 혼자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교과 스터디로 인해 궁금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궁금한 것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재밌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모르는 내용이면 함께 교과서나 피피티 자료를 찾으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서로 몰랐던 의약품 지식 부분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움 덕분에 바이오의약품학 입문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소모임을 하며 서로 알려주고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고 다음 학기에도 꼭 교과 스터디를 신청하여 참여하고 싶습니다.

3. 김*은 - 바이오의약품학 과목이 아주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강하기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멘토 멘티를 진행했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경험이 생각나서 같이 수강하는 학생과 교과 스터디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스터디하는 학생들과 함께 모르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공부의 질과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 중간고사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었지만, 스터디를 함께 하면 할수록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점점 알게 되어서 기말고사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성장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 교과 스터디를 통해 내가 아는 부분을 알려주고, 모르는 부분은 배워가며 함께 공부하니까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새로운 공부법도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소중한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팀명 : 돌보기

- 학습과목 : 분석화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2. ~ 2021.06.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2	15:00~18:00	Zoom	[Chapter0~4] 분석과정, 화학측정, 실험도구, 수학 소도구, 통계학 - 교과서 정리 및 암기, 예제문제 풀이, 강의 내용 정리
04/16	16:00~19:30	Zoom	[Chapter 5, 6] 품질보증 · 교정방법, 유용한 적정 - 교과서 정리 및 암기, 예제문제 풀이, 강의 내용 정리
05/21	14:30~17:30	Zoom	[Chapter7~10] 무게 및 연소분석, 산과 염기의 개론, 완충용액, 산염기적정 - 교과서 정리 및 암기, 예제문제 풀이, 강의 내용 정리
06/11	16:00~19:30	Zoom	[Chapter 13~15] EDTA 적정, 전극전위, 전극 측정법 - 교과서 정리 및 암기, 예제문제 풀이, 강의 내용 정리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박*정 - 정해진 날에 함께 친구들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느샌가 나의 공부가 되었고, 함께 문제를 풀어 해결하면서 분석화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모르는 문제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이 활동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니 기억에 더욱 오래 남고, 놓쳤던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문제 풀이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2학기에도 이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
	박*연 - 구들과 일정 주기마다 스터디를 진행하니 공부를 정말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들고 어려운 내용이 같다는 점에서 동질감도 들어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모르는 문제를 맘 놓고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었다. 혼자 교재 문제를 풀이할 때는 조금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동기들과 질문하면서 하니 좀 더 기억에 잘 남기도 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한 번쯤 대면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점이였다.

이*원 -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니 혼자서 공부를 할 때보다 동기부여도 더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서로 질문을 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꼈다.

황*진 - 평소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얻어가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서로 설명하면서 하는 공부가 시간만 낭비하고 외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전 생각과 달리 더 제머릿속에 잘 들어왔습니다. 또한, 문제 풀이도 혼자 했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명 : 마이약무라

- 학습과목 : 약물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5. ~ 2021.05.2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6	10:00~12:00	ZOOM	1. Introduction to Pharmacology - 인체생리학에 기반하여 약물학의 총론을 크게 살펴 보면서 약물학 기전을 배우기 위한 토대를 살펴본다.
05/07	10:00~12:00	ZOOM	2. Drug-receptor interaction and pharmacodynamics - 약물과 수용체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약물에 따른 약력학적 관계 및 수용체 활성도를 비교해본다.
05/08	10:00~12:00	ZOOM	3. Introduction to autonomic pharmacology - 자율신경계에 대해 배우면서 $\alpha_1, \alpha_2, \beta_1, \beta_2$ 수용체 등의 특성과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학습해본다.
05/09	10:00~12:00	ZOOM	4. Drugs affect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cholinergic agonists -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콜린성 항진제를 배우면서 부작용과 기전을 배워본다. - 인체와 관련하여 어느 부위에 주로 작용하는지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은 어떤 것인지 배워본다.
05/21	10:00~12:00	ZOOM	5. Drugs affect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adrenergic agonists -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아드레날린성 항진제 약물을 배우면서 부작용과 기전을 학습해본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22	10:00~12:00	ZOOM	6. Drugs affect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cholinergic antagonists - 자율신경계에 콜린성 길항제 배우면서 관련 부작용으로 섬망, 변비 등이 나타나는지 다른 약물과의 빈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워본다.
05/23	14:00~16:00	ZOOM	7. Drugs affect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adrenergic antagonists - 자율신경계 아드레날린성 길항제 성분에 대해 배우고 각 길항제마다 어떤 질병 치료에 주로 쓰이는지 CYP 계열 대사 효소 등에 의해 혈중약물농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학습한다.
5/28	10:00~12:00	ZOOM	8. Antihypertensive agents - 고혈압계 약물에 대해 배우면서 앞서 배운 자율신경계 $\alpha_1, \alpha_2, \alpha_3, \beta_1, \beta_2$ 수용체에 따라 쓰일 수 있는 고혈압 약물을 배우고 병용하면 안 되는 약물계열, ARB, ACEI에 대해 집중해서 학습해본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정*욱 - Chemicals와 biological system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 보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생화학적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기존의 약이 적용되는 원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신약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연 - 이번 학기 처음으로 약물학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스터디를 통해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자세히 익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약물작용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질병에 따라 약물이 생체 내에서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지 - 선배 및 동기와 함께 공부하면서 약물학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약물의 특징을 하나하나 분류해보면서 파악하니 내용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또한, 임상에서 약물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스터디였습니다.
------------	--

팀명 : 모성과 분만왕자

- 학습과목 : 모성간호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7. ~ 2021.05.0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7	19:00~21:30	온라인 zoom 미팅	정상 분만 여성의 분만 생리를 주제로 분만이 이루어지는 해부학적 구조와 그 과정을 이해하고, 각자 객관식 2문제를 내어 서로 풀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조원의 이해정도를 확인하였음.
04/16	19:00~21:30	온라인 zoom 미팅	정상 분만 여성의 산부간호와 통증 완화를 주제로 분만 시 발생하는 통증의 기전과 산부의 반응, 그에 따른 적절한 산부 간호를 이해하고, 객관식 문제 2개를 내어 서로 풀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조원의 이해정도를 확인하였음.
04/30	19:00~21:30	온라인 zoom 미팅	고위험 분만 여성의 분만 관련 건강문제의 종류와 원인, 진단 및 간호를 이해하고, 각자 객관식 2문제를 내어 풀어보고 서로 풀이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조원의 이해정도를 확인하였음.
05/07	19:00~21:30	온라인 zoom 미팅	태아 부속물 관련 건강문제의 종류와 원인, 진단 및 간호, 예후에 대해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을 서로 해소시켜주는 방식으로 학습하였으며, 객관식 2문제를 내어 풀이하고 질의응답을 하여 조원의 이해정도를 확인하였음.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수업 후 자기 주도학습으로 복습을 하는 방식도 좋지만 그러던 중 헛갈리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수님께 여쭙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쭙보기 전에 혼자서 교재나 참고자료를 통해서 이해해보려 하지만 동기끼리 모여서 소모임 활동을 하며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면 알려주는 사람은 이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알려주기 때문에 확실히 인식될 수 있고 이해하는 사람은 빨리 해소시킬 수 있기에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	---

소모임을 할 때 단순히 문제 2개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닌 조원 모두 헛갈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은 정의를 확실히 확인하여 다음에는 잊지 않도록 하고 헛갈렸던 것은 기준을 잡고 표를 그리며 구분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소소하게 빈칸 채우기를 하며 퀴즈를 내거나 그림과 사진을 통하여 이해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내고 푸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또는 틀렸을 경우 왜 틀렸는지 확인하며 문제로만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에 머릿속에 개요가 잡힐 수 있었습니다. 주 차별로 내용을 별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주차 간 내용이 이어져서 공부하는 것이므로 복습을 하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약물적인 부분에서는 처음 보는 것들도 있어 조원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공부하였으며 그에 맞는 부작용 및 관련된 간호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을 듣고 조원들 각자 공부를 진행한 후 어려운 부분들을 필기한 후 공유하면서 강의안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필기를 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생각하며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같을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를 수 있기에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중간에 중간고사도 있었고 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어서 소모임을 통한 스터디가 4차까지 진행될 수 있었으며 강의를 통한 일회성 학습이 아닌 예습·복습을 하여 조원들과 함께 공부한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혼자서 공부하다가 집중 못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소모임을 통해 학습하면서 내가 좀 더 공부해야 할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동기들과 함께하기에 공부할 때 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연결이 잘 안 되어 중간중간 끊길 때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날들이 연속됨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동기들의 얼굴을 볼 기회가 생겨서 집에 있지만, 학교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공부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팀명 : 몰라 bio

- 학습과목 : 분자생물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1. ~ 2021.05.3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1	18:30~21:30	zoom	분자생물학 - DNA repair system
04/04	18:30~21:30	zoom	분자생물학 - Central dogma in eukaryote
05/16	18:30~21:30	zoom	분자생물학 - allelic exclusion
05/30	18:30~21:30	zoom	분자생물학 - Group 1& 2 intron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3학년 전공과목 중에서 분자생물학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고, 양도 많았기에 부담감이 큰 전공이었다. 하지만 교과 스터디 활동을 해나가면서 전공에 대해 큰 틀과 지식이 머리에 쌓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공부 방식은 대체 적으로 선 공부 후 나눔이었다. 먼저 공부해오는 스스로 학습의 시간 뒤 함께 몰랐던 부분이나 알아두었으면 하는 부분을 공유하거나 토론했다. 스스로 학습에는 수업내용에 전공 책과 피피티, 구글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혼자만의 학습에도 불구하고 뚜렷하지 않은 지식과 함께 정리했으면 하는 부분은 스터디 시간을 통해 논문이나 스스로 공부해온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DNA repair system과 같이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A4 용지에 용어들을 작성하고 접어서 제비뽑기 형식으로 골라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아는 대로 다 말해보는 새로운 공부 방법도 도입해 보았다. 용어 정리에 있어서 편리함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전공과목을 공부하면서 스터디를 통해 시험과 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닌, 생명과학을 알아가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전공에 있어서도 이 스터디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에는 한 과목의 전공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좋았던 점도 있지만 다른 과목에도 스터디를 도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도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다면 2~3개 과목을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
------------	---

팀명 : 물음표

- 학습과목 : 심리학개론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10. ~ 2021.06.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10	18:00~20:00	ZOOM	1회차 스터디 활동에서는 ‘뉴런과 신경계, 발견 도구와 오래된 두뇌구조들 - 발견의 도구 : 우리 두뇌를 들여다보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먼저 뉴런의 구조와 각 구조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고, 뉴런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발생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흥분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보았으며 신경계는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지 공부하였습니다.
06/06	18:00~20:00	ZOOM	2회차 스터디 활동에서는 ‘뉴런과 신경계, 발견 도구와 오래된 두뇌구조들 - 발견의 도구: 우리 두뇌를 들여다보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뇌의 주요 구조물의 정체를 찾아내고 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뇌를 구성하는 구조물이 행동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묘사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뇌의 쾌감중추와 좌우 반구가 각각 상이한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조건인 뇌 기능의 편재화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의식의 각기 다른 상태를 설명하고 이러한 상태에 대한 지식을 일상 경험에 적용해보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06/08	18:00~20:00	ZOOM	3회차 스터디 활동에서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에 관해서 정의, 증상, 이론적 입장 등에 대해 공부하였고, 범불안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세 가지의 불안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장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주요우울장애, 지속적 우울장애, 월경전기 불쾌장애,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 장애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였고, 우울장애를 정신분석적, 행동주의, 생물 의학적 세 가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10	18:00~20:00	ZOOM	4회차 스터디 활동에서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에 관해 서 정의, 증상, 이론적 입장 등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조현병의 특징을 알아보며, 경증에서 중증까지의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를 통해 조현병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양극성장애의 특징을 알아보며, 유전을 비롯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장애라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 인지적 입장 외에도 대상 관계이론을 통해 양극성장애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알아보았으며, 특히 Cameron(1963)의 주장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최*원 -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학습하지 못한 부분 말고 다 너무 좋았다. 평소에 전공수업으로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이었는데, 여러 학우와 모여서 모르는 것을 질문해가며 서로 소통한 것이 너무 흥미롭고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긴장도 했고, 걱정도 많이 생겼었다. 내가 학우들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전공을 쉽게 접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1회차를 해보니 너무 부듯했다. 서로서로 같이 교재를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을 짚고 나가고 알려주고 깨닫고 하는 과정이 너무 값진 학습법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뇌 관련 공부를 할 때 다들 어려워했었는데 그 내용을 따로 노트에 정리하면서 공유하는 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또한, 이 학습법 소모임을 하면서 전공의 흥미가 많이 생겼다. 평소 수업을 듣고 놀기만 하던 나의 생활이 소모임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과 친구들을 줌로라도 만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 나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소모임을 통해서 보람 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김*경 - 저는 혼자 공부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스터디를 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배웠던 걸 복습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교수님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셨거나 설명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친구들이 설명해주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면서 공공대던 부분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1학년 전공 수업은 대면으로 하더라도 일주일에 거의 한 번 만나는 친구들이라 비대면 상황에서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스터디를 만들어 참여하고 싶고 지금까지 스터디를 함께 진행해준 ‘물음표’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유*예 - 이번 소모임 활동을 하며 새로운 공부 방식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지식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같이 공부를 하며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비록 전공시간에 배우고 시험에 당장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로 가진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처음 대학교에 진학하고 시험 방식이나 공부하는 방법의 방향 잡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내용은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소모임이나 단체 스터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인 -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것에 대해 설렘도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순조롭게 스터디가 이어졌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며 서로 알려주고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간히 서로에게 퀴즈를 내기도 했습니다. 뇌 파트의 경우 서연이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과학에 약해 이해하는데 힘들었지만, 서연이의 친절하고 쉬운 설명과 중요한 부분을 한번 더 언급해줌으로써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시험공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법 소모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며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참여하여 팀원들과 즐겁게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지 -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첫 대학 생활의 시작에 소모임도 함께였는데 어색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공부를 함께 함으로써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 달리 선생님께 찾아가듯 교수님께 여쭙보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부분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친구들과 성장할 수 있었고 더욱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한 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연 - 1회차부터 시작한 '물음표' 스터디는 너무 원활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스터디의 팀장인 만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고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할까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약간 되었는데 고민을 했던 것이 무색해질 만큼 친구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공부를 연습해와서 너무 고맙고 걱정이 덜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공부만 하는 딱딱한 스터디 형식이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얻어지는 학습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대단했고, 친구들 모두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으로 시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고 나서 시작한 활동인데, 너무 시작하기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학습법 소모임이라는 활동을 하게 해주신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스터디의 경험을 토대로 친구들과 효율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활발한 분위기에서 학습법 소모임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인 - 우선 실제로 만나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ZOOM을 이용해 스터디를 한다는 것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알차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을 서로에게 물어보면서 이해해간다는 것이 부듯했습니다. 특히, 교재 <마이어스의 심리학 개론>을 통해 부족한 설명을 채워 알려주거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다양하면서도 세분화된 심리 장애의 종류와 치료방법에 대해 공부했던 심리 장애에 대한 스터디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월경전기 불쾌 장애도 우울장애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던 것처럼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접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으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윤*진 - 대학에서의 첫 전공 공부라 설레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때처럼 문제집을 풀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들과 함께 심리학 개론 공부를 하며 점차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을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부한 내용 중 특히 뉴런과 뇌 구조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과라 생명과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과인 동기가 한 명 있어서 책에 없는 설명까지도 들어 이해가 잘 됐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ZOOM에 모여 공부하다 보니 공부뿐만 아니라 친목도 다질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에 가서 제가 공부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동기들이 이끌어준 덕분에 기말고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함께라 더욱 의사의사 힘을 내 공부한 것 같습니다. 학습법 소모임은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팀명 : 물화조조

- 학습과목 : 물리화학 및 연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17. ~ 2021.04.1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17	20:00~22:00	ZOOM(화상)	물리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를 쌓고 팀원들과 토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03/31	20:00~22:00	ZOOM(화상)	에너지 보존 1법칙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의를 이해하고, 열역학 제 1법칙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응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04/07	20:00~22:00	ZOOM(화상)	열역학 제 2 법칙에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둘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04/14	20:00~22:00	ZOOM(화상)	열역학 제 3 법칙인 엔트로피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응용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권*림 - 2학년이 된 후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난도가 높아지면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더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습지원센터의 교과 스터디에 지원하게 되었다. 물리화학은 워낙 어렵기로 소문난 과목이다 보니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꽤 있었지만, 그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서로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 처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소모임 활동을 하며 서로의 공부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다소 까다로운 문제들도 같이 해결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미루다가 시험 전주에 급하게 공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새롭고 유익한 경험이었고 다음에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	--

[김*경]

1. 학습 목표

기본적인 물리화학의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하는 것과 동시에 물리화학 속 존재하는 기본적인 용어 및 정의를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2. 달성 내용 및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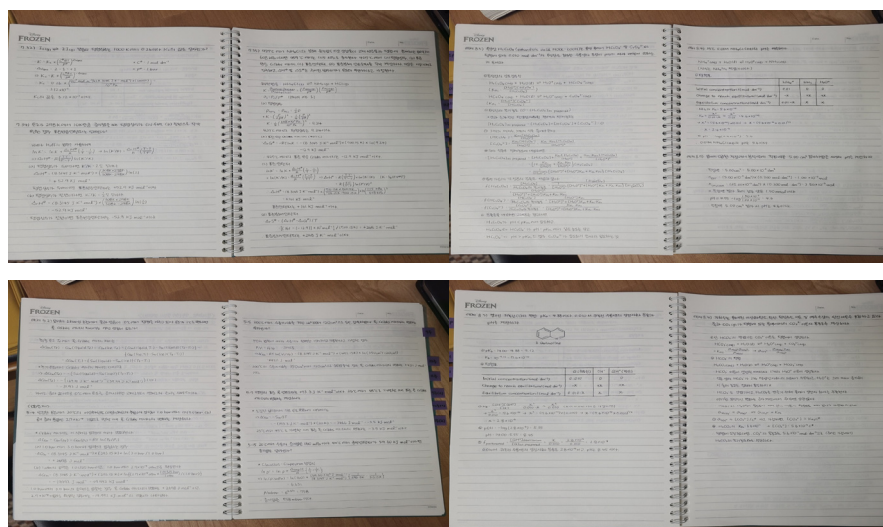
초반에 설정한 학습내용계획인 ‘중간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성질과 열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하고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연습문제를 풀이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문제 풀이를 보완한다.’에 맞게 문제 풀이 위주로 서로 보완하려고 했던 것 같고, 학기 중간중간마다 실시한 평가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3. 진행 과정과 방식

스터디 전 강의 시청 후 질의응답 및 문제 풀이를 기반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것이다. 강의를 시청한 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서로 질문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강의 후 과제 및 문제 풀이가 존재할 시에 이를 풀어나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 방식을 공유하면서 실력을 늘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도권 외 거리 두기 2단계 실시로 5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됨으로써 ZOOM을 이용하여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4. 결과 및 보충

교과 스터디 활동을 통해 여러 문제 풀이를 진행하였다.



5. 활동 소감

스터디를 진행한 ‘물리화학1 및 연습’ 과목은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물

론이고 퀴즈까지 진행하여 혼자 공부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서로 어려운 부분들을 공유함으로써 이해가 안됐던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었고, 아는 내용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ZOOM을 통해서만 스터디를 진행하여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어서 유익했던 활동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이 아닌 ZOOM을 통해서만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팀원들 각자 노력했기에 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가 스터디를 진행한 교과목인 '물리화학1 및 연습'은 '식품공학1 및 연습' 교과목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교과목으로 지금껏 배운 내용과 문제 풀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백*현 - 소모임을 했었던 때가 일학년 2학기에 처음 접하게 되어서 소모임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저번에는 토익 소모임으로 우수상을 선정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열정은 가지지 못했던 거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리화학 소모임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모두 다르고 그 방식에 접근하는 데 있어 누군가는 주저하지만, 누군가는 도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문제 풀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모임을 진행할 텐데 또 다른 주제로 소모임을 참여하여 뜻깊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최*혜 - 물리화학을 수강하면서 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앞서 활동 보고서에도 적어놨지만 나는 물리와 응용문제에 꽤 취약한 편이다.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소모임의 취지라 나는 소모임 활동이 매우 좋았다. 지난 토익 소모임 때는 활동을 단기간에 진행해서 성적의 발전이 미미했지만, 이번 소모임은 한 학기 동안 같은 동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지만 나는 오늘의 소모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짤 것이다. 소모임이 나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어 정말 감사하다.

최*지 - 학습내용을 잘 숙지하기 위해서 내가 헛갈리거나 알아두어야 하는 원리를 노트에 정리하였다. 연습문제에서는 단위를 변환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연습문제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안 가는 원리는 질문할 수 있어 도움을 받았다. 학습내용을 정리할 때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 학번 선배님들의 족보를 활용했고, 이것들이 실제로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전공 교수님의 출제 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팀명 : 바공케미

- 학습과목 : 일반화학1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29. ~ 2021.06.0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29	17:00~20:00	ZOOM	전체적인 개념 설명 이후 오답 예제 공유
06/01	20:00~22:00	ZOOM	전체적인 개념 설명 이후 오답 예제 공유
06/04	20:00~22:00	ZOOM	중간고사 시험 문제 풀이 후 이론 학습
06/05	20:00~22:00	ZOOM	스터디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풀이 후 이론 학습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다.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느낀 부분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을 서로에게 물어보고, 생각해 보며 해결한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 또한, 과목 특성상 문제 풀이가 많이 요구됐는데, 이 많은 문제들을 스터디 활동 시간에 풀어봄으로써 시간과 양 방면에서 보았을 때 큰 효율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일방적인 온라인 강의와 다르게, 친구들 간의 쌍방소통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더불어,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덜하다는 점과 온라인 강의보다 집중이 잘 됐다는 점에서 새로움을 느꼈다. 시험이 끝나고 보니, 친구들과 함께 기말고사 자료를 만들었던 것이 시험대비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우리들만 가지고 있다는 점이 성적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

팀명 : 바깥이들

- 학습과목 : 바이오의약품학 입문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30. ~ 2021.06.0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30	17:00~19:00	Zoom	처음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정리한 것을 토대로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후 제조합단백질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 사이토카인, 혈구 세포생성 촉진인자, 성장 인자, 호르몬류 등에 대해 정리하고 시장현황 및 전망에 대해 토론한다. 치료용 항체의 설계, 구조 및 역할 등 수업을 통해 스스로 노트 정리한다. 소모임을 통해 정리 노트를 공유하여 내용 정리를 한 후 항체 생산 기술의 진화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며 시장을 예측해본다..
04/15	17:00~19:00	Zoom	바이오베터의 개념과 바이오베터의 기술을 강의를 통해 먼저 학습한 후 소모임을 통해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바이오베터의 시장현황과 전망을 함께 조사한다. 백신의 역사와 좋은 백신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백신의 현황을 조사하여 전망에 관해 토론한다. 재조합 백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정리하여 서로 문제를 내고 설명하며 개념을 확실히 안다.
05/18	17:00~19:00	Zoom	세포 치료제와 다른 치료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분하며 학습하도록 한다. 세포치료제의 종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팀원들과 쪽지시험을 만들어 풀어보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한다. 세포 치료제가 어디에 쓰이는지 시장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정리하며 미래 전망을 예측해본다. 세포치료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해를 돕는다. 유전자 치료제의 기원과 기술의 종류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를 통해 스스로 익힌 후 소모임에서 퀴즈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유전자 치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료의 임상 연구 현황과 시장현황을 같이 조사한 후 정리해보며, 유전자 치료제의 문제들을 함께 인지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06/03	17:00~19:00	Zoom	재조합 단백질 개발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생산 세포주의 선정, 생산 세포주의 구축 및 특성규명에 관해 설명한다. 제조 공정 개발과 단백질 특정연구, 제제 연구 및 안전성 시험을 정리하여 문제를 만들어 내고 품질 관리와 보증에 대해 서로 설명하며 학습한다. 바이오의약품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제조되는지 학습을 통해 그 과정을 익힌다. 공정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보며 재조합 단백질과 치료용 항체의 제조 공정 차이를 구분하며 노트에 정리해본다. 노트 정리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며, 공정과 제조설비 등에 대해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민 : 원래는 함께 만나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지 못한게 너무 아쉬웠다. Zoom 강의를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소수의 친구들과끼리 Zoom으로 말하려니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혼자 공부했을 때와 이렇게 소모임으로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공부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었다. 혼자 할 때는 집중도 자꾸 흐려지고 효율이 없었는데, 다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니 훨씬 집중도 잘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박*정 : 코로나 종식이 열린 되어서 만나서 소모임을 하길 바랐지만 Zoom으로만 만나서 아쉬웠다. 하지만, 소모임을 하면 할수록 Zoom에 익숙해지고 비대면이 오히려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음번에도 비대면 소모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편한 시간대에 편한 장소에서 공부하면서 학습효율을 올릴 수 있었다. 암기를 해야 하는 과목이라서 서로 질의응답식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학습하면서 점점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황*진 :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고 Zoom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될 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공부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서로의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내용 정리를 하고 공유하고 퀴즈와 토론까지 진행하면서 혼자 공부를 진행할 때보다 더 내용을 심도 있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받기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	--

팀명 : 병원 약사가 되는 길

- 학습과목 : 의료기관 실무실습 II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17. ~ 2021.06.0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17	18:30~21:30	Zoom	〈약사업무 중재 사례 보고서 작성〉 병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를 통해 환자의 약물 정보를 확인해 보고 부작용에 대한 원인파악 및 약 사업무 중 중재의 역할을 한 사례에 대해서 토론했었다. 환자는 항암치료 중 항생제인 CFTX2(Ceftriaxone 2g)에 대해 가려움의 약물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투약을 변경하였다.
04/21	18:30~21:30	Zoom	〈약사업무 중재 사례 보고서 작성〉 병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를 통해 환자의 약물 정보를 확인해 보고 부작용에 대한 원인파악 및 약 사업무 중 중재의 역할을 한 사례에 대해서 토론했었다. 환자는 항암치료 중 항암제인 Oxaliplatin/Capecitabine(XELOX)에 대해 신경병증의 약물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으나 경과를 지켜보면서 항암치료를 유지하였다. .
05/12	20:00~22:00	Zoom	〈당뇨 SOAP NOTE 작성〉 병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를 통해 환자의 상태나 복용 약물 등 여러 환자 정보에 의거하여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에 대해 토론했었다. 환자는 당뇨 약물로 dapagliflozin propanediol(10mg) 1tab qd, Alogliptin benzoate(25mg) & Pioglitazone HCl(15mg), Insulin glargine(as human insulin 300I.U)10.913mg 1pen qd, Insulin aspart 30/degludec 70(3ml/pen) 1pen qd, Pioglitazone HCl 16.53mg 1tab qd 복용중이었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03	20:00~22:00	Zoom	〈당뇨 SOAP NOTE 작성〉 병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를 통해 환자의 상태나 복용 약물 등 여러 환자 정보에 의거하여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에 대해 토론했다. 환자는 당뇨 Insulin aspart 30/degludec 70(3ml/pen)을 점심식전에 8U 투여하였다가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 식전에 6U, 저녁식전에 6U으로 투여 변경하였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EMR을 처음 보다 보니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하지만 학습법 소모임을 하면서 같은 병원에서 실습하는 친구들과 병원에서 EMR을 공부한 후 집에 와서 줌으로 각자 공부한 EMR에 대해 토론했다. 놓쳤던 부분이나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서로 질문을 공유하면서 같이 해답을 찾기 위해 약물 치료학 책이나 약물치료 지침들을 많이 찾아보며 새로운 내용들도 알았고 복습도 할 수 있었다. 약물 이상반응평거나 SOAP NOTE라는 것이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과 그 근거가 중요한 데, 서로 내린 결론과 그 근거를 토론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마다 약물치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 공부했다면 10을 가져갈 수 있었던 실습이었겠지만 학습법 소모임을 하면서 100을 가져간 실습이 되었다.
------------	---

팀명 : 병원 약사의 길(상아로 찌르는 약치)

- 학습과목 : 의료기관 실무실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4. ~ 2021.05.1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4	17:30~19:30	ZOOM	전해질 불균형
04/28	17:30~19:30	ZOOM	위식도 역류질환
04/07	17:30~19:30	ZOOM	AKI,CKD,신장이식
05/12	17:30~19:30	ZOOM	IBS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한정된 강의시간에 광범위한 양을 소화하다 보니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수업 전에 튜터가 제공해준 필기를 토대로 예습한 것이 많이 도움 되었다. 미리 한번 내용을 숙지한 덕분에 받아적느라 급급했던 필기는 핵심만 기입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수업시간을 외우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약물 이름이나 특징에 관련된 암기법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 익숙지 않은 약물들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기억은 그 당시의 기분과 함께 저장된다는 말이 있듯이, 웃음과 함께 기억되어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복습의 경우 튜터가 알려준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르고 연관성 있게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약물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해당 과목에서는 질병에 관해 숲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게 더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튜터의 인도가 없었다면 우선순위 없이 공부하다 방향을 잡지 못했을 것 같다.
	공부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붙잡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느낀다. 나트륨 결핍량 계산 등 단순 암기가 아닌 응용을 해야 하는 내용도 많았기 때문에 튜터의 도움 덕분에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나아가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튜터가 직접 간단한 예비문제를 만들어주었는데, 여러 번 반복하여 숙지하다 보니 문제가 어렵지 않게 다가왔다. 운 좋게도 튜터랑 함께 다뤘던 계산문제가 중간고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팀명 : 분노의 약치질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1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0. ~ 2021.05.0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0	20:00~22:00	Zoom	Fluid, Electrolyte Disorders & Acid-Base Disorders
04/03	20:00~22:00	Zoom	Renal failure(Acute/ drug dosing/ chronic)
04/24	21:00~23:00	Zoom	Peptic ulcer disease, GERD, IBS
05/08	21:00~23:00	Zoom	liver cirrhosis, GI infection, Urinary tract infection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5학년 전공과목 중 약물치료학은 병의 특징과 그 치료법에 대해 배우는 과목으로, 실제 약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배우는 점에서 약대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과목이다. 약사로서 정말 중요한 과목이지만 양이 매우 방대하고 어렵기에 스터디를 신청하였다. 스터디를 통해 좋았던 점은 우선 매주 밀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다. 양이 매우 많은 수업이라 매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혼자서보다 더 강제성을 가지고 하게 되었기에 무사히 약물치료학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어려운 내용은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었던 점이다. 특히 함께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적용해보는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이 역시 혼자 하면 오개념이 쌓이기 쉬운데 여럿이서 함께 하여 더 명확하고 풍부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팀원들 모두 스터디에 매우 만족하여 방학 때도 스터디를 통해 복습 및 예습을 하기로 하였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한다!
------------	--

팀명 : 분발하게 생물학도여

- 학습과목 : 분자생물학
- 학습장소 : 집(google meet)
- 학습기간 : 2021.05.14. ~ 2021.06.0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4	13:00~19:00	google meet	12. Epigenetic mechanisms of gene regulation
05/21	13:00~19:00	google meet	14. The mechanism of translation
05/28	12:00~21:00	google meet	16. Genome Analysis:DNA Typing, Genomics, and Beyond
06/04	14:00~20:00	google meet	17. Medical Molecular Biology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은 - 익히 들어온 바가 있긴 했지만 피부로 느껴본 분자생물학은 정말 어렵고 공부에 힘든 학문이었다. 단언컨대 내가 대학을 들어와서 지금까지 공부한 학문 중에 순수하게 가장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모임을 진행하며 과목을 분자생물학으로 정한 게 너무 다행이라고 느꼈다. 한 학기 동안의 성취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소모임이 아니었다면 이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분자생물학을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한 소모임 중에 가장 수업 중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시간이 많았던 학기가 아니었나 싶다. 수업 중 배운 내용만 이해하기에도 벅차서 어떤 추가적인 학습이라던가 조금 흥미를 둘 수 있을 만한 활동을 친구들과 내 기준으로는 함께 많이 해보지 못한 게 아쉽다. 하지만 분자생물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어쨌든 이 소모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뿌듯하다. 다음 소모임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한다. 윤*정 - 처음 소모임 팀명을 정할 때, 분노한 생물학도도 있었다. 소모임을 마치고 나서 보니 분노한 생물학도가 더 잘 어울리는 듯하다.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에이 그래도 생물학 전공이라면 분자생물학은 들어야지~ 했던 과거의 나를 혼내주고 싶었다. 정말 분량이 너무나도 많았고, 내용도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서 수업
------------	--

시간 내내 이해를 못 하고 멍하니 있었던 것 같다. 만약 소모임 활동으로 이 과목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과목은 아예 쳐다도 안 봤을 것 같다. 친구들과 파트를 나누어 정리하고, 정리한 부분을 서로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것 자체로도 복습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비록 양이 많아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활동했지만, 결과적으로 분자생물학이라는 과목도 잘 마무리 지어졌다는 것이 뿌듯하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나를 많이 도와준 친구들에게 매우 고맙다.

양*영 - 2학년 때부터 들었던 분자생물학의 악명은 정말 두렵게 만들었고, 분자생물학 첫 시간부터 당황스러울 정도로 방대한 양과 극악의 난이도를 만나게 되었다. 수업이 이해가 되지 않아 수업시간 3시간은 더욱 두려웠다. 하지만,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제일 기초적인 개념 설명과 processing을 단계별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나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하니 더욱 힘이 나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열심히 설명하고, 또 토론하면서 반복한 학습은 분자생물학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과목이었다. 소모임의 효과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알 수 있었는데, 분자생물학 챗터 정리 및 설명하는 발표시간에 발표하는 다른 조들의 발표가 어렵지 않았고 쉽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개념을 잘 복습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함께한 소모임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

이*건 - 분자생물학을 선배들이 왜 굳이 3학년 때 들냐며 내년에 들으라고 많이 말해줬는데 왜 그랬는지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 처음 보는 내용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일단 내용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파악하느라 정말 오래 걸렸다. 게다가 교수님께서 3시간 풀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한 번에 몇백 장의 PPT가 지나갔기 때문에 속된 말로 '영혼이 털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한 챗터를 공부하느라 종일 걸린 적도 있었고, 내용이 이해 가지 않아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던 시간도 많았다. 그래도 힘들게 고생한 만큼 많이 배웠고 의생명과학의 꽃이라 불리는 분자생물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너무 고통스럽고 왜 해야 하는지 계속 의문이 드는 학문이긴 했지만 어려운 만큼 많은 것을 배운 학문이었다. 그렇지만 내년에 후배들이 이 과목을 듣는다면 굳이 3학년 때 들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싶다. 물론 3학년 때 듣는다고 말리진 않겠지만... 이 이상은 생략하도록 한다.

팀명 : 스트랩

- 학습과목 : 운동생리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5. ~ 2021.05.0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5	21:00~23:00	zoom	운동생리학의 11장인 산 염기의 균형을 다룬 내용을 다루었다. 조원들 만든 PPT와 PDF등 자료를 통해 운동 중 수소이온의 생성과 운동 중 산 염기의 조절이 왜 중요한지. 세포내, 세포 외에 서 일어나는 완충작용, 호흡계가 산-염기 균형에 미치는 영향과 신장에서 일어나는 산 염기 조절 작용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에는 산 염기와 관련된 건강 운동관리사 문제를 가져와 풀이하는 활동을 하였다.
04/25	21:00~23:00	zoom	운동생리학의 12장인 체온조절 앞부분을 다루었다. 운동 중 열평형과 체온 측정, 우리 몸에서 온도를 맞추기 위한 열 손실과 열 생성과 전방시상하부에서 일어나는 인체의 온도 조절장치를 발표자가 자료를 만들어 설명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마지막에 체온조절에 관한 내용을 다룬 건강운동관리사 문제를 가져와 풀이하였다.
05/05	21:00~23:00	zoom	전 시간의 내용을 다시 복습 후 운동생리학의 12장 후반 부분을 다루었다. 고온 환경에서 운동 시에 나타나는 땀 분비량과 운동 수행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추운 환경에서의 운동 시에 일어나는 운동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과 추위에 대한 순응과 성별과 연령에서 대한 열 조절 차이의 자료를 만들어 설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에는 오늘 다뤘던 내용의 건강 운동관리사 문제를 가져와 풀이하였다.
05/09	21:00~23:00	zoom	운동생리학 13장 트레이닝 첫 번째 부분 내용을 다루었다. (13장은 내용이 많아 3번 나눠서 스터디를하기로 결정하였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훈련의 기본원리 설명과 유전적 요인에 대한 최대산소섭취량의 관계, 훈련프로그램의 종목에 따른 최대산소섭취량의 변화, 비 훈련자와 훈련자의 최대산소섭취량의 변화 차이, 최대산소섭취량의 변화를 주는 심박 수, 1회 박출량, 동정맥 산소 차이와 이완기 혈액량, 심박출량, 심장 수축력의 정의를 설명하는 활동을 가졌다.
05/19	21:00~23:00	zoom	운동생리학의 생체 에너지화학에 대해 다루었다. 세포의 화학적 반응을 촉진 시키는 효소의 역할을 설명하고 세포 내 ATP의 구조와 기능, 무산소성과 관련된 생화학적 경로와 유산소성 생산에 대해 배우고 운동 시 발생하는 유산소성 및 무산소성 ATP 생산을 논의하고 해당작용과 시트릭산 회로의 작용속도를 제한하는 효소들에 대한 내용을 스터디 하였다
05/24	21:00~23:00	zoom	운동생리학의 활동에서는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었다. 저항성의 운동에 따른 근력증가와 근비대가 발생하는 신경학적 적응 현상과 저항성 운동에 따른 골격근 섬유의 주요 변화들을 설명, 저항성운동으로 인한 근육성장증가를 초래하는 신호적 자극과 장기간의 근력트레이닝을 중단이 근섬유의 크기와 힘과 재훈련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스터디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근력과 근지구력이 왜 근력 증강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류*영 - 한 학기 동안 2학년 때 배웠던 운동생리학을 동기, 후배들과 함께 스터디하였다. 혼자였다면 흐지부지됐을 한 학기를 계획에 맞게 발표를 준비하고 문제를 풀며 알차게 보냈다. 아직도 어려운 과목 중 하나가 운동생리학이지만 스포츠의학공부하며 운동생리학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공부할 계획이다.
	김*서 - 이번 스터디 활동에서는 건강 운동관리사 자격증을 대비해 시작한 운동생리학 내용을 다루게 되었다.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몰랐던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동기, 후배들과 함께한 스터디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어 어려운 내용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발표를 한 뒤에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약한 부분을 더 보강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같이 스터디에 참여한 후배와 동기들에게 무척 감사하고 다음 스터디 활동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싶다.

조*서 - 처음 스터디를 권유받았을 때 이제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성적과 자격증 등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같은 학과지만 다른 길을 추구했었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같은 준비를 하면 결국에는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은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적과 자격증, 그리고 실무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스터디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친구들도 있고 큰 기대 없이 그 스터디 자체보다 같이하는 친구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스터디에 참여했었다. 그렇게 같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선 스터디라는 시스템은 전공 수업에서는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고르라면 역시 쉽게 의견을 물어보고 모르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편함? 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닌 원래 알던 친구, 후배들에게 직접 자신이 공부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것은 접근성에서도 자신감에 있어서도 엄청 큰 효과를 낸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스터디를 하면서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1학기 스터디를 마무리하는 지금은 스터디를 하기 정말 좋했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그래서 같이 와준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앞으로 계속 더 같이하자고 말하고 싶다.

최*은 - 운동 생리학을 주제로 진행한 교과 소모임을 하며 많은 도움을 얻었다. 2학년 때 전공과목에 운동생리학이 있었지만, 나에게서는 취약한 과목이라 따로 학습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소모임을 통해 스터디를 하며 그때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같이 배워나가며 알아가게 되었고 건강 운동관리사 기출문제 또한 풀어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제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들 학기 중이라 바쁘지만 매주 꾸준히 스터디를 지속하였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앞으로 다른 과목으로도 이런 스터디를 진행하면 좋겠다. 함께한 부원들에게 감사하다.

임*원 - 소모임을 시작하기 전, 아직 2학년이고 많이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선배님들과 스터디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가 끝난 지금, 얻어가는 것이 참 많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동기의 발표를 참고하고 나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발표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현재 배우고 있는 운동생리학 내용에 대해서 예습 및 복습을 할 수 있어 학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과정은 고등학교 때부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소모임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의학과 동기가, 선배님들이 생겼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스터디를 해 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를 만들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한 학기동안 힘들었고, 재밌었고,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 - 처음에 운동생리학 스터디를 선배님들이랑 한다고 해서 선배들과 차이가 너무 나지 않을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스터디를 몇 번 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응이 되고 난 후에는 처음 걱정과는 다르게 발표 준비도 하고 질문도 생겼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은 내용까지도 미리 학습하게 되어서 다음 수업을 들을때 더 잘 이해돼서 좋았습니다. 선배들이 저희를 맞춰주려 하시는게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편하게 스터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공부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앞으로의 스터디 활동이 더 기대됩니다.

팀명 : 시냅스(Synapse)

- 학습과목 : 일반생물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9. ~ 2021.06.1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9	21:00~23:00	zoom	Chapter1. Biology:Exploring Life Chapter2. The Chemical Basis of Life 역할 분담 및 학습전략 계획 세우기 2. 일반생물학 챕터별 문제 제작 후 공유 및 풀이를 통해 학습 정도 파악 3. 챕터별 개념 정립 및 심화 공부를 통한 전공 공부
04/10	21:00~23:00	zoom	Chapter3. The Molecules of cells Chapter4. A Tour of the Cell 1. 일반생물학 챕터별 문제 제작 후 공유 및 풀이를 통해 학습 정도 파악 2. 챕터별 개념 정립 및 심화 공부를 통한 전공 공부
04/24	21:00~23:00	zoom	Chapter5. The Working Cell Chapter6. How Cells Harvest Chemical Energy (세포호흡) Chapter7. Photosynthesis (광합성) 1. 일반생물학 챕터별 문제 제작 후 공유 및 풀이를 통해 학습 정도 파악 2. 챕터별 개념 정립 및 심화 공부를 통한 전공 공부
04/28	21:00~23:00	zoom	Chapter6. How Cells Harvest Chemical Energy (세포호흡) Chapter7. Photosynthesis (광합성) 1. 일반생물학 챕터별 문제 제작 후 공유 및 풀이를 통해 학습 정도 파악 2. 챕터별 개념 정립 및 심화 공부를 통한 전공 공부 3. 챕터 브리핑을 통한 전체적인 흐름 잡기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한*성 - 우리는 처음 스터디 모임을 할 때 많이 어색했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함께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우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스터디 모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얼떨결에 내가 조장을 하게 되어서 책임감이 막중했다. 혼자 하는 공부에 익숙해 있던 터라, 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처음이라 힘들음을 예상했다. 그래서 지도교수님께 자문을 구해 일반생물학 전공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수님께서는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방식의 Question&Answer 방식의 공부법이 효율적이라고 추천해주셨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챕터별로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도 추천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을 적용해 공부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학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 개의 챕터 각각에서 한 사람당 3개씩 문제를 만들고 하나의 문제지로 편집하여 함께 줄을 키고 문제를 풀었다. 이후에는 각자 만든 문제를 설명하고 풀이함으로써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틀리게 설명하는 부분이나 잘못 정립한 개념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고 함께 공부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다. 학업적으로 많은 양의 공부량을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혼자서 공부하던 습관을 깨고, 다양한 친구들과 질문을 통해 공부하니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던 점이 가장 좋았다. 이번 스터디 모임이 아니었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처음 대학교 시험이라 막대한 공부량에 압도당해 힘들었을 것이다. 스터디를 통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좋은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오*영 - 대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스터디 모임을 하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다. 어색한 사이에서 스터디 모임을 만들게 되다 보니 우리 스터디 모임의 목적과 활동 방향,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평소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이번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역시 얻은 점이 많았다. 줌으로 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각자 3문제씩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 헛갈리는 내용들이 많았고,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복습하다 보니 더 기억에 잘 남게 되었다.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따로 한 챕터씩 공부를 해야 했다. 혼자였으면 계속 미뤄서 시험 전까지도 범위를 다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내서 공부하려고 했다. 그 덕분에 시험 전에 범위를 여러 번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고, 내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만 공부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모임을 하게 되면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듣고 공유하면서 좀 더 체계

적이고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대학교에 올라와서 첫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스터디를 하면서 친구들과 고민, 걱정을 나누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서*리 - 처음 스터디 모임을 기획하고자 친구들이 모였을 때는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들었다. 대학교 첫 소모임이기도 하고 아직 어색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가진 것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다. 하지만 조장이 팀을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소모임 친구들도 그에 따라 잘 맞게 행동해주면서 초반보다 더욱더 공부하기에 적합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대면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기도 했지만 둘 다 도움이 되었다. 특히, 시험은 서로가 시험에 나올 법한 예상문제를 기출로 내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었었는데, 소모임 시험지에서 나왔던 문제가 정말 시험에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몇 번 보면서 큰 도움이 됐었던 것이 기억난다. 또한, 나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저 이해보단 암기하고 넘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소모임 친구들과 모르는 문제를 공유하며 왜 이런 답이 나왔을지를 생각해 보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에는 각자 한 챕터씩 맡아 리뷰 형식으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전반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활동이 있었기에 대학교 첫 시험에서 긴장이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꼭 붙잡고 싶다.

윤*현 - 교수님 분들이 모두 강조하셨던 학과공부에 대한 흥미를 기르기 위해 학업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모인 스터디여서 시작하기 전에도 많이 기대되었다. 친구들과 만나 학업 계획을 회의를 통해서 전공과목인 일반생물학의 공부할 주요 포인트를 잡았다. 영어 교재로 공부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을 영어로 연습하고 문제를 직접 영어로 만들어 보고 서로 풀어보는 활동을 하자고 결정하였다. 또한, 담당 교수님이신 박경순 교수님과 만나 뵙고 직접 영어 단어장을 만들고 영어로 문제를 만들고 서로 푸는 활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 같다고 격려해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특히 문제를 만들고 풀기 활동에 열심히 임했었다. 특히 첫 번째 중간고사 전에 친구들과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볼 때 혹시 문제가 겹치지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친구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다르고 한 사람이 교수님이 강조했던 포인트를 모두 기억하지 못해서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냈던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첫 번째 중간고사의 성적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 평소 전공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소모임을 통해 전공 공부를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기만 한 친구들끼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까마득했지만 서로 공부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갖고 있었기에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놓친 상세한 부분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잡을 수 있었다. 일반생물학을 중심으로 교과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서로 문제 내주기, 단어 시험 보기, 핵심내용 브리핑해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활동으로 많이 진행되었지만, 책의 내용이나 책에는 없는 심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혼자 하기에 부담스럽고 막막한 전공 공부를 재밌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러웠다. 중간고사 성적도 만족할 만큼 나왔고 학업 성취도도 매우 높다. 다음에도 이런 소모임 활동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다.

이*훈 - 첫 대학 생활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랑 공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모임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맨 처음에는 어색한 친구들이랑 공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그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절로 공부가가 따라오는 느낌이었다. 모임이라는 것이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뒤처지면 모두가 뒤처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모임 진도에 맞춰 공부해서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고 모임에서 짠 계획대로 공부했던 거 같다. 그리고 혼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6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어서 좀 더 섬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 같았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지만, 비대면이어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공부하고 싶을 때는 줌을 켜서 같이 공부하면서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 같다. 모두 중상위권에 들면서 좋은 성적을 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 같다.

팀명 : 아싸아니조

- 학습과목 : 학습심리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01. ~ 2021.05.1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8	16:00~19:00	ZOOM	강의 내용 요약 후 핵심 포인트 정하고, 서로에게 문제 내고 답하기
03/31	13:00~16:00	ZOOM	강의 내용 요약 후 핵심 포인트 정하고, 서로에게 문제 내고 답하기
04/02	18:00~21:00	ZOOM	강의 내용 요약 후 핵심 포인트 정하고, 서로에게 문제 내고 답하기
04/08	18:00~21:00	ZOOM	강의 내용 요약 후 핵심 포인트 정하고, 서로에게 문제 내고 답하기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진*하 - 서로에게 질문하면서 공부하니깐 내가 보지 못한 부분도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었고, 특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좋았다. 더 쉽게 기억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하기에 쉬웠다. 이렇게 공부한 것과 다르게 이번 학습심리학 중간고사는 비대면 오픈북으로 이뤄져서 열심히 외운 것이 크게 효과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으니 후회는 없다. 예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공부하던 방식이 생각나서 좀 그리운 느낌도 났던 것 같다. 오랜만에 머리를 쓰고 외우려니까 잘 안되는 것을 느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비대면 오픈북 방식의 시험이 늘어난다면 암기하려는 부분도 대면 시험보다는 줄어들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공부하면서 외웠던 것들은 계속해서 잊지 못할 것 같다. 고전적, 조작적 조건형성은 심리학도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실험이다. 예전에는 어중간하게 알아서 누군가가 “어? 너 심리학과니까 이런 거 알지 않아?”라고 물어봤을 때 어리바리하게 대답하고는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공부하고 외워둬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	--

현*이 - 교과목으로 스터디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공부하니 복습도 하고, 몰랐던 부분도 같이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서로 예상문제를 뽑아주고 암기법을 공유했던 것이 스터디의 목적에 걸맞게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다. 선택 교과목이 학습심리학이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우리의 스터디 학습에 적용해가며 2차 복습을 할 수도 있었다. 미리 스터디 할 내용을 정해두고 강의를 들으니, 강의를 들을 때도 집중하게 되어서 일석이조였다. 학습심리학 중간고사는 객관식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오픈북이었던가. 프린트를 보며 문제를 찾으면 됐었지만, 헛갈리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었다. 스터디하는 친구와 함께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문제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오답을 비교해봄으로써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었다. 학습심리학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손다이크 결합설의 세 가지 기본 법칙이다.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암기법을 새로 지정하여 외웠다. 앞글자만을 따서 효연+준이 사귄다는 스토리텔링까지 만들었다. 종강을 해도 손다이크 결합설의 세 가지 기본 법칙은 까먹지 않을 것 같다. 학습심리학 내용을 통해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단어들에 스토리를 붙여서 암기하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 학기만 해서 매우 아쉽다. 다른 과목들도 이런 식으로 스터디로 같이 한다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서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다르니까 강의 내용을 한번 더 상기시킬 수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입으로 내뱉으면서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할 수도 있다. 학습은 점진적이라는 정의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학습을 배워서 효과적인 결과를 내고 싶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자주 참여하고 싶다.

팀명 : 약린이와 약치공부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11. ~ 2021.06.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11	19:00~21:00	ZOOM	처방약어 암기. 신장질환 학습법. patient case study 진행
05/18	19:00~21:00	ZOOM	뇌졸중 학습 및 암기. 환자 case별 SOAP 작성
05/25	19:00~21:00	ZOOM	위장관 질환, 감염질환 학습 및 암기. patient case study 진행
06/18	19:00~21:00	ZOOM	당뇨 학습 및 암기. patient case study 진행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약물치료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터디원들과 복습하고, SOAP 작성을 통해 공부하다 보니 어려웠던 과목도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었고, 막막했던 약물 치료학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졌습니다. 또한, 조원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알려주면서 더욱 효율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각자 맡은 파트의 정리본을 만들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함께 매 회차 테스트를 한 것도 어느 누구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서 동기부여도 확실히 되고 더욱 좋은 스터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각 회차마다 한두 명의 튜터가 하나의 주제를 맡아 진행하였는데, 그 회차의 튜터가 책임감을 가지고 스터디를 이끌지 않았더라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만족스러운 스터디였고, 다들 약물 치료학 과목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 성취감 높은 활동이 되었습니다.
-------------------	---

팀명 : 약물치료학., 이게 머선129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10. ~ 2021.03.2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10	13:00~15:00	ZOOM비대면	Fluid, Electrolyte Disorders
03/17	13:00~15:00	ZOOM비대면	Acid-Base Disorders
03/21	13:00~15:00	ZOOM비대면	Acute Renal Failure (ARF)/ Drug Dosing in Renal Failure
03/25	13:00~15:00	ZOOM비대면	Chronic Renal Failure (CRF) /Peptic Ulcer Disease (PUD) 질병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약물치료학 1, 2〉 과목은 약물의 임상적 사용을 다루는 학문으로, 질병의 병태생리학적 특성과 진단 기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치료 목표 수립과 약물학적/비약물학적 치료와 모니터링을 하는 학문이다. 이를 학습하기 위해 약물들의 효능과 부작용을 숙지하고 질환 계열 별 핵심이 되는 약물 기전들과 메커니즘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상에서 해당 약물들이 적용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기준을 확립하고 치료알고리즘을 이해한다. 나아가 임상에서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사례들을 파악하고자 했고 국가고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까지 심화 연계 학습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물치료학 머선129 스터디〉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학습했다. 특히 학습량이 많았기 때문에 매주 비대면 강의를 제시간에 학습하고 복습하는 스케줄을 엄수하고자 노력했다. 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하부르타 학습법, 마일리지 제도, 연상 암기법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핵심내용을 암기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보강 학습하며 이해를 도왔고, 매주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진도를 함께 맞춰가며 꾸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

무엇보다 어려웠던 심혈관계, 신장 관련 단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했다. 학기 중의 심화 학습을 토대로 중간, 기말시험 기간들에는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핵심내용 위주의 복습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여 시험 기간 중 문제를 풀고 최종 정리에 더 매진할 수 있었다.

비대면으로 모든 스터디를 진행했었지만 대면 스터디 이상의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스터디를 마무리했다. <소다미 팀원>로 4학년 때부터 꾸준히 활동하며 더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고 학습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든든했다. 국가고시를 대비할 때도 학우들과 협력을 통해 열심히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조원 소감 한마디]

장*래 - “함께 약물 치료학 공부하면서 모르는 내용들 친구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우분들 다 너무 똑똑해요~”

최*빈 - “약물치료학 초반부 내용들 중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번 계기로 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현 - “약물치료학이 어려운 과목이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보충할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약치 3, 4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활동 사진]



팀명 : 영차영차

- 학습과목 : 약물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9. ~ 2021.06.1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6	10:00~11:30	온라인(줌)	항고혈압약 챕터를 마인드맵을 통해 학습하고 서로 설명해가며 학습. 최종적으로 마인드맵 문제로 알았던 것을 점검하였음.
05/18	10:00~11:30	온라인(줌)	혈관확장약 및 협심증 단원을 수업내용을 기초로 병리학 적 기전을 함께 암기하며 확인 문제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음
05/21	10:00~11:30	온라인(줌)	심부전 단원을 학습하는데 약물의 작용 기전별로 클래스를 나누어 학습하고 이를 확인 문제로 확인하였음
05/31	10:00~11:30	온라인(줌)	이뇨약 단원을 학습하는 데 있어 세뇨관에서 뇨의 이동, 각 위치에서 작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복습함. 이뇨약이란 뇨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약물이지만 그 기전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여러 분류를 잘 요약 및 그룹화하여 마인드맵을 제작하여 학습하였음. Histamine, Serotonin, 맥각 알칼로이드류 단원 또한 다양한 체내 autacoid류를 학습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함.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약물학이라는 과목을 수학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병리학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한 학기를 통틀어서 약물학 수업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암기할 양이 많은 과목이었다. 따라서 미리 반복 학습을 진행 할 수 있었던 교과스터디를 운영하면서 학습했던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한 가지 병에 대해서 환자마다 각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다 다르므로 이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파트를 나눠 추가적으로 학습하였다. 교수님이 설명하신 부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교
------------	---

과서를 정독하며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통해 잘 파악하고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약물학은 이전에 배웠던 해부학-인체생리학 등과 이어지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예전에 배웠던 내용은 빠르게 상기시키고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확인 문제의 제작은 주로 마인드맵과 그 내용에 빈칸을 뚫어 채우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니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 부분을 다시 체크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참여자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가졌다.

또한 한번 만들어놓은 확인문제 양식은 시험기간에도 효율적으로 공부 할 수 있었다. 많은 양을 봐야하는 약물학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도 이미 공부한 방법과 자료로 이미 헛갈렸던 부분을 확인하고 빠르게 내용을 복기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기말고사를 마칠 수 있었다.

팀명 : 우리는 미치니깐 청춘이다

- 학습과목 : 미술치료봉사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8. ~ 2021.05.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8	15:00~17:00	줌	미술치료란? 1) 미술치료를 심리학적 이론의 틀에서 이해 2) 미술 작업의 창조 과정이 치유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04/22	14:00~16:00	줌	미술치료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와 현재 우리의 자질
05/01	10:00~12:00	줌	미술치료가 가진 힘
05/20	17:00~19:00	줌	미술치료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제대로 복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돌아보면서 전공 기초 지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혼자 했더라면 완료하지 못했을 내용을 동기들과 함께 하여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되었던 전공 이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교류 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술치료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아 질환, 소아우울증, 치매, 중풍 등의 노인 재활, 불안, 우울 등의 정신신경계 질환 등 심리치료에 유용한 보조요법으로 미술치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현장에 맞는 미술 치료가 정립되어 많은 이들이 미술 치료를 접하고 치유의 힘을 얻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더 나아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술을 통한 심리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미술치료자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요소들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학습하기로 함께 약속하였습니다.
------------	---

팀명 : 으랏차cha

- 학습과목 : 생화학 및 생화학 실험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12.03.31. ~ 2021.05.2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31	20:00~22:00	각자 집(zoom)	생화학 1장 생화학의 기반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다. 생화학을 배우면서 필요할 1학년 때 배웠던 일반화학, 일반생물학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는 단원이다.
04/07	20:00~22:00	각자 집(zoom)	수용액에서는 약한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들은 집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단백질, 핵산, 다당당류와 막 지질의 3차원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액은 산도가 클수록 pH가 낮아지고 약염기는 수소이온을 받아들여 pH를 높인다. pKa는 로그값으로 나타내고 강산일수록 그 pKa는 낮아지고 강염기일수록 pKa는 높아진다. 또한 산이나 염기의 적정곡선의 중앙점에서의 pH가 된다.
05/12	20:00~22:00	각자 집(zoom)	monosaccharides, disaccharides의 구조, 이름, 특징을 더 구체화하여 알아보고 당지질, 당단백질의 생물학적 기능도 알아보았다. 유기화학 시간에 배운 이성질체와 연결해 monosaccharides를 그려보고 enantiomers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울상이 아닌 이성질체인 Diastereomers에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Epimer를 설명하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cyclic structure 형성 기전에 대해 화학적으로 접근해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파트인 환원당을 사용해서 당뇨병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기전에 대해 생화학적으로 알아보며 충분한 양의 인슐린 안 만들어져 생기는 질병인 insulin-dependent diabets mellitus에 대해 알아보았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29	20:00~22:00	각자 집(zoom)	Enzyme의 생물학적 의의나 작용 기전에 대해서 ppt로 같이 공부 후 모르는 부분은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알려주신 부분이 competitive inhibition, incompetitive inhibition, mixed inhibition 그래프와 효소의 자유에너지 계산식이었다. 그래프의 경우 복잡하고 각자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서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같이 이해하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에 일반화학에서 배운 자유에너지 구하는 식들을 remind 하면서 식을 같이 유도해가는 과정을 가졌다. 1. • 지방산은 탄화수소 유도체이다. • 트라이아실글리세롤은 글리세롤의 지방산 에스터이다. • 트라이아실글리세롤은 저장 에너지와 단열재를 재공한다. • 요리할 때 쓰이는 기름의 부분적인 수소화는 트랜스 지방산을 생성한다 • 밀랍은 저장 에너지와 방수제 역할을 한다. • 막의 구조를 이루는 지질 • 글리세로인지질은 포스파티드산의 유도체이다 • 몇 가지 인지질은 지방산이 에터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 엽록체는 갈락토지질과 황지질을 포함한다 고세균은 독특한 막 지질을 가지고 있다 • 스펡고지질은 스펡고신 유도체이다 • 세포 표면의 스펡고지질은 생물학적 인식 자리가 된다 • 인지질과 스펡고지질은 용해소체에서 분해된다 • 스테롤은 유압된 4개의 탄소 고리를 가지고 있다 • 포스파티딜이노시톨과 스펡고신 유도체는 세포 내부의 신호로 작용한다 • 아이코사노이드는 주위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한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조직 간의 정보를 전달한다. • 관다발 식물은 수천 가지의 휘발성 신호를 생성한다. • 비타민 A와 D는 호르몬의 전구체이다. • 비타민 E와 K 그리고 지질 퀸론은 산화-환원 반응의 보조인자이다. • 돌리콜은 생합성에 필요한 당 전구체를 활성화 시킨다 • 지질의 추출에는 유기 용매가 필요하다. • 질량 분광법으로 완벽하게 지질의 구조를 알 수 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우 - 교과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장점은 각 단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소모임 조원들이기 때문에 조원들은 발표를 자신이 맡은 단원을 열심히 준비해야만 나머지 조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므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 시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발표를 듣는 입장에서 보면 발표자가 뒷사람이 아닌 친구기 때문에, 만약 발표자에게 보완할 점이 있다면 누구보다 잘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듣는 중간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눈치 보지 않고,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등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진행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친구들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소모임을 통하여 친구들 얼굴도 보고 재밌게 공부도 하여 즐겁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윤*원 - 업로드 된 강의를 보고 개인적으로 학습하며 1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그 후 발표자료를 만들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며 2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발표하고 튜티들과 예상 문제 및 의문점을 주고 받으며 3차적으로 학습하였다. 혼자서 공부했다면 강의를 듣는데서 그쳤을 학습이 튜터링을 통해 반복학습을 하며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었다. 또 튜티들과 함께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것이 추후 시험대비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튜티이지만 이번 챗터에서 이해가지 않았던 부분을 밝히고 튜티들과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학습효과를 키워줬던 것 같다.
	김*원 - 강의 중 궁금했던 점, 이해가 가지 않는 생물학적 기전에 대해 질문하고 생화학뿐만이 아닌 세포생물학, 유기화학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며 질문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학습 토론을 할 기회는 많지 않고 그러므로 융, 복합적 사고를 기르기 힘들었는데 사람이 여러명이라 다양한 생각과 질문이 나오고 서로의 질문에 반박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었다. 단순히 내용 암기식으로 하

는 공부가 아닌 토론까지 이어지는 깊은 지적인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 매우 의미 있었다. 3학년 때 전공 지식을 익혀 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박*정 - 평소에 화학을 어려워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교과 스터디 활동을 통해 그 어려움을 동기들이랑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교과 스터디를 통해 공부하는 동기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다. 각자 맡은 부분을 ppt로 만들어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발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주제를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다. 1학년부터 소모임을 빠짐없이 참여해왔는데 앞으로도 소모임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

박*민 - 소모임 활동을 매주 해야하다보니, 생화학 예습, 복습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 할 수 있었고, 혼자서 공부할 때에는 잘 지키지 못한 부분들을, 그룹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많이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과 대충 넘어갔던 부분도 다른 조원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본 내용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인해 개인의 공부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후자쪽으로 공부하는 것이 기억도 잘 나고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팀명 : 의약구조대

- 학습과목 : 의약화학 2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26. ~ 2021.05.3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26	20:00~22:00	ZOOM	Ch. 18 내용에 해당하는 강심제, 협심증 치료제, 부정맥 치료제와 관련하여 수업 내용 정리, SAR 암기, 약물 구조 및 특징 암기
05/10	20:00~22:00	ZOOM	Ch. 19 내용에 해당하는 이뇨제와 관련하여 수업 내용 정리, SAR 암기, 약물 구조 및 특징 암기
05/24	20:00~22:00	ZOOM	Ch. 21 내용에 해당하는 교감신경 차단제 및 혈관 확장제와 관련하여 수업 내용 정리, SAR 암기, 약물 구조 및 특징 암기
05/31	20:00~22:00	ZOOM	Ch. 22 내용에 해당하는 고지단백혈증 치료제 및 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제와 관련하여 수업 내용 정리, SAR 암기, 약물 구조 및 특징 암기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고*영(약학과 17) - 이번 스터디에서 조장 역할을 맡아 조원들을 이끌었습니다.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조장으로서 모두의 시간을 조율하여 스터디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였지만, 동기인 조원들이 평소에 서로를 잘 배려하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조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화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구조를 암기해야 하고, 정말 외울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힘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조원들과 함께 암기하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돕는 과정이 과목에 대한 실력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원 모두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져 다가오는 기말고사 준비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을 확인해 보아야 알겠지만, 조원 모두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	---

김*주(약학과 17) - 지금까지 여러 번의 조모임과 스터디를 참여해 봤었지만, 이번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스터디는 없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 센터 프로그램 하에서 스터디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스터디가 느슨해지지 않게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학습법소모임에 선발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다면 아무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느슨해지고 결석자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주 달성해야하는 목표와 제출해야 하는 결과물이 있다 보니, 다 같이 분발해서 정해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기만 하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교과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과목은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업을 듣는 동안 '이번 주 범위에서 어떠한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일까?'와 같은 생각을 하며 한시도 집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스터디를 진행한 학우들과 학기 초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스터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통해 동기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보람찬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손*정(약학과 17) -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암기해야 할 것도 많아 의약화학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구조를 암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원들과 모여 같이 암기하는 과정에서, 조원들이 쉽게 암기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공유해준 덕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도움을 주는 조원들이 있었기에, 저 자신에게 어려운 이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과목 특성상 심화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했지만, 조원과 스터디를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게만 생각하기 보다는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돌파구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정(약학과 17) - 처음 의약화학 스터디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히 전공과목 중 암기할 부분이 많은 과목이고, 어려워 보여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무작정 외워야 할 부분이 많고, 너무나 많은 양에 의욕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장님과 팀원들이 함께 이끌어주고, 혼자 했다면 포기했었을 부분들까지 배우며 공부하니 점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주고, 스터디를 마무리 하며 반성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니, 모임을 거듭할수록 제 자신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시간에 놓친 부분은 서로의 정리본을 보며 미루지 않고 이해해나갔던 것은 시험기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희 조원뿐만 아니라 스터디에 참여중이지 않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한 번 흥미가 없어진 과목은 학기가 끝날 때 까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조원들에게 너무 고맙고, 이번 스터디를 통해 너무나도 얻은 것이 많아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조원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습니다.

이*혜(약학과 17) - 저는 화학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학을 잘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른 동기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스터디를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의약화학에 기초가 쌓여 다른 모든 약학 전공과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약화학 스터디를 선택하였습니다. 의약화학은 다른 약학 전공과목에 비해 무작정 외우기 보다 어떤 구조가 어떤 활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동안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파악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약개발과정에서 스크리닝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여 의약화학 스터디를 선택하였습니다. 다들 그동안 쌓인 많은 유기화학적 지식들을 심분 활용하니 서로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터디가 잘 돌아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내가 배워 가는 것이 있을까? 라는 걱정은 몇 번의 활동으로 인해 싹 지워졌습니다. 예습과 복습으로 수업의 이해도는 높아졌으며, 서로간의 친밀함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터디로 인해 많은 공부가 되었고, 비록 시험을 잘 치지는 못하더라도 지적자산이 되어 귀중한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스터디가 존재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스터디를 할 것입니다.

정*경(약학과 17) - 처음에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을 지닌 의약화학이라는 학문의 진입장벽이 컸습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실전에 도입하는 훈련 과정까지 두 과정이 모두 어렵고 복잡해 잘 따라가기가 어려웠지만, 동기들과 함께 여러 번 이론을 반복하고 암기하니 어려운 것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선 가르치는 자신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동기들과 토의를 거치며 자신이 아는 점과 모르는 점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해나가며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혀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마운 것은 역시 동기들입니다. 초기에 의약화학이 어려워 잘 따라가지 못하던 저에게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주며 이해시켜 주었고, 그 덕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런 소모임 학습법과 같은 동기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 없이 참여할 것입니다.

최*웅(약학과 17) - 저번 학기에 의약화학을 처음으로 수강했을 때 정말 막막하였습니다. 그동안 유기약화학의 의약품제조화학을 통해 쌓인 유기화학적 지식으로 충분히 의약화학을 수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의약화학을 공부하

면 할수록 단순히 유기화학적 지식이 도움되기 보다는 암기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에 학기가 끝나갈 때쯤 의약화학에 흥미를 거의 잃은 상태였고, 물론 성적도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방학 때까지 이어졌고 다음 학기에 또 의약화학을 수강할텐데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해 나갈지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마침 의약화학 교과스터디 소모임을 할 기회가 주어졌고, 동기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며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배우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학습해 가며 동기들이 어떻게 암기하고 정리해 나가는지 많이 배워나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약화학에 대한 흥미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놓아버렸을 수 있는 의약화학을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붙잡고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택(약학과 17) -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울까? 하는 걱정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을 항상 스쳐 갔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들여 책상에 앉아 무턱대고 외우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올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교과스터디를 진행한 의약화학에 있어서는 그 걱정들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교과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매주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외우고 정리하였는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잘못 공부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암기하고 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 배워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번 학기부터 의약화학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팀명 : 의약! 재 뛰

- 학습과목 : 의약품 제조화학II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3. ~ 2021.05.3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3	16:00~18:00	zoom	약물학 I chapter 11. 항고혈압약
05/10	16:00~18:00	zoom	약물학 I chapter 12. 혈관확장약 및 협심증 치료, 13. 심부전 치료약
05/24	16:00~18:00	zoom	약물학 I chapter 14. 심부정맥 치료약, 15. 이뇨약
05/31	16:00~18:00	zoom	약물학 I chapter 16. Histamine, Serotonin 및 맥각알칼로이드류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약물학 I Chapter 11부터 16까지 소모임을 통해 같이 학습하였다. 1회차에서는 한 명이 튜터를 맡아 해당 chapter의 내용을 공부해서 알려주고 질문을 받아 함께 모르는 부분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회차에서는 각자 번갈아가면서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치료전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진행하다보니 소모임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3, 4회차에서는 같이 복습하고 정리하고 바로 암기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현 - 여러 약물들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혈압 조절기전을 배경으로 정리하다보니 약리기전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었다. 중간고사 때 배웠던 약물들을 실제 질병에 대입해서 치료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게 되니까 더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서로 암기한 것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진행하니까 더 잘 정리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뇨약에서 작용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스터디를 통해 공부하니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은 친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설명도 해보며 기억에 오래 남는 공부할 수 있었다.
	김*정 - 약물들을 정리하고 임상적 예시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약물들의 부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만 듣고는 개념이 금방 휘발되는 느낌이었는데 스터디를 통해서 다 같이 정리하고 약물도 암기한 것을 누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좋았다. 항부정맥 약물에서 활동전위의 변화 그래프와 매치하는 것이 처음 혼자 복습할 때 어려웠는데 스터디를 통해 이해하고 공부하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김*솔 -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자율신경계 조절 기전들에 대해 복습한 후 약물들의 임상적 이용에 대해 서로 토론해봄으로써 혼자 개념을 익힐 때보다 재미있었고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 같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약물학 내용뿐만이 아니라 병태생리학 내용도 함께 정리할 수 있어서 수업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다. 매 수업이 끝난 뒤 해당 약물을 정리하고 외우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스터디를 통해 해당 주치의 약물을 그때그때 복습하고 외울 수 있어서 좋았다.

박*희 - 처음엔 방대한 내용과 약물들에 헛갈리기도 했는데 체내의 혈압조절 기전들과 약리기전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직접 설명하기도 하며 토론하다보니 더 이해도 쉽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 방대한 양을 혼자 학습하려니까 막막했었는데 분량을 정해서 다시 차근차근 복습하고 동기들이랑 말하면서 외운 것을 확인하니깐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항부정맥 약물과 이뇨약 단원이 특히 양이 많고 어렵다고 느꼈는데 함께 공부하며 극복할 수 있어서 좋았다.

팀명 : 의합지졸

- 학습과목 : 의약품제조화학2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5. ~ 2021.05.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7	10:00~12:00	ZOOM	drug discovery 혹은 methodology, natural product synthesis를 키워드로 논문 주제 각자 선정하기 전신마취약물(Enflurane, Etomidate 등)을 배우면서 인명반응인 Williamson ether synthesis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Radical Halogenation이 일어날 때 기본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공부하기
04/09	10:00~12:00	ZOOM	수면진정약물 (Phenobarital, Triazolam, Flurazepam 등)을 학습하면서 Strecker reaction에 대해 알아보고 imine hydrolysis로 어떤 작용기가 공통적으로 얻어지는지 비교해보자
04/14	10:00~12:00	ZOOM	drug discovery로 선정한 주제 발표 및 토론(30분 이내) 항정신병약물(Chlorpromazine, olanzapine, Haloperidol)에서 Mannich reaction와 Eschweiler-Clark reaction에 대해 알아보고 olanzapine 과정에서 일어나는 Gewald aminothiopene synthesis를 자세히 공부해본다
04/16	10:00~12:00	ZOOM	항경련약물(Baclofen, sodium valproate, Ethosuximide)등을 공부하면서 Retroclaisen condensation, Michael addition, Knoevenagel condensation 등을 학습하면서 카보닐제거반응 및 첨가반응에 대해 공부해본다.
04/21	10:00~12:00	ZOOM	methodology로 선정한 주제 발표 및 토론(30분 이내) 항불안약물(Chlordiazepoxide, Diazepam, oxazepam)에서 Diazepam의 기본 build block은 무엇인지 학습한다. 또한 한가지 의약품에 여러 가지 합성법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학습해본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23	10:00~12:00	ZOOM	항우울약물(Imipramine, Clomipramine, Amitriptyline)에서 이탈기 Cl 이외에 Iodide, bromide 는 쓰지 않는지에 그 이유에 대해 탐구해보고 Cl 과 관련하여 Homoallylic rearrangement에 대해 공부한다. antagonists
04/28	14:00~16:00	ZOOM	natural product synthesis 로 선정한 주제 발표 및 토론(30분 이내) 중추신경흥분약물(Theophylline, Amphetamine, Methylphenidate)에서 Henry reaction; Nitro aldol condensation을 공부하고 Leuckart RXN에 서 카보닐 공격반응 후 분자내 산염기 반응을 공부한다.
04/30	10:00~12:00	ZOOM	마약성진통제(Naloxone, Pentazocine, Fentanyl)에서 Von braun reaction에서 아민계열 친핵체가 NC-Br에 어떻게 반응하여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인명반응 중 Finkelstein rxn으로 SN2 반응을 살펴본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정*욱 - DDS를 통해 Organic Chemicals와 biological system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고 DDS가 생체내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생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유기화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기존의 약이 적용되는 원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신약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혜 - 정말 실습 이후로 오랜만에 의약품합성학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스터디를 통해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자세히 익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기화학적 작용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질병에 따라 약물이 생체 내에서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정 - 동기와 함께 공부하면서 의약품 합성학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의약품들의 작용기 특징을 하나하나 분류해보면서 파악하니 내용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또한, 임상에서 이런 유기화학적 구조의 약물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스터디였습니다.
------------	---

팀명 : 임상전문약사가 되기까지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집, 병원실습지
- 학습기간 : 2021.03.23. ~ 2021.06.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3	17:30~18:30	집, 병원실습지	폐암 NCCN 가이드라인 정리, 처방전 검토(폐암 환자), 다빈도 항암프로토콜 익히기
04/01	17:00~19:00	집, 병원실습지	Lung cancer 환자사례 review (노인 환자 대상) 노인 대상 부적절 약물 (Beer's criteria) 노인 대상 약물상호작용
05/06	17:00~19:00	집, 병원실습지	계획서 내용 변경 신생아중환자실NICU 신생아약물요법: 신생아호흡곤란증 후군, 동맥관개존증, 신생아괴사성장염 신생아약물요법 정리(사례중심의 약물치료학 교과서), 신생아약물동력학, 신생아 치료 가이드라인, 진료지침 조사
06/10	17:00~19:00	집, 병원실습지	계획서 내용 변경 PHO 소아 항암병동, 항암제 정리, 혈액암 정리 (CML,AML,ALL)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호지킨림프종 등 소아 혈액암 환자 case review(SOAP, FARM note 작성), guideline, 치료법 research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문헌을 찾을 일이 무척 많았고, 영어로 된 논문과 자료들을 읽는 시간들이 매우 많았다. 영어로 모든 자료들을 읽는 것이 버겁긴 했지만 실습을 하면서 익숙해졌고, 스터디를 하면서 도움도 서로 받을 수 있었다. 병원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실력도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 있는 학습법소모임 제도를 활용하여 학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번에는 이 소모임을 활용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어공부 스터디를
------------	--

한다면, 앞으로 더 능력있는 약사가 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매 학기 학습법 소모임을 하면서 소모임으로 약물치료학 공부도 하였고, 이번에는 실습하는 동안 임상약학에 대한 내용을 스터디하였다. 확실히 스터디를 하니깐, 병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심화하여 공부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자료도 남겨놓을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 스터디가 아니었다면 실습할 동안 그냥 바쁘게 흘러가는대로 지나갔을 것 같은데, 소모임을 하면서 배운 내용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동기와 함께 얘기하면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약사가 되어 할지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었다.

임상약사로서 기반을 다지고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였다. 결과물도 많이 나와서 앞으로 공부할 때 좋은 자료들이 될 것 같다. 스터디가 아니었으면 정리본도 많이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부듯하다. 국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약사가 돼서도 종종 찾아볼 자료들일 것 같다. 마지막 6학년 동안 쪽 스터디를 열심히 하면서 국시준비도 열심히 하고 좋은 약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항암제 정리 표를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혼자 정리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만들지 못했었다. 그런데 스터디를 하니깐 함께 분량을 나누고 더 좋은 내용으로 표를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계열별로 함량, 부작용, 주의사항까지 알 수 있었다.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하니깐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어 무척 부듯했다. 스터디의 순기능을 느낀 것 같아서 좋았다.

소아병동은 성인에 비해 용량이 많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문헌검색도 많이 하면서 소아의 약물치료법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었다.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질환들과 약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환자들이 무척 많아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었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약사로서 환자들에게 최적의 약물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아픈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모임을 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었고, 어떤 약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다. 이번 학습법 소모임을 발판 삼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약대생활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좋은 약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번 학기 정말 귀중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감사하다. 학교에서 서울아산병원이라는 좋은 실습지를 가게 되어 감사하고, 소모임제도를 활용해 실습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듯하고 감사했다.

팀명 : 파이오니어(PIONEER)

- 학습과목 : 일반생물학, 일반화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15. ~ 2021.06.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5	21:00~23:00	Zoom 학습	일반 생물학 & 일반 화학 전공 학습 및 질문지
04/16	21:00~23:00	Zoom 학습	일반 생물학 & 일반 화학 전공 학습 및 질문지
05/10	21:15~22:00	Zoom 학습	일반 생물학 & 일반 화학 전공 학습 및 질문지
05/15	21:00~21:50	Zoom 학습	일반 생물학 & 일반 화학 전공 학습 및 질문지
06/03	21:00~23:40	Zoom 학습	일반 생물학 & 일반 화학 전공 학습 및 질문지
06/10	22:00~00:56	Zoom 학습	일반 생물학 & 일반 화학 & 실험 학습 및 질문지
06/11	22:00~01:12	Zoom 학습	일반 생물학 & 일반 화학 & 실험 학습 및 질문지와 요약본 공유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전공과목에 대한 학습을 위해 스터디 소모임을 구성하였으며 매회 각자 배운 강의를 복습하고 질문지를 만들어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히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이해가 안된 부분은 매회 물어보고 가르쳐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했으며 이것을 피드백 삼아 각자 학습한 부분에 대한 요약본을 만들어보기도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과목에 대한 학습도 틈틈이 하며 서로의 향상된 시험 성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처음 접한 전공 과목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었으며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 또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소모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오는 모습 덕분에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기도 한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	---

팀명 : 혜성은 진지해 ver.2

- 학습과목 : 노인상담
- 학습장소 : 집(google meet)
- 학습기간 : 2021.05.29. ~ 2021.06.1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29	14:00~18:00	개인별 자택/ Google meet	노인상담 과목 中 노인 인권
06/05	14:00~18:00	개인별 자택/ Google meet	노인상담 과목 中 노인 성 문제
06/11	14:00~18:00	개인별 자택/ Google meet	노인상담 과목 中 노인 자살
06/19	14:00~18:00	개인별 자택/ Google meet	노인상담 과목 中 노인 치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박*원 - 노인상담이라는 과목이 프로그램을 짜보고 시연을 해봐야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혼자서는 막막했던 부분들이 함께 하니까 더 쉽고 즐겁게 느껴졌다. 팀원들도 프로그램을 처음 짜보는거라 모르거나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힘이 되었다. 또, 노인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다른 조의 노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수업에서 봤던 것들 이외에도 더 자세히 분석해볼 수 있어서 노인상담이라는 과목에서 얻어가는 것보다 더 얻어갈 수 있는게 많았던 것 같다.
	유*민 - 노인에게 많은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노인상담은 정말 어려운 수업이었던 것 같다. 관심사가 아니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료 찾는거나 프로그램 짜는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팀원들과 다른 조들의 주제를 분석하고 공부를 하다보니 노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상담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게 되었던 것 같다. 나 말고 다른 팀원들도 나와 같이 배우는 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윤*희 - 나는 원래 혼자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금방 지쳐하는데 팀원들과 같이 공부를 하니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다. 사실 다른 조 발표할 때 못듣고 놓친 부분도 많았는데 팀원들이 내가 못들었던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 정보에 더 살을 붙여 주니까 내용이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다. 또한, 팀플을 하면서 힘들고 고생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팀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칭찬하고 피드백을 해주니까 나의 부족한 점을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주*지 - 노인상담을 수강하면서 항상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질문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서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팀원들과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탐구를 하다보니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도 자연스레 어느정도 해소되었고 팀원들이 내가 궁금하는 점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는 모습을 보며 소속감을 느꼈던 것 같다. 혼자였으면 계속 몰랐을법한 부분을 팀원들을 통해 알아갈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함*윤 - 제가 평소에 노인분들과 같은 다른 세대들의 마음이나 심리에 대해서 접하거나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노인상담 강의를 수강하면서 저를 포함한 또래의 마음이나 심리외에도 노인분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팀원들도 저와 같이 열정이 넘쳐서 다같이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학습법 소모임이 열리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 학 년 도 1 학 기 학 습 법 소 모 임 활 동 사 례 모 음 집

II. 비교과 스터디

II. 비교과 스터디

팀명	팀원	학과
단기토익 (우수)	박*람	약학과
	이*미	약학과
영차영차 (우수)	최*혁	약학과
	임*식	약학과
	홍*화	약학과
	강*관	약학과
차약그룹 영어토익반	김*우	약학과
	손*나	약학과
CHAAI	전*제	SI보건의료학부
	박*림	SI보건의료학부
	박*현	SI보건의료학부
	신*채	SI보건의료학부
v넥	허*웅	SI보건의료학부
	함*상	SI보건의료학부
	전*제	SI보건의료학부
니CHI판러마	정*정	약학과
	안*빈	약학과
	배*희	약학과
	이*민	약학과
달리자 자전거	김*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편*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대진필(대학원 진학 필수)	최*림	상담심리학과
	김*성	상담심리학과
	박*원	상담심리학과
	최*진	상담심리학과
독도는 우리 은행 땅	이*주	약학과
	김*미	약학과
	최*희	약학과
	박*연	약학과
	윤*연	약학과
독약	이*현	약학과
	김*정	약학과
	김*솔	약학과
	박*희	약학과
	박*린	약학과
사약이 필요해	고*영	약학과
	김*주	약학과
	손*정	약학과
	오*정	약학과
	이*혜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정*경	약학과
	최*웅	약학과
	홍*택	약학과
사현이 취보	박*현	스포츠의학과
	김*진	스포츠의학과
	박*현	스포츠의학과
	박*주	스포츠의학과
세계로 나아가죠	윤*원	약학과
	정*정	약학과
	태*정	약학과
송송이	송*영	약학과
	김*희	약학과
	임*연	약학과
	이*민	약학과
	문*인	약학과
	강*망	약학과
수지의 험난한 여정	이*정	바이오공학과
	이*지	바이오공학과
스페인에 올라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민*기	약학과
	박*	약학과
	이*지	약학과
슬기로운 영어 자취생활	김*인	약학과
	신*영	약학과
	임*영	약학과
언어마스터	유*위	약학과
	안*민	약학과
에드어바웃	김*영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최*진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최*영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영또팀	최*은	상담심리학과
	전*정	상담심리학과
	정*현	상담심리학과
	조*은	상담심리학과
	정*주	상담심리학과
오므라이스	정*주	바이오공학과
	지*서	바이오공학과
	이*윤	바이오공학과
자양강장제	장*희	SI보건의료학부
	강*지	SI보건의료학부
컴활제패	박*언	SI보건의료학부
	주*지	SI보건의료학부
통깨로 컴활따자	김*솔	약학과
	김*인	약학과
	류*우	약학과
	한*훈	약학과
	김*정	약학과

팀명 : 단기토익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17. ~ 2021.06.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17	20:00~22:00	각자의 집, zoom 미팅	각자의 학습법에 맞게(박*람 학우 : 온라인 모의고사, 이*미 학우 : 기출문제) 공부한 후 서로 틀린 내용을 공유하여 함께 오답을 진행하였다. 특히 호주 발음과 단어, 어법을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였다.
05/31	20:00~22:00	각자의 집, zoom 미팅	실습 여건 상 짧은 온라인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3세트씩 풀고 오답을 공유하는 것으로 학습 방법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다. LC와 RC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예를 들어 등장인물의 직업을 묻는 문제에서 real estate agent 단어의 반복적 등장) 내용을 확인, 이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였다.
06/07	20:00~22:00	각자의 집, zoom 미팅	RC의 단어, 어법을 집중적으로 잡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단어장을 만들 때 단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문장을 함께 정리하여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06/11	20:00~22:00	각자의 집, zoom 미팅	6월 12일의 시험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를 주 3회 푸는 시간을 가졌다. 짧게 진행되던 온라인 모의고사와 달리, 긴 시간동안의 집중력을 요하는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LC part3,4와 RC part7의 뒷부분에서의 오답률이 높았다. 따라서 단어, 어법보다는 그동안 비교적 소홀했던 지문 내용 파악 문제에 대한 오답을 함께 진행하였고, 서로의 답 찾기 팁을 공유하였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박*람 - 3월에 시험을 보았는데 만족할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아 6월 시험을 미리 접수해두고 약 한달 반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이전과는 달리 꼬박꼬박 온라인 모의 고사를 풀었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둘 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미 - 하반기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앞두고 토익 점수가 필요하여 작년에 시험을 본 적이 있었다. 이때는 비대면으로 시간도 많았으나 혼자 준비하다 보니 자꾸 미뤄두었고 결국 준비없이 시험을 치러 만족할만한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습을 하면서 스스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박예람 학우와 함께 서로 진도를 체크하고 오답을 같이 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점수를 통해 하반기 취업 준비가 조금 더 수월해지길 바란다. 퇴근 후 힘들었을텐데도 함께 오답을 진행해 준 박예람 학우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	---

팀명 : 영차영차



- 학습과목 : 해부학, 미생물학
- 학습장소 : 과학관 102호
- 학습기간 : 2021.05.04. ~ 2021.05.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4	13:30~15:30	과학관 102호	해부학 용어 정리_Upper extremity 5월 4일 수업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선별해 직접 그려보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선 깊이 있게 토론함
05/06	14:30~16:30	과학관 102호	미생물학 용어 정리_“미생물 감염체의 학명” 및 “미생물의 대사”, “영양요구성에 따른 분류” LMS 대체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미생물 대사”와 “미생물의 영양 요구성 유형”에 대해 학습 후, 남은 시간은 “미생물 감염체의 학명”에 관한 퀴즈를 시행
05/18	13:30~15:30	과학관 102호	해부학 용어 정리 _ Lower extremity 5월 18일 수업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선별해 직접 그려보고, 서로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짐
05/20	14:30~16:30	과학관 102호	미생물학 용어 정리_“미생물 감염체의 학명” 및 “미생물의 유전_분자생물학의 기초” LMS 대체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미생물의 유전_분자생물학의 기초”에 대해 학습 후, 남은 시간은 “미생물 감염체의 학명”에 관한 퀴즈를 시행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최*혁 - 학습법 소모임이라는 학습지원에 참여 하기 전 다소 딱딱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약대에서 학습하는 과목들도 부담이 되었기에 소모임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를 신청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해부학과 미생물학 두 과목 모두 암기해야할 용어들이 많았으며 모두 영단어로 학습하였기에 평소 공부하는 과목들에 비해 시간과
------------	--

노력이 배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조원들과 이야기해 보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런 공감대는 저희의 학습모임의 질을 점점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소모임이 끝난 뒤에도 저희끼리 모여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시험을 준비 했고, 준비한 부분에 대해선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 학기나 계절학기로 학습법 소모임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쯤 꼭 해보기를 추천하며 소감 및 종합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관 - 처음 약대에 와서 해부학을 접했을 때는 왜 약대에서 해부학을 하는지 궁금했다. 뼈 이름을 외우는 것과 약을 공부하는 것이 연결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터디를 통해 공부를 계속하며 해부학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몸에 대한 구조와 많은 기능을 해부학을 통해 익혔기 때문에, 앞으로 약을 공부하며 기초지식으로 많이 활용할 것 같다. 미생물학은 약에 대해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미생물은 약 그 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약의 효능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약과 깊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에 대해 공부할 때 미생물이 자주 사용될 거라 생각했다. 벼락치기로 공부했다면 기억이 나중에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스터디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장기기억으로 넘어가 나중에도 이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임*식 - 처음 해부학과 미생물학이라는 과목을 접하면서 막막한 느낌이 컸다. 교과목 스터디를 직접 할 수도 있었지만 교과목 공부는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귀찮을 수 있는 비교과 영어스터디를 동기들과 하게 되었다. 먼저 용어에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미생물학과 해부학에 관련된 단어를 학습 소모임에서 외웠고, 용어와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이번 학기 전공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소모임 활동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혼자서는 귀찮아서 안했을 것 같은 공부를 팀원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었고, 활동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팀 공부를 할 때 동기부여를 해준 것이었다. 학생들이 직접 방향성을 찾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학습소모임 활동은 의미가 크고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홍*화 - 이번 학기에 미생물학과 해부학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두 과목 다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었기에 생소했고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마침 학습법 소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학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매 시간 수업이 끝난 후 스터디원들과 모여 해당 범위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서로에게 설명해주며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고 시험기간에는 각자 중요한 내용, 출제 될 것 같은 내용을 시험지로 만들어 공유하며 풀이하고 해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덕분에 스터디원들 모두 만족스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약대 공부 특성 상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정보를 공유하며 학습하는 것이 유리한데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학업성취도와 친구들과의 유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기쁘고 다음 학기에도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팀명 : 차약그룹 영어토익반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30. ~ 2021.06.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30	19:00~22:00	집	<토익실전 문제풀기> 1. 실제 토익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커스 토익 1000 제2 LC&RC문제를 풀어본다. 2. 문제 난이도와 소감, 시간 배분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시험에 대한 리뷰를 한다. 3. 공통으로 틀린 문제, 헛갈린 문제를 위주로 오답노트를 한다.
04/13	19:00~22:00	집	<VOCA시험 및 오답분석> 1.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출제한 voca 암기 테스트 시험지를 풀어보고 채점해본다. 2. 이전에 본 실전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파트, 공통적으로 틀린 문항을 위주로 취약점을 분석해본다. 오답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비슷한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보며 공부한다.
05/04	19:00~22:00	집	<토익실전 문제풀기> 1. 실제 토익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커스 토익 1000 제2 LC&RC문제를 풀어본다. 2. 문제 난이도와 소감, 시간 배분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시험에 대한 리뷰를 한다. 3. 공통으로 틀린 문제, 헛갈린 문제를 위주로 오답노트를 한다.
06/01	19:00~22:00	집	<VOCA시험 및 오답분석> 1.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출제한 voca 암기 테스트 시험지를 풀어보고 채점해본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 이전에 본 실전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파트, 공통적으로 틀린 문항을 위주로 취약점을 분석해본다. 오답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비슷한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보며 공부한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4년간의 약대생활 끝에 어느덧 졸업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던 대부분 어학 점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는데, 입시 이후로 영어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이 없었던 저희는 조금 막막했습니다. 실습 때문에 토익학원을 다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도 했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 함께 학습법 소모임을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토익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고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난이도에든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 토익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총 4회의 스터디를 진행했으며, 스터디 진행시간은 약 3시간이었습니다.
	1. 실전 감각 기르기 실전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 실제 토익 시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함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같이 살고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동안 시험을 치렀습니다. 함께 문제를 푸니 혼자 풀 때보다 긴장감이 있었고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 공부 진도 체크 및 단어 암기 스터디 때마다 다음 스터디 전까지 풀어야할 모의고사 분량을 지정하고, 이를 확인했습니다. 학기 중이라 시간을 내어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친구와 함께하는 스터디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토익 고득점을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스터디 때마다 단어테스트를 쳤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푼 후 모르는 단어는 바로바로 정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몰랐던 단어 하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 구문을 함께 암기했습니다. 3.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모의고사별로 틀린 문제를 파트별,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했습니다. 예전에 혼자 공부할 때는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key point가 무엇이었는지 토의하여 각자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스터디 때 취약 유형위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파트

3,4에 틀린 문제 대부분이 호주 발음으로 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때 호주 발음으로 출제된 지문은 주요 키워드 위주로 dictation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확인한 후에는 성우를 따라 함께 쉼도잉을 했습니다. 직접 따라 읽으니 문제를 풀 때 점점 발음이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4. 문제 푸는 TIP의 공유

토익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지만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시험 칠 때의 tip을 공유하며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어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LC 문제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경우 답을 선택하는 요령,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법 문제를 파악하는 요령 등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LC점수가 높은 친구의 조언듣고 문제가 나오기 전에 지문과 보기 미리 읽어두기, 문제 의문사에 동그라미 쳐두기 등의 방법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 이전 시험보다 LC점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결과는 점수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문제를 풀고, 오답을 체크하는 수동적인 공부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서 ‘능동적인 공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기에 공부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 시간을 내서 하는 어학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를 북돋아가며 의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스터디를 통해 공부한 결과 저희는 905점, 880점이라는 점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토익스터디는 단순히 출석체크나 단어 암기 확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습법 소모임에서는 서로가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어보기도 하며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학습법 소모임을 신청할 것이고 후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팀명 : CHAAI

- 학습과목 : 전공 심화 연구
- 학습장소 : 카페, 집
- 학습기간 : 2021.04.05. ~ 2021.06.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6	15:00~18:00	잠실 부근 카페	모든 부원들이 대면으로 만나 전체 회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05/18	19:00~22:00	온라인 줌	각자 생각해본 설문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 하는 시간이었다.
05/26	17:00~21:00	온라인 줌	저번 활동 때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께 피드백을 다시 한 번 받았고,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의논했다.
06/01	15:00~18:00	온라인 줌	논문의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핵심적인 키워드를 추출함과 동시에 부원들의 역할 분배를 진행했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학부생 연구팀 CHAAI는 전공 심화 학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팀을 꾸려 바로 도전하게 되었다. 우리 연구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방향성을 잊지 않고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우리의 활동은 자율적인 전공심화 연구를 통해 깊이 있는 전공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주제 선정부터 전체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며 소모임 활동을 진행했다. 처음 진행하는 과정이기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주제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 그렇기에 관련 문헌조사를 많이 진행했던 것 같다. 팀원 모두가 참여한 설문조사 문항 제작,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자료조사 등 다양한 기초연구 활동을 통해 학부생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 주제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떤 주제가 흥미로울지 생각해보며 조사결과를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었다. 또한 팀원 간,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의 초점을 두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흐름 파악과 문헌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닌 팀을 꾸려 단체로 진행했기에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고, 지속적인 교수님의 어드바이저를 통해 배워나가며 방향성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	--

다양한 정보들을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처음 시작보다 더 발전된 CHAI팀이 될 수 있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시작으로 작용하는 주제 선정은 아직까 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정하며 방향성에 대해 연구하 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점에 도달할 것이다. 팀원들과 꾸준한 의견 교류를 통해 원활 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회차마다 전공 관련 지식이 쌓이게 되어 다양한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기회를 소모임을 통해 얻을 수 있었 고, 향후 진행할 계획들에도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모든 팀원이 소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학부생 자치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모두 열심히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준비하고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다함께 목표했던 바 를 성취하고자 한다.

팀명 : V넥

- 학습과목 : 약물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23. ~ 2021.06.1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23	10:00~12:00	온라인 zoom	〈LC를 위해 영어 듣기 향상〉 단어 퀴즈 시험활동, 토익기출 공식입문서 LC 문제 풀이 진행, 스터디 그룹 내 자체 퀴즈시험 대비 준비 및 퀴즈 시험 실시
05/30	10:00~12:00	온라인 zoom	〈RC를 위해 영어 독해 능력 향상〉 개별 어휘테스트,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RC 형용사,부사,명사어휘 문제풀이 및 오답노트 작성 진행
06/10	10:00~12:00	온라인 zoom	〈모의토익 오답노트〉 5월 실전 토익 시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오답노트 활용법 토의, 모의고사 오답 문항 단어정리 및 퀴즈시험실시
06/19	10:00~12:00	온라인 zoom	〈토익 듣기평가〉 모의토익활동진행, 쉼표잉 반복 연습, part2 와 part4에 집중하여 스터디 활동 진행

○ 학습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우리팀의 경우 매 회차 스터디 활동을 조금씩 다르게 진행하였다, 1회차에서는 LC를 위한 영어듣기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LC빈출 어휘들을 함께 공부하고 자체 퀴즈시험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익기출 공식 입문서 교재를 공동구입하여 문제풀이를 진행함으로써 다함께 공통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다. 매일 영어공부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팀원들과 같은 교재로 같은내용을 함께 공부하며 영어공부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도 좋았다. 영단어테스트와 자체퀴즈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거기에 기출서 공부까지 병행하려고 하다보니 생각보다 공부양이 많아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였지만 ‘스터디활동’이라는 하나의 의무적인 공부 덕분에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	---

두 번째 스터디활동에서는 RC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해 문항들에 대해 공부를 진행하였다. 1회차 스터디 이후 개별 학습을 통해 생각보다 ‘기본’문제들에서도 오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형용사/부사/명사 파트에 대해 공부를 진행하였다. 빈출어휘에 대해 공부하고 이에 대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기본이 탄탄해야 점수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다양한 영어문제를 양으로 풀기보다는 나의 약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던것 같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활동에서는 각각 오답노트 작성과 듣기평가를 실시하였다. 5월 실전 토익시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오답노트 활용법을 함께 고안하고 어떻게 하면 오답을 줄일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던것 같다. 팀원들 각각 토익시험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유형이 존재하였고, 이는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였다. 서로 자신이 잘하는 부분과 약한 부분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공부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만의 공부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2021-1학기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혼자가 아닌 팀원들과 함께 영어 토익 스터디 활동을 진행하며 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의 영어공부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스터디활동이 마무리되었지만 여기서 그치지않고 꾸준히 영어공부를 진행함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원하는 목표점수에 도달하고 싶다.

팀명 : NCHI판리마

- 학습과목 : 중국어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9. ~ 2021.05.2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9	20:00~22:00	Zoom	동태조사: 하부르타 학습법 동태조사가 무엇인지, 문장에서의 적절한 위치는 어디인지, 각 품사들과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함께 학습
04/16	20:00~22:00	Zoom	결과보어: 하부르타 학습법 결과보어의 정의, 결과보어의 문장구조, 결과보어를 만드는 품사, 결과보어의 사용 예시를 함께 학습
05/19	19:00~21:00	Zoom	접속사 종류 정리: 하부르타 학습법 병렬관계, 인과관계, 진일보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문장 만들기
05/24	19:00~21:00	Zoom	가능보어와 정도보어 정태보어: 하부르타 학습법 가능보어의 위치와 쓰임이 잘못된 유형, 정도보어의 위치와 쓰임이 잘못된 유형, 정태보어의 위치와 쓰임이 잘못된 유형을 함께 학습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2016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36만4천명으로 이중 중국인 환자는 12만7천명(35.1%)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중국인 의료관광은 이미 매우 흔한 일이 되었고 미래의 약사로서 우리들도 중국어를 자유롭게 한다면 이들을 환자로 만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중국어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글로벌 사회에서 약사로서 훨씬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외국어 공부를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만들어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이번 스터디를 계기로 더욱 깨닫게 되었다. 혼자 공부할 때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발음들도 함께 해보며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었다. 진도에 있어서도 혼자 했다면 자꾸 미루고 기간도 연장되었을텐데 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	---

중국어는 성조나 문법이 어려웠는데 매번 스터디를 하며 함께 발음하고 문장 만들기를 하다 보니 작문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겼고 문법도 훨씬 쉽게 익힐 수 있었다. 서로 더 좋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추천을 해주기도 하며 모두의 중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였다.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어 친목도 다지며 중국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 스터디 때는 앞으로 또 어떤 비교과 스터디를 할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중국어를 보다 심화해서 공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다른 언어를 공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스터디의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기에 구성원 모두 스터디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다. 약국에서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암기를 해보자는 것에도 모두 동의하였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6학년인데 졸업시험, 국가고시 모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스터디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니Chi판러마 스터디원들 모두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함께 즐거운 공부를 해보자!

팀명 : 달리자 자전거

- 학습과목 : GTQ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30. ~ 2021.06.0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30	10:00~12:00	ZOOM	교재(포토샵 CC 무작정 따라하기)와 온라인 강의(유튜브 채널 '디자스')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 익혔다.
04/06	10:00~12:00	ZOOM	온라인 강의(유튜브 채널 '디자스')를 참고하여 펜툴 사용법, 문자 효과, 필터 효과, 색상 보정, 클리핑 마스크 등 GTQ 시험에서 항상 출제되고 실무에서도 주로 쓰이는 효과들을 이해하고 적용 방법을 익혔다.
05/04	10:00~12:00	ZOOM	앞서 배운 기능을 바탕으로 사진이나 그림 색상 보정, 다양한 패턴 제작, 펜툴을 이용해 간단한 모양 만들기 등 쉬운 예제에 적용해보았다.
05/11	10:00~12:00	ZOOM	GTQ 문항(1번~4번)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문항에 맞는 효과들과 이에 맞는 단축키를 숙지했다.
05/18	9:30~11:30	ZOOM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보며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더했다.
05/25	9:30~11:30	ZOOM	지금까지 익힌 효과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환경, 뮤지컬, 사회이슈)로 카드뉴스를 제작해보았다.
05/28	9:30~11:30	ZOOM	기출문제로 모의시험을 보며 시험 대비를 했다. 실제 시험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연습을 했다.
06/01	9:30~11:30	ZOOM	기출문제로 모의시험을 보며 시험 대비를 했다. 모의시험을 보고 팀원들과 서로 피드백하며 작업물의 완성도를 높였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학과 졸업 요건 중 하나가 GTQ 자격증 2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저학년 때 미리 취득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과 동기들과 함께 소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종강하기 전까지 학기 중에 GTQ 시험을 보기 위한 실력을 갖춰놓고 방학을 이용해 시험을 보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표였다. 모임
------------	--

초반에는 온라인 강의(유튜브 채널 '디자스')를 통해 포토샵의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을 학습하고 실제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술들을 익혔다. 도구 사용법을 어느 정도 습득한 후에는 시험 문항에 대해 분석하고, 모의시험을 치른 후 서로의 답안을 돌려보며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공부해나갔다. 아직 시험을 치러보지는 못해 객관적인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포토샵 프로그램의 구성조차 모르던 셋이 모여 현재에는 사진 및 이미지 편집, 웹디자인 등 기초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 부듯하고 의미 있었다.

김*연 - GTQ 자격증은 졸업 전까지만 취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면 긴장감 없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스터디를 하다 보니 꾸준하고 책임감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자격증을 위한 공부만이 아니라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도구들을 익히고,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술들도 함께 학습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 배운 포토샵 능력은 이후에 공모전에 참가하거나 대외활동을 지원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원 - 지난 겨울 방학에 독학으로 엑셀을 공부했었는데, 연습을 한 후 나의 결과물을 평가해 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포토샵을 공부할 때에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하니 나의 답안을 봐줄 친구들이 있어 특히 좋았다. GTQ의 경우 실기시험이고, 사람이 직접 채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평가가 오답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 또한 공부를 할 때 혼자서 많은 개념들을 익힌다면 오래 걸렸겠지만 각자 맡은 부분들을 먼저 학습하고 알게 된 내용들을 나누니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소모임의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었다.

편*원 - 이번 소모임 활동의 가장 큰 이점은 포트폴리오를 채울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1학년 때부터 카드뉴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에서 글씨나 그림만 바꾸거나, 파워포인트를 통해 작품을 만들곤 했다. 그러나 스터디를 통해 포토샵을 다룰 수 있게 된 후부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한 카드뉴스를 제작하니 더욱 정교하고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팀명 : 대진필(대학원 진학 필수)

- 학습과목 : 심리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17. ~2021.06.0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17	12:00~14:00	자택(ZOOM)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했던 첫 번째 시간으로, P87-p90을 번역하고 조원들과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졌다.
05/24	12:00~14:00	자택(ZOOM)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했던 두 번째 시간으로, p91을 번역하고 조원들과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졌다.
05/31	12:00~14:00	자택(ZOOM)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했던 마지막 시간으로, P92 를 번역하고 p94-p97 문제를 번역하고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06/02	12:00~14:00	자택(ZOOM)	연구 방법론에 대해 공부했던 시간으로, P65-67를 번역하고 조원들과 피드백 하며 소모임 스터디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최*림 - 어느덧 이번 학기 스터디도 마무리가 되었다. 저번 학기에도 스터디를 함께 한 친구들이라 이번 학기 역시 편안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서니 처음 시작했던 날이 생각난다. 처음 교재를 받고 친구들과 우스갯 소리로 이거 언제 다 하나며 막막해 했던 것이 떠오른다. 나는 특히 시작도 전에 걱정이 앞섰었다. 영어도 어렵고, 전공 공부도 쉽지 않은 나인데 이 둘이 같이 있는 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었다. 스터디 초반에는 모르는 단어를 열심히 찾아 놓아도 막상 본문을 해석할 때면 어김없이 막혀 힘들었다. 각 단어의 뜻은 아는데도 해석이 매끄럽지 못하니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다. 전공 관련 지식을 원서로 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해석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번역을 다 해 놓아도 막상 내용을 떠올리면 머리가 백지가 되었다. 하지만 스터디가 거듭되며 앞의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해석보다는 문장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더니 해석할 때 조금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기니 내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	--

것 같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채울 수 있었다. 고민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스터디가 마무리된 지금 더 뿌듯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번 학기 스터디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 이번 방학에도 이 마음 그대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박*원 - 어느새 종강이 다가왔고, 이로 인해 우리의 소모임도 4회기를 진행하니 끝이 다가와 벌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리고 우리의 책도 벌써 3분의 1 가량 해석이 되었다. 처음에 책의 두께를 보고 '이걸 끝내는 것은 무리다', '괜히 한다고 했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책 번역을 시작한 것은 정말 잘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소모임을 진행한 것은 특히 더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모임이 아니었다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숙제하는 것을 미루고, zoom으로 만나는 것을 미루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모임을 진행하며 이 모임은 꼭! 해야 하는 일이 되었으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우리는 해냈다. 해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 해냈다는 성취감과 앞으로 더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 또한 생겼다. 항상 말하지만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이렇게 소모임을 만들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게 만들어준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다. 나 혼자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번역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았지만, 여름 방학 소모임, 2학기 소모임 등 소모임과 친구들과 함께라면 졸업하기 전에 한 번 이상 해석을 마치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김*성 - 이번 소모임은 '꾸준함'의 힘을 알게 되었다. 사실 처음 Ap Psychology 책을 구매할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고 흐지부지 되어 먼지만 쌓이는 또 다른 책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공부한 흔적이 쌓이고 번역의 양이 늘어나고 진도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보며, 혼자서라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을 일도 다같이이라면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한 쪽을 번역하는데 한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약 30분 정도면 끝이 난다. 문장의 전반적인 맥락을 읽고 번역하는 요령이나, 먼저 눈에 익지 않은 단어를 찾아보는 습관도 갖게 되었다. 전부 꾸준히 함께해준 친구들 덕분이고,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며 배려하고 조율해준 덕분에 큰 트러블 없이 이렇게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또한번의 성취를 이끌어낸 것 같아 몹시 뿌듯하였다. 조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모임을 진행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각자가 원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함께 해줘서 조원들에게 정말정말 고맙고, 이 모든 성취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최고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최*진 - 2-3번의 소모임을 해오면서 이번의 소모임은 정말 뿌듯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한 소모임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대도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 AP심리학 교재를 구매

해서 친구들과 같이 영어 해석하고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진행을 했다. 배웠던 전공 내용의 기초적인 부분이 담겨있는 책이라 조금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역시 영어 원문으로 된 내용은 어려웠고 단어 또한 생소했던 것이라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쳤던 적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점에서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다. 친구들과 화면으로 만나서 공부하니까 웃기면서 재미있었고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너무 편했다. 나 혼자서면 작심삼일로 끝났을 것이 꾸준히 공부하게 되었고 매주 한 번씩은 복습하게 되었다. 영어 실력도 많이 부족해서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해석을 끝낼 수 있었다. 어느정도 말이 되게 해석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을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등 영어에 대한 막막함, 울렁증 같은 것은 많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번 소모임은 영어실력 뿐만 아니라 나의 여러 부족했던 부분을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유익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팀명 : 독도는 우리은행 땅

- 학습과목 : 한국사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11. ~ 2021.06.1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11	16:30~18:30	zoom	삼국시대, 고려 시대 1강~15강 정리본 공유 발표 및 구두연습
05/18	16:30~18:30	zoom	조선 전기, 조선 후기1 16강~25강 정리본 발표 및 구두 테스트
05/25	16:30~18:30	zoom	조선후기2, 개항기 26강~34강 정리본 발표 및 구두 테스트
06/15	16:30~18:30	zoom	일제강점기, 현대 34~40강 정리본 발표 및 별별채우기 테스트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한국사는 매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였다. 스터디별 회차 수에 맞추어 한국사의 범위를 총 4가지로 분류하였고 스터디를 진행했다. 1회차: 삼국시대, 고려 시대 1강~15강 2회차: 조선 전기, 조선 후기1 16강~25강 3회차: 조선후기2, 개항기 26강~34강 4회차: 일제강점기, 현대 34~40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여 정리본을 공유했다. 정리본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각자 정리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을 발표하면서 강조했기에 그 부분은 2,3번 더 볼 수 있었다. 기출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서로 겹쳤고 겹치는 부분을 더 열심히 기억할 수 있었다. 한국사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시험에 나올 중요한 부분만을 잘 외우는 것이 중요한데 스터디를 통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증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책에 나와있는 중요한 단어를 구두 퀴즈를 통해 단답형으로
------------	---

말하는 연습을 통해 반복 암기하였다. 이과정을 통해 구두 퀴즈 연습을 한 부분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었고 기출을 풀때에도 기억이 잘나서 잘 풀수 있었다. 처음에 스터디를 진행할 때는 스터디원모두 처음 진행하는 스터디이다보니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고 스터디원 모두 스스로 규칙과 진행방향을 정하다보니 헤메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스터디를 진행할수록 점점 능숙해져서 요점을 중점으로 스터디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하고 설계한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면서 정해진 시간안에 밀도 높은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다.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원끼리 모르는 부분을 봐주고 서로 점검하면서 동기부여가 됐기에 스터디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혼자서 공부했다면 알지 못했던 깨달음이나 우리가 기억해야할 역사 등을 스터디원과 이야기해보면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특히 일제강점기에서 이부분은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해야할 역사라는 것을 강조했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주신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공부하자고 스터디원끼리 다짐했다.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상,하 권과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기출 500제를 모두 진행하였으며 별별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상, 하권의 별별채우기 문제는 모두가 다같이 퀴즈를 진행하고 여러번 암기를 하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학기중에 시험을 보기 어려웠고 이번 여름방학 8월 7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다같이 시험보기로 하였다. 아직 시험이 한달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기출문제를 2회독 하기로 하였다. 이번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은 스터디원끼리 끌어왔기 때문에 1회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한 공부의 방향성을 잡고 공부할 수 있었으며 나만의 정리본 노트를 연도별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팀명 : 독약

- 학습과목 : 독일어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6. ~ 2021.05.0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6	15:00~17:00	zoom	독일어의 발음 규칙에 대해 익히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음과 자음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독일어 발음 규칙을 제대로 암기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시로 나와있는 단어를 보면서 발음을 예측해보고 맞게 발음하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04/02	15:00~17:00	zoom	아침, 점심, 저녁, 밤 인사말과 헤어질 때 인사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표현을 익힌다.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답하는 표현과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표현을 익혔다. 독일어의 주어에 따라 달라지는 동사표현에 대해 공부하였다.
04/30	15:00~17:00	zoom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을 익히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독일어로 명칭하는 단어를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업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공부하고 여러 직업에 관련된 독일어 단어를 외우며 책에 나오는 예문들을 읽어보았다. 어느정도 표현이 익숙해진 후에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는 회화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성명사와 남성명사, 중성명사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에 대해서도 암기하였다.
05/07	15:00~17:00	zoom	취미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익히고 앞서 공부했던 표현을 응용하여 자기소개를 만들어 연습했다. 취미로 답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어휘에 대해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취미를 특정해 물어보는 표현을 익혔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다니진 못하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나아진 후 가게 될 여행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어학공부를 해두기로 결심 후 꾸준히 진행하기 위해 소모임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다. 영어는 각자 공부하고 있고 논문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자주 접하곤 하지만 독일어는 흔하게 접하기 쉽지 않아 학습지를 통해서 다같이 공부하고 연습하는 스터디를 구상했다.

독일어가 생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파벳을 익혔고, 우리는 글로 보는 것보다는 여행을 갔을 경우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발음하고 발음이 맞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많이 진행했다. 하지만 모든 언어의 기초는 단어이므로 교재에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들은 각자 열심히 암기해오고 스터디 시간에는 각 단어들을 제대로 외워왔는지 번갈아가면서 한글로 말하면, 그에 맞는 독일어 단어를 발음해보는 식으로 암기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혼자 공부하고 발음해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발음이 정확한지 더 여러번 확인하고 익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단어를 익히고 주어와 동사구조에 관해서 익히면 매 스터디 말미에 해당 단어를 사용하여 각자 문장을 작문하여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미 있는 문장을 익히는 것보다 스스로 하고싶은 말을 만들어서 발음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더 기억에 오래 남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이러한 연습을 여러번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독일어로 변환해서 떠올리게 하는데에 시간을 단축시켜 실제로 여행을 가서 독일어로 표현하고자할 때 이와 같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학기 중이라 전공 공부도 해야하고 과제도 해야하기 때문에 독일어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못했지만, 틈틈이 시간을 정해 전공공부와 다른 방면의 언어공부를 하게 되니 공부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고,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팀명 : 사약이 필요해

- 학습과목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27. ~ 2021.06.0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27	10:00~12:00	zoom	조사방법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사회과학적방법조사 및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사회통계과목에 해당하는 기술통계 및 통계분석에 대해 학습함.
05/11	10:00~12:00	zoom	spss 학습(기초적인 내용 학습 및 변수를 이용해 예측값 고 오류값을 처리하고 코딩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공부함.)
05/25	10:00~12:00	zoom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 통계분석방법: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 기술통계,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
06/01	10:00~12:00	zoom	필답형 대비 공부(주관식 및 서술형 문제 학습) 과학적 연구방법/ 조사설계 / 자료수집 /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대해 개념 위주로 학습.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학기동안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사회조사분석사란 기업이나 정당, 지체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가 필요로 하는 조사를 수행해 분석, 보고하는 전문 인력군이다. 조사방법론, 사회통계, SPSS 통계분석 실무 등의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전문적인 수학적 수치 계산, 분석 능력 및 논리정연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약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감염병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국민 보건에 도움되는 약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	---

사실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 양도 너무 방대한데다 이해가 잘 안가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동기들과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양이 매우 많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을 통해 공부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나름 효율적으로 스터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1주차는 우선 책을 통한 학습으로 필기시험을 목표로 하였다. 조사방법론 I 과 II에서 나오는 사회과학적 방법, 자료수집방법, 질문지 설계 및 조사관리법을 학습하였다. 또한, 사회통계에 나오는 기술통계, 확률과 분포, 가설검정, 통계분석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2, 3주차에는 작업형시험 대비를 목표로 SPSS 공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3학년 약학통계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살려서 연계를 통한 학습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통계에 뛰어난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수월하게 내용을 익힐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4주차에서는 필답형, 실기 위주의 스터디를 진행했다. 조사방법론에 대해 학습하였는데,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 2시간의 스터디 시간이 조금 짧았던 점이 아쉬웠고,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나눠 스터디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아쉬웠던 점은 5학년이라 학과 전공 과목 양이 많아 계획했던 횟수 만큼의 스터디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 등을 많이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 스터디를 통해 공부를 이어 나가 스터디원들 모두 함께 사회조사분석사 2급을 꼭 취득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팀명 : 사현이 취보

- 학습과목 : 건강운동관리사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11. ~ 2021.06.0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11	21:00~22:00	각자의 집	[건강운동관리사 기능해부학 문제풀이] 열품타라는 어플을 통해 공부시간을 체크하면서 학습했다. 각자 미리 문제를 풀어오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05/19	22:00~23:30	각자의 집	[건강운동관리사 병태생리학 문제풀이] 역시 열품타라는 어플을 이용했고, 모르는 공식이나 헛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바로 찾으면서 스터디를 진행했다.
05/24	21:00~24:00	각자의 집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심리학 문제풀이] 미리 문제를 풀어와 각자 피드백하고, 실시간으로 헛갈리는 부분을 공유하며 학습하였다. 마지막엔 실습을 앞두고 각자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05/31	21:00~23:00	각자의 집	[건강운동관리사 운동 부하검사 문제풀이] 미리 문제를 풀어와 각자 피드백하고, 실시간으로 헛갈리는 부분을 공유하며 학습하였다. 특히 운동 부하검사의 경우 계산문제가 많은 과목이라 같이 공식을 찾아보고 외우는 시간을 가졌다.
06/08	21:00~22:00	각자의 집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마무리] 시험이 2주 가까이로 다가왔기 때문에 마무리 스터디를 했다. 총정리 느낌으로 각자 정리한 부분이 있으면 공유하고, 시험 전 준비물이나 유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우리는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에 따라서 각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헛갈리거나, 어려운부분이 있으면 같이 토의하면서 문제를 풀이를 했다.

스터디의 좋았던 점은 의지가 떨어질 시기에 ‘우리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 라고 서로 다독이며 자격증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난 안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쯤 다른 팀원들이 용기를 주고, 본인들이 정리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합격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점에서 큰 용기를 얻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혼자 준비 할 때보다 같이 준비하니 공부 계획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기들과 함께 공부 하면서 그 갈피를 잡을 수 있었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었다. 사실 자격증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진로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같은 분야의 친구들과 서로 대화하며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위로도 되고 응원도 받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공부뿐만 아니라 스터디를 한 뒤 서로의 삶의 고민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 등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해결점을 찾아보고 위로해주며 관계적으로도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 뜻 깊은 시간이었다.

세 번째는, 친한 동기들과 모여 스터디를 진행하다보니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주 스터디가 기다려지면서 공부하는 게 지루하지가 않게 된 것 같다.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모였지만 나름 줌으로 알차게 공부 했다. 다만 이 점에서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 있는 데 줌으로 모이다보니 30분 단위로 제한이 되어서 중간 중간 방을 다시 만들어야 했던 부분이었다. 이 점을 제외하고 줌으로 공부 했음에도 새로 알게 된 지식도 엄청 늘어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소모임 활동은 매우 유용하였고 비록 나와 조원들은 막 학기 이지만 앞으로 이런 소모임들이 활성화 되어서 후배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진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자격증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합격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진학우가 대표로 제출한 접수증]



팀명 : 세계로 나아가죠

- 학습과목 : 영어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30. ~ 2021.06.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09	20:00~22:00	집에서 zoom	윤*원 학우는 'A Changing Gut Microbiome May Predict How Well You Age', 정*정 학우는 'Apple's Move to Block User Tracking Spawns New Digital Ad Strategies', 태*정 학우는 'How Green Are Electric Vehicles'라는 기사를 선정 'Diuretics-Mechanism of action of different Classes of diuretics, Animation' 같이 시청
06/10	20:00~22:00	집에서 zoom	윤*원 학우는 'What Happens to Stocks and Cryptocurrencies When the Fed Stops Raining Money?', 정*정 학우는 'China Reconsiders Its Central Role in Bitcoin Mining', 태*정 학우는 'Dogecoin Is a Joke, but It's No Laughing Matter'라는 기사를 선정 'liver function test' 같이 시청
06/14	20:00~22:00	집에서 zoom	태*정 학우는 Wall Street Journal의 "Memorial Day Travel Surge to Test Airports, Airlines" 라는 기사를 읽고 발표 *원 학우는 Wall Street Journal의 "If You Thought Working From Home was Messy, Here Comes Hybrid Work" 기사를 읽고 내용에 대하여 소개 정*정 학우는 Wall Street Journal의 "Amgen Wins Approval for Pathbreaking Lung Cancer Drug"이라는 기사를 읽고 발표 Astra-Zeneca, Johnson&Johnson 등 코로나 백신의 작용기전에 대하여 설명하는 비디오 시청
06/15	20:00~22:00	집에서 zoom	윤*원 학우는 Wall Street Journal의 "G7 Nations Agree on New Rules for Taxing Global Companies" 라는 기사를 읽고 발표 정*정 학우는 Wall Street Journal의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as Prices Surge" 기사에 대하여 발표 태*정 학우는 Wall Street Journal의 "How Working From Home has Changed Employees"라는 기사를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갖고 발표 QT 간격의 연장 및 torsades de pointes에 대한 동영상 성을 같이 시청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번학기에는 Wall Street Journal을 구독하여 각자 원하는 기사를 선택하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며 스터디를 준비하였다. 스터디 시간에는 zoom으로 만나서 읽었던 기사의 내용을 설명한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사뿐만 아니라 youtube의 'Alila medical media'라는 채널에 있는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였다. 'Alila medical media'는 의학 채널로 다양한 약물의 메커니즘, 다양한 질병의 기전 등을 다룬다. 해당 동영상을 스터디에서 하나씩 시청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다시 돌려보고 서로 질문하였다. 윤*원 -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Wall Street Journal의 "If You Thought Working From Home was Messy, Here Comes Hybrid Work" 이다. Hybrid work는 재택근무와 오피스 근무의 혼합 근무 형태를 의미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많은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였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다. 이제 사람들이 백신도 맞고 감염도 감소하여 기업들은 직원들의 복귀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복귀할 바에는 퇴사하겠다 하여 hybrid work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JP Morgan과 같은 많은 회사들은 hybrid work를 용인하며 회사원들이 따를 수 있는 혼합 근무 형태에 대한 규칙들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서 JP Morgan에서는 재택 근무를 미리 신청하고 재택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인상적이었다. 정*정 - Wall Street Journal의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as Prices Surge"라는 기사가 인상적이었다. 작년에 비해 consumer price index는 5% 정도 증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작년 pandemic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 백신의 개발로 인한 여행 규제의 완화 및 미국 바이든 정부의 dollar package 산업들 지원으로 인한 결과였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FED의 행보가 주목된다. 태*정 - 'Dogecoin Is a Joke, but It's No Laughing Matter'라는 기사가 기억에 남는다. 작년에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한 데에 이어 올해는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중 도지코인은 테슬라 CEO인 엘런 머스크가 언급하여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런데 또 머스크의 발언에 따라 하락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해당 기사를 읽으며 앞으로 도지코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였다.
--------------------------	--

팀명 : 송송이

- 학습과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16. ~ 2021.06.1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16	14:00~16:00	자택(온라인)	1과목 : 컴퓨터 일반 내용 이론 공부
06/17	14:00~16:00	자택(온라인)	1과목 : 컴퓨터 일반 내용 이론 공부
06/18	14:00~16:00	자택(온라인)	2과목 : 스프레드시트 일반
06/19	14:00~16:00	자택(온라인)	3과목 : 데이터베이스 일반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초기 학습 목표는 학기 중 꾸준한 스터디를 통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취득이 목표였으나, 학기 중에 전공 공부와 병행하여 자격증 준비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강 후에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하였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공부를 하며, 낯선 문자와 개념들에 도전정신이 생겨 흥미를 갖고 스터디에 임할 수 있었다. 1, 2회차 스터디에서 컴퓨터 일반 내용 이론 공부를 하였는데, '문자 문헌 코드', '통신망의 구성 형태',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주소 체계',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암호화 기법', 등 컴퓨터 구조와 운영 체제에 대해 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3회차엔 스프레드시트 일반 내용 이론 공부를 하였다. 스프레드시트는 '약학 통계학' 과제로 엑셀을 이용하여 자신이 정한 주제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며 직접 적용해본 경험이 있었다. 과제를 하며 사용한 스프레드시트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내용을 배웠지만 앞서 배운 개념보다는 재밌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4회차엔 데이터베이스 일반 내용 이론 공부를 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엑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전에 접해본 적이 없어 많이 생소했다. 인강을 듣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엑세스' 프로그램을 직접 돌려보면서 계속 고민해보고 스터디원들과 ZOOM에서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

이론 공부에서 그치지 않고 필기 시험의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시나공 컴퓨터 활용능력 1급 기출문제집을 꾸준히 풀었다. 문제집을 풀 후에 ZOOM에서 스터디원들과 틀린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다행히 틀린 문제와 헷갈린 개념들이 비슷해서 시간을 절약하여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처음에 교과 과목이 아닌 비교과 과목으로 소모임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전공 공부 이외의 것을 배워 견문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부분을 충족시켜 만족스럽다. 전혀 모르는 분야도 스터디를 통해 즐겁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선 움츠리게 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 어떤 분야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소모임 활동기간은 끝났지만 방학동안 실기공부까지 마치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동기들과 우애를 다질 수 있고 도전정신도 심어준 스터디를 마치며, 학교 측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팀명 : 수지의 험난한 여정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25. ~ 2021.05.2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25	18:00~21:00	ZOOM으로 온라인 스터디	전체적 학습일정 계획 / LC Part 1 핵심표현 공부
05/02	18:00~21:00	ZOOM으로 온라인 스터디	RC Part 5 풀이 방법 공부 및 틀린 문제 공유
05/09	18:00~21:00	ZOOM으로 온라인 스터디	LC Part 3, 4 및 RC Part 6 기출 풀이 및 오답 체크
05/16	18:00~21:00	ZOOM으로 온라인 스터디	LC Part 2 기출 풀이 / RC Part 7 풀이 방법 공부 및 유형별 문제 풀이 후 오답 체크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지 - 저는 졸업 준비와 대학원 진학을 위해선 토익 점수가 필요했고 학습법 소모임 중 비교과 스터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점수 목표달성과 동시에 활동보고서를 잘 마무리 지어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적은 비용이더라도 동기부여가 되어 한 학기동안 소모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정 학생 역시 과동기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저희는 토익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달동안 서로 북돋으며 공부함으로써 재밌게 토익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시험에 잘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무언가를 물어볼 때 물어보는 것을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할까봐 두려움도 있었고 잘못 가르쳐주어 오류를 가르쳐줄까봐 부담감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들 때마다 더 열심히 보며 공부하였습니다. 매 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고서에 많은 내용을 적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5월 23일에 다행히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토익 점수를 취득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던 것은 스터디의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기타]란에 취득 점수에 대한 성적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정 - 저는 학교 생활 중 따로 공인영어시험을 위해 준비한 경험이 없으나 그런 상태로 4학년이 되어 급하게 졸업을 준비하다보니 현재 하고있는 일과 토익학원을 병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때 이현지 학생이 토익 스터디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주었기 때문에 전혀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나태해지더라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함께 스터디를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했을 때 언제 토익시험에 응시할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에 한 번씩 총 4회 진행하기로 하여 주말에 ZOOM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며 함께 공부했기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주말이 줄어들었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것에 대해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도 쉽고, 알아듣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학생 둘이서 진행하기 때문에 멘토-멘티의 관계라기 보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의식이 강해서 서로에게 부담을 덜기 위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급한 상황까지 미뤄두는 생활습관에 대해 큰 회의감을 느끼고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결과는 만족할 만큼의 점수가 나오진 않았으나 활동의 결과물이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생산적으로 쓴 느낌이 들었습니다.

팀명 : 스페인에 올라

- 학습과목 : 스페인어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4. ~ 2021.05.0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4	13:00~15:00	온라인(Zoom)	스페인어의 알파벳과 발음 학습
04/20	20:00~22:00	온라인(Zoom)	인사말을 배워보며 그에 대한 대답 및 감사의 표현 알아보기
04/27	20:00~22:00	온라인(Zoom)	사물의 개수 묻고 답하기, 질문하기/답하기
05/04	21:00~23:00	온라인(Zoom)	직업과 직장 말하기, 성격 묘사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총 4회, 각 2시간씩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첫 시간에는 스페인어 알파벳의 발음을 들어보고 직접 말해보았습니다. 처음이라 모두 미숙하였기 때문에 여러 번 말하고 서로 교정해 주는 데 의의를 두었고, 다양하게 연습하다 보니 입에 더 잘 붙었으며 각 알파벳의 특징을 더욱 잘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와 알파벳 사용은 비슷하나 발음이 굉장히 달라 흥미롭기도 하고 다 같이 연습하다 보니 재미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잘 연습해보자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정말 스페인어로 말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며 인사말과 관련된 표현을 배웠습니다. 아예 문장으로 발음을 해보니 신기하기도 했고, 한국말과 비슷하게도 격식을 차리는 표현과 조금 더 친근한 표현이 따로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표현에서 시작하여, 이름을 묻고, 감사를 하는 표현을 알아보며 함께 대화를 해보는 것이 참 재미있어 마치 스페인에 놀러 간 것 마냥 여러번 반복해서 롤플레이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이 되는 인사표현은 정말 활용도가 높을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	---

세 번째 시간은 사물의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숫자를 말할 줄 아는 것이 실제로 활용할 곳이 많을 것 같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여성명사와 남성명사가 따로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스페인어만의 꽤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헛갈리기는 했지만 서로 여러 번 물어보고 역할극을 해보며 공부하니 머릿속에 잘 들어왔습니다. 또 말하면서 연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며 복습하니 실제로 스페인에 여행 갔을 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직업과 직장, 그리고 성격을 묘사하는 표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 직업군과 관련된 표현을 익혔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미래에 여행갔을 때의 상황에 맞추어 “나는 약사야”라고 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각각의 성격에 맞춰 역할극을 하며 표현을 익히니 자연스럽게 입에 익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어와 영어의 표현에서 꽤 공통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따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총 4번의 회차 동안 자연스럽게 회화를 할 정도의 시간은 되지 않았지만 스페인어의 특징들을 느낄 수 있었고 흥미를 갖게 되어 앞으로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명 : 즐거운 영어 자취생활

- 학습과목 : 영어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3. ~ 2021.04.2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3	13:30~15:30	Zoom, 자취방	유튜브 자료 보면서 생각, 의견 말하기 원하는 표현, 대화하기, role play
04/06	13:30~15:30	Zoom, 자취방	유튜브로 말하기 표현 익히기, 제안하는 것, 물건이 있는 지 묻기, 표현 만들기, 찾아보기, 대화하기
04/08	13:30~15:30	Zoom, 자취방	I'm yours 팝송을 듣고, 읽고, 가사를 해석해봄. 따라 불러봄.
04/22	13:30~15:30	Zoom, 자취방	One call away 팝송 듣고 따라 부르기, 가사 해석하기, 표현 찾아서 익히기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인 - 영어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막상 잘 시행한 적이 없었다. 스터디를 하니깐 그래도 강제성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하니깐 생각보다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스터디를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영어로 대화하자고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표현을 익히니까 말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았다. 막상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는데 표현을 익히니까 더 잘 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 동기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유튜브와 팝송을 활용하니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유튜브에도 좋은 콘텐츠가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함께하니깐 그 콘텐츠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었다. 신*영 - 팝송을 듣긴 했지만 거의 가사를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다. 자주 듣고 많이 들어본 노래였어도 가사를 본적이 없어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보고 무척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팝송으로 공부를 하니깐
---------------	--

새로운 표현도 알게되고 노래를 따라부르면서 더 즐겁게 스터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보면서 앞으로는 다른 팝송을 들어도 귀에 영어가 더 잘 들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팝송으로 영어를 공부해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즐거웠던 경험이었다.

임*영 - 단어와 독해위주로 학생 때 영어공부를 했었는데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하니까 영어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말하기는 혼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끄러움도 많았었는데 동기들과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기억에도 잘 남는 것 같았다. 외국인을 만나도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해, 문법과 듣기 말하기는 정말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해는 많이 해왔었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 말이 안 떨어져서 처음엔 충격을 받았었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익숙해진 것 같고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다. 역시 외국어는 직접 말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튜브와 팝송을 활용하니까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었던 것 같다.

팀명 : 언어마스터

- 학습과목 : 중국어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5. ~ 2021.05.0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5	16:00~18:00	Zoom 인터넷	학습방법과 학습내용을 공지하고 벌금과 같은 제도를 정했다. 또한 자기의 한자 이름을 쓰고 읽는 방법을 공부했다.
04/01	16:00~18:00	Zoom 인터넷	허우즈(원숭이) 와 같은 쓰는 방법을 공부하고 쓰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을 했다. 니위타의 기본적인 지칭형 명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04/29	16:00~18:00	Zoom 인터넷	이얼싼쓰(1,2,3,4)를 중국어로 공부하고 쓰는 방법을 공부하고 쓰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을 했다. 인텐(흐린날씨) 와 같은 쓰는 방법을 공부하고 쓰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을 한다.
05/07	16:00~18:00	Zoom 인터넷	핑귀(사과) 와 같은 쓰는 방법을 공부하고 쓰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을 한다. 홍씨(빨간색) 와 같은 쓰는 방법을 공부하고 쓰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을 한다. 또한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언어마스터란 팀명을 통해 정말 중국어를 완벽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중국어 배우고 싶어 했던 동기들을 모아 그 동안 중국어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 했습니다. 비교과 스터디를 하면서 어려움 없이 팀원과 잘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옆에서 바로 바로 학습에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	--

일단 줌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원활히 진행을 하려면 주변에 소음도 없어야 하고 인터넷이 원활히 진행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카페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진행을 하거나 집에서 진행을 해도 공원에서 들리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잘 들리기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줌을 이용해 학습 스터디를 한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비대면으로 꼭 정해진 시간 말고도 언제든지 학습을 하면서 질문이 생기면 줌을 이용해 접속하여 화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하면서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성취도도 높았으며 다른 부가적인 타비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다가 왔습니다.

줌을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수업으로 인해 처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줌을 이용한 수업과 이번과 같은 비대면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좋은 장점이고 다음번에 학습법소모임을 한다면 다음번 역시 비대면 줌으로 진행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느꼈습니다.

팀명 : 에드어바웃

- 학습과목 : SNS 운영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4. ~ 2021.05.2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4	17:00~19:00	비대면(ZOOM)	인스타그램 콘텐츠 피드백 및 앞으로의 방향성 & 인스타그램 예약 방법 교육 & 이번주 제작 콘텐츠 회의
05/10	20:00~22:00	비대면(ZOOM)	인스타그램 피드백 및 유료광고 & 시리즈 콘텐츠 제작 & 업로드 관련 문제 관련 회의
05/17	19:00~21:00	비대면(ZOOM)	인스타그램 피드백 & 시리즈 콘텐츠 제작 & 업로드 관련 문제
05/24	21:00~23:00	비대면(ZOOM)	인스타그램 피드백 & 시리즈 콘텐츠 제작 관련 회의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영 - 한 학기동안 팀원들과 하나의 SNS계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SNS계정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계정이 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개인 SNS를 운영했던 터라, 팔로워나 좋아요 수가 중요하기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일기장처럼 SNS를 이용했었는데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SNS를 운영하니 실제 광고대행사에서 기업체의 SNS를 담당하면 어떤 것들을 위주로 봐야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팀으로 한 계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호응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학교 팀프로젝트를 하며 팀워크를 높이는 방법을 충분히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함께 잘 해준 팀원들이 있었기에 한 학기동안 소모임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으로 활동해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있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팀원들과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꾸준히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한 취업을 하고나서도 팀원들과의 팀워크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며, 임해야겠다고 느꼈다.
------------	--

최*진 - 4학년에 올라와 점점 졸업과 사회에 나갈 준비가 가까워지면서 취업을 앞두고 기엔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 느꼈다. 그렇게 남는 것은 조금함과 걱정이 가득했는데, '애드어바웃'을 만들게 된 후 이런 고민거리가 줄어들었다. 사실 고민거리가 생길 시간이 없었다. 이름부터 시작해 대표캐릭터를 만들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이고 업로드 날짜는 또 언제 할 것이며 계정을 만들기까지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단순히 일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었던 때와는 다르게 나에겐 다소 생소한 준비 과정들이었다. 때문에 좌충우돌이 많았다. 다들 새로이 시작하는 경험이었고, 유입과 이를 촉진할 방향들을 고려하고 템플릿 제작까지 모두의 의견을 나누고 또 나누었던 것 같다. 심지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포스팅하는 데 있어 새로운 웹사이트를 도입하게 되었고 모르는 부분이 생길 경우엔 발벗고 나서 해결될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최대한 서로의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써준 팀원들에게 너무나 고마웠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를 더 뽑자면, 주로 글로 피드백을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 전달에 있어 잡음이 거쳐갔던 때가 있었다. 피드백을 나누기란 상대에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입장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기에 감정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성격적인 면에서 말하기 주저했는데 이런 의견들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닌 '애드어바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조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서로를 위한 것임을 밝히며 되려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팀원에게 고마움과 동시에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다. 이후 서로 간에 팀워크가 더욱이 돈독해졌음을 느꼈고 앞으로 참여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최*영 - 학습법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함께 팀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많이 알게 되었다.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 단순히 활동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소모임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말할 때도 단어 선택에 유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모임 활동을 하며 다양한 광고를 찾아보고 마케팅 트렌드를 알아보며 지금은 어떤 것이 유행인 지 알 수 있었다. 이전에는 현재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한 발 늦게 알고는 했는데 지금은 현재 유행과 광고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광고 분석을 해보며 어떤 목적으로 이 광고를 기획하였는지 고민해볼 수 있었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카드뉴스를 만들어보면서 어떤 워딩을 사용해야하고 어떻게 배치해야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편하고 간단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하게 되었다. 단순히 내가 이해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고민하며 나의 단어 선택이나 어휘력 부분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도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다른 팀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많이 보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조금 더 발전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팀명 : 영포팀

- 학습과목 : 임상심리사 2급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7. ~ 2021.05.2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7	16:30~18:30	ZOOM	- 임상심리사 2급(20210307) 문제 1번 ~ 25번 [심리학 개론&이상심리학] 문제 풀이 및 오답 체크 및 오답 노트 작성
05/14	16:30~18:30	ZOOM	- 임상심리사 2급(20210307) 문제 26번 ~ 50번 [이상 심리학&심리검사] 문제 풀이 및 오답 체크 및 오답 노트 작성
05/21	16:30~18:30	ZOOM	- 임상심리사 2급(20210307) 문제 51번 ~ 75번 [심리 검사&임상심리학] 문제 풀이 및 오답 체크 및 오답 노트 작성
05/28	16:30~18:30	ZOOM	- 임상심리사 2급(20210307) 문제 76번 ~ 100번 [임 상심리학&심리상담] 문제 풀이 및 오답 체크 및 오답 노트 작성

○ 학습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전*정 - 자격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이 가득한 상태였다. 무작정 공부를 하자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팀원들과 함께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며 동기부여가 되었다.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은 친구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서로 공유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

정*현 -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는 건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따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준비를 하려 하니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 시험에서 보는 과목들을 다 하나하나 공부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소모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기출문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배웠던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문제를 풀며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히려 모든 과목을 복습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 틀린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같이 의논하고 쉽게 설명을 듣다 보니 걱정이 무색하리만치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다. 비록 이번 소모임은 끝이 났지만, 방학 소모임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합격을 위해 즐겁게 한 걸음을 내디뎌 보고자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조*은 - 이번 소모임에서는 작년부터 공부해야지 마음만 먹었던 임상심리사 자격증 공부를 친구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었다. 혼자서는 계속 미루게 되고 막히면 포기하게 됐었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니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당장 시험을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던 기회였고 친구들과 줌으로라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며 얼굴 볼 수 있던 시간이어서 의미 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다면 즐겁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은 -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은 총 100문제이다. 우리는 매주 25문제씩 끊어서 풀었지만, 실제 시험 때는 100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도 이번 소모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느낌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만약 혼자서 공부하며 자격증을 준비했다면 일찍이 포기했을 텐데, 팀원들과 함께 오답을 서로 알려주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동기부여도 되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방학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자격증 공부를 같이하며 자격증 합격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팀명 : 오므라이스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31. ~ 2021.06.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31	20:00~22:00	Zoom + Google meet	- 기존 학습계획대로 각각 1,2회차의 part5의 문제들의 문장구조 분석 및 파악 연습을 실시하였다. - 중간고사로 인해 서로 확인해주지 못했었던 단어 학습 회차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서로의 학습역량 증대를 위해 확인해줄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 - 기출문제, 시간분배 연습을 위해 RC 100문제를 1시간 동안 풀었다.
06/04	20:00~22:00	Google meet	- 해커스 RC reading 교재를 통해 part5 - Chapter 03 동사의 형태와 종류에 대하여 미리 이론 공부 & test 문제를 풀어오고 google meet(화상회의)에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작성하였다. - 서로가 특히 어려웠던 문제와 헷갈렸던 문제들에 대해 공유하며 자신만의 풀이법을 팀원들에게 알려주었다. 오답에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피드백을 해주었다. - 해커스 토익 기출 voca를 통해 각자 암기해온 단어에 대하여 단어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틀린 문제에 대하여서 추가 암기를 하도록 하였다.
06/07	20:00~22:00	Google meet	- 해커스 홈페이지에서 무작위로 진행되는 단어 테스트 시험지를 통해 단어시험(누적단어 시험 포함)을 보고 나서 조원들과 동사구 파트의 문법 문제를 풀었다. - 개념의 경우 미리 공지한 대로 관련 문법책을 통해 공부하고 스터디 당일 날 관련 문법 문제를 같이 풀고 채점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본다. - LC의 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LC 책의 문제들을 같이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풀어본다. 쉼표의 경우, 숙제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진행한다.
06/11	20:00~22:00	Google meet	- RC(part5,6): RC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주동목 분철 연습과 동사구 명사구 분사구 분별, 파악하는 연습을 진행하였다. - LC: 나라별 상이한 억양으로 인하 혼동에 주의해 키워드만을 받아적이고 이로 추론해서 푸는 스킬을 연습하였다. - 각자 가지고 있는 해커스 교재의 part5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한시간을 두고 연습하였고 헛갈리는 답은 서로 공유하여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보았다. 또한 시간분배를 통해 제한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 전략 컨설팅도 간단하게 진행하였다.

○ 학습 소감

팀명 : 자양강장제

- 학습과목 : 컴퓨터활용능력
- 학습장소 : 카페
- 학습기간 : 2021.03.31. ~ 2021.06.1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31	21:00~22:00	개인 공간	전반부 학습 일정 수립
04/05	19:00~21:00	교내 북카페	구체적인 학습 계획 도모
05/05	13:00~15:00	의정부 카페	학습 상태 피드백 진행
05/25	13:00~15:00	의정부 카페	보건의료 관련 사업 및 연구보고서 작성
06/12	18:00~22:00	송우리 카페	후반부 학습 계획 수립

○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초기에는 각자 필요한 자격증을 찾아 학기 중에 교과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컴활 1급, 토익 등) 공부 및 취득을 목표로 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계획달성을 위해 활동을 진행하였다. 1, 2회차 스터디 회의에서 각자의 시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학습계획을 세웠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획에 맞게 학습을 열심히 했다. 학기 초반에는 비교과 스터디를 계획대로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2회차 스터디(자격증시험 불합격 발표 전)까지만 해도 아직 계획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학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팀의 학습 상태가 목표했던 계획과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차 스터디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3차 회의에서 나온 문제점의 원인과 대책 방안은 이러했다. 우선 우리의 스터디가 계획대로 성공되지 못한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음
------------	---

4학년이라 널널할줄 알았던 교과스케줄은 많은 보고서와 자소서 준비 등 부가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져 반대로 가장 바쁜 학기가 되었던 것 같다.

둘째, 마인드컨트롤 능력 부족

막 학년이라는 상황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고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도록 잘 활용해야 하지만 팀원 모두 심리적 압박으로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게 되기도 하면서 마인드컨트롤을 쉽사리 잘하지 못했다.

셋째, 비대면 커리큘럼으로 인한 대면 만남 부족

스터디 특성상 자주 보면 볼수록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우리 팀은 모두 비대면 강의에 각자 거주하는 지역 또한 달랐기 때문에 스터디를 위해 시간 내어 비대면 혹은 대면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해야 했다. 따라서 자주 만나서 스터디를 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빠른 피드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이 세 가지 원인들을 감안하여 더 나은 활동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자격증 시험은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학기 중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를 아예 변경해버렸다. 이 결정은 우리 팀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있다고 생각하여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학점이 우선순위가기 때문에 학점을 위해 1순위로 교과 공부에 집중을 하면서 교과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활동 계획을 변경하였다.

둘째, 유연한 활동 계획 및 활동 진행

자격증 공부가 아닌 교과 공부 외에 필요한 비교과 분야를 같이 스터디 하기로 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진로 결정에 필요한 취업공고를 같이 찾아보고 이를 위한 스펙과 자격증 등 준비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시험 기간엔 만나서 공부도 같이하고 여름방학 실습계획도 하는 등 상황에 맞게 유연한 학습활동을 진행하며 스터디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따라서 우리 팀은 초기목표와 활동 결과만 보서는 활동을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학점관리를 감안하여 학점관리와 동시에 현재 제일 필요한 비교과 스터디를 한 학기가 되었던 것 같다.

초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억지로 계획했던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과 스터디와 자격증 스터디를 병행했었다면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한 학기동안 했던 비교과 스터디를 통해 알게 된 취업 정보와 필요한 스펙을 토대로 4차 활동에서 계획했던 여름방학 계획을 참고해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학 생활로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

팀명 : 컴활제패

- 학습과목 : 컴퓨터활용능력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30. ~ 2021.05.3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30	16:30~19:30	ZOOM	- 핵심 요약 읽어보기: 시나공 책에 있는 실습이 꼭 필요한 엑셀 기능 18가지와 핵심 요약 55번까지를 읽어보면서 학습 - 유튜브 강의 보기: 기본적인 개념들 중 설명이 필요한 개념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 - 개념에 대해 질의응답: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며 문제 해결
04/27	16:30~19:30	미래관 408호	-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퀴즈를 진행하면서 다시 이해한 내용에 대해 확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며 문제 해결 - 핵심 요약 읽어보기: 시나공 총정리 컴퓨터활용능력 문제집 핵심 요약을 이어서 공부 - 유튜브 강의: 질의응답에서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를 참고하면서 공부
05/11	16:30~19:30	ZOOM	- 문제 풀이 및 질의응답: 퀴즈를 진행하면서 다시 이해한 내용에 대해 확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며 문제 해결 - 핵심 요약 읽어보기: 시나공 총정리 컴퓨터활용능력 문제집 핵심 요약을 이어서 공부 - 유튜브 강의: 질의응답에서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를 참고하면서 공부
05/26	16:30~19:30	미래관 408호	- 모의시험: 기출문제 1회, 2회 풀이 - 요약 공유 및 질의응답: 문제 풀이 후 오답을 공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며 문제 해결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저희는 이번 소모임에서 시나공 교재와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여 컴활 1급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던 것에는 크게 진법 변환의 개념과 방법, ROM, RAM의 개념, 고급필터의 조건 지정 방법, 도메인 계산 함수의 활용이 있었습니다.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수 개념과 사용법, 기본 키와 외래키 등을 헛갈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박*언 -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면서 계획했던 것처럼 진행되지 못해서 아쉬움은 남지만, 확실하게 개념을 공부해볼 수 있었고 필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고,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친구랑 하니깐 이해도 더 잘되는 기분이 들어서 효과적으로 공부한 기분이었습니다.

주*지 - 이번 학기에 컴활 1급 자격증에 대한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면서 마냥 쉽게 봤던 자격증 준비가 생각보다도 시간 조율이 어렵고, 힘든 준비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필기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종강 이후에도 이어서 준비해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팀명 : 통깨로 컴활따자

- 학습과목 : 컴퓨터활용능력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4. ~ 2021.05.1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4	16:30~18:30	zoom	약학통계필수 p.51~100,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1, 2, 3, 4장
04/28	16:30~18:30	zoom	약학통계필수 p.101~172,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5, 6, 7장
05/05	16:30~18:30	zoom	약학통계필수 p.173~216,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3과목] 1, 2, 3장
05/12	16:30~18:30	zoom	약학통계필수 p.217~260,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3과목] 4, 5, 6장

○ 학습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3학년 때 배웠던 약학통계학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본적인 개념을 쌓은 후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쌓은 개념을 적용해보았다. 1회차에서는 약학통계필수 교재 4장 정규분포에 대해 학습한 후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1, 2, 3, 4장을 풀어보면서 적용해보았다. 2회차에서는 약학통계필수 교재 5장 자료유형과 6장 이 표본 t-검정에 대해 학습한 후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5, 6, 7장을 풀어보면서 적용해보았다. 3회차에서는 약학통계필수 교재 7장 쌍체 t-검정과 8장 분산분석에 대해 학습한 후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1, 2, 3장을 풀어보면서 적용해보았다. 4회차에서는 약학통계필수 교재 9장 상관분석과 회귀분석과 10장 공분산분석에 대해 학습한 후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4, 5, 6장을 풀어보면서 적용해보았다. 김*나 - 3학년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인해 빠르게 익히고 금방 잊었던 통계학 개념에 대해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스터디를 통
------------	--

해 새롭게 통계를 정리하고 정리한 파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뿌듯했다. 2달 동안 통계 개념을 정리하고 컴활 문제 풀이하느라 바빴는데 4주 차로 소모임이 끝나니까 시원섭섭하다.

류*우 -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책을 다시 읽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애매하게 알던 개념들도 서로 질문을 통해 해결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스터디를 하면서 컴활 문제도 같이 꾸준히 풀고, 오답한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한 문제들도 같이 참고하여 공부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1,2,3,4회차 소모임에서 구글독스를 통해 개념을 정리한 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뿌듯하다.

한*훈 - 통계학 내용에 관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3학년 때 흐릿하게 알고 넘어갔던 개념에 대해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정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부하니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컴활은 이미 났지만 통계 개념을 정리하면서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김*정 - 선배들과의 소모임을 통해서 전공 수업에 대해 꼼꼼히 공부할 수 있어 좋았고, 혼자서 공부하려면 밀릴 수 있는 컴활필기 문제집 푸는 것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좋았다. 통계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다들 즐겁게 공부하니 같이 재밌게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김*솔 - 통계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다 같이 정리하고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3학년 때 배웠던 과목임에도 전공서를 읽고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소모임을 통해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 또한 혼자 정리하는 것보다 같이 정리해서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서로 상의하고 대화하며 학습하니 기억에 더 오래 남길 수 있는 것 같아 좋았다.

2021 학 년 도 1 학 기 학 습 법 소 모 임 활 동 사 례 모 음 집

III. 전공 튜터링

III. 전공 튜터링

팀명	팀원	학과
상심하지마 (우수)	서*혁	상담심리학과
	나*지	상담심리학과
	이*연	상담심리학과
	한*웅	상담심리학과
	황*재	상담심리학과
	송*인	상담심리학과
약치 과외하기 시즌2 (우수)	김*우	약학과
	유*운	약학과
차곡차곡 (우수)	남*원	약학과
	김*안	약학과
	곽*구	약학과
	황*	약학과
	강*기	약학과
	박*욱	약학과
HEATTECH	함*상	SI보건의료학부
	허*웅	SI보건의료학부
	전*제	SI보건의료학부
개미스트리	백*동	의생명과학과
	조*현	의생명과학과
	윤*원	의생명과학과
	박*정	의생명과학과
봄오면 약치공부	홍*린	약학과
	이*정	약학과
	김*수	약학과
상아로 찌르는 약치	배*희	약학과
	최*민	약학과
	황*현	약학과
생화뽀삼	김*정	약학과
	김*솔	약학과
	박*희	약학과
	김*정	약학과
	김*연	약학과
	김*희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설빈설빙	안*빈	약학과
	박*	약학과
안안물약	안*빈	약학과
	안*영	약학과
약린이 약사되기	김*미	약학과
	최*희	약학과
	이*주	약학과
	박*연	약학과
	윤*연	약학과
약치장인	이*정	약학과
	박*람	약학과
	황*현	약학과
우아한약제학모임	윤*원	약학과
	김*현	약학과
	안*빈	약학과
	태*정	약학과
유기 화학 학습 모임	유*재	식품생명공학과
	유*희	식품생명공학과
좋은건 같이봐	김*욱	약학과
	김*현	약학과
	김*우	약학과
	박*정	약학과
	손*나	약학과
	이*정	약학과
	정*정	약학과
파마코테라피	고*영	약학과
	김*주	약학과
	손*정	약학과
	오*정	약학과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최*웅	약학과
	홍*택	약학과
화아학 날아라	박*원	의생명과학과
	이*호	의생명과학과
	고*정	의생명과학과
	최*희	의생명과학과

팀명 : 상심하지마



- 학습과목 : 상담심리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21. ~ 2021.06.1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21	15:00~16:30	ZOOM 화상회의 활용	- 학습 주제 : 상담의 의의와 과정, 역사와 발전 - 학습 목표 : 상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서구 및 한국 상담의 발전 흐름 이해 - 학습 내용 : 상담의 의의와 과정>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이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작업이다>상담의 과정>왜 상담을 하는가?>상담의 RISK>상담을 꺼리는 이유>상담자도 자신의 동기에 솔직해져야 한다>상담자가 된다는 것 - 진행 방법 : 영어 원문으로 되어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아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후, 핵심 개념과 알아야 할 부분을 위주로 튜터링을 진행하며 튜티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06/11	15:00~17:00	ZOOM 화상회의 활용	- 학습 주제 : 상담의 이론(1), 상담의 이론(2-1) - 정신 분석 이론, 분석심리학, 개인심리학, 실존주의 상담, 인간중심적 상담 - 학습 목표 : 주요 상담 이론과 발달 순서, 핵심 개념과 주장의 이해와 습득 - 학습 내용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융의 분석심리학>아들러의 개인심리학>프랭클&알로스의 실존주의 상담>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상담 - 진행 방법 : 전체적인 상담 이론의 분류와 발달 과정을 가르쳐주고자 하였고, 각 학파와 학자들의 이론을 분류하고 외우기 어려운 이론의 창시자와 내용을 알기 쉽게 스토리로 만들어 준비하여 진행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14	17:30~19:20	ZOOM 화상회의 활용	- 학습 주제 : 상담의 이론(2-2), 상담의 이론(3) - 계슈탈트 상담, 행동주의 상담, 인지주의 상담, 현실상담, 교류분석 상담, 자아초월 심리학 - 학습 목표 : 주요 상담 이론과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심리치료 기법의 이해와 습득 - 학습 내용 : 계슈탈트 상담>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의 행동주의 상담>인지주의 상담>현실상담>교류 분석 상담>자아초월 심리학 - 진행 방법 : 계슈탈트 상담과 행동주의 상담, 인지주의 상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들과 심리치료 기법들, 치료자의 자세를 중점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치료 기법들은 적절한 예시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
06/15	18:00~20:00	ZOOM 화상회의 활용	- 학습 주제 : 상담학의 영역과 전문분야, 상담학의 도구 - 학습 목표 : 상담에서 사용되는 여러 심리 검사들과 상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이해 - 학습 내용 : 상담학의 영역>심리평가의 이해>상담에서 평가 활용하기>심리 검사의 종류 - 진행 방법 : 상담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학습하였고, 상담의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상담의 과정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고 각 내용을 접목해보는 방식을 활용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튜터 소감 및 종합 의견〉 총 4번의 튜터링동안 튜터로 활동하면서 얻은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21학번 새내기로서 들어와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누군가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튜티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선행학습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해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저는 ‘상담심리학’이라는 교과목의 내용을 알려주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제가 배우고 터득한 내용이 많았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

튜티 친구들도 제가 알려주는 내용을 하나라도 더 얻어가고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았고, 반대로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길게 설명하느라 듣기 힘들었을 수도 있음에도 집중해서 들어주었고 열심히 필기 해가며 튜터링에 참여해주었습니다.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었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친구들 덕분에 상호 간에 얻어가는 것이 넘쳐나는 활동이었습니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진행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있지만, 그만큼 효율적인 튜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고 모두가 더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동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느꼈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그 기회를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튜티 소감〉

나*지 - 대학교 생활을 처음하면서 익숙한 것보다 어색한 것들이 많았는데 친구들과 튜터링 함으로써 공부 방법을 알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들을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배워가고 공부하는 부분들이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다른 부분이 많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부분들과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색한 것들이 많았는데 친구들을 통해서 재밌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튜터링을 통해서 친구들과 성장 하고 재밌게 공부하는 한 학기가 되었습니다.

송*인 - 전공 튜터링을 통해 수업 시간 내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튜터 친구가 설명해주었다는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컸으나 튜터를 맡은 친구가 열심히 할수록 튜티인 저희들도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어 학습효과도 컸습니다. 실제로 전공 튜터링을 통해 상담심리학 공부를 한 저는 이번 기말 시험을 볼 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연 - 튜터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 기억이 남는 것은 학우들과의 협동심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서로의 시간을 맞추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한*웅 - 코로나 시기에 줌으로라도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황*재 - 전공 튜터링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공부하며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팀명 : 약치 과외하기 시즌2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I~IV
- 학습장소 : 집, 카페
- 학습기간 : 2021.03.26. ~ 2021.06.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6	13:00~15:30	집(zoom활용)	공부단원 : Osteoarthritis / Rheumatoid Arthritis / Gout and Hyperuricemia / Atopic Dermatitis(Eczema) / PUD / GERD 질환들의 병태생리와 증상, 징후, 약물치료요법, 비약물치료요법에 대해 학습했다. 튜터가 작성한 정리본을 바탕으로 하부르타 공부법을 진행했다. 약물치료 알고리즘을 익히고 이를 환자의 임상 case에 적용해 soap 노트를 작성해보았다.
04/09	13:00~15:30	카페	공부단원 : Psoriasis / Contraception / Hormone Therapy in Postmenopausal Women / Acute Kidney injury / Schizophrenia 질환들의 병태생리와 증상, 징후, 약물치료요법, 비약물치료요법에 대해 학습했다. 튜터가 작성한 정리본을 바탕으로 하부르타 공부법을 진행했다. 약물치료 알고리즘을 익히고 이를 환자의 임상 case에 적용해 soap 노트를 작성해보았다.
04/23	13:00~15:30	집(zoom활용)	공부단원 : Urinary Incontinence /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 Glaucoma 질환들의 병태생리와 증상, 징후, 약물치료요법, 비약물치료요법에 대해 학습했다. 튜터가 작성한 정리본을 바탕으로 하부르타 공부법을 진행했다. 약물치료 알고리즘을 익히고 이를 환자의 임상 case에 적용해 soap 노트를 작성해보았다.
05/14	13:00~15:30	집(zoom활용)	공부단원 : Migraine headache / Fever, Cold, Insomnia, Cough, Smoking cessation / Digestive disorder 질환들의 병태생리와 증상, 징후, 약물치료요법, 비약물치료요법에 대해 학습했다. 튜터가 작성한 정리본을 바탕으로 하부르타 공부법을 진행했다. 약물치료 알고리즘을 익히고 이를 환자의 임상 case에 적용해 soap 노트를 작성해보았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약사가 환자 중심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물 요법 뿐만 아니라 환자평가,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난 학기 전공 튜터링(약치 과외하기)을 통해 약물치료 알고리즘을 익히고 환자의 case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심도 있게 약물치료학 공부를 했고, 튜터, 튜티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에 이번 학기 역시 약물치료학 전반의 내용을 리뷰하고, 약사 국가고시를 대비하기 위해 전공튜터링 학습소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튜터와 튜티는 총 4회 10시간에 걸친 스터디를 진행했다. 5학년 때 배웠던 주요 내용을 위주로 튜터와 튜티가 번갈아가며 정리본을 작성했다. 튜터가 주요 흐름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하부르타 형식으로 환자의 증상, 징후, 그에 따른 약물치료요법과 비약물치료 요법을 말하며 공부했다. 서로 말하며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많은 약물들을 기전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약물치료에서 원칙이 되는 알고리즘을 익히기 위해 도식화하여 작성해보고,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를 분류해가며 공부했다. 이러한 공부 방식을 통해 튜티는 다가올 약사 국가고시 대비에 앞서 효율적인 공부법을 익히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단순한 내용 리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환자 case 문제에서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연습 해보고자 했고, 이에 지난 학기 약물치료학 전공 튜터링을 하며 큰 도움이 되었던 SOAP 노트 작성을 이번에도 수행하기로 했다. 지난번 전공 튜터링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적절한 약물치료법을 생각하여 SOAP 노트를 작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우수성도 여러 학우들에게 인정받았다. (아래 기타 항목란에 작성한 soap 노트 중 일부를 첨부했다.) 이를 통해 2번의 튜터링을 통해 진행했던 우리의 공부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공부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튜터는 전공 튜터링을 통해 배운 내용을 의료기관 실무실습에서 본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시켜보고자 SOAP 노트 뿐 아니라 추가적인 과제를 더 수행해보자고 제안했다. 약물 치료의 위험과 이익 및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약물 위해평가 보고서와 환자에게 효과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약지도문을 작성해보기로 했다.(아래 기타 항목란에 작성한 약물 위해평가 보고서와 복약지도문의 일부를 첨부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micromedex, kims 등의 2,3차 문헌 사이트에서 찾아보았다. 문헌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 내용이나 명확하지 않아 헛갈렸던 점은 실무실습 기관에 계시는 약사님께 여쭙어보며 과제를 수행했다.

이와 같이 진행한 10시간 동안의 스터디를 통해 약물치료학 교과내용을 복습하고 더 나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으로 응용시켜볼 수 있었다. 튜터와 함께한 하부르타 공부법을 통해 정확한 약물의 쓰임과 치료법을 숙지할 수 있었고,

이런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떠올릴 수 있었다. 전공 튜터링 덕분에 실무실습 현장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도 약물치료학적 지식을 활용하기가 수월했고, 실습 기간 중 수행한 과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함께하는 공부의 강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암기량이 많은 약대 과목들에는 이와 같은 스터디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다. 약학과 후배분들에게 전공 교과목 튜터링 활동을 통해 방대한 양의 지식을 익히고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물론 우리 역시 다음 학기에도 튜터링 스터디를 통해 약사 국가고시를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무작정 암기하기 보다는 튜터링을 통해 암기하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좋은 공부법을 많은 후배분들이 알고 체험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 이러한 소견을 남기고 싶다. 끝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진행해 준 학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팀명 : 차곡차곡



- 학습과목 : 미생물학, 해부학, 유기약화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16. ~ 2021.06.1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16	16:00~18:00	ZOOM	1회차 학습법 소모임의 튜터링 활동은 미생물학을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미생물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원핵 미생물과 진핵 미생물의 구분, 원핵 미생물의 운동성 및 진핵 미생물의 특성과 분류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Early eukaryotes의 분류, Protozoa, Fungi이 분류와 그에 해당되는 사진들을 매칭시켜 학습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튜터는 배운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대략 6~7페이지 정도 되는 요약본을 만들어 공유하였으며 사진들을 첨부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튜터는 배웠던 내용을 복기하며 요약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튜티들도 만들어진 요약본을 보며 해당 내용에서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각자 어느 부분이 어려웠고 이해하기 힘들었는지 말을 하고 서로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이후에 대략 1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철저하게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기억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던 점은 요약본을 만들어 공유하였기 때문에 요약본을 만드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남들보다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약본을 보는 튜티들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기에 튜터보다는 이해의 정도가 조금 더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습법 소모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튜터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06/17	16:00~18:00 16:00~18:00	ZOOM	튜터링의 주제는 미생물의 유전자 변이 및 전달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습 주제로는 미생물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정했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로서 구아닌이 8-oxoG로 바뀌는 돌연변이의 기전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구아닌이 8-oxoG로 바뀐 후 MutM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원래의 구아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구아닌이 8-oxoG로 바뀐 상태에서 복제가 일어나면 다시 구아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어서 MutY가 일어나면 8-oxoG와 시토신의 염기쌍 배열이 형성되고 MutY가 아닌 복제과정이 일어나면 염기쌍 배열이 티민과 아데닌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구아닌이 티민으로, 시토신이 아데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 메커니즘을 튜터가 먼저 그림을 그리면서 튜티들에게 설명하고 설명이 끝나면 튜티들이 튜터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하는 시간까지 끝나면 이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배운 미생물학의 다른 내용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교재를 찾아보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학습 주제로는 바이러스를 통한 세균에서 세균으로의 유전자 전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전달과정을 형질도입이라 하는데 형질도입의 두 가지 과정인 Lytic과 Lysogenic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Lytic과정은 바이러스가 세균 안으로 침투하여 유전자를 복제시키고 최종적으로 세균을 죽이면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Lysogenic과정은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세균의 유전자 안으로 융합되어 복제되고 다시 세균의 유전자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유전자 전달과정을 튜터가 ppt를 보며 직접 설명하고 차이점에 대해 튜티들에게 이해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튜터링에서 메커니즘과 작동 원리를 설명했기 위해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그림과 ppt를 사용했는데 덕분에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좋았고 집중도 더 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상대적으로 튜터의 설명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튜티들의 능동적인 학습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06/18	17:00~21:00	ZOOM	본 모임에서는 미생물학 시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튜티들과 함께 미생물학을 공부하였고, 교수님께서 직접 배부해주신 최근 5개년치 미생물 기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줌 미팅을 가지기 전에, 미리 각자 5개년치 기출 문제들을 풀어오기로 약속을 하였고, 어려운 부분들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체크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운 문제들과 이해가 안된 문제들을 사전에 튜티들에게 받아서 해답을 학습해왔습니다. 줌 미팅에서는 어려웠던 문제들을 설명해주었는데, 이때 궁금증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관련된 피피티 내용과 필기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었고, 때로는 피피티 내용과 수업 필기에 없는 내용이 시험에 기출되어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교수님께 메일을 통해 얻은 답변들을 튜티들에게 보여주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미생물 기출 문제들을 정복하고 나니 조금 더 미생물학과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시험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튜티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험 문제 해결 이후에 남는 시간 동안에는 서로 미생물 암기표를 물어봐주면서 복습을 하였고, 암기된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이 많은 만큼 복습이 절대적이었고, 이러한 학습 방법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복습하면서 미생물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생물 시험은 기출과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다소 있어서 모든 튜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문제들을 서로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용이 더 머리속에 부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암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점으로는, 구두로 모든 설명을 준비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설명하는 도중에 내용을 까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피피티 슬라이드를 준비하여서 무엇을 말할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적어놓았다면, 설명을 진행하는데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있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생물 기출에는 사진을 설명해야하는 문제들도 많았는데, 사진에 대한 묘사를 구두로 하려다 보니 튜티들간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피피티를 사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6/19	13:00~15:00	ZOOM	- 서로 미생물학 감염체 암기자료를 2인 1조로 나누어 암기를 진행한 다음에 서로 세균, 원충, 진균, 바이러스 등 4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해 랜덤으로 물어 봐주는 복기 시험을 진행함. 이후에는 감염체 중에 피부감염, 기회성감염, 전신감염 등 시험에 다기출 되는 항목들을 외워서 시험에 많은 대비를 할 수 있게 함. - 미생물 수업시간에 ppt 필기 중에 틀린 것은 없는지 비교하거나 놓친 필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채우거나 필기를 정정하고 되짚으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자연스레 복습이 이어졌고 개인적으로 하면 하기 힘든 복습을 같이 함으로써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 카톡으로 개인마다 보내준 시험지를 보면서 답에 대해 토의하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짐. 모르는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됨. 또한 잘못 채점되거나 잘못 출제된 내용이 있을 경우, 교수님께 개인 문의를 하여 성적 향상을 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음. - two component system에 대해 토의 Two-component regulatory systems 요약 : 두 요소로 구성된 유전자발현 조절체계, 모든 생물 (진핵, 고세균, 원핵)에서 발견됨 Two-component regulatory system의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은 TCS(two-component signal)를 포함 - sensor kinase(SK), 밖의 신호를 감지하므로 대부분이 막단백질이다. - response-regulator(RR) ex)EnvZ-sensor kinase/OmpR-response regulator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튜터링 활동을 통해 본인의 필기에 실책이나 잘못 적은 것은 없었는지 확인 할 수 있어서 유익한 활동이 되었고, 매주 시험 보는 감염체 자료를 시간을 따로 내서 암기하기 상당히 까다로운데 같이 하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 시험지에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좋았고, 동기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통해 미생물학 실력을 함양하게 된 것 같아 즐거웠다. 수업시간에 배운 Two-component regulatory system을 교수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이를 다시금 되새겨 보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봄으로써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만듦으로써 동기들의 실력이 함양된 것에 기쁘고 나 역시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Two-component regulatory system의 단백질들의 작용기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고, 필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미생물학의 유전 내용을 튜터가 설명해주고 서로가 얘기하는 시간을 통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 어려운 내용도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수업을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글로는 이해하기 조금은 힘든 미생물학의 유전 내용을 그림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미생물학은 양이 방대해 혼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같이 모여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튜터링을 하면서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복습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미생물은 공부해야 할 양이 타 과목에 비해 많기 때문에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학습법 소모임을 계기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미생물 강의 내용을 요약해 교수님께 제출하는 과제가 있는데 제출에서 그치지 않고 요약본을 서로 공유하며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부분과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른 점을 이용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활동이기에 매우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잘 모르는 부분을 무턱대고 질문하기 전 동기들끼리 상의하고 무엇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확실하게 정리하여 교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약본을 통한 복습 외에도 예습을 하여 다음에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예습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팀명 : HEATTECH

- 학습과목 : 디지털헬스케어산업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23. ~ 2021.06.1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23	10:00~12:00	온라인 zoom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 핵심 기술로 언급되는 IoT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이 외에도 튜티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공유를 하였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05/30	10:00~12:00	온라인 zoom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웨어러블기기의 역할 및 시장성에 대해서 설명. 추가적으로 흔히 알려진 위치종류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와 비슷한 사례의 기업을 조사해보는 과제를 부여함.
06/10	10:00~12:00	온라인 zoom	2회차에 주어진 과제를 바탕으로 튜티들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장단점을 비교해보았다.
06/19	10:00~12:00	온라인 zoom	기말고사를 앞두고,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내용을 각자 공유하였고, 튜터링에서 진행된 내용뿐만 아니라 시험에 나올만한 중요한 내용과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허*웅 - 여태까지 어떤 모임에서 리더를 해본 적은 여러 차례 경험은 있었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위치에 있어 본적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는 위치에만 있었기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막연함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튜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숙하지 못한 모습에도 이해를 해주고 웃고 넘어가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서 우려와는 달리 웃으면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

함*상 - 사실 ‘누군가의 감독 없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튜터와 전하제 학생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래이지만 배울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나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느낄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전*제: 비록 3학년이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배우는 전공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선배에게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선배들은 학습주제를 해당 과목에서만 응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전공수업과도 연관지어서 의견을 내는 것을 보고 대단함을 느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대학교의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성적에 얽매어 왔었는데, 이번 튜터링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시험을 위해 암기를 하고 중요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을 하면서 보다 이해를 쉽게 하고, 오래 기억에 남아서 성적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종합의견〉

사실 우리조 3명 모두가 굉장히 친한 사이라서 의견조율자체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진행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진행했다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zoom을 통해서도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에게 직접 여쭙보기 민망할 것 같은 질문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소한 부분도 쉽게 이해하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저절로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팀명 : 개미스트리

- 학습과목 : 생화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19. ~ 2021.05.2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19	16:30~19:30	zoom	생화학 과목의 'protein 구성요소 및 구조'에 관해서 알아봄
04/02	16:30~19:30	zoom	생화학 과목의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해서 알아봄
05/07	16:30~19:30	zoom	생화학 과목의 'enzyme 활성도'에 관해서 알아봄
05/28	16:30~19:30	zoom	생화학 과목의 'signal'에 관해서 알아봄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2021-1학기 전공 튜터링을 통해 의생명과학과 2학년 과목 중 '생화학'에 초점을 두어 전공과목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생화학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전공과목 중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3,4학년 전공 수업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므로 단순히 성적을 잘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탄탄하게 기초를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때문에 2학년 튜티들을 대상으로 전공 튜터링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줌으로 활동을 하는 만큼 때에 따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1학년들도 함께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백기동 - 1학년 일반생물학을 영어 원서 책을 배웠을지라도 2학년 레닌저 생화학은 양도 방대할뿐만아니라 내용도 난해하다. 튜터 본인이 1학년을 마친후, 생화학 원서를 읽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 힘들음을 알기 때문에 1학년때부터 같이 공부를 해오던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전공튜터링을 진행하게 되었다. 2학년 후배들이 mechanism을 이해하는 방법, 사진을 분석하는 방법, 용어를 자기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챕터의 목적, 배경등 책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해주었고 회기가 거듭될수록 변화하는 멘티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었다. 다음 학기도 기회가 된다면 많은 후배들과 공부하고싶다.
------------	--

조서현 - 2학년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세분화 된 전공을 배우기 시작한 3학년으로
써,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학년때 수강한
전공 과목 중 생화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어떤 과목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과목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양이 방대한 과목이며,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들
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2학년때는 단순히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
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생화학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넘
어갔다. 본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나아가 2학년 튜티들에게 추가적
인 배경지식 및 다른전공과목 내용을 연결시켜 전달해줌으로써 스스로 내용을 정리
함은 물론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박현정 - 2학년 전공 5개를 수강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 특히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인 생화학은 범
위도 넓고 내용이 어려워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튜터링을
통해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헷갈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어나가면 좋을지 등과 같은 선배님들만의 팁을 알려주셔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시험 기간에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답해주셔서 생화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튜터링을 통해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생화학을 포기하
지 않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윤주원 - 생화학이란 과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일학년 때 내용을 상기시켜 응용
해야한다는 점이 어려웠다. 그러나 튜터링을 통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팁을 얻
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특히나 평소 공
부할때 전체적인 흐름을 잡지 못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 부분을
선배님들께서 잡아주시고 학습 방향까지 조언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실질
적인 연구방법도 들으며 학습에서 나아가 실험에 있어서도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
을 수 있었다. 혼자 공부했다면 포기했을 것 같은 과목을 튜터링을 하면서 극복해나
간 점이 뜻깊었다.

팀명 : 봄오면 약치공부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Ⅳ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26. ~ 2021.06.1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26	08:30~10:00	각자의 집에서 zoom	요실금의 증상과 역학, 치료의 목표와 각 요실금 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예습해온 후 서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다.
05/29	08:30~10:00	각자의 집에서 zoom	우울증의 증상과 발병원인, 병태생리와 신경화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다. 또 우울증의 약물과 비약물요법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06/11	08:30~10:00	각자의 집에서 zoom	골관절염에 대한 개요와 분류, 역학, 병태생리, 병인, 임상 증상, 검사, 진단기준에 대해 발표하고 하나의 표로 정리하였다.
06/13	08:30~10:00	각자의 집에서 zoom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낭의 활막 만성염증이 지속되어 활액막이 증식되고 연골을 침범하고 관절 파괴를 유도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검사,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토의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듣고 공부했었던 약물치료학의 몇 가지 질병에 관해서 다시 예습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zoom으로 만나서 서로 같이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학기에 공부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도 잊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복습할 시간을 가지니까 다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서 기억이 되살아났다. 요실금이란 불수의적 요 누출인데 폐경 무렵 여성에게 가장 흔히 발생한다. 요실금의 위험인자는 비만, 폐경, 임신, 연령 증가, 방광류 등이 있다. 복합성 요실금은 외용 estrogen과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 항진제와 duloxetine을 사용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과 함께 행동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을 치료한다. 항무스카린성 약물의
------------	--

부작용을 고려하여 노인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치료 단독보다 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우울증은 감정이 음성적 방향으로 편향되는 주요 우울증과 감정이 음성과 양성 방향으로 번갈아 가며 편향되는 조울증으로 나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발병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우울증의 병태생리학적 원인은 전두엽피질과 해마부위의 부피가 감소하며 NE, 5-HT, DA와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감소하는 소견을 보인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지 않으면 양극성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을 병행한다. 약물요법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약물은 SSRI이며, SSRI단독요법 또는 SNRI, TCA, Li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계속해야한다.

골관절염의 경우 ESR <20mm/hr 로 염증반응이 없고 호발 연령이 50세 이후로 주로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DMARDs로 진행을 억제해야하고 류마티스 인자를 타겟하는 생물학적 제제가 있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생물학적 제제가 DMARDs 실패 시 추가되며 모든 제제는 methotrexate와 병용해야 할 효과 발현이 빠르다.

요실금, 우울증,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네 가지 질병에 대해서 예습을 한 후 줌으로 모여서 토의하면서 공부하니 더 기억에 잘 남고, 약국과 병원에서 실습할 때도 자신 있게 복약지도를 하고 발표 할 수 있을 것 같다.

팀명 : 상아로 찌르는 약치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I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4. ~ 2021.05.1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4	17:30~19:30	ZOOM	전해질불균형
04/28	17:30~19:30	ZOOM	위식도역류질환
04/07	17:30~19:30	ZOOM	AKI,CKD,신장이식
05/12	17:30~19:30	ZOOM	IBS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한정된 강의시간에 광범위한 양을 소화하다보니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수업 전에 튜터가 제공해준 필기를 토대로 예습한 것이 많이 도움되었다. 미리 한번 내용을 숙지한 덕분에 받아적느라 급급했던 필기는 핵심만 기입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수업 시간을 외우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약물 이름이나 특징에 관련된 암기법이 많이 기입되어 있어 익숙치 않은 약물들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기억은 그 당시의 기분과 함께 저장된다는 말이 있듯이, 웃음과 함께 기억되어 더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 복습의 경우 튜터가 알려준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르고 연관성 있게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약물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해당 과목에서는 질병에 관해 숲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게 더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튜터의 인도가 없었다면 우선순위 없이 공부하다 방향을 잡지 못했을 것 같다. 공부를 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붙잡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느낀다. 나트륨 결핍량 계산 등 단순 암기가 아닌 응용을 필요로 하는 내용도 많았기 때문에 튜터의 도움 덕분에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나아가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튜터가 직접 간단한 예비문제를 만들어주었는데, 여러 번 반복하여 숙지하다 보니 문제가 어렵지 않게 다가왔다. 운 좋게도 튜터랑 함께 다뤘던 계산문제가 중간고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	---

팀명 : 생화반삼

- 학습과목 : 생화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0. ~ 2021.06.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0	11:00~13:00	자택(zoom)	생화학의 기초가 되는 기초물리와 화학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수성 상호작용 등 분자적인 힘과 물리적인 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04/03	11:00~13:00	자택(zoom)	물의 여러 상호작용과 완충작용, 단백질의 1,2,3,4차 구조와 변성, 생체 내 다양한 기능에 대해 공부했다 수용액에서의 상호작용들로 수소결합과 이온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에 대해 정리하고 이온화와 관련하여서 평형상수 K_m 와 pH와 pKa를 통한 헨더슨-하셀바흐식의미에 대해 공부하였다 또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을 형성하기까지 1,2,3,4차 구조와 R기의 성질에 맞는 아미노산을 분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추가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 전기영동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였다
05/01	11:00~13:00	자택(zoom)	생체 내 촉매인 효소의 작용과 조절, 탄수화물과 당생물학에 학습하였다 효소의 전반적인 내용과 탄수화물, 당생물학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고 효소 반응속도론을 발표하며 반응속도식의 유도하였으며 Inhibitor이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K_m 값, V_{max} 값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효소의 조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또한 탄수화물의 구조와 종류(단당, 이당, 다당, 당포합체)들을 분류하며 공부했다
05/15	11:00~13:00	자택(zoom)	핵산, 핵산의 구성 요소인 뉴클레오타이드와 핵산의 일종인 DNA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에 대해 학습했다 뉴클레오타이드와 핵산, DNA 기반 정보기술에 대해 공부했는데 핵산의 구조와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능에 대해 공부하였다 또한 단백질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DNA기반 방법들의 활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며 학습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정 - 전공과목을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니깐 더 즐겁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즐겁게 시작하니 끝 마무리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습법 소모임 프로그램에 꼭 신청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배워서 알았던 내용도 후배들을 위한 퀴즈를 출제하다보니 새로 알게 되는 내용도 있었고 까먹은 내용은 복습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알차게 학습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희 - 저는 지금까지 제가 화학을 공부하며 터득한 학습법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후배들이 그 학습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특수아미노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다시 공부하며 필수 아미노산과 더불어 완벽한 암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솔 - 후배들이 잘 따라오고 생화학의 재미를 알아갈 때 저 또한 매우 즐거웠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저도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김*정 - 저는 화학공부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모임을 통해 극복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편 적 없던 레닌저 생화학을 꼼꼼히 읽어봤으며 화학의 기초를 다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분자 간의 힘'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인력, 반발력 등 자주 헷갈렸던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뜻 깊었습니다. 김*연 - 저는 생화학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부방법과 학교 생활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줌으로 그리고 카톡으로 모르는 걸 질문할 때마다 친절히 대답해주신 선배님들과 동기들 덕분에 한 학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선배들을 위해 '단백질' 파트를 요약정리하면서 큰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필기로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김*희 - 선배님들이 우리 조를 잘 이끌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새내기라 걱정도 많이 되고 처음 들어보는 수업을 어떻게 따라가야하나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동안 선배님들과 꾸준히 공부하면서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점도 메울 수 있었고 개념을 더 완벽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

팀명 : 실빈실빙

- 학습과목 : 의약품행정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4. ~ 2021.05.1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4	12:00~16:00	Zoom	약사의 전문성과 윤리
05/06	11:00~13:00	Zoom	의약품 사용: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나라 의약품 처방의 특성
05/11	19:00~22:00	Zoom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05/13	19:00~22:00	Zoom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장기요양보험 특징, 대상자, 종류, 대원조달 및 지불, 관리 운영체계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전공 튜터링을 진행한 ‘의약품행정학’이라는 과목은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장, 의약품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3~4학년 때 주로 배우는 의약품의 구조나 기능 등 의약품 자체에 대한 수업들과는 아예 다른 성격의 수업이다. 사회정책은 내가 평소 관심 없던 분야일 뿐만 아니라 용어 또한 생소하고 어려워 전공 튜터링을 신청하게 되었고, 튜터가 잘 이끌어준 덕분에 거부감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혼자 공부했으면 수업 내용만 암기하고 말았을 텐데, 같이 공부하니 수업 내용 이외에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런 이해관계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가 가능하여 좋았다. 또한 자발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겨, 혼자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찾아보는 등의 습관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튜터링 후 치룬 중간고사에서 2등을 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 과목에 대해 애정과 자신감을 갖게 되어 기말고사 또한 잘 준비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직 기말고사 성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튜터링 이전에 비해 사회적 현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기에 매우 만족하며, 또 이와 같은 변화는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을 것이기에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

팀명 : 안안물약

- 학습과목 : 약품물리화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3. ~ 2021.05.2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3	19:00~22:00	Zoom	(2장: 물질의 상태) 액체상을 포함하는 2성분계, 고체와 액체 제형에 적합한 응축계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함. 페놀과 물을 예로 들어 그래프를 통해 부분취임성, 공액상, 결선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05/10	19:00~22:00	Zoom	(5장: 비전해질, 6장: 전해질 용액) 실험영상을 통해 삼투현상을 관찰하고 화학 포텐셜을 이용하여 삼투현상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상용액과 실제용액의 정의와 차이를 공부함.
05/17	19:00~22:00	Zoom	(7장: 이온평형, 8장: 완충 및 등장용액) 생체에서 중요한 완충용액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해 공부함. 산-염기 평행의 개념, 약산과 약염기의 해리, 공통이온의 효과를 학습하며 완충효과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05/21	19:00~22:00	Zoom	(10장: 착물의 형성과 단백질의 결합, 13장: 약물 방출과 용출) 약물의 제형에 따른 특징과 약물의 방출과 용출에 대한 개념을 배움. 약물의 생체 이용률 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봄.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전공 교과목 튜터링을 통해 각 챕터에서 강조된 주요한 개념을 예습 및 복습하고, 전문 용어들을 자주 접하면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느껴졌던 물리화학 과목을 튜터와 함께 학습하며 실제 약물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다른 과목들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고 개념을 확장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	---

저희 튜터링은 튜터가 직접 만든 시험지를 통해 핵심 개념을 복습하고,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 체크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튜터가 배운 진도에 따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단권화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각 단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려운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주도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튜터링을 위해 준비한 전문 용어들과 그래프 해석에 대한 정리는 중간고사 과제와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해와 암기가 잘 되는지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유익했고 다른 전공 과목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튜터링은 차의과학대학교에서의 첫 학교 생활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전공 교과목 튜터링에 참가하여 전공 과목을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싶습니다.

팀명 : 약린이 약사되기

- 학습과목 : 예비실무실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7. ~ 2021.06.0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7	18:00~21:00	Zoom	약사윤리, 복약지도 방법, DUR 학습
05/14	18:00~21:00	Zoom	의약용어 총정리, 처방전 검토와 조제 및 DUR 학습
05/21	18:00~21:00	Zoom	OSCE, patient case study 연습하기+ 사회적 이슈 한가지 토론
06/04	18:00~21:00	Zoom	제약산업, 약무행정 등 다른 약사 직능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점 토론 + 사회적 이슈 한가지 토론 및 마무리 + 시험 대비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매 회차마다 튜터를 변경하면서 튜터가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보충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튜터는 소모임 전에 튜터가 공유하는 자료와 발표주제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한 후에 소모임에 임했으며 튜터는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잘 따라오는지를 평가하였다. 실제 약사가 되었을 때 익혀야 하는 처방전 검토, 조제 등의 실무를 학습하였으며 막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나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론적인 내용과 더불어 현재 약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팀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시간에는 약사의 윤리강령을 살펴보면서 약국에서의 담배 판매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첫시간인 만큼 팀원들이 토론 주제에 대하여 이해도가 낮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튜터가 미리 주제를 알려주면 각 팀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미리 찾아보고 공부해오도록 하였다. 배경지식을 쌓고 토론을 시작하니 모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였으며 다음주제 선정에도 큰
------------	--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토론주제는 1+3 공동생동 시험에 관한 입장이었는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교수님의 도움 및 상세한 사전조사 덕에 새로운 입법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시험준비를 위한 총 정리와 함께 소모임을 통해 초반과 달라진 점에 대해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팀원들이 소모임 전에는 폐이 약사만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소모임으로 많은 정책에 대해 토론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고 싶다는 팀원들이 생겼으며 미래의 직종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매년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모임 운영방식에 대해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 약학과 수업상 공부량이 많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각자 단원을 맡아 정리하다 보니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확보가 되었으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노하우도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팀명 : 약치장인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2. ~ 2021.06.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30	15:00~17:00	각자의 집	1. 녹내장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녹내장을 분류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본다. 녹내장의 약물치료법 및 비약물치료법에 대해 공부한다.
05/03	15:00~17:00	각자의 집	녹내장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 SOAP(주관적, 객관적 사실,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현재 환자가 복용 중인 약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토론을 통해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한다.
05/12	15:00~17:00	각자의 집	2. 편두통 현대인이라면 한번쯤 겪어봤을 편두통의 발생기전에 대해 배우고 진단 기준에 따른 치료 원칙 및 치료 알고리즘을 이해한다.
05/20	15:00~17:00	각자의 집	편두통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 SOAP(주관적, 객관적 사실,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현재 환자가 복용 중인 약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토론을 통해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한다.
5/26	15:00~17:00	각자의 집	3. 감기&발열 감기와 발열의 역학 및 병인에 대해 알아보고 선별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판단하는 연습을 한다. 각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도록 한다.
5/28	15:00~17:00	각자의 집	감기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 SOAP(주관적, 객관적 사실,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현재 환자가 복용 중인 약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토론을 통해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한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01	15:00~17:00	각자의 집	4. 금연 금연 교육 또한 약사의 의료서비스 중 하나이다.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한 인지 및 행동 전략을 잘 세우도록 도와주고 약물치료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주의 깊게 공부한다.
06/03	15:00~17:00	각자의 집	흡연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 SOAP(주관적, 객관적 사실,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현재 환자가 복용 중인 약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토론을 통해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한다.
06/14	19:00~21:00	각자의 집	5. OTC : 소화불량과 관련된 일반의약품 현대인의 상당수가 경험하는 소화불량의 병태생리에 대해 알아보고 증상에 따른 감별진단을 통해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약물치료방법을 강구한다. 그리고 시판중인 일반의약품을 제산제, 소화효소제, 생약제제 등으로 분류해 본다.
06/16	19:00~21:00	각자의 집	소화불량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 SOAP(주관적, 객관적 사실,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현재 환자가 복용 중인 약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토론을 통해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한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번 전공 튜터링을 통하여 작년에 배웠던 약물치료학을 기반으로 임상실무약학에서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무실습 시 약물치료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 때마다 이 튜터링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것 같다. 또한, 실습 중이지만 기말고사를 봐야했는데 기말고사를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특히나 편두통, 감기 및 발열, 금연, 소화불량과 관련된 일반의약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병태생리, 역학, 약물치료 등을 다시 튜터링을 통해 공부하면서 쉽게 할 수 있었다. 또한 튜터링 방식으로 하니깐 튜터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한 후 알려주게되었던 것 같다. 튜터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 같이 공부를 해서 한 주제가 끝난 이후 다음 튜터링 시간에 보충하면서 하였고 이 점이 모두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약국, 실습이나 병원 실습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각 실습시 과제할 때도 도움이 되었다.
------------	--

팀명 : 우아한약제학모임

- 학습과목 : 약제학 I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16. ~ 2021.06.06.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6	19:00~21:00	ZOOM	‘제 1장 약물의 흡수, 제 2장 제형변화에 따른 흡수변화’ 단원의 약물의 생체막 투과와 소화관에서의 약물 흡수, 비경구 흡수와 관련하여 튜터가 수업 자료를 준비해오고, 서로 설명하여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만들어진 문제를 교환하여 풀었다.
04/27	19:00~21:00	ZOOM	튜티들이 어렵게 느꼈던 ‘제 3장 약물의 체내 분포’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 조직분포, 림프이행, 뇌로의 약물분포, 태아로의 이행, 지방조직으로의 분포를 구분하여 공부하고, 서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였다. 튜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각자 만들어진 문제를 풀어봤다.
06/05	19:00~21:00	ZOOM	‘제 5장 약물의 배설, 제 6장 약물유전체학과 맞춤 약제학’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신배설, 약물대사효소에 대하여 튜터가 자료를 준비하고, 튜티들이 스터디 시간에 스스로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였다. 마지막 순서에서 각자 만들어진 문제를 공유하여 풀이하였다.
06/06	19:00~21:00	ZOOM	‘제 7장 컴파트먼트 모델’, ‘제 8장 투여방법과 경로에 따른 모델 해석’ 전반에 걸쳐 튜터가 수업 자료를 준비해 오고, 튜티들이 공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복습하였다. 또한 각자 만들어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력을 다졌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주된 약동학 파라미터와 해석 모델은 약동학을 공부하는 데 기본이 되지만, 내용이 어렵고 용어가 복잡하여 공부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전공 교과목 튜터링을 통해 임상 약제학 내용 전반을 복습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기에 앞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혼자 공부할 때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튜터가 다시 짚어주거나, 다른 튜티들이 질문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체크해볼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튜터의 자료로 공부한 후 스스로 남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교과서나 정리 자료를 읽을 때에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개념도, 직접 설명하려면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에 그 기본이 되는 개념까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팀명 : 유기 화학 학습 모임

- 학습과목 : 유기화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03. ~ 2021.06.1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03	21:00~23:30	ZOOM	할로젠화 알킬이 무엇인지에 앞서 알킬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 알아보았고, 할로젠화 알킬에서 일어나는 친핵성 치환반응의 기본적인 반응(S_N1 , S_N2)에 대한 특징과 각 반응을 구별하는 방법을 공부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습득한 뒤 튜티가 선정된 연습문제를 풀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06/04	21:00~23:40	ZOOM	할로젠화 알킬의 두가지 반응 중 하나인 친핵성 치환반응에 대해 다른 연습문제들을 풀어 다시 한 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 할로젠화 알킬의 제거반응($E1$, $E2$)반응의 특징과 구별 방법 등을 익혔다. 이후에는 연습문제를 풀어보며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틀린 문제는 피드백을 통해 재학습하였다.
06/08	10:40~12:30	ZOOM	먼저 앞서 배웠던 할로젠화 알킬의 도전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는 알코올, 에터 및 연관 화합물, 에폭사이드 단원 중에서 알코올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한 개념 이해를 진행하고 연습문제 풀이와 피드백을 통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학습했다.
06/13	16:00~18:30	ZOOM	탄소 화합물인 알켄의 특성과 Z, E 이성질체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였다. 그 후 알켄의 특성들을 알카인, 알케인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였다. 그리고 다음주에 있을 기말 시험을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유*재 - 일단은 멘토링 수업을 준비하고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튜터인 사람과 튜티인 사람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마지막 수업을 제외하고 연습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튜티의 이해도를 잘 파악할 수 있었고 튜터 또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유기 화학의 이해도가 더욱 상승할 수 있었다. 이번 학습 튜터링의 목표는 유기 화학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유기화학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1대1로 하는 튜터링 이다 보니 살짝 진도를 빠르게 해서 진행해도 별 차질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계획된 진도를 끝낼 수가 있었다. 일단 튜터로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우선은 나의 공부중에 부족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 튜티에게 설명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그 부분을 공부해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문제 풀이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서 나의 유기 화학의 대한 이해도도 더욱 상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튜터링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의 공부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희 - 평소 어렵다고 느껴지던 유기 화학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막막해 하던 찰나에 학습법 소모임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학과 동기 친구에게 부탁하여 이렇게 두 명에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괜히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인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기도 했는데 튜터가 힘든 내색 없이 질문을 하는대로 잘 설명해주어서 고마웠고 참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습법 소모임에 비해서 팀원이 적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이 모임 시간 스케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적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또한 같은 학과 동기이기 때문에 시간표도 거의 비슷하고 시험도 많이 겹쳐서 서로 응원해가며 학습을 했던 것이 정말 좋았다. 유기 화학이라는 과목은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과목들과도 개념이 연계되어서 이번 학기가 끝나도 소모임 활동을 통해 학습했던 내용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진행했던 활동이 좋은 경험으로 남아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팀명 : 좋은건 같이봐

- 학습과목 : 조제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13. ~ 2021.06.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13	13:00~17:00	zoom	(1단원) 약사와 약료서비스 : 약사의 사회적역할과 약료 서비스에 대해 익힘 (2단원) 환자안전과 질관리 : 환자안전과 약물이상 반응 모니터링 학습 (3단원) 의약품 관리 : 의약품 사입 및 재고관리 방법을 배움 (4단원) 약물요법 관리 : 약물관련 문제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높힘 (5단원) 의약정보 : 근거 기반 약료로 합리적인 판단법을 배움 (6단원) 처방전 접수와 검토 : 약사의 기본인 처방전 접수방법을 익힘
06/15	13:00~17:00	zoom	7단원: 임상약동 서비스: 임상약동서비스가 필요한 약물의 종류를 배움 1-6 단원에 대한 퀴즈 보기
06/16	13:00~17:00	zoom	(8단원) 조제실무와 조제약 감사 : 외용약, 마약류, 주사약 조제법을 익힘 (9단원) 약물효과 모니터링 : 환자 모니터링과 추적관찰법을 배움 (10단원) 복약상담 및 의사소통기법 : 환자별로 다르게 상담하는 방법 학습 (11단원) 일반의약품 선택상담 : 증상별로 다르게 추천하는 OTC를 익힘 (12단원) 의료기기, 동물용의약품 등 선택상담 : 기타 의약품의 종류를 학습 (13단원) 의약품 투약과 환자상담 실무 : 다양한 투약방법을 미리 배움
06/18	13:00~17:00	zoom	(1-13단원) 정리본을 바탕으로 퀴즈 및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우리는 현재 약학과 6학년으로 각각 서로 다른 실습지에서 열심히 실습을 하고 있다. 약국, 병원, 회사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하는 말이, 5학년 때 배웠던 '임상실무약학'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었다. 그말인즉슨, 이 과목은 약사로서의 직능을 직접 행하기 위한 교본이자, 기초가 되는 지식들이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귀한 실습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임상실무약학'을 다시 한 번 공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팀명도 이 좋은 과목을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좋은건 같이봐'로 정하였다.

단순히 모여서 무작정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잘 했던 동기의 진두지휘 하에 공부를 함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교과스터디가 아닌 전공튜터링을 선택하게 되었다. 실제로 김상욱 학우는 '임상실무약학'의 학점이 좋았고 잘 하기로 소문나있어 우리는 튜터로 초빙하여 스터디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스터디는 크게 4단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사전에 설정해준 진도를 각자의 방식으로 요약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토의(하부르타)를 진행한다. 각자의 정리본을 진도 순으로 취합하고 어느 정도의 공부 시간을 가진 뒤 퀴즈 및 수행평가를 진행한다.

잘하는 학우를 튜터로 두고 공부를 하니 작년에 공부했던 것에서 어떤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교정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실습 중에 이 과목을 공부하니 직접 실무와 연관지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만나서 튜터링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내에 칠판기능, 채팅 기능 등을 이용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게임처럼 퀴즈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공부 뿐만 아니라 스터디 전에 각자 근황을 주고 받기도 하고 시국 탓에 많은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와중에도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순기능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실습 중에 프리셉터 약사님들께서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다 알아요'하면서 놀라셔서 매우 부듯하였다. 물론 학기 중에 배운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기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종의 복습을 하였기에 더 잘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음 번에도 이러한 전공 튜터링이 열린다면 또 신청할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후배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이 과목을 교수님께 배울 때 튜터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한 평가는 받지 못하였지만(패스 논패스로 이루어지기 때문) 후배들에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튜터였던 김상욱 학우에게 감사인사를 올리며 이만 소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팀명 : 파마코테라피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5. ~ 2021.05.26.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5	18:00~20:00	각자 집	Hypertension&Venous Thromboembolism (VTE) 질병의 증상, 발병 기전, 치료방법에 대한 학습
05/12	18:00~20:00	각자 집	Dyslipidemia 질병의 증상, 발병 기전, 치료방법에 대한 학습
05/19	18:00~20:00	각자 집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질병의 증상, 발병 기전, 치료방법에 대한 학습
05/26	18:00~20:00	각자 집	stroke 질병의 증상, 발병 기전, 치료방법에 대한 학습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전공 교과목 튜터링으로 약물치료학 과목을 대상으로 동기들과 함께 한 학기동안 활동하였다. 약물치료학 과목이 lms에 3시간 가량의 수업분량으로 강의가 올라와 혼자 의지를 갖고 듣기엔 무리였다. 전공 교과목 튜터링으로 해당과목을 진행해 억지로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약물치료학 강의를 듣게 되어서 좋았다. 또한, 한 주에 배운 내용을 강의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기들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과 강의를 듣다가 조금 불분명한 부분, 교수님 말씀을 놓친 부분에 대해 토론하면서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떤방식으로 진행해야할지 막막하고 약물도 너무 많고 적응증 별로 달라지는 케이스도 너무 많아 복잡했는데 좀 더 단순하게 내용이 정리되는 느낌이라 좋았다. 튜터링 하면서 암기도 함께 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한, 튜터를 중심으로 동기들과 전공튜터링을 진행하니 동기들 모두 준비를 많이 해올수록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참여했더니 모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전공튜터링을 통해 스터디원들과 정리한 자료가 내년에 국가고시를 볼 때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 같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전공교과목 튜터링을 한번 더 진행해 약물치료학 과목을 완벽히 소화해 추후 약사로서 일을 할 때에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학교 성적과 국가고시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
------------	---

팀명 : 화아학 날아라

- 학습과목 : 생화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6. ~ 2021.05.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6	19:30~21:30	online zoom	호르몬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며 그 호르몬들이 어떤 수용체에 붙어 작용을 진행하는지를 살펴본다. 수용체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에 작용하는 호르몬들의 기원도 다양하다. 아민계 호르몬, 펩타이드 호르몬 등 많은 종류의 호르몬들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각 호르몬들을 종류별로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팀들을 알려주었다.
04/13	19:30~21:30	online zoom	Lipid metabolism,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생각해보는 주제로 지방이 어떻게 산화되고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팔미트산, 즉 우리 생체막을 이루고 있는 지방산의 산화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을 계산하여 효과적으로 지방을 산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생각하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효소들이 등장해서 다소 어렵고 생소했으나 어느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생각해보며 요약하고, 정리해보려 노력했다.
05/04	19:30~21:30	online zoom	우리가 먹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몸 속에서 대사되며, 그 아미노산들이 잘 분해되어 어떻게 요소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아미노산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외부적으로 잘 섭취해줘야 함을 알게되어, 식단을 어떻게 먹을지도 고민해보았고 그 20가지 필수아미노산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면서 잘 외울 수 있는 문장도 다함께 만들어보았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11	19:30~21:30	online zoom	지질은 우리가 활동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대사산물이다. 최소한의 지방이라도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지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세포들이 깨지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게하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 저장해두었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효율적으로 지방의 양을 조절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어떤 signaling 받아서 지질의 생합성을 진행하는지 공부하는 part 였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박*원 - 남에게 설명할 수준으로 공부하여야 내 것이 된다는 말처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수준으로 공부하려면 정말 많은 이해가 필요함을 더욱 느끼게 된 것 같다. 단순히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다보니 지금까지 쌓아 온 전공지식들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 남에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교육 쪽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으며 행복하게 튜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최*희 - 대학교 2학년이 되어, 일반화학, 일반 생물학처럼 전공지식들을 위한 기초 학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공 수업들이 시작되어 조금 막막하였다. 하지만, 전공튜터링을 통하여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으니 보다 수월하게 생화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세세한 것들을 알려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호 -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방대했던 레닌저 생화학의 뒷부분을 짧게나마 복습할 수 있었다. 우리과 전공 수업의 핵심이라면 핵심일 수 있지만 과목의 방대함과 난이도로 인해 2학년 학생들이 많이 놓치고 가는 과목이다. 본 튜터링으로 각 전공 과목의 핵심 토픽바퀴라고 할 수 있는 생화학이 어떻게 유기화학, 세포학, 분자생물학과 엮이고 추후의 내분비학, 유전학, 그리고 발생학까지 엮일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정 - 생화학이란 과목을 배우는데 있어 어려움을 많이 느끼던 중이었는데 전공 튜터링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좋았다. 혼자 공부할 때와 달리 선배님들의 직접적인 조언과 설명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을 통해 핵심내용을 예습 복습하며 흐름이 잘 잡히지 않던 부분이 보완되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기억에 남아있어 추후 시험공부 시 개념을 잘 떠올릴 수 있었다.

2021 학 년 도 1 학 기 학 습 법 소 모 임 활 동 사 례 모 음 집

IV. 리더리더스

IV. 리더리더스

팀명	팀원	학과
김가네 책방 (우수)	김*림	AI보건의료학부
	김*린	AI보건의료학부
책책책 책임져 (우수)	김*미	약학과
	박*연	약학과
	윤*연	약학과
	이*주	약학과
	최*희	약학과
CHAmomile	박*호	의생명과학과
	정*진	간호학과
개미와 베짖이	김*정	약학과
	김*솔	약학과
	박*희	약학과
리딩리딩파워	홍*택	약학과
	고*영	약학과
	김*주	약학과
	손*정	약학과
	오*정	약학과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최*웅	약학과
책 읽읍시다	이*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삼*오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현	스포츠의학과
	이*은	의생명과학과
	이*경	상담심리학과
	김*서	간호학과
책식주의	황*현	약학과
	배*희	약학과
흔들리는 벚꽃 속에서 독서향이 느껴진거야	안*민	약학과
	유*위	약학과

팀명 : 김가네 책방



- 학습과목 : 약물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4. ~ 2021.05.2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04	13:00~15:00	ZOOM을 통한 회의	〈옥상에서 만나요〉에 대한 감상 공유 및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05/09	13:00~15:00	ZOOM을 통한 회의	〈목소리를 드릴게요〉에 대한 감상 공유 및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05/23	13:00~15:00	ZOOM을 통한 회의	〈시선으로부터〉에 대한 감상 공유 및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림 - 이번 소모임을 통해 작가 한 명의 일대기를 쭉 훑을 수 있어 유의미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초반 작품부터, 가장 최근 작품까지 읽으면서 정세랑 작가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잘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요즘 핫한 작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작품을 세 권이나 읽어보니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그에 대해 냉철한 통찰을 담고 있어 읽는 내내 생각이 깊어진 적이 꽤 많이 있었다. 덕분에, 나 또한 사회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시금 내 생각을 정돈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장편과 단편을 모두 읽다보니 호흡이 짧은 소설만 인스턴트식으로 읽지 않고 집중력이 필요한 장편 소설도 이번 기회에 열심히 읽어볼 수 있어 뜻깊었다. 김*린 - 정세랑 작가는 소모임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얘기할 거리가 많은 작가라고 생각해서 소모임 주제로 삼으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토론내내 얘기할 거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특히, 〈시선으로부터〉는 소재부터가 특이하고 소설 전개가 요즘 시대상을 잘 담고 있어 누군가와 자세히 감상을 나누며 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소모임을 통해 원없이 감
------------	--

상을 나누고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았다. 또 2회차 모임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책을 읽고 나의 감상을 공유하는 식이 아니라 많은 기사와 다른 책을 참고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보았는데, 이제껏 해보았던 다른 소모임과 확연히 다르게 유익했다. 책에 대해서 탄탄하게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소모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독서토론을 하면서 느끼는 효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듣기, 말하기, 생각하기 능력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하고 내 생각을 말하면서 정리하는 경험은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위의 세 가지 능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든 때에 독서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상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유의미하게 느껴졌다. 또한, 말을 하지 않고 책을 읽고 그저 머릿속으로 짊어온 감상평만을 남길 때는 책을 읽고도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모임을 통해 토론을 하니 결과 보고서를 쓰는 지금까지 책에 대한 감상을 오래 남길 수 있었다. 더하여, 조원 둘 다 첫 모임 당시에는 말하는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내용이 정리가 잘 안될 때가 많았는데 세 번째 모임을 가질 때에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정돈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다. 소모임 자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보니, 머릿속의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훈련을 여러 번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팀명 : 책책책 책임져



- 학습과목 : 약물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14. ~ 2021.06.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6/14	10:00~12:00	zoom	책 '폭풍의 언덕'을 읽고 각자 느낀점과 감상을 토론했다.
06/16	10:00~12:00	zoom	책 '오늘도 약을 먹었습니다'를 읽고 각자 느낀점과 감상을 토론했다.
06/18	10:00~12:00	zoom	책 '돈 공부는 처음이라'를 읽고 각자 느낀점과 감상을 토론했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사전에 미리 각자 정해진 날짜 전까지 책을 읽고 난 뒤, 기말고사까지 끝난 다음 ZOOM을 통해 만나 책을 읽고 느낀 점과 감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다 같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 다음 소모임이 열린다면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 더 나아져 얼굴을 보고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먼저 첫 번째 책인 '폭풍의 언덕'은 아무래도 평소에 우리가 이런 소설책을 읽을 기회가 현저히 적어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문학책을 통해 메달랐던 정서를 좀 되살려 보고자 정하게 되었다. 두 번째 책인 '오늘도 약을 먹었습니다'는 우리 학교 선배인 박한솔 약사가 쓴 책이라는 이야기를 교수님들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었고 당장 이번 겨울부터 있을 실습 전에 선배가 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에 고르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돈 공부는 처음이라'는 최근 들어 주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주식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식과 투자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다.
-------------------	---

폭풍의 언덕을 읽고 난 뒤 다들 감정 소모가 심해서 그랬는지 특히 열을 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어 더욱 재미있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영화로도 폭풍의 언덕을 읽은 친구가 있기도 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시대 별 폭풍의 언덕 영화판을 찾아보고 영화 주인공들과 우리가 생각했던 히스클리프를 비교하며 누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순위를 매겨보기도 했다. 덕분에 영화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번 방학 때 꼭 챙겨 볼 생각이다. 폭풍의 언덕을 제외하고 남은 두 권의 책은 모두 요즘의 우리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욱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책을 그저 읽었을 때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배경지식을 친구의 입을 통해 설명들을 수 있어 오히려 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팀명 : CHAmomil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9. ~ 2021.05.2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09	10:00~12:00	각자 집ZOOM	진로(과학)라는 주제에 대해 열두 발자국이라는 책을 읽고 토의
05/07	10:00~12:00	각자 집ZOOM	자기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 작은 것의 힘(사소한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토의
05/21	10:00~12:00	각자 집ZOOM	관심분야(심리학/사회)라는 주제에 대해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고 토의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자신과 관련되었거나 관심을 가진 주제들을 선정하고 관련된 독서를 읽은 후 토의,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지식을 함양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리딩리더스 활동의 메리트라고 느꼈다.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타인과 타협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해당 능력이 향상됨을 느꼈고 나와는 다른 관점으로 같은 주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읽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및 생각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의미있었던 것 같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과 연관지으며 읽는 것을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한 느낌이 들어 뿌듯했다. 이후 이 세 가지 주제외에 더 다양한 독서를 하며 지식의 폭을 넓히고 싶다.
-------------------	--

팀명 : 개미와 벵장이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1. ~ 2021.05.2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3/21	20:00~22:00	zoom	90년대생이 온다를 읽고 세대차이 이해 및 전반적인 경제흐름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모임을 통해 서로의 해석과 감상을 공유하였다.
05/02	20:00~22:00	zoom	책으로 시작하는 부동산공부를 읽고 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독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05/23	20:00~22:00	zoom	나의 월급독립 프로젝트를 읽고 주식에 대한 기초개념들에 대해 익히고 서로 주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지 현재 투자에 관한 견해가 어떤 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사실 편입공부와 전공공부, 또 어학공부 등에 치여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메모만 해두고 있고 넘어가곤 했었는데 이렇게 소모임을 통해서 각자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선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혼자 읽으면 그냥 읽고 휘발될 수 있었던 것을 감상문을 써보고 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토의할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책에서 얻은 내용을 정리하고 또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읽으니 책을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을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같은 책을 매개로 대화를 함으로써 평소에는 잘 이야기 하지 않았던 서로의 경제적인 생각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친구들과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고 몰랐던 생각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의 경제관이나 현재 소비계획, 미래의 저축, 투자계획 등을 듣고 나니까 평소에 너무 생각없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별다른 계획없이 소비하기만 했던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학기 중이라 책을 3권밖에 읽지 못하였지만 알게 여러권 읽는 것보다 분석하며

읽을 수 있어서 확실히 책의 내용에 대해 각인되고 내 것의 정보가 된 느낌이라 좋았고, 이번 학기는 주로 부동산, 주식 등 경제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모임을 통해 한편의 책을 끝까지 집중력있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내안의 지식 창고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책을 읽고 하는 감상과 토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팀명 : 리딩리딩파워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30. ~ 2021.05.2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30	16:00~18:00	집(ZOOM)	책 '육일약국 갑시다'를 읽고 약사로서의 삶과 경영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토론하며 앞으로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지 의견을 나누었음
05/14	16:00~18:00	집(ZOOM)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읽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되돌아보고 각자 생각하는 혼자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함
05/28	16:00~18:00	집(ZOOM)	책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책의 저자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무엇인지 각자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무엇인지 토론해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방식을 이야기 해보았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총 3회차의 활동을 진행하며 3권의 책을 읽고 토론을 해보았는데 각자 다른 주제와 의미를 담고 있는 책들이어서 다양한 소재거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었다. 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준 덕분에 풍요로운 토론 시간이 되었다. 첫 번째, '약사로서의 삶'에 대해 각자 진로 방향은 다양하지만 책의 저자처럼 일함에 있어 자신의 뚜렷한 신념을 세우는 것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고 독서, 홈트, 드로잉, 쿠킹 등 다양한 자기계발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하여는 사후세계, 현실세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철학적인 책들이었는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책들을 읽고 토론해보면서 함께 삶의 방향성에 대해 더 고민해 보고자한다. 바쁜 학기였지만 이러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틈틈히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	--

팀명 : 책 읽읍시다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12. ~ 2021.06.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12	22:00~23:00	온라인 ZOOM	각자 책 한 권을 읽고 요약 및 소감 발표 후 책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짐.
05/03	22:00~20:00	온라인 ZOOM	서로 추천 받은 책을 읽은 후 요약 및 소감 발표, 짧은 논제에 대해 의견을 서로 묻고 다음 차시 토론 책을 정함.
05/18	22:00~23:00	온라인 구글 미트	‘13일의 김남우-김동식’을 읽고 <도덕의 딜레마>에 나오는 2가지 논제에 대하여 토론함.
06/04	22:10~23:00	온라인 구글 미트	‘천개의 파랑-천선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김초엽’을 읽고 소감을 나눈 뒤, ‘인간 배아 디자인’에 대하여 토론함.
06/18	22:00~20:00	온라인 구글 미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장 지글러’를 읽고 소감을 나눈 뒤, 기아와 현 경제 체제, 경제 양극화에 대하여 토론함.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자신이 읽은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것은 정말 그 책이 마음에 들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읽은 책의 재미를 다른 사람도 느꼈으면 하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을 다른 사람이 공감해주기를, 내가 든 감정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소모임에 참여하는 학우들에게 책을 소개했던 것 같다. 또, 미리 정해진 책을 읽을 때에도 학우들이 추천한 이유를 들어보고, 책 속에 담긴 작가의 의도와, 책 속에 담긴 찬반의견들을 학우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토론해보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겹치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놀라며 토론에 참여했다. 대학에 와서 시사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을 좋아했지만,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토론
------------	---

수업은 사라졌다. 누군가와 특정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교육법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다만, 내가 읽은 책의 재미를 더욱 강조해서 학우들에게 소개했어야 했는데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한 채 소개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평소 독서량이 부족해서, 독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리딩리더스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무려 여섯 권의 책을 읽고, 팀원들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활동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팀원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읽으면서 분야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즐겨 보지 않던 SF소설이나 경제 등과 관련된 책을 접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의 폭이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팀원 개인이 가진 독특한 관점의 의견들을 나누면서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미하고, 사유하며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리딩리더스 활동은 나로 하여금 책을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 독서/토론을 통해 세계의 경제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흥미를 가짐으로써 독서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학기 중에는 전공 공부와 병행해야 했던 위 활동들이 벅차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활동이 끝나고 돌이켜 보면 리딩리더스 활동을 통해 더 알찬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고, 되려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리딩리더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신청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한 학기 동안 매우 만족스럽고 좋은 경험을 했다.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책에 대해 설명하고 내 감상을 덧붙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설정과 환경에서 이 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생각한 것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곧 바로 이해하고 1~2시간 가량의 토론 시간동안 집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늘 저녁 늦은 시간에 토론을 진행하고, 시간에 쫓겨 토론을 종료했는데 씩으면서,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할 수 있어 더 좋았던 것 같다. 토론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논리의 오류와 말하기 오류 등을 생각하면서 더 생각이 발전되고 이를 또 카톡방에서 편하게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모두 다른 과에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활동이라 어색할까봐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지만, 토론하면서 서로 농담도 하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너의 의견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며 골고루 발언권을 갖고, 비슷비슷한 참여도로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너무 좋았다.

팀명 : 책식주의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3. ~ 2021.06.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03	17:00~19:00	ZOOM	〈아비투스〉 읽고 토론
04/21	17:00~19:00	ZOOM	〈쇼코의 미소〉 읽고 토론
06/03	9:00~12:00	ZOOM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읽고 토론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그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습관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책 읽는 습관이 바로 그 좋은 습관 중 하나이다. 평소 책을 잘 읽지 않고 막상 책을 읽으려 해도 탄생각을 할 뿐 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책 읽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학습법 소모임은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조원과 책 읽을 시간과 기간을 정하였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모임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어서 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	---

팀명 : 흔들리는 벚꽃 속에서 독서향이 느껴진거야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0. ~ 2021.05.2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3/30	13:00~15:30	줌 인터넷	각자 읽은 총균쇠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4/27	13:00~15:30	줌 인터넷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책을 읽고 각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미래성과 성장성을 책에 내용과 비교하여 서로의 포트를 공유하여 하반기 어떤 섹터 위주로 포트를 구성할지 논의했습니다.
05/25	13:00~15:30	줌 인터넷	좋은사람에게만 좋은사람이면 돼 책을 읽고 어떤 내용의 문구나 문장의 시가 가장 좋았는지와 그 이유를 말하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생각의 공유시간을 보냈습니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번 학습법소모임을 통해서 저희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 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시간을 내서 책을 읽게 되었고 또 같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학습법소모임에 뽑히지 않았다면 독서를 쉽게 자발적으로 안했을 것입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감과 생각이란걸 더 많이 했습니다. 각 책의 장르와 내용이 달랐지만 우리에게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공통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다음 학기에도 그대로 뽑혀 앞으로도 많은 교양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21 학 년 도 1 학 기 학 습 법 소 모 임 활 동 사 례 모 음 집

V.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V.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팀명	팀원	학과
언택트엔 영화조 (우수)	이*광	SI보건의료학부
	윤*빈	SI보건의료학부
현상태 (우수)	안*빈	약학과
	김*환	약학과
	김*욱	약학과
방구석	김*림	SI보건의료학부
	김*린	SI보건의료학부
방구석 시네마	황*현	약학과
	배*희	약학과
싱글빙글영글	김*미	약학과
	박*연	약학과
	윤*연	약학과
	이*주	약학과
	최*희	약학과
어른이들	고*영	약학과
	김*주	약학과
	손*정	약학과
	오*정	약학과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최*웅	약학과
	홍*택	약학과
영화 없이는 못살아	안*민	약학과
	유*위	약학과
영화차차	이*지	약학과
	이*연	약학과
	정*희	약학과
	김*현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이동갈비	이*재	데이터경영학과
	허*영	데이터경영학과
	김*규	데이터경영학과
조이(JOY)	이*하	AI보건의료학부
	김*민	AI보건의료학부
	김*은	바이오공학과
차밍	이*수	약학과
	이*영	약학과
	정*지	약학과
	채*은	약학과
차약이의 무비월드	최*빈	약학과
	홍*린	약학과
화양연화 아니라 차약영화	김*정	약학과
	박*희	약학과
	김*정	약학과
	김*솔	약학과

팀명 : 언택트엔 영화조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2. ~ 2021.06.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5/29	10:00~13:00	집	〈활동내용〉 인타임영화를 감상하고 주인공의 입장, 여주인공의 입장, 그리고 타임키퍼의 입장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만약 그때의 상황에서 나왔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이러한 영화적 현실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또한 만약 내가 감독이라면 이 장면은 수정 또는 추가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보았다.
06/06	10:00~13:00	집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영화를 다시봤을 때의 소감,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의 소감을 이야기 해보았다. 과연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웃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고, 아버지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예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변함없는 태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나중에 결혼할 상대가 이렇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영화는 재개봉 되었던 영화인데, 이렇게 명작이라고 불리며 사랑받는 영화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 해보았다.
06/15	10:00~13:00	집	너의이름은을 보고 가장 감명깊었던 장면,사랑에 대한 이야기, 과연 몸이 바뀌면 어떤일을 제일먼저 해보고싶을까, 운명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또한 마지막 활동으로서 영글클럽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에 대해 느낀점과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좋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했었다. 또한 이렇게 재난상황이 발생시 어떻게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았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1. 영글클럽활동을 하면서 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생했던것 같다. 미리 할 일이 있으면 즉각즉각 하는 것이 맞는것 같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아쉽기도하고 시원하기도하다. 2. 이렇게 영화를 보고 소감을 쓰는 것이 무슨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글로써 표현함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재미있는지 알게된 계기가 된것 같다. 3. 영화에 대한 서로의 고정관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각보다 깊게 그리고 쉽게 있다는 사실에 한번더 놀랐다. 영화를보면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관점,그리고 서로가 다른 시점을 통해 보는 것이 이 활동의 가장 큰 성과 같다. 4. 이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영화를 봤다. SF영화,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 그리고 일본애니메이션까지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만 보려는 성향이 강한데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좋았다.
------------------------------	--

팀명 : 현상태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12. ~ 2021.06.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6/12	20:00~23:00	줌 (ZOOM)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스페인, 터키, 인도, 프랑스 등지에서 18차례 리메이크 되어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완벽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한쪽도 감아먹지 않는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최선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해보았다.
06/15	20:00~23:00	줌 (ZOOM)	활동을 계획 할 때 정한 '케빈에 대하여'를 각자 집에서 혹은 편한 장소에 감상 후에 '줌'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특히 미리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한가지 씩 단톡방에 올려 사전에 공유한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활동에 임하였다.
06/18	20:00~22:00	줌 (ZOOM)	영화 '소울'을 보고 참여 인원들의 일상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특히, 영화를 보기전에 일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영화를 본 이후의 생각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보며 영화가 우리의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확인하게 되었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상욱: 영화를 보는 것이 취미인 나는 영화를 감상하고 난 뒤 내가 느낀 감정을 블로그를 활용하여 남기곤했다. 이번 영글 클럽을 통해 단순히 내 생각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히 좋았다. 예를 들어 같은 장면이더라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 내가 무심코 넘어간 장면을 캐치해주는 등 혼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영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	--

앞으로도 영글클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영화 모임을 주최하여 감상평을 나누는 기회를 종종 가져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김*환 -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대면 모임이 힘들었지만 같은 영화를 보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정말 귀한 경험이었다. 영화를 보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며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재밌었다. 특히, 서로 다른 장르의 영화를 선정하였는데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은 영화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다. 각자가 흥미롭게 여긴 영화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깨닫는 부분도 이번 영글모임의 가장 큰 결과라고 생각한다. 추후 더욱 다양한 영화를 더 선정하여 관람하면서 이 모임에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만남을 비대면 혹은 대면 등 형태에 얽매임 없이 유지하고 싶다.

안*빈 - 스터디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고른 영화들을 통해 인간관계, 모성애, 인생의 참된 의미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더 잘 알게 되고 친목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었다.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답을 구하려고 했던 것보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뜻깊은 시간이었다. 소울 영화에서 본 것처럼 동기들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팀명 : 방구석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9. ~ 2021.05.16.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3/29	20:00~22:00	비대면 진행 (ZOOM)	영화 <벌새>를 감상했다.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주인공이 의 존하던 이의 부재나 예상치 못한 이별 등에 의한 주인공 의 성장과 변화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05/02	20:00~22:00	비대면 진행 (ZOOM)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감상했다. 주인공들이 겪는 다양한 사건들과 그 안에서의 주인공들 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선택이 한계가 되었 을 때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05/16	20:00~22:00	비대면 진행 (ZOOM)	영화 <우리집>을 감상했다. 세 명의 어린 주인공들 각자의 사정과 '집'에 대한 이야기 를 들으며 어린 시절의 우리를 떠올렸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만의 시선을 상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항상 소모임을 진행할 때,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흐름에 맞춰 영화를 감상하 곤 했다. 이번에는 부담 없이 그냥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골라서 보자고 했 고, 결론적으로 영화 선정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오히려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 기하는 것이 즐거울 것 같아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벌새>, <델마와 루이스>, <우 리집> 세 작품을 골랐고 각각 <이상>, <한계>, <모험>이라는 부제도 정해주었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 경험하고 선택하고 고민하고 상상하는 과정에 빠진다. 이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 있다. 사랑과 희망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의 상징인 벌새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적 인 관계를 바라고, 그렇기에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며 상황에 대한 최대의 반향으 로 갑작스러운 도피 혹은 '모험'을 떠나기도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로 이어져 있듯, 전혀 다른 주제를 선택했음에도 이 모든 것이 일련의 과정 속에 흘러 가는 모습을 보인다.
---------------	---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금방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하기도, 과거를 들추기도 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 내 과거가, 날 만든 사건들이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이 또한 역시 현재가 아닌 상상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다. 과거에 대해 또 새로운 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소모임을 통해, 여러 관계의 이야기들을 감상하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팀명 : 방구석 시네마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6. ~ 2021.05.06.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06	09:00~12:00	자취방	〈완벽한 타인〉 영화 시청 및 토론
04/22	09:00~12:00	자취방	〈국가부도의 날〉 영화 시청 및 토론
05/06	19:30~21:30	자취방	〈리틀 포레스트〉 영화 시청 및 토론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답답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번 영글클럽에 신청하게 되었다. 소모임 덕분에 총 3가지 영화를 보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리틀 포레스트〉는 한국식 현대 시골 라이프의 그림을 잘 그려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바쁘고 분주한 삶을 내려 놓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시골 라이프를 선택하게 만든 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 부도의 날〉은 1997년 외환위기를 다룬 작품이고 〈완벽한 타인〉은 개개인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비춰주는 영화이다. 세가지 영화 모두 재미있었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	--

팀명 : 싱글벙글영글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04. ~ 2021.06.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6/14	12:00~14:00	Zoom	영화 '컨테이션'을 시청하고 조원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함.
06/16	12:00~14:00	Zoom	영화 '미나리'를 시청하고 등장인물의 심리와 입장에 공감하며 타국으로 떠난 많은 이민자를 이해하게 됨.
06/18	12:00~14:00	Zoom	영화 '최악의 하루'를 시청하고 여자 주인공과 남자들의 관계와 여자 주인공의 태도에 집중함.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영글클럽은 총 3회 진행되었으며 컨테이션, 미나리, 최악의 하루를 시청하고 토론했다. 특정 장르만 선호하고 시청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영글클럽을 통해 평소에 보지 않던 장르의 영화까지 시청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영글클럽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함으로써 내 생각 뿐 아니라 조원들의 의견까지 다양한 영화의 해석을 접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영화 '미나리'에서는 주인공인 모니카와 제이콥이 대립하는 장면이 있는데 토론을 통해 각 인물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인물에 더 공감되는지 이야기 하면서 영화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단순히 영화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독후감을 쓰고 토론을 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장면들과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찾을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종강을 해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적었는데 학습법 소모임 영글클럽을 통해 동기들과 영화를 보고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	--

팀명 : 어른이들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6. ~ 2021.06.0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5/06	13:00~15:00	집(ZOOM)	영화 '소울'을 보고 '삶의 의미와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토론 진행.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영화의 주제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야기함.
05/20	13:00~15:00	집(ZOOM)	영화 '코코'를 보고 '죽음, 꿈과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토론 진행. 영화의 영상미와 노래에 대해 이야기 함.
06/03	13:00~15:00	집(ZOOM)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내 안에서 나를 찾기: 슬픔에 의미'를 주제로 토론 진행.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슬픔이라는 감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총 3회차의 활동을 진행하며 디즈니&픽사의 영화인 '소울', '코코', '인사이드 아웃'을 감상했다. 세 영화 모두 같은 제작사의 영화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비슷하고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고 쉬워서 모든 조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삶의 의미와 재발견', '죽음, 꿈과 가족의 소중함', '내 안에서 나를 찾기: 슬픔에 의미'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나와 내 주변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단순한 영화감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부듯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을 마련해 친구들과 의견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다.
------------	--

팀명 : 영화 없이는 못살아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9. ~ 2021.05.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3/29	13:00~16:00	Zoom	미 비포유 라는 영화를 각자 시청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특히 영화를 같이 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각자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하였고, 느낀 점에 대해서 토론하였는데, 이때 스스로 감상문을 직접 써보며 서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였다. 스스로 생각을 공유함에 따라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04/05	13:00~15:00	Zoom	이번 영화에는 저번에 봤던 영화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며 스스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감상한 후 Zoom으로 다시 한번 모여 각자의 줄거리와 느낀 점을 말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서로의 생각을 말할 시간이 짧았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긴 하다.
05/10	13:00~15:00	Zoom	이번에는 시험이 끝난 후 처음으로 영화를 본 것이어서 더욱더 설렘. 이번에도 저번에 봤던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진 후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영화를 시청하였다. 그 후로 Zoom으로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에 죽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영화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삶의 일부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를 감상한다는 것은 영화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해준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영화를 시청하도록 장려시켜준 차의과학대학교 학습법 지원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해
------------	---

준 것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향후 후배에게도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영글클럽은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닌 동기들과의 친목과 더불어 사회성, 에다가 토론실력까지 키워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것같다. 단순 주입식 교육을 가진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 일반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가치를 이번 소모임을 통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팀명 : 영화차차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13. ~ 2021.06.1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6/13	21:00~22:00	각자 집	모라토리움기의 다마코를 보고 각자 보고 느낀 점을 ZOOM을 통해 나누었다.
06/14	21:00~22:00	각자 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각자 보고 느낀 점을 ZOOM을 통해 나누었다.
06/15	21:00~22:00	각자 집	컨택트를 각자 보고 느낀 점을 ZOOM을 통해 나누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평소에 그냥 보고 지나쳤을 영화들에 대해서 보다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영화를 보고 느낀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영화를 보고 느끼는 점이 모두 비슷할 때도 있고 다른 점도 많아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영화를 볼 때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보지 않고 영화의 각각의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며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되었다. 3편의 영화감상을 통해 여러모로 느낀 점이 많은 시간이었다.
-------------------	---

팀명 : 이동갈비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17. ~ 2021.06.1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6/17	21:00~24:00	Zoom	영화 마더 관람 및 감상회
06/18	21:00~24:00	Zoom	영화 괴물 관람 및 감상회
06/19	21:00~24:00	Zoom	영화 기생충 관람 및 감상회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매 학기마다 보던 이동갈비 친구들을 코로나 이후엔 비대면 수업으로 자주 볼 수 없었는데 이번 학습법 소모임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게 됐다. 영화를 핑계 삼아 줌에서라도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온라인 모임을 통해 그간의 서로의 근황들 얘기하고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영화들 등 서로의 정보도 공유하였다. 아쉬운 점이라면 온라인 모임이라 다양한 활동을 하기엔 한계점이 있었다. 원래 지원금으로 공짜로 영화관람 후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있었는데 식당과 주점들이 일찍 문을 닫게 되면서 다들 사는 집이 멀어 모이는 게 어렵게 되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영화관에서 자주 영화도 보고 밥도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팀명 : 죠이(JOY)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5.03. ~ 2021.06.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5/03	18:00~21:00	zoom	영화 헝거게임(판엠의 불꽃)관람 및 토론
05/10	18:00~21:00	zoom	영화 인페르노 관람 및 토론
05/17	18:00~21:00	zoom	영화 소원 관람 및 토론
06/19	18:00~21:00	zoom	결과 보고서 작성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평소에 영화를 보고 나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찾아보곤 했는데, 비교과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같이 영화를 보고 또 그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공유해볼 수 있어서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평소 영화를 자주 보지만 누군가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 기회를 영글클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좋아하는 장르가 다 달라서 영화 선정하는데에 3명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아 평소 접하지 않았던 장르를 이번 기회를 통해 만나볼 수 있기도 했다.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꼭 영글클럽 소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평소 영화를 볼 때 단순히 재밌다, 슬프다 라는 감정만 가지고 영화를 봤었다. 영글클럽을 통해 이미 봤던 영화도 친구들과 토론하며 영화 속에 드러난 사회비판의 문제들을 시사하다 보니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 더 재미있게 느껴진 좋은 시간이 되었다.
------------	--

팀명 : 차밍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29. ~ 2021.05.2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29	10:00~13:00	Zoom	온라인을 통해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 감상 이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각자 영화를 재생 한 후 Zoom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감상하는 식으로 진행함. 영화 감상이 끝난 후에는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빈곤층의 현실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05/13	10:00~13:00	Zoom	온라인을 통해 영화 “트루먼 쇼” 감상 이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각자 영화를 재생 한 후 Zoom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감상하는 식으로 진행함. 영화의 등장인물인 트루먼에게 제작진이 조작한 “행복한 삶과 세트방 밖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 가는 과정을 보며 인생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 의견을 나눔.
05/24	10:00~13:00	Zoom	온라인을 통해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감상 이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각자 영화를 재생 한 후 Zoom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감상하는 식으로 진행함. 영화의 배경인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환경 문제, 성차별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눔.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영화는 당시의 세상을 제작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비판, 희망, 꿈과 같은 다양한 메시지가 담긴 매력적인 매체이다. 영상과 소리, 그리고 등장한 사람들로 전달받을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눔으로서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같이 지구 반대편의 빈곤층부터 한국의 1990년대 경제 성장기 여성들의 시선으로 보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트루먼 쇼와 같이 불가능하지만 한 번쯤 누구나 생각해봤을 이야기들을 직접 영상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시간이었다.
------------	---

팀명 : 차약이의 무비월드

- 학습장소 : 집, 카페
- 학습기간 : 2021.04.25. ~ 2021.06.1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25	14:00~17:00	집, 카페	영화 '봄날은 간다'를 감상하고 현실적인 사랑에 대한 입장 차이와 자세히 그려진 감정선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사랑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05/27	13:00~16:00	집	영화 '1987'을 감상하고 토론을 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지금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준 열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동시에 언론의 보도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06/17	19:00~22:00	집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감상하고 서기 180년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었다. 영화 줄거리, 연출, 음악까지 볼거리가 풍부하고 몰입도가 강한 영화라 서로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 다시 보고 싶은 영화로 선정하게 되었다.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총 3편의 영화를 보았고, 각각의 느낀점들을 서로 공유했다. 사랑에 대한 가치관, 민주화 운동에 대해 깨달은 점, 로마 제국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등 영화 장르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다양했다. 이 영화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주제들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서 의미 깊었다. 영글 클럽의 장점은 영화를 혼자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점이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 나누며 상대방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줄거리뿐만 아니라 연출이나 음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	--

팀명 : 화양연화 아니라 차약영화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8. ~ 2021.06.1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08	18:00~20:00	자택(zoom)	공동 주제로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외모지상주의 풍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자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나아가 우리는 장애를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외모라던지 인종이라던지) 타인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05/05	18:00~20:00	자택(zoom)	소울은 가벼운 애니메이션같지만 장면전환도 많고 스토리상으로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각자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인물들의 행동, 그리고 발생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서로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이 영화가 의도하고자 한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06/15	18:00~20:00	자택(zoom)	소모임전까지 영화 동주를 감상한 후에 영화감상문을 쓰고 서로 공유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의 조선인들의 삶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죽는 날까지 불꽃처럼 살아준 우리 선조들에게 존경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함께 영화를 보면서 서로의 감상을 들어보고 나아가 각자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 서로 더 가까워질수 있었던 것 같다 원더와 동주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소리치며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피트라는 시험을 치면서 하나의 큰 산을 넘어온 후 조금 느슨해졌다고 느꼈던 우리들에게 영화 소울은 또 다른 불꽃을 심어주는 영화였던 것 같다. 세 개의 영화는 다른 주제와 다른 내용으로 영화를 보고 느끼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는 영화들이었다
------------	---

2021 학 년 도 1 학 기 학 습 법 소 모 임 활 동 사 례 모 음 집

VI. 교수 학생 합동 소모임

VI. 교수 학생 합동 소모임

팀명	팀원	학과
굿 바이오	유*재	의생명과학과
	윤*연	의생명과학과
	유*정	의생명과학과
	김*원	의생명과학과
	김*호	의생명과학과
	이*은	의생명과학과
데마초 (데이터 마이닝 초급반)	이*흔	데이터경영학과
	한*지	데이터경영학과
	박*주	데이터경영학과
	김*규	데이터경영학과
마이크로겔즈 시즌3	손*나	약학과
	김*우	약학과
하나에 '열정' 둘에 '파워' 하나!둘!	박*언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하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유*현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정	의료홍보미디어학과
화학아 확 덤벼라!	오*진	바이오공학과
	김*지	바이오공학과
	김*주	바이오공학과
	박*서	바이오공학과
	조*지	바이오공학과

팀명 : 굿바이오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6. ~ 2021.06.0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6	13:00~15:00 22:00~24:00	대면, 비대면 병행	대면으로 간단하게 인사 후 소모임 진행 방법과 스케줄 작성, 오후 10시 이후엔 줌으로 모여서 일반 생물학 단어 정리 및 단어의 의미 발표
05/15	22:00~24:00	비대면 (구글 미트)	Prokaryotic cell의 binary fission으로 reproduction하는 과정, Eukaryotic cell의 reproduction 과정, Tumor cell의 생성 과정과 생성 이유 등을 anchorage dependence와 density dependent inhibition을 이용하여 설명
05/22	22:00~24:00	비대면 (구글미트)	멘델의 분리 법칙과 독립의 법칙을 이해, 다인자 유전, 복대립 유전을 이해, 융모막 검사, 양수 검사를 통한 태아의 유전 정보 분석을 이해
05/29	22:00~24:00	비대면 (구글미트)	박테리아가 유전 정보를 Transformation, transcription, conjugation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학습, Plasmid의 존재 이유와 전달 과정을 학습
06/03	18:00~20:00	비대면(줌)	T 세포가 CD4와 CD8이라는 분자 중 어떤 것을 발현하는지에 따라 크게 CD4+ T 세포와 CD8+ T 세포로 나뉘는 것을 학습, 보통 CD4+는 '도움'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공격하지는 않아도 B 세포를 활성화해서 항체를 생성하게 하거나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하는 간접적 조절한다는 것을 학습
06/04	18:00~20:00	비대면(줌)	MHC는 1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를 끼울 수 있다는 것을 학습, 클래스 II 분자의 경로로 소포체에 수송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소포체에 들어오는 펩티드나 세포자신이 새롭게 생산한 펩티드가 클래스 II 분자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유*재(팀장) - 매번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는 것을 자주 까먹고, 사진 찍는 것을 많이 까먹는 등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 했지만, 그래도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으며 다음에도 꼭 하고 싶습니다. 김*원(팀원) -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동기들과 친밀감이 증가되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전공 공부를 같이 함으로써 서로 모르는 부분을 보충해 가면서 진행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다. 이*은(팀원) - 학기 초부터 동기들을 모아 소모임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해봄으로써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했고 성적이 오르거나 전공 지식을 쌓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있었던 것 같다. 또한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더 괜찮았다. 다음에도 이 친구들과 소모임을 같이 해보고 싶다. 유*정(팀원) - 친구들과 같이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공부하다 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소모임 진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소모임 활동이 생긴다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윤*연(팀원) - 처음에는 친구들과 발표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친구들이 잘 호응해주고 교수님께서 친근하게 해주셔서 쉽게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김*호(팀원) - 일반 생물학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정리하며 공부하니 금방 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표를 여러 번 하면서 발표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일반 생물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	--

팀명 : 데마초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4.02. ~ 2021.05.2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2	20:00~22:00	온라인 (ZOOM)	텍스트마이닝을 진행할 주제 선정
04/03	10:00~12:00	오프라인 (데이터경영학과 실습실)	텍스트마이닝을 진행할 방식 선정
05/14	10:00~12:00	오프라인 (데이터경영학과 실습실)	추출한 데이터를 정제
05/28	20:00~22:00	온라인 (ZOOM)	데이터시각화를 통해 분석 및 해석 앞으로 공부 목표 설정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한*지 - 처음으로 학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소모임 중 하나인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에 참여했는데, 작년 비정형 데이터분석: 텍스트마이닝 전공에서 배운 이론을 기초로 교수님 지도하에 초반 서먹했던 팀원들과 친분을 쌓고, 직접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한 학기였습니다. 직접 주제 및 텍스트마이닝 진행 방식 선정부터 데이터 수집, R을 활용하여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어휘네트 워크분석·해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직접 코드를 짜면서 오류들로 인해 시행착오들을 겪었으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수강 신청한 과목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해 온라인 모임도 진행했던 점이었습니다.
	박*주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공부해보고 짜여진 코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코드를 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혼자라면 불가능했을 텐데, 다같이 매일 고민하고 오류를 몇 시간만에 해결했을 때 그 뿌듯함을 원동력삼아 이것저것 더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학생 소모임이 또 진행된다면 또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규 - 이번 교수-합동 소모임이 세 번째 소모임이었는데 팀원 간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학습 결과도 명확하고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존 전공으로 배우던 데이터마이닝 심화 과정을 팀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어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가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을 때는 올해 손에 꼽을 정도로 성취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소모임이 마지막 소모임이지만 진행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흔 - 맨 처음에는 교수-합동 소모임을 해본 적이 없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 소모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면서 코드, 해석 등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팀원들 또한 매일 매일 팀원들끼리 만나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실하게 임해주었습니다. 특히 코드가 이해가 잘 안가서 힘들어할 때, 팀원들 모두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의 코딩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주석도 달아주시고 ZOOM으로 실시간으로 코드의 목적, 흐름, 활용 방안 등등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교수-합동 소모임을 통해 코드 해석 실력뿐만 아니라 새로이 코드를 작성하고 NH사태 등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해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수님과 팀원들을 만나서 기뻐고 다음에도 교수-합동 소모임을 할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팀명 : 마이크로겔즈 시즌3

- 학습장소 : 차바이오컴플렉스
- 학습기간 : 2021.04.12. ~ 2021.05.0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2	15:00~17:00	차바이오컴플렉스	introduction of PA14P construction : PA14P strain에 유전자를 치환하여 PA14P construction을 진행
04/19	15:00~17:00	차바이오컴플렉스	Tn transmutagenesis : 실험은 대장균과 녹농균의 mating을 통해 Tn mutagenesis를 일으킨다. 이를 통해 얻어낸 수천가지의 돌연변이들을 96well에 접종시켜 하루 배양한 후 PP7에 감염시킴
04/26	15:00~17:00	차바이오컴플렉스	PP7 coat protein : 서로 다른 단일 가닥 RNA 단계의 코팅 단백질은 다른 RNA 머리핀을 인식하기 위해 공통 단백질 3차 구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RNA 결합 특이성의 분자적 기초를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모델을 제공
05/03	15:00~17:00	차바이오컴플렉스	Thermal Stability of RNA Phage Virus-Like Particles Displaying Foreign Peptides : Foreign Peptides의 유전적 표시에 유용하려면 바이러스성 코팅 단백질은 하위 유닛 접힘 및 캡시드 조립의 중단 없이 펩타이드 삽입을 허용해야함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우리는 이번 연구실 심화실습을 통하여 RNA phage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을 신청하게 되었다. 연구란 무엇보다도 교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적절한 feedback과 이를 반영한 실험 방법 수정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4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Lab meeting 시간을 가졌다. 4주간의 학습 주제를 크게 네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면 1) Introduction of PA14P construction, 2) Tn transmutagenesis, 3) PP7 coat protein, 4) Thermal Stability of RNA Phage Virus-Like Particles Displaying Foreign Peptides 이다. 각 항목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소모임 시간 전까지 관련 논문을 읽어오
------------	--

기로 하였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고 중요한 실험 skill, 실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이론 등을 check하여 왔다. 모임을 통해 서로 check한 내용을 나누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주시고 질문 등에 답해주셨다. 논문강독의 시간이 끝나면 교수님께 실험 중간 보고를 드렸다. 이 또한 단순히 data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어떠한 점을 개선하면 좋아질 것 같은지 나름의 해석과 의견을 제시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feedback과 교수님의 견해도 제시해주셨다.

이러한 소모임을 통해 단순히 RNA phage에 대한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 skill, 더하여 1차, 2차 문헌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상기 활동은 우리가 다른 실습지에서도 문헌을 다룰 때 유용했다. 또한 어떠한 현상을 해석할 때 하나의 지식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었다.

팀명 : 하나에 '열정' 둘에 '파워' 하나! 둘!

- 학습장소 : 집, 학교
- 학습기간 : 2021.04.12. ~ 2021.05.2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2	22:00~24:00	ZOOM	회의: 공모전 선정 및 주제 정하기, 관련 우수사례 기획서 분석
04/13	22:00~24:00	ZOOM	회의: 출전 공모전 주제 자료조사 및 브리핑, 기획의 방향 학습
05/02	22:00~24:00	ZOOM	회의: 공모전 기획 (다이아몬드)
05/03	20:00~22:00	ZOOM	회의: 공모전 기획 (다이아몬드)
05/06	10:00~12:00	학교	회의: 스토리보드, 장소, 대역 픽스
05/10	10:30~12:00 22:00~24:00	학교, ZOOM	학교: 교수님께 자문 및 피드백 회의: 피드백 반영 및 스토리보드 수정
05/11	22:10~24:00	ZOOM	회의: 공모전 기획 (나의 버프, 바프)
05/12	12:00~15:00	ZOOM	회의: 공모전 기획 (나의 버프, 바프)
05/13	10:20~12:00	학교	학교: 교수님께 스토리보드 중간점검
05/14~05/17	10:00~14:00	ZOOM	회의: 촬영 전 마지막 재검토, 소품, 구도 등 기획 마무리
05/18	08:00~18:00	학교	촬영
05/20	20:00~22:00	ZOOM	회의: 추가촬영 관련 회의
05/21	11:30~14:00	학교	회의: PT보드 및 영상 촬영본 확인, 나레이션 녹음
05/22~05/27	10:00~14:00	학교	편집 및 PT보드 제작
05/28	07:00~08:00	학교	최종본 제출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활동 전, 우리 팀이 이번 소모임을 통해 얻고자 했던 학습 목표는〉 1. 다양한 광고 공모전 도전하기 2. 현 광고 트렌드에 대해 학습하기 3. 공모전 및 다양한 광고에 대해 분석하고 광고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하기 4. 좋은 광고란 무엇일지, 그 기준은 무엇일지에 대해 알아보기
------------	---

5. 광고기획안 작성법에 대해 학습하기 이었다.

여러 번의 회의와 활동을 통해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의 길림양행 HBAF(바프)의 공모전을 계획했던 것처럼 제작해냈고, 이러한 과정에서 광고 기획서 작성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팀원들과 열심히 활동하면서 계획했던 학습 목표는 자연스럽게 달성하게 되었던 것 같다.

열정적인 팀원들뿐만 아니라 팀의 담당 교수님이셨던 한기훈 교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피드백해주시며, 완성도 있는 기획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탄탄하게 광고와 영상을 기획하는 법과 우수 수상작들의 공통점을 비교해 보며 앞으로 준비해보아야 할 기획의 방향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었다.

우리가 준비했던 공모전은 영상 공모전으로, 기획과 영상 촬영 및 편집 능력이 같이 수반되어야 했다. 촬영도 날씨와 장비 대여 등 많은 변수가 발생했지만 이런 경험으로 인해, 다음 공모전을 준비할 때는 더 많은 것을 고려해서 준비할 수 있고,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촬영 외에도 기획했던 아이디어를 엮고, 새로 구성하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더욱 더 아쉬움이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개인 소감〉

박*연 - 이전까지 학습법 소모임에 참여해본 적은 있지만,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은 이번이 처음 참여해본 활동이었다. 소모임 활동으로 미리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다. 또한, 팀원들끼리만 활동하면 발생할 수 있는 아쉬운 점들이 교수님의 도움으로 인해 보완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이 소모임 활동의 큰 메리트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너무 즐거웠다.

유*현 - 소모임 활동을 통해 회차별로 계획을 세워나가며 더 체계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더불어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나가며 공모전에도 도전 할 수 있어 결과물도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었고 이번계기로 많이 성장 한 것 같아 부뒸하다!

이*정 -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서 팀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한 아이디어를 촬영을 통해 구현해나가면서 부뒸함을 느낄 수 있었고 2개월 동안 소모임을 하면서 결과물을 완성되었을 때 성취감을 느꼈다!

김*하 - 처음으로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을 참여해보았는데,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광고를 분석하고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교수님의 객관적인 눈을 통해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팀명 : 화학아 확 덤벼라!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3.25. ~ 2021.06.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5	20:00~23:00	zoom	1. 화학의 이해 - 거시적, 미시적, 기호적 수준으로 이해하기, 화학의 분야 알아보기 2. 화학의 기초 (1) - 〈화학의 원리〉 교재 예제 풀이 (F7~F69) 3. 화학의 기초 (2) - 〈화학의 원리〉 교재 예제 풀이 (F7~F69)
05/12	20:00~23:00	zoom	1. 원자 양자 세계 (1) - 원자의 핵모형, 원자 스펙트럼 알아보기, 양자론에 대한 이해 2. 원자 양자 세계 (2) -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 3. 원자 양자 세계 (3) - 원자 성질의 주기율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전자 친화도 “”) → 중간고사 범위 → 강의 PPT 자료 예제 문제 풀이 (3,4,5 주차)
05/19	21:00~00:00	zoom	1. 화학결합 (1) - 이온결합, 공유결합 2. 화학결합 (2) - 팔전자 규칙의 예외, 이온결합 공유결합 비교하기, 공유 결합의 세기, 길이 3. 분자모양과 구조 (1) - VSEPR 모형, 원자가 결합 이론, 분자 오비탈 이론 → 강의 PPT 자료 예제 문제 풀이 (6,7,9 주차)
05/26	22:00~01:00	zoom	1. 기체의 성질 - 기체의 속성, 기체 법칙 2. 액체의 성질 - potential energy의 거리의존성, 이온-쌍극자 힘, 쌍극자-쌍극자 힘 3. 고체의 성질 - 고체의 분류 → 강의 PPT 예제 문제 풀이 (11~14주차)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지 - 대학교 첫 시험을 동기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소모임 활동의 가장 큰 감점인 것 같다. 어쩌면 적응하지 못 할 수도 있었지만 든든한 동기들 덕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었고, 또 모르는 화학 문제들을 다 같이 풀어가면서 활동을 하다보니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느낌도 받아 너무 좋았던 활동 시간이었다.

김*주 -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이 화학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처음에 혼자 공부하는데 반감이 있었는데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동기들과 모여 서로 모르는 것을 공유하고, 매주 선생님 역할을 하는 학생은 설명하기 위해서 더 완벽하게 공부하며 배우는 입장에서 모르는 것을 눈높이 맞는 설명으로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의 설명으로 함께 성장하는 win-win활동이었다.

박*서 - 화학은 이론과 문제풀이를 동일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친구들마다 자신 있는 이론이 다르기에 서로의 장점을 살려 문제풀이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 경쟁이 아닌 서로 도우며 공부를 함께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관계 형성 부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진로와 관련하여 활동을 해보고 싶어졌다!

오*진 - 혼자 학습했을 땐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반화학이 소모임 활동을 한 후에는 재미있게 느껴졌다. 모르는 문제도 동기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여 풀고 나면 희열감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과 함께 한 소모임 활동은 일반화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진로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수-학생 소모임 활동은 나에게 학습 능력과 나의 진로를 구체화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조*지 - 아무래도 화학이라는 것이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과목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화학이라는 과목이 마냥 어렵게 느껴졌고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하며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다 보니 마냥 어렵고 힘들기만 한 과목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비록 화상회의 프로그램이지만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단순히 대학 동기가 아닌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어준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에 감사하다.

2021 학 년 도 1 학 기 학 습 법 소 모 임 활 동 사 례 모 음 집

VII. 하계 소모임 학습법

VII. 하계 소모임 학습법

팀명	팀원	학과
국토의 대장정 (우수)	김*욱	약학과
	김*연	약학과
	김*혜	약학과
	김*환	약학과
	안*빈	약학과
떡잎방법대 (우수)	임*혜	SI보건의료학부
	김*훈	SI보건의료학부
	이*운	SI보건의료학부
	최*진	SI보건의료학부
	홍*준	SI보건의료학부
지혜로운건 우리 (우수)	황*건	상담심리학과
	권*결	상담심리학과
	박*원	상담심리학과
	강*인	상담심리학과
A4	김*현	SI보건의료학부
	오*림	SI보건의료학부
	정*수	SI보건의료학부
	정*희	SI보건의료학부
ABSOLUT SUMMER	김*정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장*영	약학과
CHAsick girls kill this TOEIC	공*은	미술치료학과
	이*은	간호학과
	임*영	식품생명공학과
공.뿌!	정*지	약학과
	김*희	약학과
글로벌한 소소예찬	김*연	약학과
	김*안	약학과
	이*연	약학과
	정*희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너나들이 차약서당	고*영	약학과
	김*주	약학과
	손*정	약학과
	오*정	약학과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최*웅	약학과
	홍*택	약학과
대진필	최*진	상담심리학과
	김*성	상담심리학과
	박*원	상담심리학과
	최*림	상담심리학과
딩동케어	정*욱	약학과
	홍*린	약학과
	이*정	약학과
	이*휘	약학과
미새 (미술치료 새싹)	선*혜	미술치료학과
	이*주	미술치료학과
방학에도 공부할꺼야	배*희	약학과
	황*현	약학과
법규이규규	배*희	약학과
	안*빈	약학과
	윤*원	약학과
	이*민	약학과
	정*영	약학과
	유*위	약학과
봉쥬르	안*민	약학과
	이*정	약학과
분차검활부차	김*우	약학과
	박*람	약학과
	정*정	약학과
	손*나	약학과
	김*민	간호학과
슬기로운 간호생활	김*현	간호학과
	김*서	간호학과
	김*지	간호학과
	김*지	간호학과

팀명	팀원	학과
송야호	이*민	약학과
	정*욱	약학과
	정*섭	약학과
	이*휘	약학과
야나도할수있죠	강*현	SI보건의료학부
	곽*지	SI보건의료학부
약대가자 말고 약사가자	고*영	약학과
	김*주	약학과
	손*정	약학과
	오*정	약학과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최*웅	약학과
	홍*택	약학과
약치 100% 정복	이*주	약학과
	김*미	약학과
	최*희	약학과
	윤*연	약학과
	박*연	약학과
약치 이계머선129	이*현	약학과
	장*래	약학과
	최*빈	약학과
연구하자팀	김*정	약학과
	정*지	약학과
오므라이스	지*서	바이오공학과
	청*주	바이오공학과
	이*윤	바이오공학과
이젠좀하자	공*린	SI보건의료학부
	김*린	SI보건의료학부
전공의 1RM을 올리자	김*서	스포츠의학과
	조*서	스포츠의학과
	류*영	스포츠의학과
	최*은	스포츠의학과
	임*원	스포츠의학과
	최*인	스포츠의학과

팀명	팀원	학과
주전자와 아이들	박*원	상담심리학과
	이*혜	상담심리학과
	이*현	상담심리학과
	임*민	상담심리학과
차약, 파리에 가다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민*기	약학과
	박*	약학과
	이*지	약학과
	한*훈	약학과
최광불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박*	약학과
	이*지	약학과
컴활 불타오르네	윤*연	약학과
	이*주	약학과
	김*미	약학과
	박*연	약학과
	최*희	약학과
토린이들	김*호	상담심리학과
	김*늘	상담심리학과
	송*수	상담심리학과
	이*윤	상담심리학과
	임*수	상담심리학과
파이오니어(POIONEER)	심*미	바이오공학과
	이*우	바이오공학과
	김*중	바이오공학과
한국사 공부모임	서*연	약학과
	김*정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한여름 밤의 병태	김*정	약학과
	문*주	약학과
	박*현	약학과
	조*정	약학과
화성탈출지원	이*현	약학과
	최*빈	약학과
	한*훈	약학과

팀명 : 국토의대장정



- 학습장소 : 토익
- 학습기간 : 2021.08.03. ~ 2021.08.1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8/03	19:00~22:00	줌	LC 파트인 Part 3, 짧은 대화 부분에서 주제, 목적, 이유, 대화의 장소, 화자의 직업/직장 등과 관련된 문제
08/06	19:00~22:00	줌	RC 파트 중 Part 5와 Part 6의 문법 문제 중 시제 문제에서 능동태/수동태
08/10	19:00~22:00	줌	영국발음, 호주발음 음원을 듣고 대본을 따라 읽으며 독해연습, part 7
08/13	19:00~22:00	줌	LC/RC 모의고사, 당일 발간된 영자신문 두 편을 돌아가며 해석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스터디원들은 모두 약학과 6학년으로 내년에는 약사로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병원, 회사 등에서 취업을 위해 토익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목표점수를 받기 위해 함께 토익 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차 의과학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해주는 해커스 인강을 듣고 함께 진도체크도 하고 단어시험도 보았다. 또한 출제빈도가 높았던 문법 사항들은 정리 노트를 만들어 정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호주식, 영국식 발음은 반복적으로 들으며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영어 독해 실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The Korea Times에서 기사를 찾아 함께 해석하기도 하였다.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을 익히며 한층 더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스터디원들 모두 그동안 토익 공부는 늘 혼자하면서 지루함을 느꼈는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 처음으로 토익 공부를 재미있게 하였다. 2시간 모의고사를 풀 때도 혼자하는 것보다 스터디원들과 zoom을 통해 진행하니 훨씬 긴장감 있게 집중하여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듣기를 할 때도 잘 들리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서로 잘 들을 수 있는 비법을 설명해주며 실력향상을 도와주었다. 다섯 명이 똘똘 뭉쳐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분명 앞으로의 토익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공부한 스터디원들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학교의 학습지원센터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스터디에 꼭 참여하여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	--

팀명 : 떡잎방법대



- 학습과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1. ~ 2021.08.1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1	10:00~11:00	ZOOM	본인 목표 자격증 설정 1급 필기, 실기 : 김*훈, 이*운, 최*진 1급 실기 : 홍*준 2급 필기 : 임*혜 1주 목표 설정 필, 실기 준비(인터넷 강의, 문제은행 활용) 진행 방식 논의 및 선정 본인 학습 진도 및 진행 상황 발표 및 공유 어려웠던, 헛갈렸던 문제, 주제 공유
07/08	10:00~11:00	ZOOM	목표 달성 확인 김*훈 - CBT 문제은행 활용, 1급 필기 16~18년도 1, 2회 문제 풀이 이*운 - IT버팀목, 유동균 문제은행 필기 기출문제 풀이 1급(3회 분량), 복습 예정 임*혜 -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1단계 액셀 1회 풀이 및 복습 (기본, 계산, 분석, 기타 작업 포함) 최*진 : CBT 문제은행 활용, 1급 필기 15~20년도 1, 2회 문제 풀이 / 틀린 문제 확인 중 홍*준 -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1단계 액셀 1회, 2회 풀이(기본, 계산, 분석, 기타 작업 포함)
07/15	10:00~11:00	ZOOM	1. 목표 달성 확인 김*훈 - 19~20년도 CBT 문제은행 컴활 1급 필기 1, 2회차 문제 풀이 및 복습 예정 이*운 - IT버팀목, 유동균 문제은행(컴활 1급 필기 2009년, 1~4회)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임*혜 : 18~19년도 CBT 문제은행 활용, 컴활 2급 필기 문제 풀이 및 복습, 모의고사 풀이(어플 활용) 최*진 - 18~20년도 CBT 문제은행 컴활 1급 필기 복습, 유동균 - 1급 단기 실기 정규 강의 수강(1강, 고급필터) 홍*준 - IT버팀목,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1단계 엑셀 출제유형분석 3~6회 수강
07/22	10:00~11:00	ZOOM	1. 목표 달성 확인 김*훈 - 컴활 1급 개념 정리 및 틀린 문제 복습 이*운 - IT버팀목, 유동균 문제은행(컴활 1급 필기 2010년 1, 2회 풀이) 임*혜 - 18~19년도 CBT 문제 복습, 20년도 문제 풀이 최*진 - 18년 필기 문제 1회독, 19~20년 문제 2회독 (CBT 문제은행) /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정규 강의 수강 (2~5강 수강 / 조건부서식, 보호기능과 페이지 설정, 수학, 통계, 논리함수, 찾기, 참조, 문자열함수) 홍*준 -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1단계 엑셀 출제유형분석 7회, 액세스 1~2회 수강)
07/29	10:00~11:00	ZOOM	1. 목표 달성 확인 김*훈 - 복습한 내용 바탕으로 CBT 문제은행 활용 2016년도 이후 컴퓨터 일반 문제 풀이, 엑셀 함수 암기, 액세스 개념 정리 이*운 - IT버팀목, 유동균 문제은행 풀이(컴활 1급 필기 2010년도 3회, 2011년도 1회) 임*혜 - CBT 문제은행 2017~2020년도 문제 풀이 재진행 및 틀린 부분 복습 및 개념 정리 반복 최*진 -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정규 강의 수강(6~11강 / 날짜, 시간,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열 수식, 사용자 정의 함수, 피벗 테이블, 강의 안내 2강 포함) 홍*준 - IT버팀목,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3단계 20~21년도 상설 유형 3단계 강의 수강(1~5강, 엑셀, 액세스 모의고사 강의)
08/05	10:00~11:00	ZOOM	1. 목표 달성 확인 김*훈 : 개인 사정(사고, 병가)으로 휴식 이*운 :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문제집 활용, 컴퓨터 세대별 발전 과정, 특징 등 개념 정리 및 문제 풀이 진행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임*혜 - CBT 문제은행 2016년도 1, 2회 문제 풀이 및 개념 정리 진행, CBT 문제은행 2017~2020년도 문제 재확인 / 8월 7일 2급 필기 접수 완료 최*진 -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정규 강의 수강(12~15강 / 데이터 분석 도구, 차트, 매크로, 프로시저), 3단계 2강 수강(모의고사 엑셀, 21년도 상설 유형) 홍*준 - IT버팀목,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3단계 18~19년도 상설 유형 강의 수강(6~9강, 엑셀, 액세스 모의고사 강의)
08/12	10:00~12:00	ZOOM	1. 목표 달성 확인 김*훈 - 앞서 개념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액세스 문제 풀이 및 정리, 함수 암기 이*운 -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문제집 활용, 컴퓨터 파트 정리 및 엑셀 파트 개념 문제 풀이 및 함수 암기 / 8월 13일 1급 필기 예정 임*혜 - 7일 시험 합격(필기), IT버팀목,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1단계 출제 유형 분석 1, 2회 수강 최*진 - IT버팀목,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3단계 4, 6, 8강 수강(모의고사, 엑셀) / 8월 13일 1급 필기 예정 홍*준 - IT버팀목, 유동균 1급 단기 실기 3단계 15~17년도 상설 유형 강의 수강(10~15강, 엑셀, 액세스 모의고사 강의) 2. 활동 마무리 소감 정리 및 내용 정리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훈 : 혼자가 아닌 다섯 명이 주기적으로 모여 방학을 보내다 보니 다른 방학과 다르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자격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는 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각자 목표했던 자격증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생각만 했던 이전 방학과는 다르게 소모임을 구성한 이번 방학에는 생각했던 자격증을 다섯 명이 함께하다 보니 학습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기기 쉬웠다. 학습하며 힘든 점 어려운 점을 서로 채워주며 파이팅했던 모습이 코로나 속에서 할 수 있던 멋진 대학 생활 경험이었다. 유형별로 문제를 풀며 서로 문제도 공유해보며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의 장점을 느낄 수 있던 소모임이었다. 비록 개인적인 사정(질병)으로 자격증 취득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방학 때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기 초에 취득할 예정이다.
------------	--

이*운 - 방학 동안 컴퓨터활용능력 1급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소모임이라는 활동 덕분에 어느 정도 중압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매주 학습에 대한 꾸준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시험을 보는 동기들과 자료공유를 하며, 회의하던 시간은 다음 학습 시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방학을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과 더불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임*혜 - 방학 때 대외활동뿐만 아니라 고학번인 만큼 자격증 취득에도 집중하고 싶어서 동기들과 함께 신청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개인 일정이 많이 바빠져서 다른 친구들만큼 열심히 활동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웠고 필기 취득에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동기들과 함께하는 소모임을 통해 나에게 부족한 점도 채울 수 있었고 동기들에게 내가 잘 아는 부분을 설명해주면서 내 지식을 더욱 기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 이번 소모임 활동을 필기 취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방학 안으로 실기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소모임 활동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활동해준 동기들과 함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최*진 - 공부는 원래 혼자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 하는 것이 집중이 더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을 통해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모임 활동하면서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소모임 인원끼리 응원하며 격려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 힘차게 목표까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시험을 계속 불합격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혼자 공부하면서 얻지 못했을 피드백이나 다양한 공부법을 소모임을 통해 습득할 수 있어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학습법 소모임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학 기간 동안 해온 소모임 활동 중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학기 중에도 저희끼리 계속 추진해 나가 더욱 성장하는 소모임이 될 것입니다.

홍*준 - 짧은 방학 기간 동안 값진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혼자 하기엔 의지가 부족했었다. 이번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1급)을 준비하면서 처음 보는 단어들과 프로그램을 익히느라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눈에 익어있었고 내가 생각했던 기간까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소모임 인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무언가를 다 같이 했다는 점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됐다. 단순히 학습법 소모임이 활동비를 받고 못 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학기 중에 못했던 활동을 방학 때 하는 건 좋은 것 같다. 학교에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지원해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팀명 : 지혜로운건 우리



- 학습과목 : 공모전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8. ~ 2021.08.0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8	20:00~22:00	ZOOM	학술제를 준비하기 위해 연구 주제 및 방향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대학 커뮤니티의 피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해보기로 하였다. 에브리타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파이썬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에브리타임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에브리타임 피해에 대한 인터뷰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07/15	20:00~22:00	ZOOM	설문조사 초안과 텍스트마이닝 초안을 제작하였다. 그 후 주변 지인들에게 인당 10명씩 받아온 후 수정하기로 하였다. 에브리타임 3월, 5월 핫게시물에 올라왔던 게시물들의 단어 빈도로 파이썬을 통해 텍스트마이닝 초안을 만들었다.
07/28	20:00~22:00	ZOOM	실태조사 설문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40명에게 사전 조사하였다. 또한, 결과를 보고 질문지의 타당도를 확인 후 수정하였다. 앞으로 배울 현상학적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비구조화된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았다.
08/09	20:00~22:00	ZOOM	파이썬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이용시간에 따른 불만도 여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였다. 원하는 값은 나오지 못하였다. 사실, 범주적으로 설문을 짠 것이 많았는데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조사 전에 이러한 것을 수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터뷰 시뮬레이션 하였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강*인 - 코로나19로 인해 바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대면으로 화상 모임을 진행하니 삶에 활력이 생긴 것 같다. 비대면 화상 회의로 소모임을 경험해보기 전에는 집중도 저하 문제가 우려되었는데, 오히려 대면 회의보다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	--

또한 비대면이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필요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기에 보다 완성도 있게 학술제를 준비해나갈 수 있었다. 나보다 경험이 많고 배경이 풍부하신 선배님들과 함께하니, 더욱 열심히 활동에 임할 수 있었고, 동시에 다방면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었다.

권*결 -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심리학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건 다양한 심리학 논문들을 읽으며 저도 언젠간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새로운 인과관계를 알아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술제 준비를 통해 제가 직접 주제를 정하고 설문조사를 제작하는 과정을 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심리학 지식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심리학 분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원들과 소모임을 하면서 작은 주제더라도 브레인스토밍이 큰 결과를 불러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모임으로 매주 1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천천히 진행하지만 꼼꼼히 일을 진행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 제 개인적인 공부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박*원 - '지혜로운건 우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평소 가지고 있던 논문작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고등학교 때 소논문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혼자 힘으로 힘들게 완성했었다. 그래서 연구는 나에게 기피대상이었다. 하지만 선배님과 동기 후배와 같이 하는 연구는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이번 활동에서 나는 이전에 내가 했던 연구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배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연구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찾아보는 것, 논문을 읽는 것이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긴 글을 읽어야해서 지루하고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읽다보니 재미있었고 우리 연구에서는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다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던 것 같다.

연구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 선배님과 좋은 의견으로 논문의 질을 높이는 동기 후배와 논문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다.

황*건 - 1학년 때 학술제에서 상을 타면서 기대감을 받았지만, 나에게 있어 부담이 컸다. 그러다 벌써 3학년이 되었고, 졸업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다가 소모임을 통해 후배들과 함께 논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연구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내가 아는 지식을 후배들과 나누고, 후배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값진 노동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논문을 만들 수 있었다.

상담심리학과에 데이터사이언스라는 융합전공이 개설되었고, 이 전공을 배우며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담심리학과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배운 것을 응용하여 연구해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코로나 19로 팀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만, 더욱 집중도 있고, 과제를 개인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좋았던 것 같다.

팀명 : A4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8. ~ 2021.08.1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8	10:00~11:30	ZOOM (줌)	- 해커스토익 기출보카 DAY 1-5 암기 및 시험 ETS 토 익기출 공식입문서 RC UNIT 1-5 품사 부분 ETS 실 전테스트 풀기 - 다음 활동을 위한 계획 의논
07/15	10:00~11:30	ZOOM (줌)	해커스토익 기출보카 DAY 6-10 암기 및 시험, ETS 토 익기출 공식입문서 RC UNIT 6-8 동사 부분 질의응답, 영화 소감문 작성 및 발표 실질적인 공부량을 측정하기 위한 스터디플래너
07/29	10:00~11:30	ZOOM (줌)	해커스토익 기출보카 DAY 11-15 암기 및 시험 ETS 토 익기출 공식입문서 RC UNIT 9-13 2주간 풀고 질의응 답, 스터디플래너 작성
08/05	10:00~11:30	ZOOM (줌)	해커스토익 기출보카 DAY 16-20암기 및 시험 ETS 토 익기출 공식입문서 RC UNIT 14-16풀고 질의응답, 영 화 소감문 작성 및 발표, 스터디 플래너 작성
08/12	10:00~12:00	ZOOM (줌)	ETS 실전모의고사 328-355p 100문제 풀고 개인별 오 답에 대한 질의응답, 오답노트 작성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현 - 소모임을 처음 진행 할 당시 소모임을 통해서 방학을 더욱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시작은 막연하게 진행됐지만 점차 적응을 해나갔고 영어단어를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부딪힘도 함께 커져만 갔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오랜만에 문법도 다시 접해보고 영어실력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어서 의미 있던 시간이었다.
---------------	--

오*림 - 수능 영어 이후로 영어와 점점 담을 쌓고 멀어지게 되었는데 현재 학교 교양 과목도 영어 과목은 꼭 이수해야 하고 졸업요건과 취업 조건에도 영어공인인증서 제출이 있을 정도로 영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어 일단 무턱대고 친구들과 함께 하계 학습법 소모임을 신청했었다. 첫 주 단어 시험 때 외운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 내 자신이 답답했었다. 하지만, 다 같이 회의 후 스터디플래너를 작성하여 '단어 40개 이상 맞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맞는 단어 수가 점점 늘어나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모임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은 영화 소감문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친구들 각자가 선호하는 영화 장르를 알 수 있었던 기회였고, 친구들을 통해 생생한 영화 리뷰를 들을 수 있어서 생동감 깊었다. 발표하는 시간은 재미있었지만, 작성하는 과정은 무척 고단했다. 영어사전만 활용하여 영작하는데 문법과 시제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래도 나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했다. 비록 ZOOM(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랜선 만남을 가졌지만, 토익 공부와 함께 소통, 근황을 공유하여 친구들에 대해 한 층 더 알게 되어 이 하계 학습법 소모임이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정*수 - 이전부터 단어와 문법 같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었다. 혼자서는 자꾸 공부를 미루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니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 할 수 있었다. 처음 소모임을 시작하기 전보다 정확하게 알게 된 단어도 늘었고, 기초적인 문법을 다시 공부하면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 좋은 복습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영화감상문을 영어로 적어보는 등 어려웠지만 영어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영어와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다. 매주 계획한 루틴을 지켜가며 공부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정*희 -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서 팀원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틀린 부분에 대해 혼자 답지를 보고 답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서로서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오답에 대해 수정해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소모임 날에 파이널 테스트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 모두가 전보다 좋아진 영어 풀이 실력을 보고 방학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다음에도 소모임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팀명 : ABSOLUT SUMMER

- 학습과목 : 공모전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18. ~ 2021.08.0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8	19:00~21:00	ZOOM	웹툰의 구체적인 주제와 진행 방식을 정한다. 공모전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짠다.
07/25	19:00~21:00	ZOOM	각자 그려온 웹툰을 팀원끼리 피드백하고 수정 보완한다.
08/02	19:00~21:00	ZOOM	각자 그려온 웹툰을 팀원끼리 피드백하고 수정 보완한다.
08/09	19:00~21:00	ZOOM	웹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점검 및 수정하고 합본하여 주최 측에 제출한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동기들과 고민하던 중 데일리팜에서 주최하는 제 1회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학습법 소모임에 대외활동 부문에 지원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더욱 열정적으로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 첫 시간에는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 종류를 정하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작품의 장르는 웹툰으로 정했고, 주제는 '비대면 시국의 약대생의 생활'과 '약물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중에 고민하다가 후자의 주제가 공부할 것이 더 많고 유익할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약물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이란 주제에 맞는 케이스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주제를 하나씩 잡아 릴레이 형식으로 웹툰을 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성을 주기 위해 약사 캐릭터는 전국약대생연합 마스코트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공부한 것들을 팀원들에게 설명하고 그린 웹툰을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총정리와 피드백을 마치고 파일을 합본하여 공모전에 지원할 최종본을 만듦으로 모임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전공 지식도 한층 키우고 동기들과 협동심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약물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을 조사하고 공부하며 약학 실무와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비대면 시국에 같이 공모전을 준비하기 쉽지 않았지만 zoom을 통해 자주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도 새로웠습니다. 공모전에 지원한 자체가 의미 있지만 작품을 출품했기에 좋은 결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

팀명 : CHAsick girls kill this TOEIC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11. ~ 2021.08.0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1	21:00 ~ 22:30	Zoom	〈해커스 토익 RC〉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능동태/수동태, 시제와 가정법 등을 학습하였다. 가정법 문장은 현재나 과거의 반대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한다. 대개 if로 시작되며, 특별한 시제를 사용한다. 가정법 과거: 주어 would 동사원형+‘without + 명사’(=if it were not for명사)-> ~이 없다면 ~할 것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 주어 would have p.p + ‘without 명사’(=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이 없었으면 ~했을 것이다. 〈해커스 토익 LC〉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 듣기, 포함하지 않은 의문문 듣기, 간접적이 응답 이해하기, 모호한 응답하기 등을 학습하였다. 모르겠다는 응답=> I’m not sure.(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응답 => It hasn’t been decided yet.(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제 3자의 결정이라는 응답=> It’s not my decision.(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07/18	21:00 ~ 22:30	Zoom	〈해커스 토익 RC〉 품사 (명사,대명사,형용사,부사), to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을 학습하였다. to 부정사=> 동사로부터 나왔지만, 문장 내에서 동사 역할이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동명사 => 동사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동명사는 문장 내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에서 동사 역할이 아니라 명사 역할.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동사처럼 목적어 또는 보어를 가질 수 있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분사 ⇒ 동사에서 나왔지만 문장 내에서 동사 역할이 아니라 형용사 역할. 동사의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동사처럼 목적어 또는 보어를 가질 수 있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해커스 토익 LC〉 PART1) 사진 묘사 PART2) 질의응답 PART3) 짧은 대화 PART4) 짧은 담화 학습하였다.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계속해서 듣기 연습을 하였음.
07/25	21:00 ~ 22:30	Zoom	〈해커스 토익 RC〉 전치사, 등위접속사와 상관접속사, 관계절, 부사절, 명사절, 비교구문, 병치, 도치 구문 등을 학습하였다. 전치사⇒ 명사 앞에 와서 장소, 시간, 이유 등을 나타내고,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나 동사를 꾸미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것 부사절⇒ ‘부사절 접속사 + 주어 + 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이유,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등을 구별 가능 〈해커스 토익 LC〉 조동사 의문문⇒ DO, Have, Can, Will, Should 등으로 시작하는 의문문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들으며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오답노트를 하였다.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계속해서 듣기 연습을 하며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LC 문제 유형을 학습하였다.
08/01	21:00 ~ 22:30	Zoom	〈해커스 토익 RC〉 주제/목적 찾기 문제, 육하원칙 문제, Not/True 문제 - 언급했는지 안했는지 관련 문제들을 풀면서 학습하였다. 각 보기와 지문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해보면서 확인해야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중요한 유형이어서 꼭 풀어 보았다. 그만큼 틀린 문제도 많았는데 팀원들과 함께 오답노트를 해보면서 틀린 부분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 복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더해 HACKERS TEST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실전 응용 능력을 길렀다. 〈해커스 토익 LC〉 실전 모의고사 풀이 및 오답을 하였다. 틀린 문제는 다시 들으면서 자신이 어디서 뭘 놓쳤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복습 및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공*은(미술치료학과 20) - 지금까지 토익을 공부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문법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문법을 집중해서 공부했는데 친구들과 같이 하니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법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 활동에서 오답노트도 같이 적어 틀린 부분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소모임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
	이*은(간호학과 20) - 방학동안에 학습법 소모임이 없었다면 이렇게 알차게 보내지 못했을 것 같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친구들과 하다보니까 시간 맞춰서 공부하게 되었고, 계획했던 학습 진도를 다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학습법 소모임 덕분에 방학기간동안에 영어 공부를 해냈고, 영어 실력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했다. 그리고 같이 학습하다보니까 서로의 약점을 보완시켜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임*영(식품생명공학과 20) - 이번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방학을 굉장히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분량의 공부이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또 소모임을 계획한 대로 마쳐야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할 때는 포기하고 싶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곳곳이 버티며 공부하니 훨씬 향상된 실력에 매우 뿌듯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

팀명 : 공.뿌!

- 학습과목 : 공모전
- 학습장소 : 차바이오텍, 집
- 학습기간 : 2021.07.01. ~ 2021.07.2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1	14:00~16:00	차바이오텍	제약 바이오산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일반약 PR, 광고, 마케팅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07/08	14:00~16:00	ZOOM	회의를 통해 '데일리팜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할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07/15	14:00~16:00	ZOOM	'대한민국에서 약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인터뷰를 준비하고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07/22	14:00~15:50	ZOOM	구글로 설문지를 만들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글을 요약하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저희 공.뿌!의 목표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일리팜에서 진행하는 '데일리팜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스터디를 꾸려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료 수집부터 주제 정하기, 카드뉴스 개요 짜기, 인터뷰 대상 정하기, 인터뷰 설문지 만들기 등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COVID-19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인터뷰 대상과의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정리한 내용을 이용하여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회의를 거듭했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약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카드뉴스를 만들고자 했던 처음 계획과 많이 달라지게 되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카드뉴스 작성을 완료하지 못해 공모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지만, 끝까지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일반약 PR, 제약회사의 직군들과 각 직군들이 담당하는 업무 등을 알 수 있었고, 카드뉴스를 만드는 방법과 캐릭터 그리기 등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환경 때문에 끝까지 완성을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만약 이 공모전이 열린다면, 그때에는 더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카드뉴스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팀명 : 글로벌한 소소예찬

- 학습과목 : hsk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15. ~ 2021.08.0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5	20:00~22:00	각자 집	모의고사 1회분을 함께 풀어보았고,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 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1~6회차 단어 테스트 진행하였고,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단어 예문을 통해 학습하였습니다. 각자 어려운 영역은 보충학습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공부를 진행하게 되니 계획이 밀리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07/22	20:00~22:00	각자 집	미리 풀어본 2회분 모의고사 오답 풀이와 7~12회 단어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 오답 개수가 많지만, 점차 줄여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모의고사 2회에서 어려웠던 부분 중 쓰기 영역에서 문장구조 분석에 집중하여서 학습하였습니다. 보충학습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07/29	20:00~22:00	각자 집	hsk 4급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hsk 3급으로 목표를 낮췄습니다. 각자 외워온 단어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듣기와 작문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서로 질문을 통해 잘 해결하였고, 문제를 푸는 있는 팁도 알게 되어서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08/05	20:00~22:00	각자 집	각자 외워온 단어 테스트 진행하였고, 그날 학습한 단어들을 예문을 통해서 다시 따라 읽었습니다. 또한, 함께 작문과 듣기 풀이를 하였고, 이어서 오답 풀이를 하였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보니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풀었을 때보다 오답률도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hsk 4급을 따기로 목표를 정하였지만, 너무 높게 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는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중국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기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동기들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외워야 하는 한자가 많아서 힘들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 재밌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향상된 점은 듣기와 쓰기 부분입니다. 듣기 부분에서 성조가 익숙하지 않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 동기들도 있었는데, 잘하는 동기가 팁을 알려주어서 듣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 주 함께 문장구조를 분석하면서 쓰기 실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주에는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통해 실전 감각을 길렀습니다. 이번 하계방학 스터디를 통해 가장 좋았던 점은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혼자 학습한다면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목표를 완수하기 어려웠을 텐데, 함께하기 때문에 학습에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동기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에 능통한 동기가 있어서 초보자인 동기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학 기간을 통해서 중국어 학습을 꾸준히 하면서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고, 그와 함께 많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중국어를 학습하여서 1년 뒤에 hsk 5급을 취득하자는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	--

팀명 : 너나들이 차악서당

- 학습과목 : 한자능력검정시험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23. ~ 2021.08.1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23	16:00~18:00	zoom	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각자 실력 확인을 위한 간단한 모의고사 진행. 각자 실력에 맞춰 학습 계획을 수립함.
07/30	16:00~18:00	zoom	1회차 학습 내용 복습 및 간단한 테스트 진행. 한자 부수에 따른 이미지 학습법으로 스터디 진행.
08/06	16:00~18:00	zoom	2회차 학습 내용 복습. 유사한 자원을 갖는 한자들을 묶어 암기하는 연상 암기법 학습
08/13	16:00~18:00	zoom	1,2,3회차 학습 내용 복습 진행 및 실전 2급 모의고사 실시. 빈출 위주 단어 암기 계획 수립.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고*영(약학과, 17) -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방학을 한자 공부 및 시험 준비로 알차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김*주(약학과, 17) - 한자는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문자이므로 항상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기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 손*정(약학과, 17) - 만나서 함께 공부했다면 스터디 효과가 더 잘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었다. 그래도 주기적인 개인 공부 인증 등을 통해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정(약학과, 17) - 동기들과 함께 서로를 독려하면서 공부해서 그런지 좀 더 의욕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	---

이*혜(약학과, 17) - 평소에 한자가 어려웠고 암기가 잘되지 않았는데, 스터디를 통해 연상 암기법이나 비슷한 자원끼리 모아 암기하는 법 등을 익혀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게 되었다.

정*경(약학과, 17) - 예전에 대한검정회 2급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 공부하기에는 양도 많고 어려워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동기들과 함께 빈출 단어 위주로 먼저 외우면서 중간 중간 테스트를 쳤던 게 분위기 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최*웅(약학과, 17) - 스터디를 통해 초반 공부 습관이나 방식 등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아직 시험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한 대로 잘 준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다.

홍*택(약학과, 17) -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몰랐던 한자의 매력도 알게 되었고, 약학인으로서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준비해서 자격증을 꼭 취득하고 싶다.

팀명 : 상심하지마

- 학습과목 : 심리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4. ~ 2021.08.0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4	10:00~12:00	zoom	AP Psychology의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 파트를 마무리하고, '의식의 구조' 파트를 과제로 해석해오고, 모임을 갖기 전날에 단체톡방에 그 주의 과제를 공유했다. 본인이 해석하지 못한 부분을 위주로 조원들의 과제를 확인하여 고치는 과정과, 해석하지 못한 부분과 내용을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의식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하여 생각을 나누었다.
07/09	10:00~12:00	zoom	AP Psychology의 '의식의 구조' 파트를 과제로 해석해 오고, 모임을 갖기 전날에 단체톡방에 그 주의 과제를 공유했다. 본인이 해석하지 못한 부분을 위주로 조원들의 과제를 확인하여 고치는 과정을 거쳤고, 소모임 활동 시간에는 해석하지 못한 부분과 내용을 서로에게 질문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꿈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07/18	10:00~12:00	zoom	AP Psychology의 '의식의 구조' 파트를 마무리하고 '감각과 지각' 파트를 과제로 해석해왔다. 모임을 갖기 전날에 단체톡방에 그 주의 과제를 공유한 다음, 본인이 해석하지 못한 부분을 위주로 조원들의 과제를 확인하여 고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모임 활동 시간에는 해석하지 못한 부분과 내용을 서로에게 질문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감각에 대한 내용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08/08	10:00~12:00	zoom	AP Psychology의 '감각과 지각' 파트를 과제로 해석해 오고, 모임을 갖기 전날에 단체톡방에 그 주의 과제를 공유하였다. 본인이 해석하지 못한 부분을 위주로 조원들의 과제를 확인하여 고치며, 소모임 활동 시간에는 해석하지 못한 부분과 내용을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성 - 이번 여름 방학에는 친구들과 함께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영어 스터디를 진행했다. 이제 어느 정도 함께하며 경험이 쌓인 탓인지, 처음에 할 때의 막막함이나 한번 문장을 해석할 때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한 문장 건너 한 문장마다 번역기를 돌려보는 일이 많았는데, 갈수록 번역기를 덜 사용하게 되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뿌듯함이 늘어났다.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영어인데, 영어는 단기간에 확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꾸준히 AP 스터디를 진행하고 영어 텍스트를 읽으며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무척이나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하며 서로의 일정을 조율하고 스케줄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증대된 것을 느꼈다. 이 스터디를하기로 한 선택이 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최*진 - 매 학기 소모임을 친구들과 같이 했는데, 이번 여름방학 역시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서 같이 하게 되었다.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전공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어서 매우 뿌듯하다. 점점 영어문장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보다는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장들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단어 하나에 신경을 쓰며 해석하게 되었다. 내가 이해하기 쉽고 남들이 봤을 때도 보기 쉽도록 단어나 말들을 찾아가면서 해석하는 것에서 영어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전공 내용도 재밌게 느껴졌다.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재미와 뿌듯함,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함께 한 친구들과 소모임 덕분이다. 매 회차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대면하여 만나지 못 하는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게 돼서 기쁘고, 다음 학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 바램이다.

박*원 - 3학년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시간을 더 이상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다. 계속 쪽 진행해오고,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 적으면 이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가 점점 지쳐갈 때 소모임의 도움을 받아 동기부여가 되어 다시 한 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에는 특히 날이 더워 늘어지기 마련인데 정해진 양의 숙제와 약속이 있으니 늘어지게 되더라도 할 일을 마무리 한 후에 늘어지게 되었다. 정말 소모임을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된다.'와 '나와 함께 스터디를 진행해주는 친구들이 고맙다.' 이 두 가지인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만 있는데 소모임을 통해 공부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더 기뻐던 것 같다. 다음 학기에도 소모임을 신청하여 진행하며 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최*림 - 방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번 학기 스터디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로써 세 번의 학기동안 친구들과 스터디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다. 처음 Ap 심리학을 공부할 때 어렵고 막막한 마음에 스터디 전 날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몰아서 숙제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긴 탓인지 분량을 촘촘히 나누어 공부하고 있다. 일정한 양을 거의 매일 해석하다 보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긴 기분이기도 하다. 스터디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에서도, 예전에는 해석을 해도 문장이 어색하다보니 내용 숙지 또한 원활하지 않아 뭘 질문해야 할 지 모르겠는 총체적 난국이었던 반면 지금은 해석과 내용 이해가 보다 자연스러워져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나 단어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참고하는 것에서 큰 도움을 받고있다.

이번 방학에도 스터디를 통해 성장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뿌듯하고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팀명 : 딩동케어

- 학습과목 : 상담심리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26. ~ 2021.08.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8/06	21:00~23:00	각자의 집(Zoom)	딩동케어의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효과
08/07	21:00~23:00	각자의 집(Zoom)	딩동케어의 사회적 효과, 기술적 효과 및 경제적 효과 점검 및 오타 수정
08/08	11:00~13:00	각자의 집(Zoom)	반려견 맞춤형 영양제의 배경 및 현황 조사
08/08	19:00~21:00	각자의 집(Zoom)	딩동케어의 SWOT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딩동케어는 의료AI와 설문지 알고리즘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약사가 맞춤형 영양제를 복약 지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의 상당수가 반려동물의 성별, 나이, 질환 여부 등에 따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과 전반적인 반려동물 영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영양제는 쉽게 온라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 수의 영양제들은 인간의 건강보조식품처럼 효용성이 입증되지 못하였고 어떤 것들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양제들의 무분별한 오남용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 딩동케어는 영양 성분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약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해서 증상을 분류해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동물영양제 가격의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영양제 판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므로 그에 따른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	--

팀명 : 미세 (미술치료 새싹)

- 학습과목 : 미술치료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8. ~ 2021.08.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8	22:00~23:30	zoom	치매 노인과 미술치료에 대해 대상연구 레포트를 작성한 후 치매 노인을 다룬 드라마인 '눈이 부시게'의 주인공 '김혜자'를 가상의 내담자로 설정하여 사례개념화를 진행하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07/16	21:00~22:30	zoom	ADHD 아동과 미술치료에 대해 대상연구 레포트를 작성한 후 TV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 중 ADHD 아동을 다루고 있는 회차를 시청하였다. 해당 아동을 가상의 내담자로 설정하여 사례개념화를 진행하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07/23	21:00~22:30	zoom	우울증 노인과 미술치료에 대해 대상연구 레포트를 작성한 후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등장인물 중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밝혀진 '주종수'를 가상의 내담자로 설정하여 사례개념화를 진행하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07/29	13:00~14:30	zoom	선택적 함구증 아동과 미술치료에 대해 대상연구 레포트를 작성한 후 TV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 중 선택적 함구증 아동을 다루고 있는 회차를 시청하였다. 해당 아동을 가상의 내담자로 설정하여 사례개념화를 진행하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08/04	14:00~15:30	zoom	뇌졸중 환자와 뇌졸중 환자 보호자 미술치료에 대해 대상연구 레포트를 작성한 후 닥터지바고에서 뇌졸중을 다루고 있는 동영상 시청하였다. 해당 동영상에서 뇌졸중 환자 보다는 보호자에게 미술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보호자를 가상의 내담자로 설정하여 사례개념화를 진행하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08/10	13:00~14:30	zoom	자폐 스펙트럼 아동과 미술치료에 대해 대상연구 레포트를 작성한 후 TV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 중 자폐스펙트럼 아동을 다루고 있는 회차를 시청하였다. 해당 아동을 가상의 내담자로 설정하여 사례개념화를 진행하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저희 조가 소모임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목표는 2학기에 실습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모임 계획을 세울 때 각자 관심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관심이 있는 분야가 노인과 아동으로 달랐기 때문에 각 분야를 3번씩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노인에서는 치매, 우울증, 뇌졸중을 선정하였고 아동에서는 ADHD, 선택적 함구증, 자폐스펙트럼으로 소모임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한 회차는 총 3개의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고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며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책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레포트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후 두 번째 단계는 대상연구에서 공부했던 대상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나 tv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 인물을 가상의 내담자로 설정하여 사례개념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레포트를 작성하여 1차적으로 서로에게 보낸 후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사례개념화를 한 대상에 대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회차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획을 세웠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한 회차를 위해서 3개의 레포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왔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희의 계획에 대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대상을 설정하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라고 한다면 그 증상과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연함을 느끼는 동시에 더 막막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상에 대해 공부를 하였고 그 안에서 해당 증상에 대한 미술치료 목표, 주의점, 특징 등에 대해 충분히 공부했고, 가상의 내담자를 설정하여 그 내담자에 대한 정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수집하였기 때문에 더 구체적,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며 각 대상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치료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많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치료사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담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증상의 내담자를 가상의 내담자로 설정하고, 저희가 직접 치료사라고 가정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실습에 나가서 이번 소모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은 준비된 모습으로 실습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만약 소모임에서 다른 대상을 미술치료실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 계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 계획서는 아직 저희가 미흡하여 직접 생각해낸 프로그램 보다는 논문의 프로그램을 참고한 것이 더 많지만 언젠가는 직접 만들어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사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

팀명 : 방학에도 공부할꺼야

- 학습과목 : 약국 심화 실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6. ~ 2021.08.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6	09:00-12:00	ZOOM 스터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약사법령에 따른 규정을 공부하였고 약국의 경영전략, 약국의 인테리어, 인력 관리 등 약국 경영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07/20	09:00-12:00	ZOOM 스터디	전문의약품 중에 자주 쓰이는 이뇨제, ACEI, ARB 계열의 의약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각 계열의 작용기전, 부작용, 복약지도,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08/03	09:00-12:00	ZOOM 스터디	[일반의약품 분류] 약국에서 매입하는 일반의약품들 중 탈모약에 대해서 정리 하였고 일반 의약품은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와 주의사항들도 함께 숙지하였다.
08/10	09:00-12:00	ZOOM 스터디	[복약지도 방법] 환자들에게 복약지도 하는 방법과 특히 주의해야할 점적형 점비제 사용법, 소아 좌제 사용법, 패취제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복약지도의 구성, 말하는 태도, 전달 방법 등에 대해 함께 공부하였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번 소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졸업 후 진출하는 다양한 현장에서 약사직무를 수행하고 약학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약사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약국 경영 전략수립, 약국의 시설과 장비 인테리어, 약국 관리 체계 구축 방법, 경영의 다각화 및 특화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경영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배웠고 당뇨병, 협심증, 위궤양, 류마티스 관절염의 약국 실습 적용 case를 공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터디 시간에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의약품의 종류, 복약지도 설계, 사후관리, 환자 평가 등을 공부하였고 노인환자, 소아 환자, 눈 관련, 피부 관련 등 총 14가지의 선택상담, 복약지도 기법을 익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제형별 복약지도 기법을 익히고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였습니다.

알찬 4번의 시간동안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팀명 : 법규이꾸꾸

- 학습과목 : 약사법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28. ~ 2021.08.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28	19:00~21:00	zoom	[제1편 총론, 제 2편 약사법] 법의 모습, 법률 입법과정, 약사법 위계체제. 제 4장 약국과 조제, 제 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제 6장 의약품등의 취급
08/01	19:00~21:00	zoom	[제 3편 마약류 관계법규]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취급자
08/08	19:00~21:00	zoom	제 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에 관련된 약사법규
08/10	19:00~21:00	zoom	제 4장'약국과 조제'에 관련된 약사법규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1년 만에 약사법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새로웠다. 중요했던 내용들마저 모두 잊어버려 처음 배우는 것처럼 공부 계획을 잡고 스터디에 임하였다. 각자 맡은 파트들에 대해 스터디 모임 전에 공부해 왔다. 그 후, 스터디에서 중요한 부분들,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부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 등을 공유하고 가르쳐주었다. 스터디 하기 전에 조향을 나눠 중요한 단어에 빈칸을 뚫어 시험지를 각자 만들어온 것이 암기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 팀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았다. 가르쳐주기 위해 혼자 꼼꼼히 정리하고 공부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스터디 시간에 zoom으로 만나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다 같이 자주 틀리는 내용이 뭔지 공유하며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메타인지 학습법이 도움이 되었다. 외우기 힘든 조향은 하부르타를 통해 외우도록 하였다. 하부르타를 통해 말로 되풀이해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더욱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 혼자였다면 방대한 양의 약사법을 공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매주 조금씩 분량을 나누어 공부했더니, 약 두 달 동안 약사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복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스터디를 통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수 있었다. 다른 과목들도 스터디를 통해 준비한다면 혼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스터디를 통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
------------	---

팀명 : 봉쥬르

- 학습과목 : 독일어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7. ~ 2021.07.2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7	16:00~18:00	줌 인터넷	활동시작 첫 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 벌금제도를 도입하여 지각 시와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하며 최종 마지막 날에 회식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작 첫 날은 간단하게 알파벳을 익혀 첫날의 시간을 오리엔테이션만으로 지나지 않게 했습니다.
07/14	16:00~18:00	줌 인터넷	복습을 시작으로 하여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1시간가량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유를 합니다. 남은 시간은 소통의 기본 방법인 인사하는 법을 학습하여 서로 말을 하고 인사하는 법 뿐만 아닌 자기의 이름 쓰기 와 읽는 법, 숫자 말하기를 했습니다,
07/21	16:00~18:00	줌 인터넷	이전 시간과 같이 이전 학습한 내용을 1시간가량 복습과 공부 내용을 공유합니다. 기본적인 표현은 이전 시간에서 마스터 하였기에 동사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공부하여 기본배운 내용에 살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07/28	16:00~18:00	줌 인터넷	이전 시간과 동일하게 학습내용을 1시간 복습을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문장의 순서를 익히고 최종적으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유*위 - 이번 학습법소모임을 통해서 처음 독일어의 입문을 했습니다. 길고 긴 여름방학 동안 비대면으로 zoom 이용해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뜻밖에 편안함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더욱 소통이 원활해졌으며 공부를 하는 것도 서로 각자의 편안한 공간에서 함으로 성과가 좋았다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습하는데 더욱 집중이 되었습니다. 만약 학습법소모임에 선발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부를 했을까 라는 의문과 동시에 협동심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습법소모임에 선발이 되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해주신 기회를 제공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있을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저 자신 뿐 만 아니라 동기들과 함께 역량을 올려 재학생일 때 만큼 더 많이 배워 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 - 이번 여름 방학은 대학생생활에서 마지막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 여름방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여름방학에 어학 하나는 해보자는 심정으로 학습법 소모임에 지원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러한 기회가 생겨 독일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습법 소모임이 없었더라면 아마 의지가 안생겨 공부를 하기 어려

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법 소모임 덕분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줌으로라도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줌이었다는 게 아쉽지만 이러한 시국에서 줌으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또 생겨 독일어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자격증 및 어학 등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차의과학대학교 학습법소모임센터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팀명 : 분차검활부차

- 학습과목 : 컴퓨터활용능력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2. ~ 2021.07.2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2	16:00~18:00	각자의 집에서 zoom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의 전반적인 개요를 알아보고, 엑셀의 기초 작업(기본적인 작업 및 계산작업)을 배우고 실제 연습해본다.
07/09	16:00~18:00	각자의 집에서 zoom	스프레드시트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다. 부분합, 정렬, 피벗테이블, 데이터표 시나리오, 매크로와 VB프로그래밍을 교재를 통해 배우고 실제 연습해본다.
07/16	16:00~18:00	각자의 집에서 zoom	데이터베이스를 주제로 소모임을 진행한다. 테이블 작성, 관계설정, 연결하기. 가져오기, 출력 및 조회기능구현, 처리기능구현을 배우고 실제 연습해본다.
07/23	16:00~18:00	각자의 집에서 zoom	최종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소모임 진행 후 오답노트 정리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6학년 졸업반으로서 취업 준비를 시작함에 있어 컴퓨터 활용능력이 매우 필수적임을 느꼈고 이에 따라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소모임을 시작했다.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인 컴퓨터,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이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실기시험위주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습법 소모임을 진행하였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니만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소모임을 가졌다. 교재를 바탕으로 기본기를 익히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며 모르는 부분은 zoom
------------	--

소모임을 통해 해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더 알아가는 것도 있었다. 자주 나오는 빈출문제의 경우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고 특히 함수 문제의 경우 개념을 적용하여 관련된 문제까지 알아가도록 하는데,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질답하며 공부하다보니 더 이해가 잘 되었다.

교재로는 2020 시나공 기출문제집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기출문제집과 2020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핵심요약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연습까지 해서 총 3회독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습과 병행하다보니 1회독밖에 마치지 못하였다. 비록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또 다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계획이다. 그때도 가능하다면 소모임을 통해 스터디를 하여 효율적인 공부를 할 계획이다.

팀명 : 즐거운 간호생활

- 학습과목 : 간호학 심화학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8. ~ 2021.07.2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8	13:00~15:00	온라인 ZOOM 미팅	피부 통합성 장애, 체액 과다
07/14	13:00~15:00	온라인 ZOOM 미팅	무지외반증 수술(골절술), 낙상의 위험성, cast착용과 관련된 제한된 관절운동 간호
07/21	13:00~15:00	온라인 ZOOM 미팅	조기 진통 산모 케이스 공부 및 간호과정 세우기
07/28	13:00~15:00	온라인 ZOOM 미팅	총담관암의 수술 후 통증 간호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방학 때에는 아르바이트, 어학공부, 여행 등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할 기회가 적었다. 그래서 방학이 지나면 이전 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복기하려면 책이나 강의안을 찾아보는 등 시간이 약간 걸렸는데, 이렇게 방학 때 전공 심화학습을 하니 종강 전에 배웠던 내용도 기억에 잘 남고 스터디를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 교과서도 읽고, 검색도 해보는 등 더 많은 공부가 되었다. 특히 팀원들과 함께 한다는 점이 가장 좋았는데, 케이스 스터디의 특성상 피드백이 항상 필요한데 혼자서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논의하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더 나은 간호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직접 겪지 못한 환자의 케이스를 팀원들과 공유하여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좋았다. 또한 사람이 여럿이다 보니 겹치는 것도 있었지만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간호과정이 나와 여러 병면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진단명은 같지만 관련요인은 환자마다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중재도 완전히 달라질 수
---------------	---

있다는 점을 절감하였다. 또한, 서로 실습했던 병동이 달라 간호의 방향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이와 같이 친구들이 실습 때 보고 온 것을 공부하고 정리한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다. 이외에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학기의 절반은 친구들을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소모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도 공유할 수 있고, 복습까지 할 수 있는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팀명 : 송아호

- 학습과목 : 생약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8.06. ~ 2021.08.1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8/06	21:00~23:00	비대면, ZOOM	생약학의 총론 내용을 쉽게 암기하기 위해 생약학 노래를 암기하였고 줌을 통해 서로 피드백, Monoterpenoid, Diterpenoid, Sesquiterpenoid 등의 비당체 구조의 성분들 및 청산배당, 강심배당, 고미배당체 등의 배당체 구조의 성분들을 숙지
08/07	21:00~23:00	비대면, ZOOM	줌을 통해서 각자 놓쳤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통해 생약학 암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다. 리그난 같은 경우 두충, 참기름, 오가, 오미, 후박, 자근, 마리아영경귀, 연교, 신이 등의 내용을 짚었다,
08/08	21:00~23:00	비대면, ZOOM	Introduction (생약 및 생약학, 생약의 역사, 생약의 특성과 연구방법, 생약성분의 연구와 전망)을 살펴보고 Chromatography, NMR 등을 학습
08/10	21:00~23:00	비대면, ZOOM	Amino acid 관련 화합물 중 Amino acid- sesquiterpene conjugate L saussureamine 성분을 지닌 맥각이 어떤 효능을 지녔는지 구체적으로 암기.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휘 - 생약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훑을 수 있었다. 특히 총론 부분에서 생약의 채취, 제배, 건조 품질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민 - 각론을 외우느라 애를 먹었는데 근류의 길초근, 단삼, 강귀, 일당귀, 단삼, 방풍, 백두옹들의 각론에 대한 내용 즉 기원, 성분, 약리, 확인시험에 대해서 좀 더 암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정*욱 - 조이름처럼 생약학은 노래를 만들어 외우지 않으면 힘든 과목인데 같이 모여서 노래도 만들고 따라 부르니 확실히 암기도 쉽고 리마인드가 잘되는 느낌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과목도 노래를 통해 암기하고 싶다.

정*섭 - 생약학은 미생물처럼 암기할 것이 너무 많아 항상 골치를 썩이는 과목이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더 암기를 하였고 국시에도 보탬이 되는 스터디였다고 생각한다. 남은 시간동안 복습을 통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팀명 : 야나도할수있죠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7. ~ 2021.08.1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7	16:00~18:00	ZOOM	오답노트 작성법 보조 영상을 시청 후 중요한 tip들을 포함하여 팀원 개개인에게 잘 맞게 자신만의 기호를 만드는 등 오답노트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각자 1파트정도의 문제풀이를 하고 중간 중간 헛갈리는 문제를 공유해 해결해나갔는데 1회차에서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에서 헛갈리는 단어들이 많아서 이 단어들 위주로 정리를 하며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RC 앞부분의 기본 문법문제들은 품사를 보고, 빈칸을 보고 뒷부분에 비해 빠르게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 풀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타이머를 이용해서 비교하기위해 문제풀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오답노트 작성법 보조 영상을 참고하여 다음 회차 전까지 오답노트와 단어정리를 해오는 것을 숙제로 내주고 학습을 마무리했습니다.
07/16	13:00~15:00	ZOOM	학습법 소모임 두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에는 LC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LC는 총 4번의 학습법 소모임 중 두 번 진행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 part1과 part2를 진행하고 네번째 시간에 part3와 part4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Part1의 경우 주어와 동사를 잘 듣고 푸는데 그림에도 헛갈리는 문제들이 단어가 잘 들리지 않아 못 푸는 문제가 없도록 사진을 빠르게 분석하고 abcd 문제를 듣고 아닌 것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Part2도 마찬가지로 '캘린썸 토익'에서 알려준 문제풀이 팁을 활용하여 두 줄의 선을 그어 abc음원 파일을 듣고 틀린 답을 소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고를 때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를 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하는지 연습하였습니다. Part1,2에서 문제를 풀고 문제가 틀린 경우 part별로 틀린개수를 적어 약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틀린문제는 다시 듣고 풀었으며 다시 풀어도 또 틀린문제는 음성파일을 듣고 문제를 그대로 받아 적는 덕테이션 연습을 통해 무슨 단어가 어떻게 잘못 들렸고 안들렸는지를 알아가고 몰랐던 단어는 정리하도록 진행 하였습니다.
08/12	14:00~16:30	ZOOM	3회차에서는 지금까지 작성한 오답노트를 공유하며 서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답노트 피드백 중 모든 문제를 다 작성하여 시간낭비가 크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나 이 피드백을 반영하여 3회차에 문제풀이 하여 틀린 문제들은 중요한 품사에 대한 풀이만 작성하고 단어는 오답노트에 적지 않고 따로 단어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로의 피드백으로 오답노트 작성 노후가 가장 잘 쌓일 수 있던 회차였습니다. 대명사와 시제 부분 풀이를 했고, 가장 헷갈렸던 부정대명사 부분을 알기 쉽게 그림(사과, 과일)으로 그려 설명해줬습니다. 또한 타동사와 자동사가 잘 외워지지 않아 구두로 서로 문제를 내주며 암기를 하였습니다.
08/13	15:00~17:00	ZOOM	Part3에서는 주로 주제, 장소를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고 Part4에서는 주로 광고, 연설, 방송, 공지가 주로 출제 되는데 광고는 광고의 목적, 세부사항, 의도파악 등 연설은 화자의 직업, 연설 장소와 세부사항, 다음 이어질 행동 유추 그리고 방송에서는 화자의 직업, 세부사항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공지에서는 세부사항과 무엇을 하라고 요구 하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고 정리 해볼 수 있었습니다. Part1,2와 달리 Part3,4 에서 지도나 layout등 시각 자료 표를 보고 풀어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를 보는 방법은 위치를 나타내는 next, by, in front of 등 전치사를 잘 들어야 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또한 시간표나 일정표를 보는 문제에서는 보기의 정보가 아닌 그것과 매칭되는 것이 스크립트에서 언급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캘린썸 토익’의 문제풀이 팁을 통해 표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art3,4의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part1,2와 동일하게 문제를 풀고 part별로 틀린개수를 적고 틀린 문제는 다시 듣고풀었는데도 틀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덕테이션을 하는데 part1,2에서는 틀린 지문에 하나만 덕테이션을 했다면 part3,4에서는 한 문제 당 한 질문이라도 두 번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전체를 덕테이션 하였습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혼자 토익 공부할 때는 모르는 문제에 대해 혼자 검색을 하거나 영상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답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왜 답이 이것인지 해설을 알기가 힘들어 어려움을 느꼈고 답만 외우는 느낌을 받아 공부가 잘 안됐었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zoom으로 진행하면서 rc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중간 중간 모르는 문제에 대해 친구와 함께 질문하면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 답뿐만 아닌 이게 왜 답인지, 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되어 공부의 내용이 더 기억에 남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스터디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 중 하나는 오답노트 작성입니다. RC는 오답노트 작성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조에서 정작 본인에게 맞는 오답노트 작성법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는 틀린 문제, 지문, 보기, 단어들을 모두 작성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오답노트 보조 영상으로 작성 TIP들을 수렴해 양식을 계속 수정하였습니다. 확실히 오답노트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들고 다니며 잠깐씩 확인했는데 틀린 문제들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 문제를 또 모두 작성하는 등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각자 나만의 오답노트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차시가 끝날 때마다 틀린 문제들 오답노트, 단어정리와 같이 서로 숙제를 내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듦으로써 하계 방학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토익시험을 봐서 처음보다 얼마나 성적이 올랐는지를 보고 소모임의 효과를 보려고 했지만 저희 조는 기초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어 토익시험을 다시 보는 것보다 기초를 더 쌓아서 한 달 후에 시험을 다시 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소모임이 효과가 있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RC 문제풀이를 할 때 타이머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RC의 앞부분 파트에서는 품사, 단어를 보고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모임 회의에서 저희 조에서는 가장 빠르게 토익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짧은 앞파트에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문제당 풀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접근법
------------	--

을 잘 몰라서 헤매기도 했지만 시간을 재면서 실전문제풀이를 할때도 재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하고, 앞으로도 시간은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도록 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풀이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시간당 문제풀이 속도가 비교적 줄어들어 효과를 보게되어서 소모임이 끝나도 이 방법을 계속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고 소모임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조원과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학습법 소모임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LC중에서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 part3,4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무작정 문제를 풀기만 하던 전과는 달리 part3,4의 대체로 나오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캘린썸토익’과 오답노트 작성법을 통해 토익 문제풀이법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면서약한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지 결정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틀리는 LC의 part3,4의 경우 하나의 음성 파일을 듣고 세개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의 질문을 먼저 읽어놓고 듣기를 들어도 질문을 쉽게 까먹어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문제를 줄줄 읽는 방식이 아닌 분석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 하였습니다. 문제를 읽고 다시 읽지 않아도 되게끔 연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캘린썸 토익’에서 알려준 것처럼 질문의 순서가 답이 나오는 순서임을 고려하여서 문제들을 연결 시켜보는 것을 연습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의 질문이 여성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가 2번의 질문이 남자는 무엇을 바꾸자고 제안하는가 3번의 질문이 여자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가 이런식의 문제가 있다면 연결시켜서 여자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남자가 무엇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여자가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 하겠구나 하고 연결시키면서 문제가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게 연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터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점도 좋았지만 문제점을 함께 발견하고 해결법을 찾으면서 저희에게 맞는 공부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고 어떻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지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이전까지는 토익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잘 몰랐고 토익을 보면 시간에 쫓기고 문제를 분석해서 풀어나가기 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풀어나가는 느낌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익 점수가 높을 수 없었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소모임 학습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토익LC, RC에 자신감을 붙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신감을 붙이는 방법으로는 RC푸는 속도 높이면서 정확도 잃지 않기, 약한 부분 찾아서 어떤 식으로 공부 해 나갈지 공부법 찾기, 효율적인 오답노트 작성법 찾기, 스터디가 끝나더라도 개인이 꾸준히 공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으면서 스터디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찾은 방법 들로 공부한 자료들을 사진으로 첨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팀명 : 약대가자 말고 약사가자

- 학습과목 : 공모전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23. ~ 2021.08.1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23	14:00~16:00	ZOOM	데일리팜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제출형식인 영상과 카드뉴스에 대한 조사 필요성 인식
07/30	14:00~16:00	ZOOM	현재 방학에 선실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실무실습을 나갈 예정이므로 제약 산업 현장에서의 약대생 실무실습을 주제로 카드뉴스 제작계획 수립
08/06	14:00~16:00	ZOOM	제약 산업 실무실습 중 여러 문제 상황들을 접했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해결해보는 과제를 구체화시킨 세부적인 내용과 주제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원고 제작
08/13	14:00~16:00	ZOOM	저번 시간에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제작 및 수정·검토 및 오타검수 진행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고*영(약학과, 17) - 방학 중 선실습으로 활용했던 과제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수월했고 실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자신이 생김 김*주(약학과, 17) - 토론을 통해 분제과정을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음 손*정(약학과, 17) - 실제 선실습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웠는데, 동기들과 함께 문제 상황을 해결하며 충분한 제약 산업 지식을 습득하여 유익했음 오*정(약학과, 17) - 내가 아는 지식을 카드뉴스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내용이 상기되어 오래 기억에 남아 유용함 이*혜(약학과, 17) - 제약 산업 분야에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소모임을 계기로 진로의 방향을 확정할 수 있어 좋았음
------------	--

정*경(약학과, 17) - 평소 카드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 본적이 없어 콘텐츠 만들기에 자신이 없었으나, 잘 아는 동기들의 도움으로 여러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해져 자신감이 생김

최*웅(약학과, 17) - 제약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됨

홍*택(약학과, 17) -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해 제약 산업에 관심이 생겼고, 동기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음

팀명 : 약치 100% 정복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I, II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21. ~ 2021.08.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21	13:00~15:00	Zoom	AKI, CKD, GERD, PUD, IBS, DM, COPD, IBD, Asthma 약물
07/28	13:00~15:00	Zoom	UTI, Viral infection, fungal infection, 부정맥, ACS 약물
08/04	13:00~15:00	Zoom	골다공증, 통풍, 피임,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08/11	13:00~15:00	Zoom	아토피 피부염, 건선, 녹내장, 두통, 뇌전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소모임은 모두 총 4회차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스터디 진행 방식과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였습니다. 해당 스터디를 담당하는 튜터가 미리 적응증, 약물이름, 용량 리스트를 정리하여 공유를 해왔고, 스터디원들도 그에 따라 모두 공부했습니다. 각각 맡은 질병의 특성과 치료약물을 공부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스터디원들의 정리 방식에 차이가 커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 그 형식에 맞게 정리본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쪽지시험을 보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해당 회차의 튜터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맡아 알려주는 과정에서 튜터 역시 더욱 공부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치 2의 경우에는 질병이 어려웠기 때문에 병태생리 관점을 위주로 설명을 진행했으며, 각 질병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스터디의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약물이 많거나 헷갈리는 경우에는 복약상담 연습을 진행하여 확실히 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1, 2회차에 비해 3,4회차에서 스터디원들의 테스트 결과가 확실히 좋아졌고 각자 파트를 나눠 복습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등의 활동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4회차동안 학습했던 질병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2학기에 수강하는 약물치료학3,4의 내용도 잘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1학기 때 학습한 내용을 반복복습을 통해 다시 정리한 결과 학기 중에는 급하게 진도를 나가느라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들과 궁금증이 생겼던 내용을 여유 있게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좋았고, 이를 바탕으로 2학기에 배우는 약물치료학 내용에서도 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약속하며 스터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

팀명 : 약치 이계머선129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I, II
- 학습장소 : 집, 카카오톡
- 학습기간 : 2021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4회/ 총 12시간)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25	20:00-23:00	zoom 및 카카오톡	소화기질환과 신장질환의 주제로 study를 진행했다. 소화기 질환에는 PUD와 GERD, 신장질환에는 CKD와 AKI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자신의 노트에 소화기질환(digestive disorders)과 신장질환(kidney disease)에 관련하여 정리한 후, 각 팀원당 주제를 정하여 (예를 들면 병인, 약물 치료, 비약물치료) 각자 주제에 맞는 1문제를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보여준다. 나머지 팀원은 2분 동안 그 문제를 풀고 답과 해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07/02	20:00-23:00	zoom 및 카카오톡	심혈관계 질환을 주제로 study를 진행했다. 심혈관계 질환 중 고혈압과 뇌졸중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노트에 심혈관계(cardiovascular disease)에 관련하여 정리한 후, 각 팀원당 주제를 정하여 (예를 들면 병인, 약물치료, 비약물 치료) 각자 주제에 맞는 1문제를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보여준다. 나머지 팀원은 2분 동안 그 문제를 풀고 답과 해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07/09	20:00-23:00	zoom 및 카카오톡	호흡기질환과 내분비계질환의 주제로 study를 진행했다. 호흡기 질환에는 천식과 COPD, 내분비계질환에는 갑상선질환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자신의 노트에 호흡기 질환(Respiratory diseases)과 내분비계질환(endocrine system disease)에 관련하여 정리한 후, 각 팀원당 주제를 정하여 (예를 들면 병인,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각자 주제에 맞는 1문제를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보여준다. 나머지 팀원은 2분 동안 그 문제를 풀고 답과 해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6	20:00-23:00	zoom 및 카카오톡	감염질환을 주제로 study를 진행했다. 다양한 감염질환이 있지만 그 중 상기도 감염에 포함되는 급성 중이염과 급성부비동염에 대해 공부했고, 추가로 하기도 감염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자신의 노트에 감염질환(Infectious diseases)과 관련하여 정리한 후, 각 팀원당 주제를 정하여 (예를 들면 병인,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각자 주제에 맞는 1문제를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보여준다. 나머지 팀원은 2분 동안 그 문제를 풀고 답과 해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결과 보고]
	약물치료학 머선 129 스터디는 5학년 1학기 때도 함께 약물치료학 스터디를 운영한 적이 있는 팀으로, 하계방학 동안 약물치료학 1, 2의 전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학습했다. 특히 1학기 때 학습한 내용 중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엄선하여 복습하고 국가고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하부르타 학습법, 마일리지제도, 연상 암기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핵심 내용을 암기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보강 학습하며 이해를 도왔고, 회차별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진도를 함께 맞춰가며 꾸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약물치료학 1, 2 과목의 특성상 약물의 임상적 사용을 기반으로, 질병의 병태생리학적 특성과 진단 기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치료 목표 수립과 약물학적/비약물학적 치료와 모니터링을 하는 학문이다. 이를 학습하기 위해 약물들의 효능과 부작용을 숙지하고 질환 계열별 핵심이 되는 약물 기전들과 메커니즘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임상에서 해당 약물들이 적용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기준을 확립하고 치료 알고리즘을 이해했다. 무엇보다 1학기 때 배운 질환 중 특히 어려웠던 내용이었던 질환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곤 했다. 학기 중 내용 중 어려웠고 시간상 생략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며 핵심 내용 위주의 복습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요한 내용과 어려운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었고 국가고시까지 대비할 수 있었다.

스터디는 코로나 관계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비대면 스터디 운영의 경험 덕분에 성공적으로 스터디를 마무리했다. <소다미 팀원>로 4학년 때부터 꾸준히 활동했는데 이번 여름방학 역시 <약치 머선129>의 팀명으로 함께 공부하며 학습 시너지를 하고 알찬 하계방학을 보낼 수 있어서 유익했다.

[조원 소감]

이*현 - “학기 중에 반복해서 열심히 외웠었는데 학기 초반에 배웠던 약물치료학 내용이 금방 휘발되었다고 느껴서 놀랐습니다. 친구들과 스터디할 날짜를 정해놓고 일주일간 정해놓은 분량을 다시 복습하면서 잊고 있었던 지식들을 다시 챙겨놓은 기분이 들어 뿌듯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약이 개발되고, 진료지침도 1차약제, 2차약제 등이 바뀌는 약학계 공부하는 정말 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원래 배웠던 지식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 또한 알게 되는 스터디였습니다. 특히 case study와 서로 문제를 내면서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패널티를 적용한 덕분에 “아 내가 이 때 이걸 생각하지 못해서 패널티를 받았었지”로 알고리즘이 작용하면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데에 도움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학 중에도 꾸준히 스터디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동기들 수고 많았어요 ~~”

장*래 - “5학년 1학기 때도 어려웠던 약물치료학인데 방학 복습을 통해 한 번 더 내용을 점검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 보니 어려웠던 내용이 조금 덜 어려워졌어요. 특히 내용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 함께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협업의 힘을 다시 체감했습니다. 친구들이 약물치료학을 잘했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것은 교수님에게 수업을 듣는 일방향의 학습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각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학습한 내용들을 적용해보고, 실제 사례까지 고려해보는 것은 종합적, 통합적 사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빈 - “5-1학기를 마치고 곧 실습을 나간다고 생각하니 “약물치료학을 복습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번학기에도 같이 공부했던 소모임 동기들과 함께 이번 방학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소모임을 신청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다 보니 학기중에 열심히 외웠던 내용도 잊어버린 것들이 많았고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또한 만나지는 못하지만 zoom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안부도 묻고 공부할 수 있어서 자극도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5-1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함으로써 상기시킬 수 있었고 다음 학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2학기에도 한 번 더 소모임을 신청해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

팀명 : 연구하자팀

- 학습과목 : 약학 연구 입문
- 학습장소 : 차바이오텍플렉스, 집
- 학습기간 : 2021.07.01. ~ 2021.07.2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1	09:00~12:00	차바이오텍플렉스(대면)	먼저 둘이 각자 주제를 찾아왔고 이후 만나서 하나의 공통주제를 정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얼마큼의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할 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07/08	09:00~12:00, 13:00~18:00	차바이오텍플렉스(대면)	둘이 같이 연구주제와 관련한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별 약학과, 제약공학과, 한약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파악했으며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갖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윤지는 한약학과 위주로 민정이는 제약공학과 위주로 자료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7/15	09:00~12:00, 13:00~18:00	비대면	zoom으로 만나 자료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한약학과, 제약공학과 이외에도 수의학과와 직능 간 갈등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 부분과 관련한 기사를 많이 조사했습니다.
07/22	09:00~12:00, 13:00~18:00	차바이오텍플렉스(대면) + 비대면으로 마무리	대면으로 만나서 의료박람회 참석하였습니다. 의료박람회 직후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 논문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 zoom으로 논문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각자 논문의 부분을 맡아 쓰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김*정 - 저는 한약학과와 제약공학과가 존재하는 지조차 모를 정도로 약학과와 타학과와의 갈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약사들이 다른 직종과 업무에서 갈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여 환자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약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
------------	--

라 둘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시선에서 논쟁을 바라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정*지 - 첫 주차부터 교수님과 함께 탐구 주제를 선정하면서 약학 연구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약사공론, 데일리팜의 기사를 많이 읽고 내가 흥미가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기에 나온 지역약국 서비스 관련 문헌을 읽으면서 일반 대중들의 약사에 대한 인식과 배달약에 대한 생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약사가 될 저에게 미리 환자, 소비자의 생각을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제약회사, 병원, 공직에서의 약사의 업무에 대해 조사하며 앞으로의 제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약회사에 여러 부서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다양한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팀명 : 오므라이스

- 학습과목 :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28. ~ 2021.08.1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29	20:00~22:00	Zoom	- 각자 설정한 공부목적이 상이했기에 4주간 각자 자율 학습을 실시하였다. - 29일부터 총 4번의 학습모임을 통해 필기과목 큰 테마 4개를 한 번씩 복습하고 중요한 키포인트를 추려보는 방식 및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한 스터디 계획을 수립 하였다. - '배양 준비' 파트에서 군주보관시의 크리티컬한 환경조건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대부분의 미생물 동결방법부터 배양, 특히 혐기성 균 배양 시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는 무균환경조성 유지를 통한 오염원 방지방법까지 살펴보았다.
08/02	20:00~22:00	Zoom	- 미리 '배양 및 회수' 파트에 대해 문제를 풀어보고 그에 따른 오답노트를 미리 작성해오도록 하여 서로 틀린문제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헷갈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 서로가 특히 어려웠던 회수의 생산물 농도 측정 중에서도 생산물 농도 및 순도 측정과 회수의 회수조건 확인하는 부분의 문제들에 대해 공유하며 자신만의 풀이법을 팀원들에게 알려주었다. - 오답에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피드백을 해주었다. - 생산물의 농도 측정과 회수조건 확인 부분은 추가적인 복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08/05	20:00~22:00	Zoom	- 바이오화학 제품 품질관리 분석을 주제로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를 진행하였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 Zoom을 통해 서로 틀린 문제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유의해야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추후 관련된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화학분석 및 기기분석 수업을 수강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08/09	20:00~22:00	Zoom	- 저번 시간에 공부한 바이오 화학제품 품질관리 및 시험물 관리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분석기기와 표준용액에 대한 관련지식을 중점적으로 복습하였다. - 바이오화학제품 환경 및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 각자 궁금했던 점을 해결해주며 공부하였다. 환경모니터링 파트에서는 부유균, 낙하균, 표면균 시험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강조하고 배지의 성능시험과 작업 환경상 예기치 않게 출현할 수 있는 균들의 특징에 대해서 각자 자세히 알아본 바를 알려주고 그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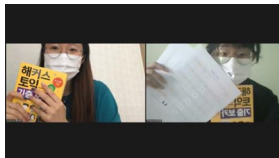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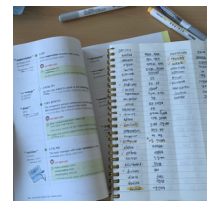
○ 활동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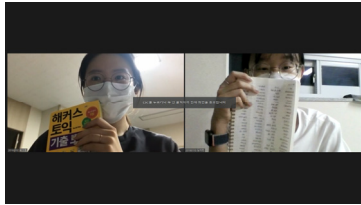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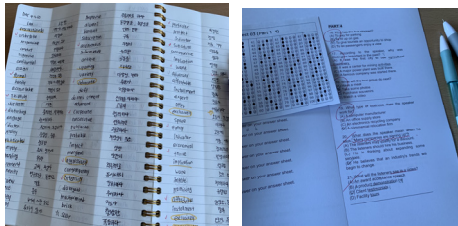
소감 및 종합 의견	1. 활동한 소감 졸업하기 전 전공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자격증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처음 준비하는 자격증이고 정보도 많이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는데 걱정을 많이 했지만 주교재를 선정하고 그에 맞게 공부를 진행하여 스터디 진행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공부했던 스타일과 수업이 달라서 초반에는 동일하게 맞춰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교재를 통일하고 진도를 맞춰서 문제풀이를 하여 스터디 시간에 틀린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의고사를 같은 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였는데 실제 현장감 있게 진행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이 스터디원들과 함께 스터디를 이어나가 자격증 시험에서 모두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비교과 스터디의 효과 자격증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학기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혼자서는 공부를 꾸준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격증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는데 이전에 같이 토익스터디를 하면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자격증 스터디를 하니 자격증 공부에 강제성을 부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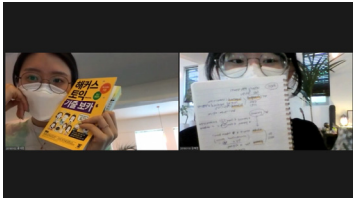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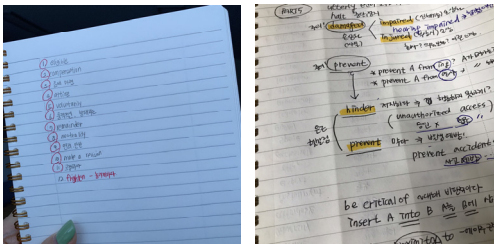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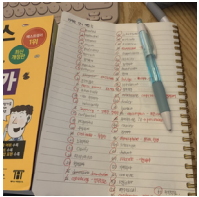
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원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오답 노트를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중간에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자극을 받아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함께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는 힘도 길러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익스터디로 모였지만 같은 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스터디 외에도 학교생활 또는 전공 수업 관련해서 정보공유를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팀명 : 이젠좀하자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3. ~ 2021.08.0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3	19:00~21:00	비대면 진행 (ZOOM)	[활동 계획 수립 및 단어 암기] 1. 활동 계획 수립 및 토익 시험 접수 - 세부 스터디 계획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일별 공부량과 휴일을 정함. - 활동 계획의 종료 시점과 가까운 토익 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접수함. 2. 단어 암기 확인 - 해커스 토익 기출보카 DAY1~3 암기 여부를 확인 3. PART5 오답 확인 및 풀이 - PART5 문제 풀이 후 오답 문항의 빈출 동사 어휘를 정리함 4. 활동사진  
07/17	19:00~21:00	비대면 진행 (ZOOM)	[단어 암기 및 LC 쉼도잉] 1. 단어 암기 확인 - 해커스 토익 기출보카 DAY4~10의 암기를 확인하며, 서로의 단어 암기 방법을 공유함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 LC 문제 풀이 및 오답 확인 - PART1~4를 풀고, 오답 확인 및 질의 시간을 가짐. - 듣기 문제를 반복해 들으면서 따라 말하는 쉼도잉을 진행함. 3. PART5 문제 풀이 및 오답 확인 - PART5의 오답을 확인하며 다시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함. 4. 활동사진 첨부  
07/31	19:00~21:00	비대면 진행 (ZOOM)	[단어 암기 및 오답 확인] 1. 단어 암기 확인 및 시험 진행 - 단어장의 PART11~20의 내용을 묻고 답하며 단어 암기 여부를 확인함. - 빈출 단어를 정해 단어 시험을 진행, 모르는 단어나 오답의 경우 다시 확인하며 숙지함. 2. LC 문제 풀이 및 오답 확인 - 쉼도잉을 통해 PART1~4 문제의 오답을 확인함. 3. PART5 문제 풀이 및 오답 확인 - 기출문제의 오답 문항에 대해 문제의 의도 파악에 집중하여 서로 돌아가며 설명함. - 혼동 어휘와 빈출 어구를 정리하여 공유함.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 활동사진 첨부  
08/07	19:00~21:00	비대면 진행 (ZOOM)	[단어 점검, 오답 정리 및 공유] 1. 단어 암기 확인 및 단어 시험 - 해커스 토익 기출보카 단어장 DAY21~30 암기를 확인, 단어장의 1회독을 완료함. - 해커스 토익 기출보카 전체 내용 중 단어 시험을 진행해 점검함. 2. LC 오답 풀이 및 쉼도잉 - 소모임 3회차 동안 다뤘던 LC 문제에 대하여 오답 노트를 작성하며, 다시 문제를 풀어봄. - 반복되는 오답에 대하여 따로 정리하고, 쉼도잉을 진행함. 3. PART5 문법 정리 및 공유 - PART5의 어휘나 문법에 대하여 팀원과 함께 공유하고, 핵심내용과 중요한 부분을 확인함. 4. 활동사진 첨부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공*린 - 방학마다 토익 공부 생각이 있었지만, 계획적으로 공부하지 못해서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평소에 하지 못했던 토익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소모임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어 유익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과 같이 혼동 어휘, 빈출 어휘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를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더 꼼꼼하게 숙지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LC PART1~4 쉼표잉을 진행하면서 점점 들리는 영어가 많아져 듣는 즐거움도 있고 부듯했다. 토익 점수도 그렇고 생각도 잘 맞는 팀원과 같이 활동해서 수월하고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 활동이라고 느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ZOOM을 통해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소통의 불편함이 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시험을 보지 못해 아쉬웠다. 그래도 팀원과 같이 문제를 풀면서 예전보다 발전한 것 같아서 부듯했던 활동이었다.

김*린 - 토익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방학 중에는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곤 했다. 그러나 이렇게 소모임을 통해서 팀원과 부담스럽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근차근해나가다 보니 이렇게 한 달간의 소모임을 완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항상 사놓고 앞부분만 열심히 봤던 단어장을 1회독 완료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듯하고, 이젠 정말 토익 공부를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든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은 많고,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실제로 토익 시험을 보지 못해서 활동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팀원과 본인 모두 분명 발전이 있는 활동이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항상 이렇게 소모임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면, 활동 성과와는 별개로 동기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또 각자만의 성장이 느껴지곤 한다.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소모임을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해보고자 한다. 한 달이라는 짧고 긴 시간 동안 토익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보자!

팀명 : 전공의 1RM을 올리자

- 학습과목 : 운동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19. ~ 2021.08.1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8	22:00~24:00	온라인 Zoom	인체 관절의 기본 구조와 기능
07/25	22:00~24:00	온라인 Zoom	근육: 뼈대계통의 일차적인 안정자와 운동자
08/01	22:00~24:00	온라인 Zoom	근육: 뼈대계통의 일차적인 안정자와 운동자 파트2
08/15	22:00~24:00	온라인 Zoom	생체 역학적 원리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임*원	학기 중에 뉴만을 교재로 한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해서 넘어갔던 부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느라 까먹은 부분,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 외의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직접 필기로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 수 있었고, 공부하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에 배웠던 내용, 임상적인 내용까지도 다룰 수 있어서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최*인	스터디 모임을 함께하며 혼자서 이해하기 힘들고 많은 의문이 들법한 뉴만 책 속 개념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학습했다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소모임이라는 좋은 활동을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뿌듯합니다. 또한 공부한 내용들이 임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가지면서, 이번 소모임 활동이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서	뉴만이라는 책 내용이 너무 어려워 혼자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다 같이 하면서 어려운 내용이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내용을 토론하고 질문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 다같이 공부하는게 즐거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류*영	스포츠의학과에 들어와서 뉴만 서적을 안볼 수가 없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동기, 후배들과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며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활동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의지를 갖고 다같이 하다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서	방학에도 매주 주말 저녁마다 선후배들과 전공공부를 하게 되니, 끊임없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 소모임 활동을 하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뉴만이라는 전공서가 혼자 공부했을 땐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원래의 뜻과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함께 공부하니 더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스터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최*은	이번 하계방학 소모임을 진행하며, 운동학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전공 서적을 가지고 정독하고 나의 방식대로 책을 요약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그 후 깨닫는 지식들이 나에게 현장에서나 학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팀명 : 주전자와 아이들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5. ~ 2021.07.26.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5	20:00~22:00	Zoom	RC 기본 문법, 주요 문법에 대해 공부 후 질의문답 및 암기
07/12	20:00~22:00	Zoom	LC 기본 단어, 주요 단어와 풀이방법에 대해 공부 후 질의문답 및 암기
07/19	20:00~22:00	Zoom	RC 모의고사를 풀고 틀린 문제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질의문답
07/26	20:00~22:00	Zoom	LC 모의고사를 풀고 틀린 문제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질의문답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현 - 매번 토익해야 한다며 말만 하고 막상 하려하면 집중도 안되고 제대로 못했는데, 친구들과 같이 계획을 세우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혼자 생각하다 포기하거나 해설을 읽고 넘어가지 않고 다같이 고민하고 서로 설명하니 이해도 잘되고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이미 아는 문법들이라 다시 공부하기엔 지루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풀기에는 애매하게 알아서 곤란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공부하게 되고 문법 말고도 파트별 공략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소모임은 끝났지만 마저 공부하면서 토익 시험준비를 해야겠다. 이*혜 - 항상 토익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웠다. 혼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도 잘 잡히지 않았고, 마음먹기에도 오래 걸렸다. 하지만, 소모임 활동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니 조금씩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영어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소모임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
------------	--

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부담감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특히, 친구들에게 내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 방학에 소모임 참여를 통해 느슨해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점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박*원 - 학기 중에는 항상 토익을 해야지, 해야지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었다. 이번 방학에 어떻게 토익을 공부해야 나에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봤다. 그 결과 나 혼자 해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토익 공부를 방학 때 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을 모집하여 소모임을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4명이 모이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RC와 LC로 파트를 나누어 진행해야하며, 모의고사는 꼭 풀어야겠다는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회기를 나눠 짠 후 진행하였는데, 확실히 소모임을 신청하여 공부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운 여름, 나 혼자 진행하면 도저히 끝까지 이룰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팀원들한테 너무 고마워졌다.

임*민 - 이번 소모임을 하면서 토익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성공 시켜 방학을 좋게 시작하게 되어 기뻐다. 언제나 그렇듯 소모임을 통해 팀원들과 공부하니까 이해가 더 잘 되었고 특히 이번 토익은 혼자서 공부했어서 팀원들과 어떻게 공부해야 맞는 것일지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 함께 공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모험할 수 있는 기회거 주어진 것이라 생각되어 이번 소모임도 뜻 깊은 활동이 되었으며 나는 원래 토익 중 LC 부분이 약했는데 그 파트의 튜터를 맡게 되어 조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나 큰 벽이라 생각 되었던 파트가 지금은 그렇게 막막할 정도가 아니게되었다. 항상 실수가 잦았었는데

실전 문제를 풀어보니 실수가 낮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또, 다른 튜터에게 배우고, 오답을 서로 공유하여 연습하니 조금 재밌기도 하고 팀원과 함께했던 유형의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소모임 활동의 기억을 되살려 실수를 줄일 수도 있었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토익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된 것 같아 좋았다.

팀명 : 차약, 파리에 가다

- 학습과목 : 프랑스어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2. ~ 2021.07.2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2	18:00~20:00	온라인 회의	〈알파벳과 발음 익히기 / 연음, 숫자 알기 / 자기소개〉 프랑스어의 알파벳의 발음을 익힙니다. 특히, 영어와 발음이 다른 자음을 유의해서 공부합니다. 프랑스어만의 특징적인 발음과 관련 있는 연음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또한, 숫자를 공부하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프랑스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07/09	18:00~20:00	온라인 회의	〈프랑스어의 성별과 수 구분 / 인사말〉 엄격한 프랑스어의 성별과 수에 따른 구분에 대해 공부합니다. 또한, 인사하기, 안부 묻기, 대답하기, 소개하기,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등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익힙니다.
07/16	18:00~20:00	온라인 회의	〈명사 앞에 붙여주는 관사 / 커피 권유하기, 장보기〉 명사의 성별과 수에 따라 달라지는 관사에 대해서 익힙니다. 영어로는 a/an이나 the로 쓰이는데 프랑스어는 un, une/des, le/la/les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공부합니다. 커피 권유하기, 장볼 때 쓰이는 표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일 것 같은 표현들을 익힙니다.
07/23	18:00~20:00	온라인 회의	〈Avoir의 쓰임새, 부정문 / 일반 동사의 종류/ 역할극〉 have와 같은 의미의 동사인 avoir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부합니다. 또한, avoir를 이용한 부정문과 일반 동사의 규칙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역할극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회화 표현을 익힙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매주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니 기초적인 인사와 소개 등의 회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여겨져 많은 단어를 습득하는 것에 집중하다보니 직접적으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와 닿기도 하고, 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은 교재의 분량을 나누고, 매주 정해진 분량을 미리 공부해 왔으며 스터디 시간에는 자신이 공부한 부분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서로의 발음을 듣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번 복습 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든 스터디가 끝나고는 역할극을 하며 그날 배운 단어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문장을 프랑스어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 모르는 부분은 영어를 대신 사용하여 역할극이 끊기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실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말로 연습을 하니 입에도 익고 스터디 자체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회화를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해외여행을 다시 갈 수 있게 된다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를 갈 경우 사람들과 친해지고 더 많은 문화를 경험하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주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프랑스를 갔다 온 친구들은 재방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처음 가는 친구들은 더 적극적으로 프랑스를 경험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팀명 : 최광불

- 학습과목 : ADsP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4. ~ 2021.07.2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4	10:00~12:00	온라인 회의	<과목1 데이터의 이해> - 1장 데이터의 이해 - 2장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 3장 가치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
07/11	20:00~22:00	온라인 회의	<과목3 데이터 분석 기획> - 1장 분석과제 정의 - 2장 분석 마스터 플랜
07/18	20:00~22:00	온라인 회의	<과목4 데이터 분석> - 1장 데이터 분석 개요 - 2장 통계분석 - 3장 데이터 마트
07/25	20:00~22:00	온라인 회의	<과목4 데이터 분석> - 4장 정형데이터 마이닝 - 5장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 6장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시험(ADsP)의 합격을 목표로 구체적으로는 방학 중 시험 대비 교재를 1회독하는 것을 스터디 목표로 하였다. 방대한 정보 속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원하는 목표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약학에서도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수로 대두되고 있어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시험 준비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유익한 정보를 창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습하였다.
------------	---

학습 교재는 ADsP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윤종식 저, 출판사: 데이터에듀)로 정하였으며 학습 방법은 미리 교재 내 범위를 정하여 각자 내용을 일주일동안 공부해온 뒤, 공부한 개념을 확인하고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토의하였고 간단한 문제풀이를 진행하였다. 약학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접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스터디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때로는 검색하고, 서로 질문하고 알려주면서 1회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생소한 부분이 많았으나, ADsP는 실기시험이 아닌 객관식과 단답형 형태의 필기시험이므로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고, 스터디에서 토의 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검색 및 영상을 찾아보며 학습하였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인재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팀명 : 컴활 불타오르네

- 학습과목 : 컴퓨터활용능력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19. ~ 2021.08.0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9	09:00~12:00	줌	컴활 기출문제 풀이 및 해설 분석
07/26	09:00~12:00	줌	컴활 기출문제 풀이 및 해설 분석
07/31	09:00~12:00	줌	함수, 피벗테이블 집중 학습
08/05	09:00~12:00	줌	어려운 부분 복습 및 모의고사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zoom으로 모이기 전, 각자 준비된 교재의 해당 범위 문제를 풀고 이후 문제 풀이 해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후,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zoom으로 모여 적용해보고 연습해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어려움을 겪는 조원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원들과 상의하여 어려운 부분을 반복적으로 집중 연습하였고, 그럼에도 오답이 많이 발생하는 함수식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팀원들과 공유하며 외우는 학습을 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먼저 마스터한 학생이 강의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면을 공유하여 같이 실기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한명씩 돌아가면서 화면공유로 본인이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다른 팀원들이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어진 할당량을 확실히 공부해오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효율성이 높았으며, 화면을 보며 바로 피드백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감독하는 학생도 복습의 기회로 작용하여 학습의 능률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팀원들이 가장 어려워 한 부분을 복습하였고, 테스트를 보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으로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시너지가 생겨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팀명 : 토린이들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13. ~ 2021.08.0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3	10:00~11:30	ZOOM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기 전 각자 풀어온 모의고사를 채점하며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토익 실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스터디의 방향성,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차마다 다른 파트를 부여하고 준비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07/19	10:00~12:00	ZOOM	회차 진행자가 해커스 단어장 day1~6까지를 참고해 만든 단어시험지를 통해 단어시험을 진행하며 점수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저번시간에 개인과제였던 RC모의고사 풀어오기를 통해 각자가 어려웠던 부분,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한 부분을 공유하고 각자 해설하기로 한 파트의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07/26	10:00~12:00	ZOOM	회차 진행자가 해커스 단어장 day7~12까지를 참고해 만든 단어시험지를 통해 단어시험을 진행하며 점수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각자 저번 시간과는 다른 파트를 담당해 RC모의고사 풀이와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part5 부분의 질문이 많이 나왔고,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 part7의 본문을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08/02	10:00~12:30	ZOOM	회차 진행자가 해커스 단어장 day13~18까지를 참고해 만든 단어시험지를 통해 단어시험을 진행하며 점수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각자 새로운 파트를 담당했고, 이번 회차에서는 질문보다 part5, part7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스터디를 마무리 하면서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스터디 활동을 끝마쳤습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윤 - 매주 정해진 분량의 단어를 외우고 기출문제를 풀며 각자가 설명할 부분을 맡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을 통해 토익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을 공유하면서 저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의 이번 소모임은 방학 이후에도 꾸준히 토익 공부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습관을 갖게 하였습니다. 혼자 했다면 계획적이지 못했을 텐데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송*수 - 활동을 하면서 꾸준함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혼자 공부했을 때는 귀찮다는 이유로 미룬 적도 많았고 꾸준하게 하기 어려워 중간에 포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하다보니 책임감도 생기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전에 비해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지 알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지 갈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호 - 스터디를 통해 함께 공부할 계획을 잡고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파트의 해설을 돌아가면서 담당해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임*수 - 평소 토익 공부를 꾸준히 해오기는 했지만, 이번 방학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또한 정체되었던 시점에서 열정도 많이 식어갔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매주 외워야 하는 단어와 풀어야 하는 회차를 정하며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맡은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담당 파트를 바꿔가며 진행하여 여러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늘 - 학기 중에는 전공 공부와 과제로 인하여 따로 시간을 내어 토익 공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혼자 토익 공부를 한다면 학습에 대한 의지와 능률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하계 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통하여 매주 단어 시험과 모의 토익을 진행하며 성장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서 뜻 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종합의견〉

이번 하계 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배움의 가치’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공 소모임의 경우에는 모두가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함께 학습법을 공유하는 것이지만, 토익 스터디는 다양한 점수대인 사람들이 모여 점수가 높은 팀원과 점수가 낮은 팀원이 서로 모르는 것을 공유하다 보니 진정

한 배움의 가치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통하여 각자 추구하는 목표와 얻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배움의 가치란 서로 도우며 서로 이득을 바라지 않고 의지하며 도우는 상부상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번 활동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학습법을 공유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자생' 능력과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상생' 능력을 이번 하계 학습법 소모임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팀명 : 파이오니어(PIOINEER)

- 학습과목 : 토익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16. ~ 2021.08.0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6	22:00~24:00	각자의 집	LC와 RC 각각 DAY 1부터 DAY 5까지의 분량을 공부하고 각자 어려웠던 문제를 서로에게 설명해주면서 공부를 했다. 오답이 끝난 후 해당 분량에 해당하는 단어의 TEST를 봄으로써 외운 단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에 공부해온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부분에서 틀린 문제를 서로 알려주고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글 파일 정리 본을 만들어 공유하고 푼 문제 중에서 모르는 문제와 틀린 문제를 서로 물어보고 다시 한 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07/21	22:00~24:00	각자의 집	풀어오기로 한 RC와 LC 파트를 서로 확인한 후에 앞서 해왔던 방식 그대로 RC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모르는 문제나 틀린 문제를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면서 공부를 했다. 그런 후 RC와 LC 공부를 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해 얘기해보고 다시 한 번 앞으로의 하계방학 소모임 스터디 활동에 각오와 다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07/29	22:00~24:00	각자의 집	주로 공부해오기로 한 LC를 풀어왔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공부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했던 각자의 방법을 공유해 보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LC와 RC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저번에 나누었던 공부 방식이 이번에 확인해본 결과 실력을 많이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이번에도 다 같이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08/04	22:00~00:20	각자의 집	RC와 LC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를 공부해오기로 한 분량을 해왔는지 확인하고 푼 문제 중에서 모르는 문제와 틀린 문제 또는 맞은 문제 중에서 헛갈렸던 문제를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서로 물어보고 다시 한 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후 외워오기로 한 단어를 단어 TEST를 봄으로써 외웠는지 확인하는 단어 암기 확인 시간을 가졌다. 단어 암기까지 한 후 마지막으로 LC 한 파트를 더 푸는 시간을 가졌다. 풀고 난 후 다 같이 채점하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파악하고 다시 들으면서 한 번 더 틀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이번에 하계방학 소모임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놀면서 시간을 허비했을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스터디원들과 하계방학 소모임 스터디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방학 때 할 일도 없었고 고등학교 때와 달리 방학이 길다 보니 너무 놀기만 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격증을 따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하계방학 소모임을 신청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하계방학 소모임 스터디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방학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특히 토익에 대한 실력을 늘릴 수 있었다. 토익은 이번 하계방학 소모임 스터디에서 처음 공부해본 과목은 아닌데 1학기에 글로벌 영어 수업으로 토익 수업을 배웠었다. 그때는 RC와 LC 중에서도 특히 LC가 많이 약해서 모의 토익을 봤을 때 낮은 점수를 받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RC도 기본을 다 잡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토익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LC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LC를 공부해서인지 조금씩 영어 듣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문제를 푸는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잘 들리지 않아 놓치기 일쑤였던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고 특히 영어 듣기 문제 중에 한 번 들려주고 세 문제를 푸는 문제를 예전에는 거의 건들지 못했고 들어도 한 문제씩밖에 못 풀고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틀리더라도 문제를 비교적 전보다는 많이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 RC와 LC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하니 이전보다 성장할 수 있었다. 아직 완전히 토익 공부가 끝나지 않아 토익 시험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렵기만 느껴졌던 토익이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졌고 전보다는 토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그다음으로 하계방학 소모임 스터디에서 공부한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는 시험을 보지 않아서 실력이 많이 늘었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하나도 몰라서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스터디원과 함께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서 이해하고 틀린 문제도 다시 한 번 풀면서 공부하고 나니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모의고사 문제들을 조금씩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스터디원들과 함께 방학 동안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왠지 모르게 뿌듯했고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다. 다음에도 이러한 하계방학 소모임 스터디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

팀명 : 한국사 공부모임

- 학습과목 : 한국사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03. ~ 2021.08.1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3	19:00~21:00	ZOOM	1, 2, 3장 복습
07/17	19:00~21:00	ZOOM	4, 5장 복습
07/31	19:00~21:00	ZOOM	6, 7장 복습
08/14	19:00~21:00	ZOOM	8, 9장 복습 및 기출 문제 풀이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한국사공부모임 첫 시간에는 앞으로의 모임 방식과 공부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후 1장(한국사의 바른 이해) & 2장(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 3장(고대사회)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4장(중세사회) & 5장(근세사회) 복습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6장(근대사회의 태동) & 7장(근대사1) 복습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8장(근대사2) & 9장(현대사) 복습 및 기출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4번의 모임이었지만 각자 공부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모여 개념을 정립하고 서로 중요한 포인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해 매우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건과 그 시간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하는 시험 특성상 시간순대로 정리해 복습한 시간들이 매우 유익했고 덕분에 시험 준비도 원활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 시험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기출 문제를 다 같이 풀며 시험 긴장감을 느끼며 실전처럼 시험공부를 할 수 있었고, 기출 풀이 이후 채점을 하고 모르는 부분을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모든 팀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혼자 준비한다면 공부하려는 의지를 올리기에조차 쉽지 않고 실행하기엔 더욱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모임을 통해서 공부하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고 동기들과 힘을 합해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당장 이번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에 시험까지 남은 시간들도 동기들과 함께 자격증을 준비하며 더욱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	---

팀명 : 한여름밤의 병태

- 학습과목 : 병태생리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10. ~ 2021.07.2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0	20:00-22:00	ZOOM	병태생리학 chpater 0-3 정리 및 복습
07/14	20:00-22:00	ZOOM	병태생리학 chpater 4-5 정리 및 복습
07/21	20:00-22:00	ZOOM	병태생리학 chpater 6 정리 및 복습
07/28	20:00-22:00	ZOOM	병태생리학 chpater 7 정리 및 복습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2학기에 배울 병태생리학2를 위해 방학 중에 지난 1학기에 배웠던 병태생리학1 과목의 중심 내용들을 복습하고자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벌써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내용이 흐릿해진 것을 보며 방학 중에 다음 학기를 위해 병태생리학의 기본 이론들을 제대로 다져야겠다 생각해 생긴 모임입니다. 이를 위해 회차별로 챕터를 나누어 미리 공부해온 것을 설명하고 피드백하는 플립러닝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병리학의 개요와 cell injury, inflammation, repair&regeneration&fibrosis를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hemodynamics disorder, genetic disorder에 대해 공부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immunopathology에 대해 학습하고 복습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neoplasia에 대해 공부하고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모임 전에 팀원이 학기 중에 요약한 병태생리학 자료를 가지고 각자 맡은 부분을 공부해온 뒤 그에 맞는 문제도 몇 개 만들어 다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테스트지만 그 챕터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었고, 헷갈리는 개념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4번의 시간이었지만 플립 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난 1학기에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내용들을 혼자 복습하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기들과 함께, 또 학습법 소모임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방학 중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팀원들 모두 병태생리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고, 2학기에 배울 병태생리학2 과목에 대해 기대하는 바입니다.
------------	--

팀명 : 화성탈출기원

- 학습과목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24. ~ 2021.07.2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24	16:00-19:00	zoom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 컴퓨터 일반 개념공부 및 핵심개념 요약 - 빈출되는 문제정리 및 오답정리 - 예상문제 만들어보고 바꿔서 풀어보기
07/08	16:00-19:00	zoom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 스프레드시트 일반 개념공부 및 핵심개념 요약 - 빈출되는 문제정리 및 오답정리 - 예상문제 만들어보고 바꿔서 풀어보기
07/15	16:00-19:00	zoom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 데이터베이스 일반 개념공부 및 핵심개념 요약 - 빈출되는 문제정리 및 오답정리 - 예상문제 만들어보고 바꿔서 풀어보기
07/22	16:00-19:00	zoom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실기> - 제한시간 90분을 정해놓고 연습문제를 각자 푼 뒤, 서로의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한다. 잘한 점, 부족한 점, 추가로 공부해야 할 부분을 피드백 해준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학습 목표와 달성 내용> 목표: 전원 컴퓨터 활용능력 취득 이*현 -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 1급 통과 및 실기 2급 합격 ('21.08.13) 한*훈 - 기존 컴퓨터 활용능력 1급 보유로 학습 시 도움제공 최*빈 -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 1급 통과 실기는 아쉽게 따지 못하였음
------------	---

〈진행과정과 방식〉

진행과정은 각자 문제를 풀어보고 잘 이해가지 않는 개념이나 헷갈리는 개념들을 정리하여 서로 얘기를 나누며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필기시험은 기출문제를 반복하며 기출문제에서 명확치 않았던 개념과 문제를 중점적으로 의논하였고, 실기시험은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손에 익숙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반복을 하였음에도 함수 등은 정리를 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한다.

〈스터디의 효과〉

스터디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는 오개념 해결과 꾸준한 동기부여였던 것 같다. 사소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나가며 꾸준히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소감 및 종합 의견〉

컴퓨터 활용능력은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준비해야하는 시험이기에 함께 공부하며 학습에 꾸준한 동기가 가장 중요하였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잘 못 이해하고 있었던 개념이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만약 혼자 공부하였다면, 막막함에 그 시간과 노력이 배는 걸렸을 것이다.

2021 학 년 도 1 학 기 학 습 법 소 모 임 활 동 사 례 모 음 집

VIII. 하계방학 교수 학생 합동 소모임

VIII. 하계방학 교수 학생 합동 소모임

팀명	팀원	학과
Prepharmacist_약국편	임*영	약학과
	신*영	약학과
	김*혜	약학과
	김*연	약학과
약물학 부서부서	박*희	약학과
	서*연	약학과
	장*연	약학과
차인삼색	김*영	시보건의료학부
	김*경	시보건의료학부
	조*민	시보건의료학부
컴활이리컴온	김*정	약학과
	김*정	약학과
	김*본	약학과
	이*연	약학과
	정*희	약학과
화성탈출기원	이*현	약학과
	최*빈	약학과
	한*훈	약학과

팀명 : Prepharmacist_약국편

- 학습과목 : 예비실무실습, 조제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6.28. ~ 2021.08.08.
- 학습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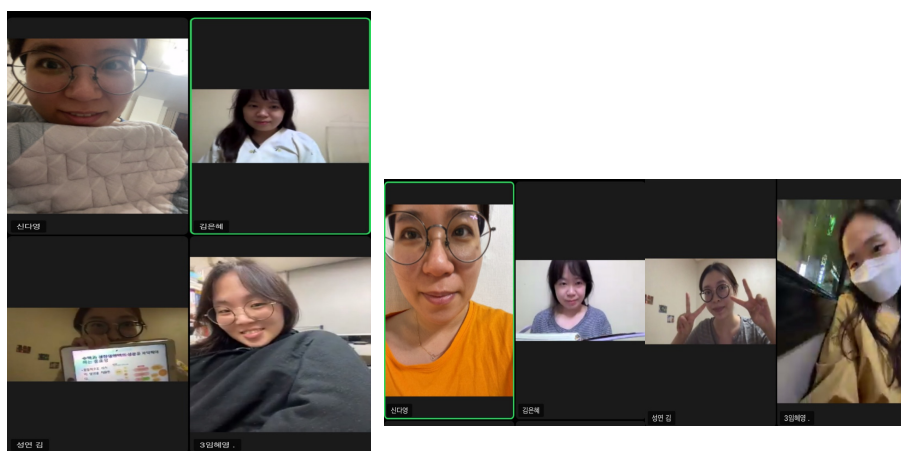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28	18:00~20:00	ZOOM	조제 및 청구에 대한 Case Study.
07/05	18:00~20:00	ZOOM	항생제 복약상담에 대한 Case Study 및 Role Play.
07/14	18:00~20:00	ZOOM	일반의약품 선택 및 복약상담에 관한 Case Study.
08/08	18:00~20:00	ZOOM	처방검토 및 조제방법 적용관련 학습. 1) Varcella에 대한 소아과 처방 연구. 2)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치료에 대한 약물상호작용 연구.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작년 학교에서 수강한 ‘예비실무실습’ 및 ‘조제학’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실습을 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소모임을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네 명의 실습지가 모두 달라 얼굴을 잘 못보는 상황이었는데 ZOOM을 통해 매주 얼굴을 보고 실습했던 내용을 얘기하니 우정도 돈독해졌습니다. 첫 주에는 조제 및 청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네 명의 학생이 실습중인 약국에서 모두 동일한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주로 처방 검토 및 감사, 용법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국장님의 양해를 구해 처방 감사를 진행한 처방전을 간단히 메모를 해와서 본인들이 각자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는지 발표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점안액 관련 복약상담에 대해 롤플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도 많이 판매되는 점안제인 만큼 심도깊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에서 모두 구매하시는 만큼 여러 상황에 대비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일반의약품 선택 및 복약상담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생아
------------	---

나 유아에서 많이 복용하는 챔프시럽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소아의 경우 몸무게가 용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해당 부분을 강조하고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소모임에서는 예시 처방전을 이용하여 처방검토 및 환자상담을 가상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네 번의 소모임을 통해 각자 실습지에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질병군 및 그에 따른 약물 치료법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더욱 좋은 약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팀명 : 약물학 부서부서

- 학습과목 : 약물학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06.29. ~ 2021.08.16.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29	19:00~21:00	ZOOM	Chapter 6 자율신경약리학 서론 복습
07/13	19:00~21:00	ZOOM	Chapter 7 콜린수용체 효능약과 cholinesterase 억제약 복습
08/02	19:00~21:00	ZOOM	Chapter 8 콜린수용체 차단약 복습
08/16	19:00~21:00	ZOOM	Chapter 9 아드레날린수용체 길항약 복습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약물학은 약학과의 대표적인 과목으로 다른 심화전공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학문이다. 약물의 기원, 물리화학적 성질, 약동학적 특성, 생체에 대한 작용 및 그 기전, 독성, 용법 및 용량 등 치료를 위한 기본 지식과 임상에서의 응용 지식까지 아우른다. 약물의 근간이 되는 학문인만큼 5학년에 진급하기 전에 그 기초를 탄탄히 하려는 목적으로 “약물학 부서부서” 소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번 여름방학동안 “section2. 자율신경계 작용 약물”의 전 단원을 복습을 목표로 교재에 소개된 약물의 종류, 작용기전, 효과, 임상적용, 약동학, 독성, 상호작용 등을 암기하여 서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스터디 날 전까지 미리 정해진 범위를 각자 공부해 온 뒤, 암기한 내용을 서로 질문하며 테스트하고 공부하다 든 의문점들을 토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모임 결과, 처음 목표했던 다섯 단원 중 네개의 단원까지만 기간 내에 달성하였다. 일부 조원들이 방학동안 약학연구입문을 수강하느라 연구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소모임을 조율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마지막 단원인 ‘chapter 10. 아드레날린수용체 길항약’은 8월 말중에 다시 시간을 조율하여 마무리짓기로 하였다. 학기중에는 꼭 찬 시간표와 시험기간에 쫓겨 외우는데 급급했던 반면, 방학중에는 여유를
------------	---

갖고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어 한층 지식이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각 약물의 구조에 따라 약물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상논문을 찾아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부하였다. 혼자서 공부하며 들던 의문점은 조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해결함으로써 공부 시간도 절약되고 보다 다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조원들끼리만 진행하다보면 금방 퍼지기 십상인데 지도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아래 힘을 얻어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여름방학은 미래의 약학 전문가로써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을거라 자부한다.

팀명 : 차인삼색

- 학습과목 : 공모전
- 학습장소 : 반포역 반포커피, 집
- 학습기간 : 2021.07.02.~2021.08.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2	12:20~16:00	반포역 반포커피 (대면)	통계 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의 주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선정함
07/15	17:00~17:40	비대면 ZOOM	2021년 고령친화산업 해커톤 공모전 주제 회의를 함
08/04	18:00~18:40	비대면 ZOOM	‘노인의 사회적인 관계 확장’의 큰 주제를 선정하였고, 관련된 자료조사와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기로 함
08/11	16:00~19:00	비대면 ZOOM	‘tv’를 이용하여 노년층의 활발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소모임 진행 과정〉 1학기를 종강하면서, 우연히 우리는 통계청에서 주최하는 ‘2021년 통계 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통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참가 신청을 하였고, 대회 보고서를 ‘보건’과 관련된 주제로 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의 전공과 관련된 이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학부 교수님과 함께 대회를 준비 및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한세미 교수님과 함께 교수-학생 학습법 소모임을 신청하였고, 소모임과 대회 준비를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세미 교수님과 함께 ‘노인의 디지털 사용 행동의 영향 요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통계 데이터를 분석할 때 ‘SAS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계 심화 과정 이해와 SAS 분석 프로그램 등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아쉽지만 대회 참가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교수님과 함께 소모임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수님께서
------------	--

알려주신 ‘2021년 고령 친화산업 해커톤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회의를 통하여 많은 아이디어 파일을 만들었다. 많은 아이디어에 대해 교수님과 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을 연결하여 멘토-멘티의 형식으로 디지털 지식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8월 20일까지 파일 정리 및 제출하면서 공모전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활동한 소감 및 느낀점〉

우리는 공모전과 교수-학생 학습법 소모임을 통하여 전공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공모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교내·교외 공모전 또는 활동 등을 통하여 이 많은 아이디어에 대해 소개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모임은 대면을 통해 진행하려고 했지만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활동을 거의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 많이 아쉬웠다. zoom으로 진행했던 소모임 2-4회 활동보다, 대면으로 진행했던 1회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다음에 다시 교수-학생 학습법 소모임을 신청하게 된다면,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미래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교수님과 함께 소모임 활동을 한 이번 여름방학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바쁘신 상황 속에서도 소모임 활동의 지도 교수님이 되어 주신 한세미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

팀명 : 컴활이리컴온

- 학습과목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학습장소 : 집
- 학습기간 : 2021.07.16. ~ 2021.08.06.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6	18:00~20:00	zoom	컴퓨터 활용능력 1 급 필기 2017년도 기출 풀이 후 진도 확인 및 오답스터디
07/23	18:00~20:00	zoom	컴퓨터 활용능력 1 급 필기 2018년도 기출 풀이 후 진도 확인 및 오답스터디
07/30	18:00~20:00	zoom	컴퓨터 활용능력 1 급 필기 2019년도 기출 풀이 후 진도 확인 및 오답스터디
08/06	18:00~20:00	zoom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2020년도 기출 풀이 후 진도 확인 및 오답스터디

○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방학 안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섯명이 전부 컴퓨터에 익숙지 않고 너무 문외한이라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학동안에는 필기 합격을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여 매주 2회분의 기출문제를 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자가 더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지식을 조사해 공유하여 그것들을 함께 통합하면서 모두가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처음엔 정답률이 낮았고 학습진도율이 더뎠지만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나아간 결과 점점 더 좋은 모의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답을 맞추는것에만 연연해하지 않고 실제 합격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이하기 보다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다 함께 연습하며 습관을 들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점검하며 함께한 결과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전공공부나 자격 시험, 어학공부 등에 있어서도 학습법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0일 시험을 앞두고 서로 질의를 하며 함께하면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습법 소모임은 학습능률과 동기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에 있어서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	---

팀명 : 화성탈출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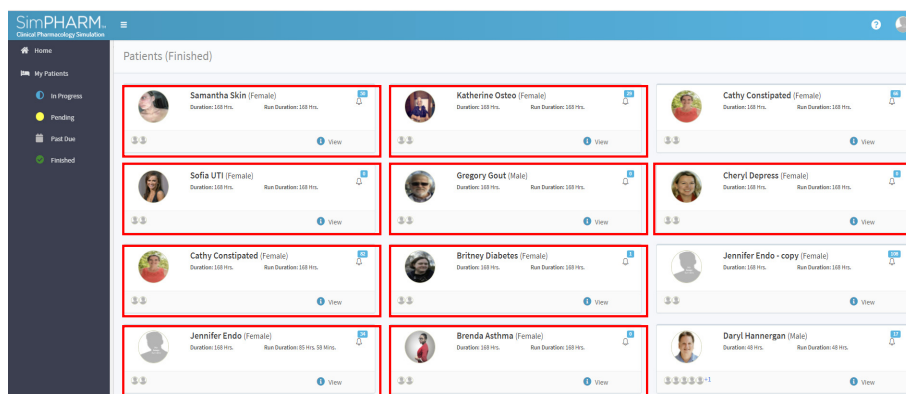
- 학습과목 :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 집, 카카오톡
- 학습기간 : 2021.06.24. ~ 2021.07.2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24 ~06/30	19:00~22:00	ZOOM 및 카카오톡	천식발작과 고혈압으로 내원한 환자 case와 양극성장애, 이상지질혈증과 더불어 내분비계질환으로 내원한 환자 case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진행했다. 환자가 현재 복용하는 약과 상태 등을 체크하여 진료지침에 따라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SOAP note를 작성하여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07/08 ~07/14	19:00~22:00	ZOOM 및 카카오톡	배뇨 불편으로 내원한 요로감염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case와 요산 배설에 문제가 생겨 통풍을 앓고 있는 환자 case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진행했다. 환자가 현재 복용하는 약과 상태 등을 체크하여 진료지침에 따라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SOAP note를 작성하여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07/15 ~07/21	19:00~22:00	ZOOM 및 카카오톡	편두통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 case와 14세에 요로감염 진단을 받았던 UTI 환자 case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진행했다. 환자가 현재 복용하는 약과 상태 등을 체크하여 진료지침에 따라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SOAP note를 작성하여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07/22 ~07/28	19:00~22:00	ZOOM 및 카카오톡	6개월 전 고관절 교체술을 받은 후 골절이 일어나서 골다공증 상태로 진단받은 환자 case와 천식을 앓고 있고 손과 얼굴에 발진이 심해진 피부질환 환자 case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진행했다. 환자가 현재 복용하는 약과 상태 등을 체크하여 진료지침에 따라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SOAP note를 작성하여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학습 목표〉 “환자 시뮬레이션은 뉴-노멀에서 실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진행 과정과 방식〉 우리는 COVID-19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실습의 기회는 줄어들고 학습을 닦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약학대학 5학년의 약물 치료학 수업시간에 활용한 프로그램인 ‘Simpfarm’은 가상 환자를 관찰하며 실제와 같이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 약리학 시뮬레이션 도구이다. 현재 배우고 있는 약물 치료학을 효과적으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는 장치로 생각했고 방학 때 팀원들과 함께 simpharm을 진행하여 약물 치료학 복습 및 예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환자 배정은 팀원들이 약물 치료해보고 싶은 질환을 교수님께 드리면서 시작된다. 이 질환에 맞춰 실제 임상에서 주로 공존하는 합병증을 같이 넣어주며 실제 상황과 더 비슷한 상황을 제공한다. 기간은 모든 환자 동일하게 7일 동안 진행하며, 팀원들은 환자들의 급성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진행한다. 진행은 첫날, 환자의 상태를 줌으로 논의하여 초기처방을 하고, 환자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Regular report를 보며 그에 맞춰 처방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환자가 심각해지지 않고 잘 마무리된다면 마지막 날 최종 case review를 진행했다. 〈활동 소감〉 활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팀원들의 소통과 교수님의 전문적인 피드백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방학 중임에도 교수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시고 학습을 지도해주셔서 팀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약물치료 측면에서 보면 모든 환자가 잘 마무리되었지만 고쳐야 할 점도 있었다. 피부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에게 처방한 연고의 양이 적다거나, 골다공증의 환자는 test를 진행하여 심각성의 정도를 알아야 하고 vitD를 같이 처방해야 한다거나, 편두통을 동반한 환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 등 부족한 점들을 알아갔다. simpharm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도 잊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교과서나 ppt를 찾아보면서 복습할 기회가 되어 유용한 시간이었다. 비록 실제 환자는 아니지만, 실제 환자처럼 대하고 약물치료도 진행하여 실습을 미리 경험하는 느낌이었다. 다음 학습 소모임에서는 실무실습 관련 책을 읽어보는 과정을 추가하여 더 심화된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	--

〈결과 Review〉



우리는 총 8명의 환자: 천식, 당뇨, 갑상선, 우울증, 통풍, 요로감염, 골다공증,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약물치료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순서로 치료를 진행하였고, 우리의 결과는 확연하게 약물치료 능력이 향상되었다. 라는 것이다. 우리의 약물치료 능력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각 환자별 약물치료 적절성을 수치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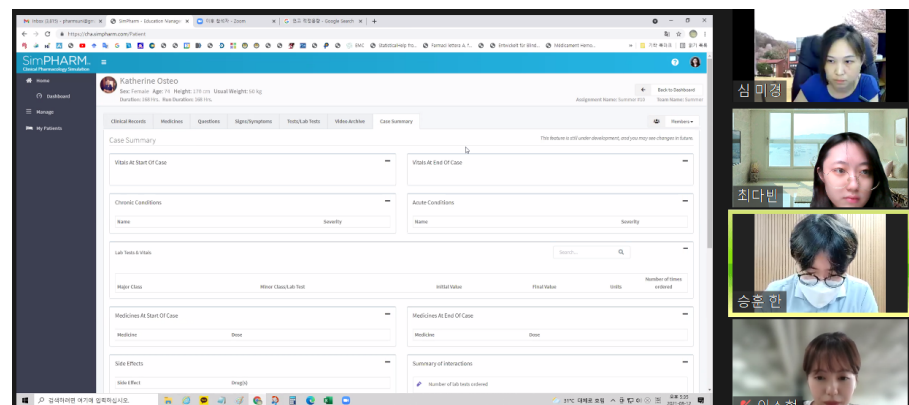
〈약물치료 결과의 수치화〉

1. Lab 수치 호전 정도: 각 질환별 Lab 수치(ex. 당뇨: 당화혈색소) 등이 호전된 여부와 호전 정도를 3점 단위 (ex. 3, 6, 9, 12, 15, 18, 20) 가중치 계산
2. 메인 질환 호전 정도: 질환별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 호전된 여부와 호전 정도를 5점 단위 (ex. 5, 10, 15, 20) 가중치 계산
3. 합병증 호전 정도: 각 질환 별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 호전된 여부와 호전 정도를 5점 단위 가중치 계산
4. 꾸준한 관리 정도: 환자의 상태를 Lab 등을 걸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는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확인했는지, 며칠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했던 지등 환자에 들인 관리 정도를 3점 단위 가중치 계산
5. 중증도 가중치: 환자의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조절이 힘들므로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이 많고 그 정도가 위중할 수로 5점 단위 가중치 계산

		Lab수치 호전정도	메인질환 호전정도	합병증 호전정도	꾸준한 관리정도	중증도 가중치	총점
Asthma	천식	12	20	15	12	5	64
Diabets	당뇨	9	10	10	9	5	43
Endo	갑상선	12	10	10	20	10	62
Depress	우울증	15	10	10	20	20	75
Gout	통풍	15	20	15	15	10	75
UTI	요로감염	20	20	20	12	5	77
Osteo	골다공증	15	15	15	18	15	78
Skin	아토피	18	15	20	20	10	83
가중치		20	20	20	20	20	100

〈교수님과 최종 Review〉

천식, 당뇨, 요로감염 등 간단한 질환은 완벽하게 처치하였으나, 아직 배우지 않았던 골다공증, 아토피, 우울증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더 나은 약물 치료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인 김 역 환

발행처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 화 : (031) 850-8950

팩 스 : (031) 543-2397

이 메 일 : chactl@chamc.co.kr

홈페이지 : <https://ctl.cha.ac.kr>

인 스 타 : chactl_voice

2021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